

곶안 몰라  
바사 알주

## 제주어 표기법 해설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목록

- ①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2)
- ② 전환기의 제주 도시건축 (김태일, 2012)
- ③ 제주어와 영어로 고는 제주이야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2)
- ④ 제주계록 (고창석 · 김상옥, 2012)
- ⑤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좌혜경, 2012)
- ⑥ 제주통사 (김봉옥, 2013)
- ⑦ 제주 먹을거리 풍경 (현혜경, 2013)
- ⑧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3)
- ⑨ 세렌디피티로서의 제주문화 (김덕삼 · 최원혁, 2014)
- ⑩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신재경, 2014)
- ⑪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 ⑫ 제주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 (김지홍, 2014)
- ⑬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3

##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어 표기법 해설

고재환 · 송상조 · 김지홍

오창명 · 오승훈 ·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 발 간 사

제춧말은 제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말로 문자로 기록하기 위한 표기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춧말을 글로 적으려고 하니깐 어법에 맞는 통일된 표기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는 「제주어 표기법」이 제정되었고, 이 표기법이 공공성을 지닐 수 있도록 2014년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표기법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6명의 집필자가 협력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춧말 문법이 이론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표기법을 제정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제춧말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어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필하였습니다.

이론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기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정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표기법을 적용하여 음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형태 결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염원대로 제춧말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표기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해설서를 제작한 것은 제춧말의 보전과 진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해설서는 학문적 이론이 정립되면 수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춧말 표기도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활용하여 제춧말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기록하는데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일러두기

- 이 책은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년 7월 18일)>에 따랐으며, 2013년 제정된 내용 중 일부 수정되었다.
- 이 책에 있는 제춧말 사례들은 제춧말의 변이체들 중에 가능하면 보수적인 어형을 뽑아서 제시하였다.
- 『제주어 표기법 해설』에 사용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한자, 한자어 표시에 사용하는 부호

- ( ) (소괄호) 1.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같을 때 쓴다.  
<예> 시(市)
- 2. 제춧말 뒤에서, 그에 대응하는 표준어를 나타내거나 표준어 대역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삼춘(삼춘), 밧디(밭에), 먹으라 (먹으렴), 검은게(검구나)
- [ ] (대괄호) 1.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다를 때 쓴다.  
<예> 삼춘[三寸]
- 2. 음성을 표시한다.  
<예> 곱꼭[곱꼭]

(2) 그 밖의 부호

- / / (양쪽 빗금) 음소 표시에 쓴다.  
<예> /ㄴ/, /ㄹ/
- ‘ ’ (작은따옴표) 형태 표시에 쓴다.  
<예> ‘ㄱ’, ‘ㄷ’
- (붙임표) 접사나 어미 등 의존형태소를 나타낼 때 쓴다.  
<예> -음, -을디
- ~ (물결표) 소괄호 밖의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형태소 및 형태소의 결합형을 표시할 때 쓴다.  
<예> 나쁘(~다), 좁작(~ㅎ다)
- / (빗금) 지역적·사회적으로 다른 제긋말이나 그 밖에 대응되는 것을 나란히 적을 때 쓴다.  
<예> 엇치냐/엇츠냐
- \* (어깨별표) 비문법적인 단어나 문장을 가리킬 때 쓴다.  
<예> \*얼니, \*휴숙
- + (결합 표시) 단어 결합 또는 형태소 경계(결합)를 나타낸다.  
<예> -어 + -네, -어 + -고나

- ‘낱말 색인’에서 낱말의 뜻을 제시할 때 기존의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었더라도 각각의 뜻을 숫자를 원 속에 넣은 원문자(예 : ①, ②)로 표시하여 나란히 배열하였다.

○ 집필자·해설 분야

고재환 : 제17항 1, 제17항 5, 제19항, 부칙

송상조 :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4항

김지홍 : 제11항, 제13항, 제16항, 제17항 2, 제17항 3, 제20항

오창명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8항

오승훈 : 제6항, 제7항, 제12항

문순덕 : 제15항, 제17항 4, 부칙

○ 연구기획

연구책임 :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 고윤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목 차

발 간 사 .....	1
일러두기 .....	2
I.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본) .....	7
II.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1장 총칙 .....	24
제 1 항 목적 .....	24
제 2 항 원리 및 방법 .....	27
제 3 항 범위 .....	33
제 4 항 자모 .....	37
제 5 항 합자 .....	40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	43
제 6 항 된소리 .....	43
제 7 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	48
제 8 항 속음 .....	51
제 9 항 파생어 .....	60
제10항 체언과 조사 .....	71
제11항 어간과 어미 .....	74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	93
제12항 두음법칙 .....	93



제13항	합성어 .....	96
제14항	파생어 .....	107
제15항	체언과 조사 .....	109
제16항	어간과 어미 .....	115
제17항	준말 .....	191
<b>제4장</b>	<b>굳어진 표기 .....</b>	<b>226</b>
제18항	/ㄷ/ 끝소리 .....	226
제19항	한자 형태소 .....	229
제20항	합성어 .....	231
<b>제5장</b>	<b>부칙 .....</b>	<b>239</b>
<b>참고문헌</b> .....		<b>242</b>
<b>낱말 색인</b> .....		<b>249</b>
<b>찾아보기</b> .....		<b>259</b>

---

# I.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년 7월 18일

## 일 러 두 기

1. 제주어 표기법은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원리에 따라 제주어로 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어의 적극적 사용과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제정 목적을 둔.
2. 제주어 표기법을 구성하는 용어 중 ‘제주어’는 ‘제주말’, ‘제주방언’ 등과 동일한 의미로, ‘표기법’은 ‘표기 방법’, ‘표기 지침’의 의미로 사용함.
3. 여기에 사용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1) 한자, 한자어 표시에 사용하는 부호
 

( ) (소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같을 때 씀. <예> 시(市)
[ ] (대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다를 때 씀. <예> 삼촌[三寸]
  - (2) 그 밖의 부호
 

/ / (양쪽 빗금)	음소 표시에 씀.
‘ ’ (작은따옴표)	형태 표시에 씀.
- (붙임표)	접사나 어미 등 의존형태소를 나타낼 때 씀. <예> -음, -을디
~ (물결표)	소괄호 밖의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형태소 및 형태소의 결합형을 표시할 때 씀. <예> 나쁘(~다), 줍작(~흐다)
/ (빗금)	지역적·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나 그 밖에 대응되는 것을 나란히 적을 때 씀. <예> 엇치냐/엇츠냐

# 차례

<b>제1장 총 칙</b> .....	11
제 1 항 목적 .....	11
제 2 항 원리 및 방법 .....	11
제 3 항 범위 .....	11
제 4 항 자모 .....	11
제 5 항 합자 .....	12
<b>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b> .....	12
제 6 항 된소리 .....	12
제 7 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	13
제 8 항 속음 .....	13
제 9 항 과생어 .....	14
제10항 체언과 조사 .....	15
제11항 어간과 어미 .....	15
<b>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b> .....	16
제12항 두음법칙 .....	16
제13항 합성어 .....	16
제14항 과생어 .....	17
제15항 체언과 조사 .....	17
제16항 어간과 어미 .....	18
제17항 준말 .....	18

제4장 굳어진 표기 .....	20
제18항 /ㄷ/ 끝소리 .....	20
제19항 한자 형태소 .....	20
제20항 합성어 .....	20
 부 칙 .....	 22

# 제주어 어문규범(제주어 표기법)

## 제1장 총 칙

### 제1항 목 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이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 제3항 범 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 제4항 자 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과	괘	괴	구	고	괘	구	기	기
ㅡ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ㄴ, ㄷ’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 제5항 합 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 제6항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ㄱ, ㄷ, ㅌ, ㅍ, ㅈ’으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스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쌌/마쌌/마씨  
 주짜/조짜/쭈짜/쪼짜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찍/핀찍

슬짝

늪삐

덩씩덩씩

다만, 하나의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디/-을지

-을수룩/-을수룩

[붙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ㅂ/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불로

덕석

낙지

겹데기

놉새

납작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꼳꼳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꺅꺅하다/꺅꺅하다

눅눅하다

닥닥

밋밋

식식

족족

독닥불미/뚝딱불미

**제8항** 속 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식/곡숙[穀食] 공치새[功致辭] 쨌당[眷黨] 농사[農事]

당취[當初] 동세[同壻] 모양[模樣] 면장[面長]

포[襖] 병/뽕[瓶] 삼촌[三寸] 손지[孫子]

웬수[怨讐] 즈석/즈숙[子息] 줌네[潛女]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멍	햇아방	햇어멍
할아바지/할아부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웃이	굳이	
끗들이	살렘살이	절룩발이	늑직이
빙색이/빙삭이	높이다	쌍이다	
덜음박질	줍음		
돋구다	벗기다/벧기다	울리다	짚숙(~ㅎ다)
줍작(~ㅎ다)	얏지다/앗지다	높직(~이)	늦추다
받후다	굳히다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스래기	스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ㄹ’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ㄹ’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ㄹ뭍	구뭍/그뭍	수늪	즈늪
----	-------	----	----

### 제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도	독만
논[畓]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말[馬]	: 말이	말을	말도	말만
놈[他人]	: 놈이	놈을	놈도	놈만
으뜸[八]	: 으뜸이	으뜸을	으뜸도	으뜸만
꽃[花]	: 꽃이	꽃을	꽃도	꽃만
고장[花]	: 고장이	고장을	고장도	고장만
자리[蓆]	: 자리가	자리를/자릴	자리도	자리만

###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뉘다[釣]	: 뉘안	뉘으민	뉘으곡	뉘나	뉘는
넘다[越]	: 넘언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障]	: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 묻언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 잇언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좃다[從] :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으곡/좃이곡 좃나 좃는  
 좃다[索] :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곡 좃나 좃는

###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 제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쑥(兩-)	녹각(鹿角)
니스무소(里事務所)	양편(兩便)	여즈(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불입]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 제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대      뜯님      ㄹ날[午日]      ㄹ쉬      소냥/소남

2.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슬케기	몹죽	동카름	보리크르
늑덜팻	우영팻	조팻	
우녀칩	할망칩	식게칩	

3.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좁쌀	측쌀
----	----

#### 제 14항 파생어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
-----	------	---------

#### 제 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ㅍ/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ㅍ’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 제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갈다[耕] : 갈았저    가난    갈지도    갈게    갈아도

걷다[步] : 걸었저    걸으난    걸을지도    걷게    걸어도

아프다[痛] : 아팠저    아프난    아플지도    아프게    아파도

올르다[登] : 올랐저    올르난    올를지도    올르게    올라도

조랍다[瞞] : 조라왔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조랍게    조라와도

### 제17항 준 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무엇

뭇/뫼/뫼/머

그것

그거/거

다섯

닷

기영/그영

경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히려	헤
히려	헨
좋은	존
히려저	헛저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이선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어제즈낙	엣치낙/엣츠낙
저 아이	자이
그 아이	가이
이 아이	야이

## 제4장 굳어진 표기

###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덧(~니)      셋(~들)      솟(~구락)      스몯  
웃(~웃)      챌(~새끼)      헛(~일)

### 제19항 한자 형태소

한자 형태소는 본음대로 적는다.

#### 1. 표준어의 /ㄴ/이 /ㄹ/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 2. 표준어의 /ㅋ/이 /ㄱ/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 3. 표준어의 /ㄴ/이 /ㄷ/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쇠약(衰弱)      죄(罪)  
취(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꺾벙                  꺾주시                  댛순                  수똥물  
웃드르                  정짚낭/정짚낭                  정짚문/정짚문

[붙임] 자음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똥국                  당가름                  영도                  알드르                  툽밥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꺾입                  농숫일                  바깓일/바꺾일/배꺾일                  배꺾잇                  츠렛일



## 부 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싱그다/실르다	풀/쿨	품/쿰	신짱/신착
므르다/믈르다[乾/裁]	첫째/첫채/첫차		
굴갱이/굴개/굴각지	재열/재/자/자리/젤/잘		
숫구락/숫가락	-을걸/-으컬		-을디/-을티
-광/-강/-과/-가/-팡/-깡	부티/부띠		

2. 이 표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

## Ⅱ. 「제주어 표기법」 해설

---

## 제1장 총칙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 7. 18.)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을 제1장 총칙이라 하여, 5개 항을 마련했다. 이것은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큰 열개를 나타낸 것이다.

### 제1항 목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이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주어 표기법』 제1장 제1항은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을 담은 것이다.

이 표기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용어를 확정해야 했고, 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다. 곧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주 방언’으로 할 것인지, ‘제주도 방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제춌말’이나 ‘제주말’로 할 것인지, ‘제주어’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을 ‘표기법’이라 할 것인지, ‘맞춤법’이라 할 것인지, ‘표기 지침’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다.

이 표기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연구자 대부분은 ‘제주 방언’이나 ‘제주도 방언’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

으나, 일부는 2007년 9월 27일에 제정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와 같이 ‘제주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제주 방언(또는 제주도 방언)’이라는 용어와 ‘제주어’라는 용어 사이에서 설왕설래하다가, 그 접점에 놓일 만한 용어인 ‘제줏말(또는 제주말)’을 쓰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러 논의 끝에 연구자들은 ‘제줏말’을 쓰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 ‘제주어’로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조례에 명시된 용어를 따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결국 ‘제주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다음에는 이 ‘제주어’를 쓰는 방법을 무엇이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연구자들은 ‘맞춤법’이라는 용어는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국어의 방언인 ‘제주어’라는 표현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는 ‘제주 방언’ 또는 ‘제줏말’을 쓰자고 했으니, 이것을 쓰는 규정에 대한 용어도 ‘표기 지침’이라는 말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논의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제줏말 표기 지침’이라 하자는데 합의를 했으나, ‘제주어 보전 육성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의 용어와 같이 ‘제주어’를 쓰고, ‘표기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어 표기법’이라고 결정했다.

‘제줏말’이든 ‘제주어’이든 용어를 정했으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하고, ‘제주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범위는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그 정의와 범위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제주말도 국어의 하위 방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 1. 19.)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른다는 것은 글자인 ‘한글’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 7. 18.)에서는 ‘제주어’라는 용어를 썼으나, 이 해설에서는 애초에 연구자들이 합의했던 용어인 ‘제주말’로 통일해서 쓰기로 해서 ‘제주말’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2항은 제숫말로 인정하여 선택한 말은 발음대로 충실히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음대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어법에 맞게 쓴다는 것은 독서의 능률과 이해의 편의와도 관련된 것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의 핵심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글 맞춤법』은 맞추어 쓰는 대상(『한글 맞춤법』의 대상은 ‘표준어’이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제주어 표기법』은 맞추어 써야 할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형태는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일부 형태는 바뀐 꼴(변이형)을 밝혀 적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원형을 밝히기 어려운 것은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쓰도록 했다.

이 표기법에서는 ‘원형(原形)’을 ‘본디 꼴’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했다. ‘본디 꼴(원형)’은 달리 ‘기본형(basic form 또는 basic allomorph)’이라고도 부른다. ‘본디 꼴’은 형태가 하나라는 뜻에서 쓰고, 바뀐 꼴은 형태가 두 개 이상이라는 뜻에서 썼다.

활용하는 단어(용언: 말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에 있어서 활용형의 원형이 되는 것을 ‘본디

꼴'이라 한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 등의 용언은 시간(時間)이나 상(相), 서법(敍法) 등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형태론적인 절차를 거쳐 단어의 일부를 변형시키는데 이러한 절차를 활용(conjugation)이라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변한 형을 활용형이라 한다.

일부 형태(또는 단어)를 본디 꼴로 밝혀 적도록 하는 예를 살펴보자.

‘밥[飯]’이라는 단어는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 소리가 변하더라도 본디 꼴로 밝혀 적도록 한다는 것이다. ‘밥’이라는 단어에 조사 ‘이, 을, 도, 만’이 붙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곧 ‘밥+이, 밥+을, 밥+도, 밥+만’ 등과 같이 여러 조사를 붙여서 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밥+이’는 실제 소리가 [바비]로 나고, ‘밥+을’은 실제 소리가 [바블>바블]로 나고, ‘밥+도’는 실제 소리가 [밥또]로 나고, ‘밥+만’은 실제 소리가 [밤만]으로 난다. 이들을 소리대로 적도록 하면 ‘밥[飯]’을 ‘밥’으로도 써야 하고, ‘밤’으로도 써야 하므로 쓰는 사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도 그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더욱이 하나의 단어가 ‘밥’도 되기도 하고 ‘밤’도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본디 꼴 ‘밥’ 하나로 밝혀 적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용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용언 어간에 어미가 덧붙을 때도 가능하면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했다. 가령 ‘먹-[食]’에 어미 ‘-엉(-어서), -고정/구정(-고자)’을 붙여서 말을 할 때 각각 다음과 같이 발음된다.

먹-[食]+-엉 → [머경]

먹-[食]+-고정/구정 → [머꼬정/먹꼬정]/[머꾸정/먹꾸정]

곧 ‘먹--+영’은 [머경]으로 발음되지만, ‘먹--+고정’은 사람에게 따라서 [머꼬정]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먹꼬정]으로도 발음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동사 어간이 두 개나 세 개로 실현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발음된다고 하더라도 본디 꼴인 ‘먹-’을 밝혀 적어서 ‘먹영’과 ‘먹고정/먹구정’과 같이 쓰는 것이 적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태를 다 본디 꼴을 밝혀 적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서나 제춧말에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경우는 본디 꼴로만 적으라고 할 수 없다. 곧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들은 용언 어간의 본디 꼴만 밝혀 적도록 하면 현실 발음과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바뀐 꼴을 인정해서 적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표준어 ‘춥다[寒·冷]’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얼다’로 실현된다. 이 ‘얼-’이 ‘-고, -지, -게’ 등과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일부 어미를 만나면 [얼고], [얼지], [얼게] 등으로 실현되어서, ‘얼고, 얼지, 얼게’ 등으로 적는 데 문제가 없다. 또한 모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 ‘-영, -언’ 등을 만나면 [어령], [어런] 등으로 실현되어서, ‘얼영, 얼언’ 등으로 적는 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얼-’이 첫소리 ‘ㄴ’을 가진 어미 ‘-니’(또는 ‘-으니’)를 만나면 [어니]로 실현되어서 “얼니”로 쓰면 현실 발음과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본디 꼴 “얼니”로 쓰지 않고 바뀐 꼴 ‘어니’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표준어 ‘말하다’의 뜻을 가진 제춧말 ‘굳-[曰]’은 ‘-게, -지, -곡’ 등과 같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일부 어미를 만나면 [굳게/ㄱ게], [굳찌/ㄱ찌], [굳꼭/ㄱ꼭] 등으로 소리 나더라도 ‘굳게, 굳지, 굳곡’ 등과 같이 본디 꼴을 밝혀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굳꼭’이 [굳꼭/ㄱ꼭]으로 발음되지 않고 [ㄱ르꼭], [굳꼭] 등과 같이 발음한



다면 ‘굴으곡’, ‘굴곡’ 등과 같이 써야 한다. 곧 동사 어간 ‘굴-[ㄱ]’은 ‘-앙, -으라’ 등과 같이 모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를 만나면 실제 소리가 각각 [ㄱ랑], [ㄱ르라] 등으로 발음되지만, 각각 ‘굴앙, 굴으라’ 등으로 쓰는 것이 뜻을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곧 표준어 ‘말하다’에 대응하는 제춧말 ‘굴-’은 본디 꼴로 적어야 효율적일 때도 있고, 바뀐 꼴인 ‘굴-’로 적어야 효율적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굴-’은 끝소리 ‘ㄷ’을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 ‘달다(빨리 뛰어가다)’ 또는 ‘달리다’에 대응하는 제춧말 ‘뜰-[走]’도 ‘-게, -곡’ 등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를 만나면 [뜰께/뜰끼], [뜰찌/뜰찌], [뜰꼭/뜰꼭] 등과 같이 발음되더라도 ‘뜰게, 뜰지, 뜰곡’ 등과 같이 본디 꼴을 밝혀 써야 한다. 그러나 ‘뜰곡’이 [드르곡]과 같이 발음되면 ‘뜰으곡’과 같이 바뀐 꼴을 밝혀 써야 한다. 곧 ‘뜰-’이 ‘-아, -으라’ 등과 같이 모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를 만나면 실제 소리가 각각 [드라], [드르라] 등으로 발음되어, 각각 ‘뜰아, 뜰으라’ 등으로 쓰는 것이 뜻을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곧 표준어 ‘달다’에 대응하는 제춧말 ‘뜰-’은 본디 꼴로 적어야 효율적일 때도 있고, 바뀐 꼴인 ‘뜰-’로 적어야 효율적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뜰-’은 ‘ㄷ’을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발음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본디 꼴을 밝혀 적지 않는 것들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깃브다=기쁘다>깃부다[喜]’, ‘깃거흐다=기꺼흐다[歡·喜·欣]’에 대응하는 현대 표준어는 ‘기쁘다’와 ‘기뻐하다’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본디 꼴을 밝혀 적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지쁘다’와 ‘지꺼지다’, ‘지꺼흐다’가 있다. 이 ‘지쁘-’는 중세국어 ‘깃브-=기쁘-’에 대응하는 변음이고, ‘지꺼’는 중세국어 ‘깃거’에 대응하는 변음이다. 곧 ‘지쁘-’는 ‘지-’가 구개음화한 변음 ‘지-’에 접사 -브-가 붙은 것이고, ‘지꺼’는 ‘지-’가 구개음화한

변음 ‘ㄹ-’가 어미 ‘-어’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쁘-’와 ‘지꺼’는 일반적으로 파생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곧 제주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보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리대로 바뀐 꼴을 적도록 한 것이다.

‘웃다[笑]’의 경우, ‘웃없저(웃고 있다. 웃는다)’, ‘웃어라(웃더라)’, ‘웃으라(웃어라)’, ‘웃지 말라’ 등과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가 붙든, 모음을 첫소리로 가진 어미가 붙든 본디 꼴 ‘웃-’으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 곧 ‘웃-’은 ‘ㅅ’을 탈락시키지 않는 규칙 용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 어간은 본디 꼴로만 적도록 했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말을 쓸 때 발음 중심의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용형에서나 본디 꼴(원형)이 유지되어 표기되는 용언은 규칙 용언이 되고, 활용형에 따라 바뀐 꼴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는 용언은 불규칙 용언이 된다. 그러나 ‘우습다’의 ‘웃-’은 예외가 된다. 이런 것은 『제주어 표기법』 제2항의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써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학계에서는 생성음운론을 널리 받아들여 불규칙 용언의 경우, 기저형(基底形 underlying form)을 둘 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은 학교문법과 같이 전통적인 관점을 취할 때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관습적으로 또는 관용적으로 이미 굳어진 것도 그대로 허용해서 적도록 했다. 표준어 ‘할아버(할아버의 낮춤말)’에 대응하는 제춧말 ‘하르방’은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꼴로 인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어진 표기로 보고 그대로 쓰게 하였다.

그러나 표준어 ‘샘[泉]’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semi/세미]로 실현

되기 때문에 ‘세미’로 적어야 한다.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굴갱이], [굴개], [굴개기] 등으로 실현되므로 ‘굴갱이/굴개/굴개기’ 등으로 써야 한다. 제주말에서 ‘에’와 ‘애’의 말소리를 제대로 구분해서 발음한다든가, 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세미’를 ‘새미’로 쓴다든가, ‘굴갱이/굴개/굴개기’ 등을 ‘굴갱이/굴개/굴개기’ 등으로 쓰는 것은 관습적으로 또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3항 범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제3항 범위 규정은 제춧말 표기에서 통합성과 포괄성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통합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논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써 온 제춧말 표기 방법을 통합하여 하나로 기능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포괄성’이라는 것은 여러 범위에 걸쳐 있거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을 아울러서 반영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 표기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 아우른다는 뜻이다. 곧 사회적인 변이체와 지역적인 변이체를 모두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표준어 ‘매미(매릿과의 곤충)’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지역에 따라 ‘재열, 재, 자리, 썰, 잘, 자’ 등으로 실현되므로 이들을 모두 제춧말로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표준어 ‘호미(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썰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에 대응하는 제춧말은 ‘굴쟁이, 굴게, 굴게기, 굴각지’ 등 지역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제춧말로 인정해서 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국어의 표준어와 같이, 대표 제춧말을 따로 정하거나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표준어 ‘낫(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에

대응하는 제춧말이 지역에 따라 ‘호미’ 또는 ‘낫’, ‘장낫’(사실 ‘호미’와 ‘낫/장낫’은 크기도 다르고 용도도 조금 다르다.) 등으로 실현된다면 이 모두를 인정해서 쓴다는 것이다. 곧 제춧말이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달라졌으면, 그 달라진 것들을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이런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을 수 있다.(이하 예문에서 쌍점 왼쪽은 제춧말, 오른쪽은 표준어이다.)

중이/쨍이 : 쥐[鼠]

깡이/깡이 : 게[蟹]

물꾸럭/문게<sup>1)</sup> : 문어(文魚)

뭍/뭍망 : 모자반[海藻]

멩게냥/벨레기냥/멜레기냥 : 청미래덩굴(백합과의 낙엽 활엽 덩굴성 관목)

독고리냥/똥꼬리냥/둥고리냥/질리 : 질레(질레나무)

또한 제춧말의 고유어와 한자어만을 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차용어 또는 외래어도 표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 이 항목이다.

처음에는 『표준어 규정』과 같이 고유어와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규정만을 넣었다가, ‘가라물·가레물, 녹데’ 등과 같은 차용어를 고려하여 넓은 의미의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이다. 몇 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몽고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문게’는 [몽게]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몽게]는 ‘문게’의 변이음이므로 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곧 ‘몽게’로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레/가레물 : 가라말(가라마)	<몽> qara <sup>2</sup> +물
적다/적데/적다물/적데물 : 절따말(절따마)	<몽> je'erde <sup>3</sup> +물
오랑/오랑 : 뱃대끈	<몽> oiang <sup>4</sup> (肚帶)
고들개 : 쩡거리	<몽> qudurqa
고들개찢 : 쩡거리끈	<몽> qudurqa+찢
고들갯냥 : 쩡거리막대	<몽> qudurqa+냥

만주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둔 : 사둔(査頓)	<만> sadun
두루막 · 두루마기 · 후리메 : 쿠리메(옛말: 쿠리매)	<만> 쿠리매

일본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미깡 : 밀감(蜜柑)	<일> 蜜柑[ミカン]
대비 : 양말(洋襪)/일본식 버선	<일> 足袋[たび]

일본어식 영어 차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깡통 : ← 영. can+통(筒)
도라무깡 : ← 영. drum+통(桶)
공그리 · 공구리 : ← 일. konkurito ←영. concrete

‘포괄성’이라는 말은 특정한 어형(語形)만 옳다고 하지 말자는 뜻을 담고 있다.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고 하지 말자는 것

- 
- 2) 현대 몽골어에서는 хар(하르)로 실현된다.
  - 3) 현대 몽골어에서는 зээрА(제르데)로 실현되고 있다.
  - 4) 현대 몽골어에서는 жирэм(지렘), олом(얼림)으로 실현된다.

이다.

가령 “어무니, 어디 감수과?(어머니,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을 때, “밭디 값저.(밭에 간다. 밭에 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하자.

이 문장에서 ‘어무니’는 ‘어머니’라고 실현된다면 ‘어머니’로 쓸 수도 있다. 또 ‘감수과’는 ‘감수광’이라고 발화된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값저’의 경우, [감찌]로 실현되는데, ‘감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값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감찌’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값찌’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본디 꼴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감저’로 쓰거나 ‘감찌’ 등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다. 곧 [감찌]는 ‘가-[去]+-값-+-저’로 분석된다고 보고 ‘값저’로 쓰도록 했다. 그러므로 [감찌]를 ‘감저’로 쓰거나 ‘값찌’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느, 집이 감디아/감댜?(너, 집에 가느냐?)’와 ‘느, 집이 감딘 훑데다(너 집에 가느냐고 하더이다)’ 등에서 확인되는 ‘-암디아/암댜’나 ‘-암딘’이 붙어서 실현되는 ‘감디아/감댜’와 ‘감딘’의 경우에는 \*[감띠아/감띠]나 \*[감띤]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감디아/감댜’, ‘감딘’으로 쓰면 된다. ‘감댜’의 경우 [감다]로 실현된다면 ‘감다’로 쓸 수도 있다.

## 제4항 자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ㄲ	ㅎ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ㅗ	ㅛ	ㅕ	ㅗ	ㅛ	ㅜ	ㅠ
ㅛ	ㅜ	ㅠ	ㅡ	ㅣ		
·	ˆ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ㅗ, ㅛ’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이 표기법은 단어의 표기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구성요소인 ‘자모’와 그것들의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리’와 ‘형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모(字母)’는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낱의 글자로서,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 쌍자모와 복자모 따위가 있다. 이 ‘자모’와 비슷한 말로 ‘낱자’나 ‘모자(母字)’ 등도 쓰인다. 그래서 ‘낱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했으나, 『한글 맞춤법』과 학교 교육에서 많이 쓰는 ‘자모’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되었다.

한글 자모는 다음과 같이 자음 자모(자음) 14개와 모음 자모(모음) 10개를 아울러서 24개를 쓰고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	ㆁ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발음을 모두 적으려면 이들 24개 자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자음 5자와, 모음 11자를 더 인정해서 쓰고 있다.

ㄱ	ㄷ	ㅃ	ㅍ	ㅈ	ㅅ	ㅆ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	---	---	---

제웃말을 제대로 적으려면 위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서 정한 40개 자모만으로 적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물(말, 馬)’과 ‘몸/물망(모자반, 海藻)’ 등과 같은 말을 적으려면 ‘·(으)’를 추가해야 하고, ‘으뜸/으답(여덟, 八), ㄹ(옆, 側/脇), ‘ㄹ구리·ㄹ갱이(옆구리, 脇), ‘ㄹ갈리(옆구리, 脇)’ 등과 같은 말을 적으려면 ‘ㄹ(으)’도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40개의 자모만 사용하지만, 제웃말에서는 ‘·(으)’와 ‘ㄹ(으)’ 2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42개 자모를 쓰는 것으로 정했다.<sup>5)</sup>

ㄱ	ㄱ	ㄴ	ㄷ	ㄷ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ㅈ	ㅊ	ㅋ	ㆁ	ㆁ	ㆁ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ㅕ
ㅜ	·	ㄹ							

5) 처음에는 각각의 자모 뒤에 음가(音價: 소릿값)를 괄호 안에 넣기로 했는데, 최종 논의에서 모두 빼버렸다. 이때 ‘ㄱ’은 음가 /ㄱ/ 또는 /g/를 배당하고, ‘·(으)’는 음가 /o/를 배당하고, ‘ㄹ(으)’는 음가 /jɔ/를 배당했었다.

이와 같은 자모의 순서는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자모의 이름은 표준어와 같기 때문에 일일이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자모의 이름에서 표준어에 없는 ‘·(으)’와 ‘ㄴ(으)’가 문제가 된다. 표준어에서는 이들이 현실 발음에서 실현되지 않는 옛 글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아래아’와, ‘겹아래아’(또는 ‘이중아래아’, 또는 ‘쌍아래아’)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주말에서는 발음이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ㄱ’을 ‘오’라고 하듯이 ‘·’를 ‘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ㄴ’을 ‘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ㅇ[ŋ]’은 받침에만 나타나는데, 발음이 없는 것은 ‘아부지, 아방’, ‘어무니, 어멍’ 등과 같이 발음이 없는 초성 글자에 쓰고, ‘니, 니’ 등은 한자어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쓰도록 했다.

‘니, 니’를, 한자어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쓰도록 한 것은, 제주말 고유어인 경우 ‘궤기(고기, 肉·魚), 췌(소·쇠, 牛), 왜·웨(외·오이, 瓜), 물왜·물웨(실제 발음은 [물뤼]로 실현된다.)’ 등과 같이 표준어에서 ‘니’로 실현되는 것이 제주말에서는 대부분 ‘궤’나 ‘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 ‘뱃디’와 ‘즈꿏디’와 같이 적던 것은 실제 발음에서 ‘니’로 실현되지 않고 ‘ㅣ’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뱃디’와 ‘즈꿏디’로만 쓰자는 것이다. 곧 제주 고유어에서는 [니]로 실현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니’로 적을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자어의 경우는 『한글 맞춤법』과 같이 표준어의 표기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 제5항 합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항은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로 적을 때의 규정이다. 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뒤 그것을 해설한 책인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를 보면, ‘합자해(合字解)’를 두어,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완전한 글자를 만드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현행 『한글 맞춤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마침 제죽말 표기법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이 표기법의 제5항으로 합자(合字) 규정을 정한 것이다.

제5항의 1은 자음, 곧 자음 자모는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 곧 모음 자모는 중성 글자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해례』의 합자해 규정을 따랐다.

『훈민정음해례』 ‘합자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 如君字<sup>ㄱ</sup>在<sup>ㄷ</sup>上. 業字<sup>ㅇ</sup>在<sup>ㄷ</sup>左之類.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ㅌ ㅍ ㅊ ㅅ ㅆ 是也. 如吞字·在<sup>ㅍ</sup>下, 卽字<sup>ㅍ</sup>在<sup>ㅍ</sup>下. 侵字<sup>ㅍ</sup>左<sup>ㅍ</sup>右之類 終聲在初中之下 如君字<sup>ㄱ</sup>在<sup>ㄱ</sup>下 業字<sup>ㅇ</sup>在<sup>ㅇ</sup>下之類  
초성(글자)은 중성(글자) 위에 쓰이고 하고, 중성(글자)의 왼쪽에 쓰기도 하니, 예컨대 군(君)자의 ㄱ은 ㅏ 위에 있고, 업(業)자의 ㅇ

은 ㅈ의 왼쪽에 있음과 같다. 중성(글자) 가운데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초성(글자)의 아래에 쓰니,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가 이것이요, 세로로 된 것은 초성(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가 이것이다. 예를 들면 吞(呑)자의 ㄷ는 ㄷ의 아래에 쓰고, (則)자의 一은 ㄱ의 아래에 있으며, 侵(侵)자의 ㅍ는 ㅍ의 오른쪽에 있음과 같다. 중성은 초성과 중성 아래에 쓴다. 예를 들면 (君)자의 ㄴ은 ㄴ 아래에 쓰고, (業)자의 ㅂ은 ㅂ 아래에 있음과 같다.

<강신항(1999),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25~126쪽>

이것은 초·중·종 3성으로 이루어진 세 글자가 서로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5항 2도 『훈민정음해례』 ‘합자해’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되살린 것이다.

初中終三聲, 合而成字

초·중·종 세 소리가 어울려서 글자(음절)를 이룬다.

<강신항(1999),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25~126쪽>

이것은 초·중·종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글자, 곧 음절을 이룬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붙임’ 조항은 『훈민정음해례』 ‘합자해’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살린 것이다.

終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 ㄱ爲土. ㅅ爲釣. ㄷ ㅁ 爲酉時之類. 其合用 竝書. 自左而右, 初中終三聲皆同.

종성(글자)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우리말의

흙이 토(土)를 표기하고, 낚이 조(釣)를 표기하며, 뉘빠로 유시(酉時)를 표기하게 됨과 같다. 이들 합용 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초·중·종성이 다 같다.

<강신항(1999),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26~127쪽>

이 【붙임】 규정에 따라 제줏말 어근에 겹받침을 쓸 수 있거나 자모를 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읽-’[讀]이 ‘-엉’과 결합해서 실현될 때 [이경]으로 실현되면 ‘익엉’으로 쓰지만, [일경]으로 실현되면 ‘읽엉’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제줏말은 [이경]으로만 실현되므로 ‘익엉’과 같이 써야 한다. 요즘에는 표준어 또는 표준어 교육의 영향으로 [일경]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상의 제줏말이 아니다.

[나 지비 감쨌.](나 집에 가고 있다.)의 경우, ‘나 집이 값저.’와 같이 적는다고 했는데, ‘값저’로 쓰는 것도 이 5항의 붙임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끓직흐다[끓칙--]’의 ‘꺄’도 자모를 결합해서 쓴 예이다.

##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 제6항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ㄱ, ㄷ, ㅃ, ㅆ, ㅉ’으로 적는다.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스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쌈/마썰/마씨  
주짜/조짜/쭈짜/쪼짜

####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찍/핀찍      슬짜      늪뻬      덩쌩덩쌩

다만, 하나의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디/-을지      -을수룩/-을수룩

[붙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ㅃ/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불로      덕석      낙지  
겹테기      늪새      납작

제6항은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단,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나는 된소리에 한정된다. 이때의 된소리는 원래 평음이던 것이 된소리되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도록 한 것이다.

##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내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다. 다음 표기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스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쌌/마쌌/마씨	주짖/조짖/쭈짖/쪼짖	

위에서 형태소 ‘스끼’와 ‘어따/아따’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ㄱ/, /ㄷ/은 평음 /ㄱ/, /ㄷ/이었던 것이 된소리되기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아니다. ‘두 모음 사이’는 국어의 된소리되기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환경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아래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다. ‘마쌌/마쌌/마씨’, ‘주짖/조짖/쭈짖/쪼짖’ 등도 같은 이유에서 /ㅍ/과 /ㅈ/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한편, ‘나쁘(~다)’는 어원적으로 ‘남--+ㅍ-(~다)>남--+ㅍ-(~다)’<sup>6)</sup>로 분석되는 것으로 본디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완전히 어휘화하여 파생 관계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한 자리에서 다룬 것이다.

다음 표기 사례도 하나의 형태소 내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를 아래 음절의 초성으로 적은 것들이다.

ㄱ꾸(~다)	ㅎ쌀	무짖
--------	----	----

위에 보인 ‘ㄱ꾸(~다)’, ‘ㅎ쌀’, ‘무짖’ 등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6)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064쪽.

된소리 /ㄱ/, /ㅍ/, /ㅊ/은 각각 평음 /ㄱ/, /ㅍ/, /ㅊ/의 된소리되기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된소리들은 그대로 적는다.

## 2. /ㄴ, ㄹ, ㅁ, ㅇ/ 등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

/ㄴ, ㄹ, ㅁ, ㅇ/ 등 울림소리는 아래 음절의 초성을 반드시 된소리화하는 말소리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태소 내부의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나면 그것을 그대로 적는다. 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빈찍/핀찍                  슬짜                  늪뻬                  덩쌩쌩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빈찍/핀찍’, ‘늪뻬’ 등 형태소 내부의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 /ㅈ/, /ㅊ/ 등은 표기에 반영한다. ‘슬짜’, ‘덩쌩쌩’ 등도 같은 이유에서 된소리를 그대로 적는다. 다음 예들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적은 것들이다.

멘짜      들쌩(~ㅎ다)      뚱쑤      궁꺄(~궁꺄)

한편,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다만’ 이하에 제시하였다. 그것은 어미 내부의 /ㄹ/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을디/-을지                  -을수룩/-을수룩



어미 ‘-을디/-을지’<sup>7)</sup>, ‘-을수룩/-을수룩’<sup>8)</sup>은 실제 발음에서 [-을띠/-을찌], [-을쭈룩/-을쭈룩]과 같이 /ㄹ/ 뒤의 /ㄷ/, /ㅈ/, /ㅅ/이 된 소리로 난다. 이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 형태소인 어미 내부의 /ㄹ/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예외적으로 평음으로 적도록 단서 조항을 둔 것이다.

한편, [붙임]은 앞선 음절의 종성 /ㄱ, ㄴ/은 아래 음절의 초성을 반드시 된소리화하는 말소리이므로 이때의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sup>9)</sup>.

녹대[녹때]      역불로[역뿔로]      덕석[덕씩]      낙지[낙찌]  
 겁떼기[겁떼기]      놉새[놉새]      납작[납 짹]

‘녹대’의 첫째 음절 종성 /ㄱ/은 둘째 음절 초성 /ㄷ/을 반드시 된소리화하므로 굳이 ‘녹때’로 적을 필요가 없다. ‘겁떼기’의 첫째 음절 종성 /ㄴ/도 둘째 음절 초성 /ㄷ/을 된소리화하므로 이를 ‘겁떼기’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머지 표기 사례들도 동일한 환경에서 나는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평음으로 적은 것들이다. 다음 예들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적은 것이다.

국시/국수/국쉬      잼시

위의 예들은 첫째 음절의 종성 /ㄱ, ㄴ/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의

7) 문법적 의미는 표준어의 ‘-을지’와 동일하다.

8) 문법적 의미는 표준어의 ‘-을수룩’과 동일하다.

9) [붙임]에서는 /ㄱ, ㄴ/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7항을 참조하기 바람.

초성이 된소리화하는 것들이다. 이 환경에서는 반드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이들을 ‘국씨/국쭈/국쑤’나 ‘쩍씨’ 등으로 적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형식 형태소인 어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먹읍서      심읍서      갑서      안넵서

위의 표기 사례들에는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으)ㅂ서’가 들어 있는데 어미 내부의 첫째 음절의 종성 /ㅂ/의 영향으로 둘째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난다<sup>10)</sup>. 그러나 이 환경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먹읍씨’, ‘심읍씨’, ‘갑씨’, ‘안넵씨’ 등으로 적지 않고 평음으로 적는다.

---

10) 실제 발음은 [머급씨], [시몹씨/시몹씨], [갑씨], [안넵씨]로 난다.

##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끗끗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굽굽하다/깎깎하다	눅눅하다	닥닥	밋밋
식식	족족	독닥불미/뚝딱불미	

제7항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날 경우 같은 자모로 적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같은 음절’이란 ‘끗끗하다’의 ‘끗끗-’과 같이 음절 구조와 음절을 구성하는 말소리가 같고 실제 발음도 같은 두 음절을 말한다. 그리고 비슷한 음절이란 ‘눅눅하다’의 ‘눅눅-[눔눅-]’, ‘닥닥[닥딱]’과 같이 음절 구조가 같으나 자음동화와 된소리되기 결과 두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이 달라진 음절을 말한다<sup>11)</sup>.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을 같은 자모로 적은 사례를 구분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 (1)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을 같은 자모로 적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1) 자음동화에 의해서는 두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 중 어느 하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된소리되기에 의해서는 두 음절의 초성 중 둘째 음절의 초성이 달라진다. 초성이나 종성이 달라지더라도 양자 간에는 음성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끗끗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위에 보인 예들에서 ‘끗끗-’, ‘딱딱-’, ‘뻗뻗-’, ‘쑥쑥’ 등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것들이다. 이때 두 음절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그러므로 이들을 ‘끗끗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등으로 적지 않는다.

(2)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

자음동화 결과 두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 중 어느 하나가 달라져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sup>12)</sup>. 다음은 두 음절의 종성이 달라져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을 적은 사례이다.

늑늑하다[늑늑-]      밋밋[민밋]

위에서 ‘늑늑하다’의 ‘늑늑-’과 ‘밋밋’은 자음동화 결과 각각 [늑늑-]과 [민밋]이 되어 비슷한 소리가 겹쳐 난다. 이때 자음동화로 변동된 음절 ‘늑’과 ‘민’은 동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음절 ‘늑’, ‘밋’과 같은 자모로 각각 적는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적은 것이다.

닉닉하다

‘닉닉하다’의 ‘닉닉-’은 [닝닉-]으로 발음되어 비슷한 음절이 겹쳐

---

12) 역행동화에 의해서는 두 음절의 종성이 달라지며, 순행동화에 의해서는 두 음절의 초성이 달라진다. 표준어의 경우 순행동화에 의해 두 음절의 초성이 달라져 비슷한 소리가 겹쳐 나는 것을 같은 자모로 적은 사례는 ‘놀놀하다[놀놀하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춧말의 방언적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역행동화에 해당되는 것만 예로 제시한다.

난다. 이때 자음동화로 변동된 음절 ‘닝’은 동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음절 ‘닉’과 같은 자모로 적는다. 따라서 이를 ‘닝닉ㅎ다’로 적지 않는다.

다음, 된소리되기 결과 두 음절의 초성이 달라져<sup>13)</sup>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을 같은 자모로 적은 사례는 아래와 같다.

탁탁 식식 족족

위에 제시한 단어들은 각각 [탁탁], [식씩], [족쪽]으로 발음되어 비슷한 소리가 겹쳐 나는 것들이다. 이때는 첫째 음절의 초성을 적은 자모로 둘째 음절의 초성을 적는다. 즉 ‘탁탁’, ‘식씩’, ‘족쪽’으로 적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들은 개인적인 발음 차이를 반영하여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급급ㅎ다/깍깍ㅎ다      독탁불미/뚝뚝불미

위 단어들의 첫째 음절 초성을 평음으로 발음하든 된소리로 발음하든 그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겹쳐 나는 두 음절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따라서 이들을 ‘급급ㅎ다/깍깍ㅎ다’나 ‘독뚝불미/뚝뚝불미’로 적지 않는다.

13) 두 음절의 초성이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같으면서 소리의 세기에 의해 평음과 된소리의 대립을 보인다. /ㅂ:/ㅃ/, /ㄷ:/ㄸ/, /ㄱ:/ㄲ/, /ㅅ:/ㅆ/, /ㅈ:/ㅉ/의 대립이 그것이다.

## 제8항 속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식/곡속[穀食]	공치새[功致辭]	권당[眷黨]	농시[農事]
당채[當初]	동세[同墾]	모냥[模樣]	멘장[面長]
포[褌]	병/땡[瓶]	삼촌[三寸]	손지[孫子]
웬수[怨讐]	즈석/즈속[子息]	잠네[潛女]	

제8항의 ‘속음’은 ‘본음에서 바뀐 소리’를 가리키는데, 여기 ‘본음’은 전통 한국한자음이나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이고 ‘속음’은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음을 가리킨다.

같은 한자어라도 표준어에 쓰일 때와 제춧말에 쓰일 때 어떤 한자의 음을 다르게 발음하는 일이 있다.

이처럼 같은 한자의 음을 다르게 발음하는 일은 한 음절의 한자어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지만, 두세 음절의 한자어에서도 어느 한 음이나 두 음을 ‘본음’과 다르게 발음할 때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통 한국한자음이나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을 ‘본음’으로 보았고, 그 ‘본음’과 다르게 발음하는 한자음들을 제춧말에서 쓰는 ‘속음’으로 본 것인데, 이 ‘속음’은 결국은 제춧말을 이루는 특정 한자음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한자인데도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과 다르게 제춧말에서 발음되는 까닭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가 제춧말로 들어와 쓰이기 시작할 때도 그 한자음이 본음과 같았는지

도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들어올 때는 본음과 같은 한자음이었다면 그 한자어가 시대를 따라 발전하는 과정이 표준어와 달라서 ‘속음’으로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제춧말과 표준어의 음운 체계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 한자어를 쓰는 사이에 그것이 한자어라는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제춧말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이나 조어법에 따라 그 한자의 음을 썼기 때문에,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과 달리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표준어에서는 변해버렸지만 제춧말에서는 전통 한국한자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한자어들을 제춧말로 쓰려고 할 때 그 한자의 음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다. 이는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과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음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8항을 설정한 것은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어들을 제춧말 발음대로 쓰고, 그들은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어의 지위를 확실하게 하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다만, 제춧말에서 어떤 한자가 어느 자리에 쓰였을 때 그 한자음이 필연적으로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과 다르게 발음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한자가 특정한 한자어로 쓰였을 때만 달리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한자가 같은 자리에 쓰였더라도 어떤 한자와 어울려 어떤 한자어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자가 ‘속음’으로 바뀐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제춧말을 쓰는 세대도 줄었고, 또 새로운 한자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춧말에서만 특이하게 쓰던 한자음들마저도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어의 모습으로 발음하면서 쓰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이런 처지에서 독특하게 제줏말에서 쓰는 한자음을 밝혀 두면, 그것도 국어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먼저 한자어 ‘곡식(穀食)’, ‘자식(子息)’을 제줏말로 [곡숙/곡석], [즈숙/즈석]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곡식, 자식]에 쓰인 둘째 한자음 [식]의 [ㅣ]가 제줏말에서는 [·]14)나 [ㅍ]로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 ‘곡식’이나 ‘자식’에 대응되는 제줏말 한자어는 ‘곡숙/곡석’이나 ‘즈숙/즈석’으로 적어야 한다. 이런 한자어를 더 찾으면 표준어 ‘양식(糧食)’이나 ‘이익(利益)’도 제줏말에서는 [양식]이나 [이익/이역]으로 발음하는데 이것도 발음대로 적는다.

이렇게 한자 ‘食(식), 息(식)’의 발음 [ㅣ]를 제줏말에서 [·]나 [ㅍ]로 발음하는 것은 한자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표준어 ‘이만큼씩, 하나씩, 둘씩’과 ‘메밀’에 대응되는 제줏말은 [이만큼씩/이만큼씩], [흐나씩/흐나씩], [둘씩/둘씩], [모물/모멸] 따위로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 ‘하나씩, 둘씩’이나 ‘메밀’ 들을 제줏말로 적을 때는 ‘흐나씩/흐나씩, 둘씩/둘씩’이나 ‘모물/모멸’로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자어 ‘한식(寒食, 韓食)’, ‘휴식(休息)’에 쓰인 둘째 한자음 ‘식(食, 息)’은 앞에 쓰인 글자와 같은데 제줏말에서도 그대로 [한식], [휴식]으로만 발음되므로, 그에 따라 적어야 한다. 제줏말이라고 해서 \*‘한숙/한석’ \*‘휴숙/휴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자식’에 쓰인 첫음절의 한자음 ‘자’의 [ㅈ]가 제줏말에서는 [·]로 발음되는 일이 많다. ‘자연(自然)’이 [즈연], ‘사정(事情)’이 [스정], ‘학교(學校)’가 [호교] 따위로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발음

14) 제줏말에서 [·]는 음가를 [n]나 [ɲ]로 보고 있다. 이것을 표준어에서처럼 [ㅈ]로 발음하면 엉뚱한 제줏말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가를 살려서 발음해야 한다.



대로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ㄱ]로 바뀌어 [재연], [새정], [핵교]로 발음되는 일은 없다.

한자어 ‘공치사(功致辭)’에 쓰인 한자음 [사]의 [ㅅ]는 제춧말에서 쓰는 한자음으로는 [·]나 [ㄱ]로 바뀌어 발음된다. 그래서 [공치스]나 [공치새]가 된다. 이것들은 둘로 발음되기 때문에, 발음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서 적어도 된다. 이렇게 표준어에서 쓰는 한자음 [ㅅ]가 제춧말에서는 첫음절에서 주로 [·]로 발음하고, 끝소리에서는 [·]나, ‘ㄷ’가 덧난 [ㄱ]로 발음된다. 여기에 속하는 한자어는 많은 편이다.

표준어 ‘자동차(自動車)’도 제춧말로는 [즈동츠]나 [즈동채]로, ‘고차(轎子)’가 [고즈]나 [고재]로, ‘양자(養子)’가 [양즈]나 [양재]로 발음되고, ‘모자(帽子)’가 [모즈]나 [모재]로, ‘입자(笠子)’가 [입즈]나 [입재] 따위로, 그리고 ‘남자(男子)’가 [남즈]나 [남재]로, ‘여자(女子)’가 [여즈]나 [예즈], [여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들도 제춧말 한자어로 적을 때는 발음에 따라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렇지만, 끝의 한자음 [ㅅ]가 제춧말에서 모두 [·]나 [ㄱ]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김가(金哥), 이가(李哥)’의 발음 [ㅅ]나, ‘웅마(雄馬), 자마(雌馬)’의 발음 [ㅁ]의 [ㅅ]는 제춧말에서는 [·]로 발음되지 않고 [ㄱ]로만 발음된다. 그래서 [김개/짐개], [이개]와 [웅매], [즈매]가 된다. 이들도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

표준어에서 발음 [ㅅ]는 제춧말에서도 [·]로는 발음하지 않고, [ㄱ]로만 발음하는 현상은 제춧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표준어 ‘가마[釜, 較], 치마[裳]’ 따위가 제춧말에서는 [가ㅁ], [치ㅁ]로는 발음하는 일이 없고, [가매/가메], [치매/치메]로만 발음된다. ‘잡히다, 가볍다, 박히다’ 따위는 제춧말에서도 [잡히다], [개볍다], [백히다] 따위로 쓰인다.

두 자 이상의 한자어에서 끝의 한자음 [ㅏ]가 제줏말에서 [ㅑ]로만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자(額子)’, ‘의자(椅子)’들을 ‘액재’, ‘의재’로 써서도 안 된다. 이 한자어를 제줏말에서 쓰는 한자어로 꼭 쓴다면 ‘액즈, 의즈’로나, ‘액자, 의자’로 써야 한다. 제줏말로 굳어진 한자어들만 소리대로 써야 하고, 제줏말에서 쓰는 한자어로 쓴다면 굳어지지 않은 한자어 ‘액자, 옹마’를 ‘액재, 옹막’로 적어서도 안 된다.

한자어 ‘농사(農事)’나 ‘손자(孫子)’와 같이 끝의 한자음 [ㅏ]가 제줏말에서 [ㅑ]나 [ㅓ]로 바뀌어도 뜻으로는 같게 쓰이는 말들이 있다. 제줏말로는 [농스]나 [농시], [손즈]나 [손지]로 발음해서 [사]나 [자]에 쓰인 [ㅏ]를 [ㅑ]나 [ㅓ]로 발음하는 것들도 많은 편이다. ‘역사(役事)’를 [역시]로, ‘장사[賈]’를 [장스]나 [장시]로, ‘상자(箱子)’를 [상즈]나 [상지]로, ‘창자(脹子)’를 [창즈]나 [창지]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소리 나는 것은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같은 ‘자’의 [ㅏ]가 쓰인 ‘효자(孝子)’, ‘액자(額子, 額字)’나 ‘의자(椅子)’를 [소지]나 [액지], [의지]로는 발음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한자어 ‘권당(眷黨)’이나 ‘원수(怨讐)’의 처음절 [ㅑ]를 제줏말에서는 [ㅓ]로 바꾸어 [퀘당]이나 [웬수]로 발음하는 한자어도 더러 있다. ‘서약서(誓約書)’가 [세약서]로, ‘그런 법(法)’이 ‘그런 [뵍]’로 발음된다. 이들은 제줏말로 적을 때는 발음 따라 적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자어 ‘권리(權利), 원칙(原則)’ 따위의 [ㅑ]는 제줏말에서도 그대로 [퀘리], [원칙]으로 발음될 뿐이며, [퀘리]나 [웬칙]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잘 가려 적어야 한다.

그런데 ‘서약서’에 쓰인 끝음절 ‘서’는 ‘문서(文書)’에 쓰인 ‘書(서)’와 같은데 제줏말에 쓰는 한자음으로는 [문세]로 발음된다. 앞의

‘서약서’에서는 첫음절의 ‘서’만 [세]로 바뀌고 끝음절의 ‘서’는 그대로였는데, ‘문서’에서는 [문세]로 바뀌어, 같은 뜻의 글자라도 어떤 한자와 어울려 쓰였느냐에 따라 한자음이 달라진다.

첫음절에서도 고유어 [ㄱ]를 제춧말에서 [계]로 바뀌어 발음하는 일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첫째’가 [첫째]로 ‘저녁’이 [제녁] 정도가 있다. 그리고 ‘ㅣ’모음 역행동화로 된 ‘벗기다, 먹이다’ 들은 [벳기다, 맥이다] 따위로 발음되어 쓰인다.

둘째 음절에 쓰인 ‘동서(同厓)’나 ‘문서(文書)’의 ‘서’ 발음 [ㄱ]가 [계]로 바뀌어 [동세]나 [문세]로 발음되는 일은 흔하다. ‘수저[수箸]’가 [수제]로, 물고기 이름에서 ‘어(魚)’가 들어간 ‘장어, 붕어, 송어, 은어’ 들은 [장에, 붕에, 송에, 은에]로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소리대로 적는다. 그렇지만 ‘질서(秩序), 지서(支署)’의 [ㄱ]는 [질세], [지세] 등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한자음 [ㄱ]나 [ㄷ]가 제춧말에서는 주로 [계]로 발음되는 사례가 있다. ‘당초(當初)’가 제춧말에서는 [당취]나 [당추]로 발음하고, ‘식초(食醋)’나 ‘양초(洋燭)’ 따위는 [식취], [양취]로 발음하는데, 이들은 줄여서도 [취]로 발음한다. 그리고 ‘나무 그루’를 나타내는 ‘주(株)’도 [취]로 발음하는데 이들도 모두 제춧말로 굳어진 한자어이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고유어의 ‘소(牛)’나 ‘쥐’에서도 나타난다. 제춧말로는 [취], [중이]나 [쨩이]로 발음되므로 이들도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위의 보기에는 없지만, 둘째 음절에 쓰인 한자어의 [ㄱ]나 [ㄷ]가 제춧말 한자음에서는 [ㅣ]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이 있다. ‘명주(明紬), 부조(扶助), 자주(紫珠)’ 등이 [멩지], [부주/부지], [꺄지]로, ‘부모(父母), 공부(工夫)’가 [부미], [공비]로 발음된다. 이들도 발음대로 적으면 된다. 이런 현상은 표준 한자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제줏말에서도 흔한 편이다. 표준어 ‘불무, 우무, 시루, 머루’나 ‘노루, 마루’ 등이 [불미], [우미], [시리], [멀리]나 [노리], [마리]로 발음된다. 이들도 각각 소리대로 적는다.

한자음 [ㅡ]가 제줏말에서 [ㅣ]로 바뀌어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연습(練習)’, ‘공습(空襲, 攻襲)’이 [연십], [공십]으로 발음되는데 이들도 소리대로 적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제줏말로는 [므슬/므실], [가슴/가십], [늑슬다/늑실다] 등 많은 편이다. 이들도 발음대로 적는다.

‘잠녀[潛女]’나 ‘여편(女便)’에 쓰인 ‘女’의 [ㄱ]이 어느 자리에 쓰이든지 제줏말에서는 ‘ㅣ’가 덧난 꼴 [ㅋ]로 발음되는 일도 있는데 이들도 발음대로 [죤녀]나 [예편]으로 적는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潛女’를 ‘잠녀’로 등재되어 있는데, 제줏말에서는 [잠녀]로 발음되는 일은 없고 [죤녀], [죤녀]로만 발음한다. 그러므로 ‘죤녀/죤녀’로 써야 하고, ‘여편’도 [여편]이나 [예편]으로 발음되므로 그렇게 적어야 한다. 이처럼 한자어 ‘여’나 ‘녀’가 ‘예’나 ‘네’로 쓰이는 것은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면장(面長)’의 첫음절 [ㄱ]이 제줏말에서는 [멘장]이나 [민장]으로 발음되어 [ㄱ]이 단모음화해서 [ㅋ]나 [ㅣ]로 발음되므로 이들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된다. 그런 보기로는 ‘명(命), 병(病)’이 [밍/멩], [빙/벙]으로, ‘편지(便紙)’가 [핀지/펜지]로, ‘병원(病院)’이 [빙원/벙원]으로 발음되므로 그들도 발음대로 적는다. 제줏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병아리’가 [빙애기]로, ‘셋별[晨星]’이 [새빌/세벨]로, ‘며느리’가 [메누리]로, ‘며칠’이 [메틀]로, ‘멸(멸치)’이 [멜]로 단모음화해서 쓰인다. 이들도 소리대로 적는다.

이외에도 한자어 ‘묘(苗, 墓)’의 발음 [묘]도 이중모음인데 단모음화해서 제줏말 한자어로는 [메]가 된다. [고칫메], [나록메], [호박메]

나 [뻗자리] 따위로, 이들도 발음대로 적는다.

또 ‘형(兄)’이나 ‘효자(孝子)’ 그리고 ‘흥년’과 같이 첫음절에서 [ㅎ]에 이중모음 [ㄷ, ㅄ, ㅌ]가 결합된 [형]이나 [효자], 그리고 [흥년]에서 [ㅎ]과 [ㄷ]나 [ㅄ] 또는 [ㅌ]가 제줏말에서 쓰는 한자음에서는 모두 다르게 발음된다. [ㅎ]은 [시]으로, [ㄷ]나 [ㅄ] 또는 [ㅌ]는 단모음화한 [니]나 [ㄷ] 그리고 [ㅌ]로 발음된다. 그래서 제줏말로는 ‘형’은 [성]으로, ‘효자’는 [소즈]나 [소재]로, 그리고 ‘흥년’은 [승년]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쓰이는 ‘형님, 형제(兄弟)’들은 [성님], [성제]로, ‘효심(孝心)’은 [소심]으로, 또 ‘휴가(休暇)’, ‘흉계(凶計)’는 [수가], [승계]로, ‘흉사(凶事)’는 [승시]<sup>15)</sup>로 발음한다. 이들도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한자어 ‘형(刑)’이나 ‘효도(孝道)’, ‘휴식(休息)’ 들에도 ‘ㅎ’과 이중모음이 쓰였지만 이들은 [성], [소도], [수식]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이들을 잘 가려야 한다.

제줏말에서는 어두에서 ‘ㄴ’이 발음되는 일도 있다. 표준어 ‘모양(模樣)’이 [모냥]으로, ‘갈 생각으로’와 같은 뜻으로는 [갈 냥으로]로 발음되는데 이것도 발음대로 적어야 한다. 표준어 ‘이’는 ‘蟲/虱(슬)’도 있고, ‘齒(치)’도 있는데, 제줏말에서는 모두 [니]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 두 고유어는 모두 ‘니’로 적는다.

그밖에도 한자어 ‘주인(主人)’이나 ‘살림’의 [ㅣ]가 제줏말에서는 [ㄷ]로 바뀌어 [주연]이나 [살림/사념]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비]이 [ㅍ]으로 소리 나는 일도 있는데 ‘폭발(爆發), 병풍(屏風), 병(瓶)’ 따위가 제줏말에서 [폭판], [펑풍], [펑]과 같이 [비]이 [ㅍ]으로 바뀌어

---

15) ‘승시’가 ‘흉사(凶事)’에서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은 제줏말에서는 ‘흥’이 ‘승’으로 ‘장사, 역사’의 ‘사’가 [장시], [역시]의 [시]로 발음되고 있어서 ‘승시’가 ‘흉사’에서 바뀐 것으로 본 것이다.

발음된다. 이들도 발음대로 적는다.

이와는 반대로 [교]을 [비]으로 발음하는 것도 있다. 피륙을 세는 단위로 쓰이는 ‘필(疋)’을 제죽말에서 쓰는 한자음으로는 [빌]로 발음한다. 그런데 말의 마리 수를 나타내는 ‘필(匹)’은 그대로 [필]로 발음하기 때문에 ‘필’로 적어야 하고, 피륙을 세는 단위는 ‘빌’로 적어야 한다.

한자어 ‘세상(世上), 목수(木手), 별수(別數), 사월(四月)’ 따위가 제죽말에서는 [시상], [목쉬]나 [목시], [벨쉬], [스월] 따위로 발음되는데 이들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특히, 표준어 ‘삼촌(三寸)’은 제죽말에서는 [삼촌]으로보다는 [삼춘]으로 발음된다. 그 뜻에서도 향렬로 ‘숙향’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는 ‘삼촌’의 뜻과 같지만, 동네 어른이나 모르는 어른을 일컬을 때도 쓰여서 높임과 친근감을 나타내는 인사말로 쓰이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표준어의 쓰임과는 다르다.

이 [삼춘]이 한자어 ‘삼촌’에서 온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표준어 ‘삼촌’에 이끌리어 제죽말 ‘삼춘’을 ‘삼촌’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 발음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스춘, 오춘’ 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굳어진 말로 보고 그대로 적어야 한다.

이밖에도 표준어 한자음과는 다르게 쓰는 제죽말 한자음이 더 있지만 이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잘 가려서 적으면 된다.

##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명	햇아방	햇어명
할아마지/할아부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웃이	굳이		
끗들이	살럼살이	절룩발이	늑적이	
빙색이/빙삭이	높이다	쌍이다		
들음박질	좁음			
둔구다	벗기다/뺏기다	올리다	짚숙(~하다)	
좁작(~하다)	얕지다/얕지다	높직(~이)	늦추다	
받후다	굳히다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스래기	스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ㄱ’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ㄱ’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ㄱ뭍	구뭍/그뭍	수늪	즈늪
----	-------	----	----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된 말이다. 그런 파생어 가운데는 어근과 접사를 쉽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제9항에서 다루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를 쉽게 가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다. 이런 파생어들도 어근과 접사가 결합할 때 형태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변동된 형태를 어떻게 적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서 이 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특히 제9항 1의 보기들은 규칙적 어근에 접두사가 쓰였다. ‘홀아방, 홀어멍’에서 어근 ‘아방, 어멍’을 갈라내면 접두사 ‘홀-’이 나오고, ‘햏아방’이나 ‘햏아바지’에서도 어근 ‘아방’과 ‘아바지’를 갈라내면 접두사 ‘햏-, 햏-’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 ‘홀-, 햏-, 햏-’들이 접두사다. 이들은 자립성이 없고 오직 일부의 명사 어근에만 결합된다. 그래서 위와 같은 규칙적 어근과 결합하여 위의 보기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었다.

이런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했을 때 발음이 달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본디 꼴을 살리어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하면, 어근은 어근대로 제 뜻을 지닐 수 있고, 접사는 제 고유의 뜻과 기능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마치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밝혀 적는 규정과 같은 것이다.

접두사 ‘홀-, 햏-’ 들에 어근 ‘아방, 어멍’이 결합하면 발음은 [홀라방], [홀러멍], [햏따방], [햏떠멍]으로 발음되더라도 어근과 접사를 밝혀 ‘홀아방’, ‘홀어멍’, ‘햏아방’, ‘햏어멍’으로 적는다. 그리고 접두사 ‘햏-’에 결합된 어근 ‘아바지’나 ‘애비’도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명한 접두사와 어근에서 파생된 말은 많은 편이다. ‘ㄱ랑니, ㄱ랑좁쌀, ㄱ랑중이’ 따위들이 있고, ‘갈옷, 갈중이’, ‘것곡석,



것보리’, ‘뚝두뚝, 뚝보리’, ‘떡보리’, ‘꽃감, 꽃볼레’ 따위들도 있다.

앞의 ‘ㄱ랑니, ㄱ랑중이’ 따위들은 겹으로 드러나는 음운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으면 된다. 그런데 뒤의 ‘갈옷, 것곡석, 것보리’ 등은 [갈옷], [건꼭씩], [건쁘리] 따위로 발음되더라도, 본디 꼴의 어근과 접사로 밝혀 적어야 한다.

또 어근에는 명사 어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동사나 형용사도 어근으로 쓰여, 거기에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된다. ‘내든다, 내둥 그리다, 고지든다, 짓늬다, 짓벌경흐다, 시퍼렁흐다’ 따위도 그렇다. 이때도 접사와 어근을 밝혀 적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올리지 못한 파생어들도 어근과 접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것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9항 2에서 접미사 ‘-이’나 ‘-음’이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들 때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는 규정이다. 이 두 접미사는 제숫말에서도 다른 접미사들보다 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접미사 ‘-이’나 ‘-음’의 쓰임을 보면 이들은 주로 명사 어근에 붙어서 다시 명사를 파생하기도 하고, 동사 어근에 붙어서 명사나 부사를 파생하기도 한다. 또한 불규칙적 어근에 붙어서 부사를 만들고, 형용사 어근에 붙어서 동사나 명사, 부사를 만든다.

먼저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다듬이’를 보면, ‘다듬다’에서 나온 동사 어근 ‘다듬-’에 접사 ‘-이’가 붙어서 파생 명사가 되었다. 이처럼 동사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된 말은 많다. ‘코걸이, 걸음걸이’ 따위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코거리], [거름거리]로 발음되는 일이 있더라도 ‘코걸이, 걸음걸이’로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살렘살이’도 동사 어근 ‘살렘살-’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파생된 말인데 [살렘사리]로 발음되더라도 ‘살렘살이’로 어근과 접미사

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엇이/웃이’는 ‘엇다/웃다’에서 나온 형용사 어근 ‘엇/웃-’에 접사 ‘-이’가 붙어서 파생 부사가 된 것인데, [어시/으시]로 발음되더라도 ‘엇이/웃이’로,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굳이’도 마찬가지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파생어들은 많다. 형용사 어근 ‘굳-, 좇-’ 따위에 ‘-이’ 접미사가 붙어 ‘굳이, 좇이’ 따위가 되었는데 이들도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

‘늑직이’는 형용사 어근 ‘늑-’에 접미사 ‘-익하다’가 먼저 붙어서 ‘늑직하다’로 1차 파생어가 되었는데 여기서 ‘하다’를 떼어내면 ‘늑직-’으로 불규칙적 어근이 되는데 거기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2차 파생어인 ‘늑직이’가 된 것이다. 발음은 [늑지기]가 되더라도 ‘늑직이’라고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

이처럼 2차 파생어로 부사가 된 말들은 많다. ‘높직이, 질직이, 멀직이’ 따위들이다. 이들도 ‘높직하다, 질직하다, 멀직하다’에서 ‘-하다’를 떼어내고 불규칙적 어근 ‘높직-, 질직-, 멀직-’만 어근으로 써서 거기에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어가 된 것이다. 이처럼 이루어진 파생어들도 많은 편이다.

형용사 어근 ‘짚-, 녃-’에도 접미사 ‘-숙하다’나 ‘-죽하다’가 붙어 ‘짚숙하다’나 ‘녀죽하다’로 1차 파생어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나온 불규칙적 어근 ‘짚숙-, 녃죽-’에 ‘-이’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 부사 ‘짚숙이, 녃죽이’ 따위들이 되기도 한다. 이들도 발음은 [놉찌기], [질찌기] 따위가 되든지 [집쑤크다], [녀쑤크다] 따위가 되지만 어근과 접사를 밝혀 ‘짚숙하다, 녃죽하다’ 따위로만 적어야 한다.

의성어나 의태어에서도 불규칙적 어근이 되어 접미사 ‘-이’를 결합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일도 흔하다. ‘빙삭빙삭’에서 불규칙적 어근 ‘빙삭-’이 되고<sup>16)</sup> 거기에 ‘-이’ 접미사가 결합되면 ‘빙삭이/빙색

이'가 된다. 이들이 [빙사기]나 [빙새기]로 소리가 나더라도 ‘빙삭이’나 ‘빙색이’<sup>17)</sup>로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

또 ‘빙삭이’와 ‘빙색이’로 본디 꼴과 바뀐 꼴을 올린 것은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상징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면 본디 꼴로만 나는 것과, 본디 꼴과 바뀐 꼴로 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느랏느랏’이나 ‘듬박듬박’에서 파생된 ‘느랏이’나 ‘듬박이’는 [느라시]나 [듬바기]로만 발음되고 바뀐 꼴 [느래시]나 [듬배기]로 발음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들은 본디 꼴 ‘느랏이’나 ‘듬박이’로만 적어야 한다. 그러나 ‘펼락펼락’에서는 ‘펼락이/펼랙이’가, ‘늘씩늘씩’에서 ‘늘씩이/늘씩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은 [늘싸기], [펼라기]나 바뀐 꼴 [늘쌌기], [펼래기]가 되더라도 어근과 접사를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에 ‘늘씩이/늘씩이’나 ‘펼락이/펼랙이’로 적는다.

‘높이다’는 형용사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높이다’가 된 것인데 이것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뀐 파생어이다. 그리고 ‘쌓이다’는 동사 어근 ‘쌓-’에 접미사 ‘-이’가 덧붙어 품사는 바뀌지 않았지만 피동사로 된 것이다. 이들도 ‘-이’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므로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리고 바뀐 꼴 ‘쌓이다’로도 적을 수 있다.

‘끗들이’는 복합 어근 ‘끗+들-’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로 파생되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리고 ‘절룩발이’는 명사 어근 ‘절룩발’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로 파생되었다. 이런 파생어들

16) 고영근(1974:34)에서는 ‘상징적 어근이 동사로 전성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첩용성이 유지되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 바둥바둥하다, 너털너털거리다, 늘름늘름대다.(이희승 1957:128) 그러나 『국어대사전』에는 ‘-하다’와 첩용된 것은 있으나, 나머지 경우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17) ‘빙색이’는 바뀐 꼴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본디 꼴과 같이 다루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아 여기서 다루고 있다. ‘벗기다/뻗기다’도 마찬가지다.

도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어야 한다. 이제까지 본 바로는 접미사 ‘-이’는 꼴은 같지만 파생 접사의 기능이 달라도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접미사 가운데는 표준어 접미사 ‘-우’를 제춧말에서는 ‘-이’로 나타내는 일이 있다. 표준어에서는 ‘넘+ㅌ, 잣+ㅌ’는 ‘너무, 자주’가 되어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제춧말에서는 ‘넘+ㅣ, 잣+ㅣ’로 ‘-이’ 접미사가 쓰이기 때문에 [너미], [즈지]로 발음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못하고 ‘넘이, 잣이’로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음’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때도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특히 접미사 ‘-음/ㅁ’은 어근에 받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갈리어 쓰이는데 ‘들다, 걷다’의 어근에서는 변동이 생기더라도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는다. ‘들음박질’은 동사 어근 ‘들-’에 접미사 ‘-음’이 결합된 것인데 결합과정에서 ‘들-’이 ‘들-’로 변동이 생기고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들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된 파생어들로는 ‘걸음, 물음’ 따위가 더 있다. 이들도 변동된 대로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해서 적는다.

그밖에 ‘ㅂ’ 받침이 있는 어근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를 파생하는 것은 흔치 않다. ‘줍음’이 동사 어근 ‘줍-’에 접미사 ‘-음’이 붙어 된 파생어인데, 이것을 올린 것은 ‘젓가락’이란 뜻으로 ‘줍음’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굳어진 말로 보아 넣은 것이다. ‘뚫다’의 어근 ‘뚫-’에도 명사로 파생할 때는 ‘도움’이 되어 받침 ‘ㅂ’이 ‘우’로 약화되어 나타나는데 ‘줍음’의 ‘ㅂ’은 약화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쓰인다.

또 제9항 2에서 접미사 ‘-이, -음’을 제외한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때도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

하여 적는다는 것이다. 이런 접미사의 특징은 파생어를 많이 만들면서 일관된 기능을 한다.

동사 ‘돋구다’의 어근 ‘돋-’에 접미사 ‘-구’가 붙어서 사동사가 파생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동사 어근 ‘숫-’에 ‘-구’가 붙어서 사동사 ‘숫구다’가 파생된다. 이런 파생어는 ‘숫-’<sup>18)</sup>에도 ‘-구’가 결합되어 ‘숫구다’가 되는데 ‘숫게 하다/숫아들게 하다’의 뜻이다. 또 ‘숫구다’는 교체된 접미사 ‘-추’가 쓰였을 때도 ‘숫추다’로 되는데 ‘숫구다’와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이들도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

피·사동의 접미사 ‘-기’가 결합해서 만들어 내는 파생어는 몇 안 된다. 이때는 ‘벗기다/벧기다’와 같이 본디 꼴 ‘벗기다’와 바뀐 꼴 ‘벧기다’로 적는다. ‘말다’<sup>19)</sup>가 ‘말기다/맭기다’로, ‘좃다(從)’가 ‘좃기다/좧기다’로 파생된다. 이들도 본디 꼴이든 바뀐 꼴이든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어야 한다.<sup>20)</sup>

‘울리다’는 동사 어근 ‘울-’에 접미사 ‘-리’가 결합된 파생어다. 제댓말에서는 ‘-리’ 접미사가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다. ‘놀다-놀리다, 꿩다-꿩리다’ 정도가 쓰이는데, 이들도 본디 꼴을 밝히어 적어야 한다.

18) ‘숫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나 형용사일 때는 접미사 ‘-구’가 붙지 않는다.

19) ‘말다 - 마트다’의 기본형 설정은 각주 28), 29)를 보기 바람.

20) 보기 말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ㄴ, ㄹ’ 받침의 ‘안다(抱), 남다(餘), 넘다(越)’에 접미사 ‘-기’가 결합되면 ‘안기다, 남기다, 넘기다’가 되는데, 실제 ‘안기다, 남기다, 넘기다’보다는 ‘앵기다, 냉기다, 냉기다’로 발음되어 쓰인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쓰임으로 ‘헙기다’가 있다. 이 말은 ‘웁다’에 접미사 ‘-기’ 접미사가 결합된 것인데, 제댓말에서는 ‘웁다’나 ‘-기’가 결합된 ‘웁기다’는 쓰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헙기다’로만 발음되어 쓰인다.

이 표기법에 따르면 ‘양기다, 낭기다, 녕기다, 움시다’로는 쓸 수 없지만, ‘앵기다, 냄기다, 냄기다’나 ‘웁기다’로는 발음도 안 되는데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음되는 ‘앵기다, 냉기다, 냉기다, 헙기다’로도 적지 못하게 되었다.

‘줍작(~하다)’와 같이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 ‘-작하다’가 결합된 ‘줍작하다’ 따위의 파생어는 많은 편이다. ‘넙작하다, 곧작하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 ‘-직하다, -닥하다, -들락하다, -숙하다, -작하다’ 등이 붙어서 된 ‘꿍직하다, 밍직하다, 곱닥하다, 곱들락하다, 짚숙하다, 줍작하다’ 등의 말들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생된 것으로 어근과 접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본디 꼴로 적어야 한다.

‘앗지다/앗지다’는 쌍형어로, 같은 뜻의 동사 어근 ‘앗-’과 ‘앗-’에 제춧말 접미사 ‘-지’가 붙어 사동형의 ‘-게 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이 접미사 ‘-지’는 표준어의 ‘-기’나 ‘-리’에 대응되는 것인데, 제춧말로는 ‘곱지다, 굽지다, 입지다’ 따위로 많이 쓰인다. 이대로 적어야 한다.

‘받후다’는 동사 어근 ‘받-’에 제춧말 접미사 ‘-후’가 붙어서 표준어 접미사 ‘-치’나 ‘-히’에 대응되는데 주로 ‘ㄷ’ 받침 뒤에 쓰인다. 그리고 이 접미사 ‘-후’는 형용사 어근에도 붙어서 ‘곧후다, 굳후다’로 ‘곧게 하다, 굳게 하다’ 따위의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형용사 어근에서 동사로 파생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굳히다’도 있는데, 이와 같은 짜임으로는 ‘붙히다, 뵈히다’ 따위도 있다. 이들도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9항의 [붙임]은 접미사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어근과 접미사가 합쳐져서 변동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런 접미사들은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우리, -악사니, -아귀, -아리, -옹/웅’ 등이 해당된다.

‘귀마구리’에 쓰인 동사 어근 ‘귀막-’은 합성어 ‘귀막다’에서 나온

것인데, 접미사 ‘-우리’가 붙으면 [귀마구리]로 소리 난다. 그래서 이 파생어는 ‘귀막우리’가 아닌 ‘귀마구리’로 적는다. 제춧말에서 접미사 ‘-우리’가 붙어 된 파생어는 명사 어근 ‘테-’에 ‘-우리’가 붙은 ‘테우리’나 동사 어근 ‘숫막-’에 결합된 ‘숫마구리’ 정도가 있다.

‘꼬락사니’는 명사 어근 ‘꼴-’에 접미사 ‘-악사니’가 붙어서 [꼬락사니]로 소리 난다. 그러므로 ‘꼴악사니’로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꼬락사니’로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지 아니 한다.

제춧말 파생어에 ‘스래기’가 있다. 이 ‘스래기’도 ‘쌀’의 옛말인 명사 어근 ‘술-’에 접미사 ‘-애기’가 붙어서 된 것으로, 표준어 ‘짜라기’에 대응되는 말이다. 그것도 ‘술애기’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스래기’로 적는다.

접미사 ‘-애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아지’나 ‘아기’도 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명사 어근 ‘박-’에 ‘-아지’가 덧붙으면 ‘박아지’가 아니고 ‘바가지’가 된다. ‘목-’에 ‘-아기’가 붙으면 ‘목아기’가 아니고 ‘모가기’나 변동된 ‘모개기’가 되는데 이들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모가기’나 ‘모개기’는 ‘모가지’와 같은 뜻의 제춧말이다.

‘스타귀’는 명사 어근 ‘술-’에 접미사 ‘-아귀’가 결합되어 [스타귀]로 발음되는데, 이것도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스타귀’로 적는다. ‘이파리’도 어근 ‘잎-’에 접미사 ‘-아리’가 덧붙여 파생된 것이다. 이것도 [이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지동/지둥’은 중세국어 ‘긴’에서 구개음화를 거쳐서 된 제춧말 명사 어근 ‘진-’에 접미사 ‘-웅/웅’이 붙어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지붕’도 명사 어근 ‘집-’에 ‘-웅’이 결합된 파생어이기 때문에 ‘집웅’으로 적지 않고, ‘지붕’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

는다.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들이 더 있다. 접미사 ‘-아지’는 명사 어근 ‘꼴-’에 붙어서 [꼬라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꼴아지’가 아니고 ‘꼬라지’로 적는다. 또 명사 어근 ‘눈-’에 접미사 ‘-에누니’가 붙으면 [누네누니]로 발음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누네누니’로 적어야 하고, ‘불[鞞丸]’에 ‘-옹이/-앵이’가 붙으면 [부룽이/부랭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불옹이/불앵이’가 아니라 ‘부룽이/부랭이’로 적어야 한다.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어근 ‘붉-, 검-’ 따위에 붙어서 색의 농도를 나타내는 접미사 ‘-으룽’도 있다. 이 접미사가 붙으면 [불그룽, 거므룽]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붉으룽-, 검으룽-’이 아닌 ‘불그룽-, 거므룽-’으로 적어야 한다.

동사 어근 ‘꺾-’이나 ‘꺾-’에 접미사 ‘-앵이’가 붙으면 [글갱이]이나 [굴갱이]로 발음되는데 이들도 본디 끝인 ‘꺾앵이’나 ‘꺾앵이’가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글갱이’나 ‘굴갱이’로 적는다. 접미사 ‘-앵이’는 표준어 ‘놀다’<sup>21)</sup>에 대응되는 제주말 ‘놀다’의 어근 ‘놀-’에 붙으면 [누녕이/누랭이]로 소리 나는데 이것도 ‘놀앵이’가 아니라 ‘누녕이’나 ‘누랭이’로 적는다.

이밖에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할 접미사들은 많지만, 접미사 ‘-이’나 ‘-음/口’이 아닌 모음 접미사가 붙어 파생어가 될 때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어 적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 활용하면 무리없이 제춧말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위의 접미사들 중에 ‘-우리, -악사니, -아귀, -아리, -옹/웅, -에누니, -애기, -옹이’들은 생산성이 낮은 편이고, ‘-앵이, -으룽’

---

21) 표준어 ‘놀다’에 쓰이는 말.



따위들은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산성의 높낮이로 표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9항의 ‘다만’에 제시된 보기말 ‘ㄹ뭍, 구뭍, 수늡, 즈늡’들은 어근 말음에 ‘ㄹ’이 있는데 여기에 접미사 ‘-ㄱ’이 붙어서 파생어가 될 때는 ‘ㄹ’이 탈락해서 어근과 접미사가 합쳐져서 한 음절을 이루는 것으로 본 것이다. 제숫말에는 어간말음에 ‘ㄹ’이 있는 ‘놀다, 걸다(비옥하다)’ 따위에 접미사 ‘-ㄱ’이 결합될 때는 ‘늡, 겸’으로 되지 않고, 음절이 확장된 ‘노름, 걸름’ 따위로 두 음절로 파생되어, 위의 보기 말과는 다른 파생어가 된다.

그러나 위의 보기 말들은 앞의 ‘노름, 거름’과 같이 되지도 않고, 또 ‘\*ㄹ뭍음’, ‘\*구뭍음’, ‘\*수늡음’, ‘\*즈늡음’으로나, ‘\*ㄹ뭍’, ‘\*구뭍’, ‘\*수늡’, ‘\*즈늡’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굳어진 말로 ‘ㄹ뭍, 구뭍, 수늡, 즈늡’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보기 말과 같이 적어야 한다.

표준어에서도 ‘가뭍, 그뭍’이 ‘가물다, 그물다’에서 파생된 것인데 ‘ㄹ’ 음이 탈락한 꼴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늡다, 즈늡다’는 표준어에는 없는 말인데 이들도 ‘수늡’이나 ‘즈늡’으로 쓰이는 일이 있어 올린 것이다. 요즘에 ‘즈늡, 수늡’을 ‘즈늡음, 수늡음’이라고 쓰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 적은 것이다.

- ㄱ. 콩은 즈늡에 싱그민 산다.
- ㄴ. 늡을 수늡이사 쉽주마는 갓으쟁 호민 어려와.
- ㄷ. 땅이 즈늡지엇저.

위의 보기에서 보듯이 ‘즈늡-’이나 ‘수늡-’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면 ‘ㄹ’ 음이 탈락한 꼴의 파생어가 된다.

## 제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도	독만
논[畚]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말[馬]	:	말이	말을	말도	말만
놈[他人]	:	놈이	놈을	놈도	놈만
으뜸[八]	:	으뜸이	으뜸을	으뜸도	으뜸만
꽃[花]	:	꽃이	꽃을	꽃도	꽃만
고장[花]	:	고장이	고장을	고장도	고장만
자리[蓆]	:	자리가	자리를/자릴	자리도	자리만

제10항은 「한글 맞춤법」 제1항과, 2항, 그리고 41항과도 관련이 있다. 형태소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나누어진다.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요소가 어울려야만 문장 구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 쓰이는 체언과 조사를 적을 때는 체언의 꼴과 조사의 꼴을 그대로 적되 붙여 쓴다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음운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표기를 할 때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체언 가운데는 받침이 없는 것과 받침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받침이 없는 것은 위의 ‘자리[蓆]’와 같은 것인데, ‘개, 강이’ 따위도 그런 체언이다. 이런 체언의 뒤에도 조사를 붙여 쓰는데 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쓰인다. ‘자리가, 자리를, 자리도, 자리만’

의 쓰임을 보면 체언과 조사의 꼴이 바뀌는 게 없다. 이때는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기만 하면 된다. 다만, ‘자리를’이 줄여진 ‘자랄’이라고 쓸 수도 있다.<sup>22)</sup> 마찬가지로 ‘강이’에 조사 ‘-를’이 쓰이면 이때도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적는다. 그래서 ‘강이를’이 된다. ‘강이’에도 조사 ‘를’이 왔을 때 ‘강일’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 그것은 ‘강이를’의 준 꼴이어서 그렇다. 그밖에도 조사 ‘는’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체언 ‘자리’나 ‘강이’에 쓰일 때도 ‘자리는, 강이는’ 따위가 되지만 준 꼴로 ‘자린, 강인’으로 쓰일 때도 있다.

받침이 있는 체언 ‘득, 논, 물, 늪, 으둑, 꽃, 고장’에 쓰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받침은 표준어에서도 대표적으로 쓰이는 자음들이다. 이렇게 받침 있는 체언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도 쓰이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도 쓰인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쓰였을 때는, 체언의 받침과 어울려 한 음절이 된다. 체언 ‘득[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이 쓰이면 [ㄷ기], [ㄷ글]로 소리 나고, ‘논[畝]’에도 조사 ‘이, 을’이 결합되면 [노니], [노늘]이, ‘꽃[花]’에 조사 ‘이, 을’이 결합되면 [꼬시], [꼬슬]로 소리 난다. 이렇게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쓰이면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10항을 설정하였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받침 있는 체언에 결합하면 음운 변동이 생긴다. 체언 ‘득’에 조사 ‘도’나 ‘만’이 붙으면 [득또], [등만]으로 발음되고, ‘으둑’에 ‘도’나 ‘만’이 쓰이면 [으둑또], [으둑만]으로 발음된다, ‘꽃’도 마찬가지다. [꼬또/꼰또], [꼰만]이 된다.

이렇게 받침 있는 체언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되면 체언과 조사가 연음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으면, 체언이

22) 이는 이 표기법 제17항 준말 참고.

나 조사의 꼴이 바뀌든지 아니면 둘 다 바뀌어 받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언이나 조사가 일정한 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므로 체언이나 조사의 형태나 뜻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는 언어로서 실용성이나 경제성을 바랄 수가 없게 되고, 비능률적인 언어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도 제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가장 중심 되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항에서도 그것을 원용한 것이다. 그래서 체언과 조사는 언제나 같은 꼴로 적게 하고, 조사는 체언에 붙여 쓰게 하여 같은 뜻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웃말에는 조사처럼 쓰이는 후치사들 ‘ㄴ라, 신디, 초록/추록, 안티, 한테’ 따위들이나 ‘ㄴ치, 대로/대름’ 등이 있다. 이들도 조사와 같이 체언에 붙여 쓴다. 그런데 제웃말 조사 가운데는 표준어 조사 ‘와’나 ‘과’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광’이 있다. 표준어에서는 ‘와’가 받침이 없는 체언에, ‘과’가 받침이 있는 체언에 쓰인다. 그러나 제웃말 조사 ‘광’은 받침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모든 체언에 두루 쓰인다. 이것도 체언에 붙여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

##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뉘다[鈞]:	뉘안	뉘으민	뉘으곡	뉘나	뉘는
넘다[越]:	넘안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障]: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묻안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잇안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좃다[從]: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으곡/좃이곡	좃나	좃는
좃다[索]: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곡	좃나	좃는

제11항과 제16항은 용언의 어간과 어간에 붙는 어미를 서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항은 하나의 본디 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류이고, 제16항은 본디 꼴뿐만 아니라 또한 뒤에 이어지는 어미에 따라 바뀐 꼴도 같이 나타나는 부류이다. 먼저 하나의 본디 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11항의 부류를 설명하기로 한다.

사람이 쓰는 언어는 입말과 글말로 나뉜다. 입말의 단위는 발화로 부르고, 글말의 단위는 문장으로 부른다. 발화는 흔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것들은 빼어 버리고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가리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서로 잘 알 수 있는 정보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말한다. 단, 이러한 생략 요소는 반드시 쉽게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 글말은 전형적으로 글쓴이와 읽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상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입말처럼 생략이 잦지 않다. 따라서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소재 또는 상황을 모두 글(문장) 속에 분명히 포함시켜 놓아야 의사소통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발화가 되든 문장이 되든 간에, 분석되지 않은 사람의 말덩이는 늘 쉽게 안으로 잘려 나갈 수 있다(말덩이는 내적 구조를 지님). 입말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에게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이름 따위를 부르는 요소(부름말, 독립언)와, 이 요소에 이어지는 말덩이가 있다.

“철수야, 학교 감이나?”(철수야, 학교에 가고 있니?)

에서 쉼표 앞에 있는 말이 바로 듣는 사람을 불러 주의를 끄는 요소이며, 쉼표 뒤에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려는 말덩이가 이어져 있다. 분석되지 않은 이 말덩이가 언제나 다시 나뉘는데, 입말과 글말에서 그 방식이 공통적이다. 이는 희랍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구분 방식으로, 곧, 주어와 술어이다. 집합론을 받아들인 현대 논리학(양화사를 지닌 ‘술어논리’)에서도 비록 표기법을 달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 만큼 ‘주어’와 ‘술어’의 구분은 인간 사고에 보편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학교 감이나?”<sup>23)</sup>

23) 물론 같은 대우 등급의 변이체로서 “학교 값이나?/감시냐?”, “학교 감이니?”, “학교 가넌?”도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들은 계사를 수반한 명사형어미 구문을

에서는 부름말과 같은 사람(철수)이 주어이므로, ‘철수’가 생략되어 있거나(철수 학교 감이냐?) 또는 ‘너’에 해당하는, 소리 없는 대명사가 들어 있다(너 학교 감이냐?)고 말할 수 있다. 술어는 다시 동사의 특성에 따라 다시 더 분석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가다’ 동사는 자동사가 아니라, ‘다니다’라는 타동사로 뜻이 넓혀지거나(다의어) 또는 뜻이 바뀌어서(동음이의어) 목표나 장소를 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어이든 술어이든 어느 것이든 간에 자유롭게 꾸밈말을 더 얹어 놓을 수 있다. 주어를 꾸미는 말을 관형어로 부르고, 술어를 꾸미는 말을 부사어로 부른다. 꾸미는 말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 일부러 더 집어넣은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 표현의 의도나 가치를 더욱 잘 드러내어 준다.

주어는 보통 ‘체언’으로 나타나고, 술어는 ‘용언’으로 나타난다. 우리말에서 용언은 동사 및 형용사로 나뉜다. 영어에서는 계사 be가 독자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말에서는 형용사 속에 접미사로 녹아 있고, 명사의 경우에 잠정적으로 서술격 조사로 부르고 있다(이를 언어들 사이에 ‘범주 규정’의 차이로 부름).<sup>24)</sup> 동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를 흔히 ‘사건’이라고 부른다. 형용사는 대상 또는 사물의 일시적인 상태나 내재적인 속성을 가리키는데, ‘상태’라는 말로 부른다.

그런데 우리말의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은 반드시 뒤에 어미가 붙어 나와야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가령, ‘먹-’(to eat, 食)이라는 동사 어간과, ‘검-’(to be black, 黑)이라는 형용사 어간은 홀로 독립

---

해설하는 자리, 그리고 준말을 다루는 자리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24) 이 해설에서는 ‘이다’를 가리킬 때에 조사(서술격 조사)의 지위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하게 새로운 융합형태소의 구문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하면서 술어의 지위를 부각시켜야 하므로, ‘계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될 수 없고, 반드시 어미들이 붙어 나와야 한다. ‘먹으라’(먹으렴), ‘검은게’(검구나)와 같이 종결어미가 붙든지, 또는 ‘떡곡’(떡고서)처럼 연결어미가 붙든지, ‘검은’(검은)과 같이 관형형어미가 붙는다. 우리 말에서 일반적으로 어미는 문장이나 발화를 종결하는 데에 쓰이는 어미를 기본으로 삼는다. 이를 종결어미(종결어미 부류)라고 부른다. 이 이외에도 문장이나 발화를 더 늘여 이어 주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가 있고,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전성 어미가 있다. 후자는 특히 용언에 뒤따르는 명사에 이어 주는 관형형어미가 제11항에 관련된다. 문장이나 발화를 종결해 주는 어미는 크게 종결어미와, 종결어미 앞에 나오는 선어말어미가<sup>25)</sup> 있다. 단, 시제 또는 상, 또는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았-’ 따위)는 제16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만일 어간에 받침소리(종성)가 있을 경우에, 이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진다면, 이 어간의 받침소리는 그대로 뒤에 붙은 어미의 초성처럼 소리가 난다. 따라서 본디 어간 음절에 변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제11항은 어간의 받침소리가 바로 뒤 어미의 초성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본디 어간의 음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기해 놓도록 규정하였다. ‘잡-’(to hold, 把)이라는 동사 어간은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 ‘-으라’가 붙어서 [자브라]로 소리가 나고, ‘붉-’(to be reddish, 赤)이라는 형용사 어간은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 ‘-은게’가 붙어서 [불근게]로 소리가 난다. 여기서 어간 받침소

25) 이 해설에서는 낱말의 끝에 붙는다는 뜻을 지닌 ‘어말어미’보다, 문장을 종결 시킨다는 뜻으로 ‘종결어미’로 부를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 문장의 끝에 있다고 하여 종결어미를 ‘문말’ 어미로 부르기도 한다. 종결어미 앞에 나오는 어미들은 응당 ‘선-종결’ 어미나 ‘선-문말’ 어미라고 불려야 일관될 것이다. 그렇지만 ‘선종결어미, 선문말어미’라는 용어를 매우 낯설게 느낄 듯하다. 그러므로 일단 이 범주의 용어는 학교문법에서 쓰는 ‘선-어말’ 어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미’를 합성어로 갖는 낱말들은 모두 붙여 써 놓는다.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관형형어미’ 따위이다.



리들이 모두 어미의 초성처럼 바뀌었다. 제11항은 총칙 제2항에 규정된 원리에 따라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고, 본디 꼴을 그대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분하여 ‘잡으라, 붉은게’로 써야 하고, 소리대로 ‘\* -자브라, \* -불근게’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쓰는 것일까? 그 까닭은 표기법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는 형태를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한글을 비롯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소리글자들은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가령, 영어에서 ‘sign’(신호 보내다, 신호)이란 낱말은 [싸인]으로 소리가 난다. 그렇지만 ‘g’라는 글자가 굳더더기처럼 들어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씨그너춰]로 소리가 나는 ‘signature’(서명, 이름)란 낱말과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도 또한 머릿속에 동일한 형태가 들어 있다고 간주하고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와 관계없이 본디 형태를 표기에 그대로 밝혀서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서 [투]라는 소리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나타낸다. ‘to’(부정사, 동사의 원형을 표시함), ‘two’(둘), ‘too’(또한) 등이다. 비록 입술에서 똑같이 소리가 나더라도, 서로 달리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도 또한 표기법이 소리대로 쓰기보다는 형태를 구별해 주기 위한 기능을 담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제11항에서 어간에 어미가 붙어 나온 사례들은 세 가지 부류로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와 관형형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연결어미는 다시 대등하게 절을 이어주는 병렬 접속(또는 등위 접속), 절 사이에 시간이 달라지거나 사건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보여 주는 종속 접속, 두 절 사이의 관계가 매우 멀거나 영향을 주지 못함을 보여주는 수의적 접속이 있다. 병렬 접속과 종속 접속은 두 절의 순

서를 서로 바꿀 때에 전체적인 의미에 변화가 생겨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개념상의 구분일 뿐이다. 결코 고유하게 연결 어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종속 접속은 시간이 변화에 따른 순차 접속이 있고, 조건과 결과를 이어 주는 조건 접속이 있다. 종속 접속과 수의적 접속 사이에서도 두 절 사이의 관계가 가깝거나 긴밀한지 여부도 또한 기계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고유한 연결어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을망정, -을지라도’ 따위가 자주 쓰이나, 이 어미들이 또한 종속 접속에서도 쓰임). 오직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주관적 판단과 믿음에 기댈 따름이다.

제11항의 사례에서 병렬 접속(등위 접속)은 ‘-으꼭, -꼭’(-고)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죽말에서 ‘-으멍, -멍’(-면서)도 두 절 사이에 병렬(등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종속 접속에서 순차 접속(또는 계기 접속)이 ‘-안, -언’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건 접속이 ‘-으민, -민, -이민’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죽말에서 순차 접속은 상 또는 시제의 대립의미를 다음처럼 보여 준다(표준어 연결어미 ‘-아서’에 대응함).

‘-안 : -양’<sup>26)</sup>

26) 이들의 변이형태는 ‘-안’에 ‘-아네’가 있고, ‘-양’에 ‘-아그네, -아그넵에, -양그네, -양으네, -양그넵에, -양으넵에’가 있다. 단, 모음조화에 따른 변동은 모두 ‘어’로 시작된다(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 또한 특정한 낱말 ‘하다, 이다’에 따라 나타나는 이른바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따른 변이형태도 있는데, ‘하다’는 ‘-어’로 시작되고, 계사 ‘이다’는 어간이 생략되거나 어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르’가 발현되기도 한다(‘-관’과 ‘-랑’).

그런데, ‘-양’의 수의적 변이형태들 중에서 ‘-양그네’는 ‘-아그네’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이다. 여기서 다시 동화 주체 ‘ㄱ’와 이에 이어진 음절이 탈락된 결과 ‘-양’이 나올 듯하다. 가장 긴 형태소 모습 ‘-아그넵에’는 ‘-아그네’에 다시 ‘-그네’가 덧붙여(중가 형태: ‘-아그네+그네’) 역행동화가 일어난 뒤에 동화 주체는 탈락된 모습일 수 있다(마치 표준어의 ‘를’이나 ‘는’을 김완진 교수가 ‘을+을’과 ‘은+은’의 증가[duplication] 형태로 설명하듯이). 또한 ‘-양’의 수

그렇지만 현재 제춧말의 문법 형태소들에 대한 연구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반영해 놓지 못하였다. 또한 ‘-안’이라는 연결어미는, 모음조화 원칙에 따라 변동되어 쓰이는 자동적 변이형태 ‘-언’뿐만 아니라, 수의적으로 더 늘어난 형태로서 ‘-아네, -어네’도 쓰인다. 이와 대립되는 ‘-양’은 더 늘어난 수의적 변이형태로서 ‘-아그네, -앙그네, -앙으네, -아그넹에, -앙그넹에, -앙으넹에’가 쓰인다. 늘어난 형태로서(또는 늘어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본디의 형태일 수 있겠지만, 자주 듣는 빈도를 기준으로 함.) 상 또는 시제의 대립을 드러내면

‘-아네(완료 시상) : -아그네(미완료/불-완전/비-완료 시상)’

에서 보듯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접속어미들은 또한 뒤에 오는 후행절의 시상 형태소들의 실현을 허용하거나 저지하는 데에도 간여하는데, 흔히 이를 ‘호응 관계’로 불러왔다. 이 표기법에서는 예시를 간략하게 보이려는 목적 때문에, 이런 변이형태들을 충

---

의적 변이형태 중에서 맨 뒤에 나오는 음절을 처격 조사 ‘에’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명사구가 아니라 어미 일부 요소에다 처격 조사가 붙는다는 아주 이례적인 구조나 결합을 확증해 줄 수 없다.

제춧말에서는 특히 ‘-안’과 ‘-양’으로 대립되는 연결어미가 시제 또는 상(완료/완결/종결/완전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후행절과의 호응에서 시제 또는 상에 대한 제약이 관찰된다. 상 또는 시상에 대한 정의 방식은 연구자마다 정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 현평호(1985)에서는 ‘완료’, 문숙영(1998)에서는 ‘완결’, 우창현(1998)에서는 ‘종결’이란 용어를 썼다. 이들 용어에 대하여 고영진(2008)에서 비판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있어 도움이 크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13항의 해설을 읽어 보기 바란다. 이 해설에서는 ‘완료’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완료된 사건을 가리키는 ‘-안’의 경우가 후행절의 시제나 상에 대한 제약에서 유효적이다. 반면에 완료되지 않은 사건을 가리키는 ‘-양’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유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이 연결어미를 다룬 송상조(2011)를 읽어 보기 바란다.

분히 다 들어 놓지는 못하였다.

1933년 『한글 맞춤법(통일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언어학이 지금과 같은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낱말만을 위주로(대상으로) 하여 표기 지침을 만들었을 뿐이다. 더 넓은 영역의 통사 및 화용 현상들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반영해 주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현재까지 묵수되고 있다. 1960년대에서부터 전세계를 풍미한 변형 생성문법에서는 언어의 기본 단위가 ‘낱말’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본다. 낱말을 기본 단위로 본 『한글 맞춤법』의 난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띄어쓰기에 대하여 서로 합치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표준 국어 대사전』 등의 사전들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결정들이 허다하게 나타난다. 과문하지만, 아직 표기의 대상을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고 줄여 나가면서 ‘어절’ 단위를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 또한 여러 종의 해설서들을 보더라도, 『한글 맞춤법』의 기본 단위가 언어학의 발전에 맞추어 낱말에서 문장(또는 발화)으로 바뀌어야 한다(문장을 분절하여 어절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비판도 전혀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 예외적으로 붙여 쓰도록 한 ‘조사’는 어절 단위 속에 포함되며, 일단 어절 개념에 합의를 한다면 더 이상 예외적으로 조사만은 붙여 쓰도록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직관적으로 어절이 낱말에 조사나 어미들을 덧붙여 놓은 단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숫말의 표기법도 『한글 맞춤법』의 한계를 크게 뛰어넘는 틀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진지하게 하나의 안을 확정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틀을 본디 꼴과 바뀐 꼴로 재구성하고, 예외적으로 굳어진 표기를 인정한 것은 현재의 『한글 맞춤법』보다는 더 정연하고 명시적인 표기법으로

서, 뒤에 『한글 맞춤법』의 개정 및 다른 방언들의 표기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항의 예시에서 종결어미 ‘-나’는 내림세 억양으로<sup>27)</sup> 쓰이면 서술 단정의 뜻을 지니고, 올림세 억양으로 쓰이면 의문의 뜻을 지닌다. 표준어에서는 오직 의문의 형태만으로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관형형어미는 ‘-는’인데, 상(aspect, 相) 대립을 보이는 기본 형태 ‘-은 : -을’에서 발화시 현재를 가리키는 ‘-느-/-느-’(또한 청자의 현재 추체험 가능성이라는 양태 의미도 들어 있음)가 융합되어 있는 복합 형태이다(‘-느/느+은’ = ‘-는’). 이는 바로 앞의 종결어미 ‘-나’에서도 똑같이 찾아지는데, 이 종결어미가 반말투 종결어미 ‘-아’에 발화시 현재를 가리키는 ‘-느-/-느-’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1항에서 제시된 사례들 중에, ‘냠안’(냠아서), ‘냠으민’(냠으면)을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써서 ‘\*나간, \*나끄민’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sup>28)</sup> 우리 머릿속에 오직 하나의 어간 ‘냠-’만이 있는 것이지,

27) 아직 문장이나 발화 전체에 걸리는 높낮이 소리에 대해서는 용어가 합의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intonation을 억양이나 어조로 번역하여 쓴다. 억양(抑揚)은 누르거나 또는 반대로 올리는 형세이다. 여기서는 ‘내림세’(내려가는 형세) 억양과 올림세(올라가는 형세) 억양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어조(語調)는 비아냥거리는 어조까지 포함하므로 tone(목소리 색깔)도 포함할 듯하다. 그렇지만 억양을 가리킬 경우에는 어조라는 표현도 합쳐서 ‘상승조 억양·하강조 억양·수평조 억양’처럼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도 한다. 상승조 억양은 ‘상승 어조의 억양’을 줄인 표현이다. 내림세 억양을 ‘내림조’ 억양으로도 부를 수 있고, 그냥 ‘내림’ 억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28) 종전에 어간을 ‘나끄’로 잘못 파악하여 “나끄다”로 썼던 적이 있었다. 이른바 어간의 ‘개방 음절’에 대한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 해설의 여러 곳에서 이런 어간의 개방 음절에 대한 주장이 잘못임이 지적될 것인데, ‘-으’로 시작되는 어미 형태들의 계열체 및 낱말 만들기 방식 등에서도 그런 주장의 반례들이 다수 제시될 것이다. 이는 이 표기법을 종전의 표기들과 구분해 주는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해설에서 철저히 학술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 어미들의 계열체(‘으’ 소리를 지닌 ‘자연부류’로 묶임)는 제16항의 해설에서 여러 측면으로 다루지므로, 여기서는 단지 낱말 만들기(또는 조어법으로도 불림)에서만 결정적인 반대 사례들을 들어 보이기로 한다.

동사 ‘말으다, 흘으다’(각각 ‘말다, 흘다’)에서 반드시 어간이 ‘말-’과 ‘흘-’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모두 발음이 [마트다, 흐트다]로 나오지만, 표기에서 어간은 1음절 ‘말-, 흘-’이고, 어미는 ‘-으다’이다. 이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말+기+다’로 되고, 이 어간에 다른 어간이 붙어 ‘흘+뿌리다’처럼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만일 ‘으’를 지닌 개방 음절 ‘마트-, 흐트-’가 어간이었다라면, 옹당 \*‘마트+기+다’와 \*‘흐트+뿌리다’라는 낱말이 나왔어야 하고, [\*마트기다], [\*흐트기다]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낱말은 제춧말에서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형용사 ‘높으다, 깊으다/깊으다’(각각 ‘높다, 깊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뒤의 낱말은 특히 구개음화가 일어난 모습도 바뀐 꼴의 어간이 되어, 언제나 ‘높-, 깊-/깊-’이며, 여기에 어미 ‘-으다’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 어간을 대상으로 하여 접미사가 붙어 ‘높+직하다, 깊+숙하다/깊+숙하다’라는 낱말로 파생되어 나올 뿐이다. 제춧말에서 개방 음절의 어간 ‘노프-, 지프-’에 접미사가 붙어 \*‘노프+직하다, \*지프+숙하다’로 파생되어 [\*노프직하다]나 [\*지프숙하다]나 [\*지프숙하다]라는 낱말은 결코 찾아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자음을 겹받침으로 지닌 어간들도 이미 폐쇄적인 음절 구조를 뒷받침해 준다. ‘ㄹ-계열의 겹받침’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넓다, 얇다’는 비록 [넙따], [얹따]로 발음되지만, 연결어미 ‘-으난/-으나네’(-으니까)를 붙여 활용하면 [넙브난/넙브나네], [얹브난/얹브나네]로 나오므로, 겹받침 ‘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넓다’라는 동사는 같은 뜻을 지닌 ‘너르다/넨르다’라는 낱말이 같이 쓰이며, 고재환(2011: 43쪽)에는 ‘밟다’(to step on, 踏)도 동일한 뜻의 어간 ‘뵐르다’(to step on, 踏)도 있는데, 이들은 복수 어간 또는 쌍형 어간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얹다’가 결코 개방 음절 형식 [\*야브다]로 발음되는 일도 없고, 연결어미 ‘-으난/-으나네’가 붙을 때 [\*야브난/\*야브나네]로 발음되는 일도 없다. 다른 ‘ㄹ-계열의 겹받침’으로 ‘리, 래’으로 ‘굽다, 엮다, 굶다’ 등의 똑같이 활용한다. 이들은 [극따, 억따, 굶따]로 발음되고, 연결어미 ‘-으난/-으나네’와 연결되면, [글그난/글그나네], [얼그난/얼그나네], [굴므난/굴므나네]로 발음된다. 개방 음절의 형태인 [\*글그다], [\*얼그다], [\*굴므다]로 발음되는 일도 없고, [\*그그난/\*그그나네]나 [\*어그난/\*어그나네]나 [\*구므난/\*구므나네]로 발음되는 일도 없다. 이런 사실은 모두 겹받침을 지닌 1음절 어간으로 적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단, ‘읽다, 넓다’는 화자에 따라 활용상의 차이가 관찰되는데, 지역적이거나 사회언어학적인 언어 변동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한때 왜곡되게 제춧말의 모습을 일부러 별나게 만들어 놓기 위하여 표면 음성형만을 쓴다거나 또는 괴벽스럽고 이례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처럼 착각했던 적이 있다. 그렇지만 차분히 제춧말 현상을 관찰한다면, 한국어의 기본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의 근원도 쉽게 밝혀 낼 수 있다. 원리와 매개변인 접근 방식을 응용하여, 형태소들의 규칙 적용 방식의 차이로 명확히 제춧말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이가 제춧말의 특성을 만들어 준다.

이 표기법 논의에서 본디 꼴을 정해 놓는 데에 자주 거론되었던 음운 현상이 있다. 구개음화된 꼴,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꼴, 자음동화가 일어난 꼴 등이다. 이들이 자동적 음운 규칙의 적용 결과로만 치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다. 만일 자동적 음운 규칙의 적용이라면, 표기법에서는 음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낱말 모습을 적어 주어야 한다. 이 원칙이 한글맞춤법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형태-음소주의’이다. 그렇지만 이런 직관을 간단히 제숫말에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집필자(김지홍) 개인의 판단에 아마도 구개음화된 꼴은 본디 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표준어의 형태로 관념하므로, 두 낱말 어형이 동시에 사회언어학상의 변별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함), 자음동화의 모습은 본디 꼴로 인정될 수 없다(오직 한 어형만이 있고, 이를 표기에 반영함).

그런데 ‘이’ 모음 역행동화(‘올라우트’로 쓰기도 함)의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듯하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의 일부를 놓고서 고동호(1995)에서는 혀끝을 들어 올리는 자질([+coronal, 설정성])의 자음(ㄴ, ㄷ, ㄹ, ㅅ, ㅈ, ㅊ, ㅊ, ㅊ)들이 ‘이’ 모음 역행동화의 방벽(장애)임을 확인한 바 있고, 거론된 자료들의 품사별 동화 비율도 제시하고 있다. 이 결론에 따르면 동화 이전의 모습과 동화 이후의 모습이 낱말에 따라 표기에 반영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야 한다. ① 반드시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야 하는 부사와 접미사는 동화된 대로 표기되어야 한다. ② 수의적으로 두 모습이 관찰되는 명사와 동사 부류는 둘 모두 표기해 주어야 한다. ③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류는 있는 형태 그대로 써 주어야 한다.

①의 경우는 ‘풀랭이/풀랭이’(꼬리, ‘꼬리+양이’), ‘콧배기/콧배기’(콧등, ‘코+ㅅ+박이’), ‘콧재기/콧재기’(눈꼽, ‘콧+작+아기’), ‘아쟁이/아쟁이’(앙금, ‘앗[앗다의 바뀐 꼴]+양이’), ‘가쟁이/가쟁이’(가지, ‘갓+양이’)와 같이 이미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들이다. 따라서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이후의 형태가 본디 꼴로 상정되는 것이다. 접미사 ‘-앵이/-앵이’로 대표되는 이런 부류에 대한 논의는 김홍식(1979)를 보기 바람이며, 그곳에서는 ‘-앵’만 붙은 파생어들이 있으므로, ‘-앵이/-앵이’를 ‘-앵+이’의 복합 접미사 형태로 간주하였다.

②의 경우는 ‘옳기다’가 또한 수의적으로 세 가지 음운 현상(‘이’ 모음 역행동화, 받침 ㄹ 탈락, 자음동화)이 일어나면 [행기다]로 발음된다. 이 경우 혀끝 올리는 자질이 없는 자음이 중간에 나오지만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났으며, 아직 자음 탈락과 자음동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옳기다’로 적을 수 있다. 혀끝 올리는 자질이 없는 자음이 중간에 있는 사례가 ‘남다’에서 파생된 ‘남기다’(to be remained, 被遺)에서도 관찰되는데, 이 방언에서는 [남기다], [남기다], [냉기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까지 ‘남기다, 냉기다’로 적게 되며, 자음동화가 일어난 ‘냉기다’는 자동적인 소리 변동이므로 이를 표기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 ‘쫓기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모습을 ‘쫓기다’로 적

따로 \*나ㄱ-나 또는 \*나ㄲ-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러 제  
 좃말의 표기를 다루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순수히 소리대로만 써  
 서 ‘나깁’으로 표기하면, 마치 이 방언 표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한  
 경우도 있다. 잘못이다. 왜 그럴까? 소리대로만 써서 ‘냠나’(냠는다)  
 를 표기하면 [낭나]로 되며, ‘냠거든’(냠으면)을 표기하면 [낙꺼든]으  
 로 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동사의 어간이 적어도

‘냠-, 낭-, 낙-, 낙’

과 같이 4개 이상인 셈이다.<sup>29)</sup> 결국 이는 아무런 규칙(형태를 세우

---

을 수 있다. 단, 이 표기법에서는 제좃말에 단모음으로 ‘외’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중모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웨’로 적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집필자가  
 보기에든 매우 괴상스런 모습의 ‘웁기다’나 ‘뺨기다’로 적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집필자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 표기법의 결정과는 달리 ‘외’라는 글자를 써  
 서 ‘뺨기다, 웁기다’로 쓰되, 다만 이 글자의 발음을 중모음이라고만 설명하는  
 방안이 더 간단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아마 제좃말에서는 원래의 형태와  
 ‘이’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포함하여, ‘웁기다, 웁기다’와 ‘남기다, 념  
 기다’와 ‘뺨기다, 뺨기다’라는 표기가 모두 가능하며, ‘벗기다, 뺨기다’, ‘씩히다,  
 뺨히다’, ‘잡히다, 뺨히다’, ‘말기다, 뺨기다’, ‘막히다, 뺨히다’, ‘먹히다, 뺨히다’  
 따위도 두 가지 표기를 허용해야 할 듯하다. 이들은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는  
 듯하지만, 일부 다른 낱말은 사회언어학적 차이(특히 언어 상황의 격식성 및  
 공식성 여부에 대한 차이)를 수반하는 듯이 판단된다(보수적인 ‘보태기’와 개  
 신적인 ‘더하기’). 한편, 김광웅(2001: 193쪽)에서는 \*앵기다(안기다), \*꺾이다  
 (죽이다), \*넉이다(눅이다)도 관련 자료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제좃말  
 인지 잘 알 수 없다(다른 방언의 간섭일 가능성이 있음). 보다 정밀한 조사가  
 앞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③의 경우는 ‘느랏하다’(힘이 빠져 있거나 느른하거나 나른한 모습)에서 부  
 사를 만들면 ‘느랏+이’가 되는데, 이는 [느라시]로만 발음될 뿐이다. 결코 [\*느  
 래시]로 발음되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위(爲)하다’는 토박이 낱말 형태가 찾아  
 지지 않지만, 제좃말에서만 유일하게 활용 모습에 심한 제약이 있는 ‘올다’  
 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말하다’ 뜻의 ‘굳다’와 함께 불완전 활용을 하는 동사  
 입), 오직 ‘올영’(위하여) 또는 ‘올언’(위하여)으로만 활용될 뿐이며, ‘올엇이’(하  
 염없이, 하는 일 없이)란 관용표현이 [올러시]로 발음될 뿐, [\*올레시]로 나오  
 지 않는다.

29) 제좃말에서 ‘냠오다’와 똑같이 행동하는 ㄱ(쌍기역) 받침 동사들은 다음과 같



자동적인 음운 규칙을 적용함)을 세울 필요도 없음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언어는 체계이다. 체계는 음운·형태·통사·화용 영역에서 모두 찾아지며, 경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 규칙들로 포착된다. 특히 음운 규칙이 자동적으로(무의식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음운 규칙이 적용된 모습(표면형)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의 기본 형태(기저형)를 표기해 주어야 한다. 비록 입 밖으로 나온 소리로서 [냥, 나끄, 낙]을 듣더라도, 이것들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의 낱말 형태 ‘냑’이라고 인식하며, 이 형태의 의미를 인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전두엽(pre-frontal lobe)에 있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sup>30)</sup> 고정된 어간 형태에 따라서 관련된 의미를 인출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음운 규칙을 써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장기기억에 저장하고 인출해 내는 과정의 단일함과 경제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처럼 소리대로 써서 결과적으로 표면형의 어간을 모두 표기하는 일부 방식은, 언어학의 기본 전제를 부인하는 처리 방식이다. 제춧말에서도 꼭 복수 어간을<sup>31)</sup> 설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에

---

다(단, 숫자는 동음의어를 나타내고, 빗금은 둘 이상의 수의적인 교체 어형을 뜻함). ‘값으다’(값다), ‘뒤으다<sup>1)</sup>(답다), ‘뒤으다<sup>2)</sup>(덜다), ‘뭉으다’(뭉다), ‘밖으다/밭으다’(벨다), ‘볶으다’(볶다), ‘볶으다/푹으다’(부풀다), ‘섞으다/헹으다’(섞다), ‘섞으다’(신다), ‘엮으다’(엮다), ‘죽으다’(짓다) 따위가 있다.

30) 베들리(Baddeley 1986)와 베들리(2007)에 따르면, 검박한 모습으로 설계된 작업기억에는 언어처리를 위한 음운 순환회로(phonological loop)와 감각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 지지각 그림판(sketchy pad)이 주어진 입력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중앙연산 처리기에 의해 처리해 나가게 된다. 소리 단서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표상하는 데에 중요하다. 최근 제킨도프(Jackendoff, 2012)에서는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이 강조되어 있고, 음운 표상이 실마리가 되어서 의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1) 이미 중세 국어를 다루면서 ‘쌍형 어간’이란 이름으로도 둘 이상의 어간이 있음을 가리켜 왔다. 이 방언 또는 제춧말에서는 어간이 들뿐만 아니라 서넛까

대해서는 바뀐 꼴(변이형태)로서 제16항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두 하나의 어간만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고, 그 형태를 표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두뇌 영상 촬영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처리는 전-전두엽에 있는 ‘작업기억’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지만, 기본 꼴의 처리는 제2의 두뇌(8가지 하위 부서로 이뤄진 테두리 뇌 또는 변연계)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대립적으로 바뀐 꼴의 처리는 제3의 두뇌(신피질)에서 혈류가 증가한다고 보고된다.<sup>32)</sup>

제줏말의 연구에서 잘못된 주장으로서 제줏말도 마치 일본어처럼 개방 음절을 갖고 있고,<sup>33)</sup>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도 나올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가리키기 위하여 ‘복수 어간’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

32) 제3의 뇌(신피질)와 제2의 뇌(테두리 뇌, 변연계) 사이의 유기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특히 핑커(Pinker 1999, 김한영 2009 뒤집:588, 603, 610, 635, 665 등)을 보기 바란다. 더마지우(Damasio, 김린 1999 뒤집)에서는 욕망과 감정을 떠맡는 제2의 뇌에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일어남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33) 비록 이 표기법과 결론이 서로 다르더라도, 제줏말의 개방 음절 가정에 대한 가장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은 아마 김홍식(1977)이 유일한 듯하다. 알타이어 및 중세 국어로부터 찾아낸 풍부한 사례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학문의 수준으로서는 대단한 업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집필자는 이 논문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음을 밝혀 고마움을 적어 둔다. 개방 음절을 반영한 표기는 박용후(1960:433)에서 특정한 받침(쌍기역, 티을, 피을) 어간에서 ‘으’가 더 덧붙여 활용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동일한 현상을 현평효(1985: 290, 416)에서는 표준어의 1음절 어간이 제줏말에서 2음절로 실현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15~16세기나 17~18세기의 중세 국어 어간 형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아직 중세 국어의 음절 형성 모습이나 음운 규칙이 이 방언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주장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확정된 바도 없다.

한국어의 어느 방언이든 크든 작든 중세 국어와 관련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겠지만(어떤 형태소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 그 하위 영역과 합치 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논증이 없이 가능성만을 사실상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음소 ‘으’도 중세 국어의 후설 원순 개모음(입술 개방 정도의 기준, 혀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저모음) [ɐ]와 이 방언의 후설 원순 반

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사들 중에 ‘으’ 모음을 갖는 사례들을 동원하기 일쑤이다. 2013년에 이 표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이다. 얼핏, 제11항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조건(conditional, ‘-으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뉘으면(뉘으면), 넘으면(넘으면), 묻으면(묻으면), 안으면(안으면), 잡으면(잡으면)’

이 일관되게 ‘-으면’(-으면)으로 표기되어 있고, 병렬(coordinating, ‘-고’)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중 일부에서

‘뉘으곡’(뉘고), ‘쫘으곡’(쫘고)

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사례들의 대부분은 ‘으’ 모음이 들어 있지 않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다. ‘뉘나, 뉘는’이 결코 [\*나끄나], [\*나끄는]으로 소리 나지도 않고, ‘넘곡, 넘나, 넘는’이 결코 [\*너뜨곡], [\*너뜨나], [\*너뜨는]으로 소리 나지도 않는다. 그렇더라도 일부 주장처럼 만일 “\*나끄-”가 본디 꼴(원형)이라

---

개모음 [ɔ]이 서로 동일한 발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입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특히 정승철 2014를 보기 바람), 여전히 ‘글자의 환영’(illusion)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발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체계들 사이에 비교를 해야 한다는 소쉬르의 명제를 엄격히 따른다면, 일부 형태의 동일성만 놓고서 미리 중세 국어 체계가 이 방언에서 유지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드시 여러 사실들으로써 증명이 된 뒤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따름이다. 중세 국어와 제춧말 사이에 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은, 거꾸로(마치 ‘역-설계’와 같이) 제춧말의 체계를 일부 중세 국어에 덧씌어 놓고서 일치 여부를 가능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같은 것만 아니라 또한 차이들도 다수 여실히 나타나고, 두 체계 사이의 동일성 내지 계승 유지 주장은 논증을 거친 뒤에 가능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 한다면, 왜 이런 환경에서는 ‘냠-(냉-), 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은 언어가 체계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런 개방 음절의 주장은 제춧말의 일부 사례만을 갖고서 과대 포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으’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갓 잘못된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으’는 광복 이전의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조음소’나 ‘매개모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주장되었다. 만일 받침소리로 끝나는 음절이 있을 때, 다음에 자음이 오거나 이어지면 ‘으’가 중간에 끼어들어 소리 연결을 ‘자음+모음’을 만들어 매끄럽게 해 준다는 주장이다. 만일 그렇다면, 언제나 두 자음 사이에 ‘으’가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어 자료에 대한 초보적 관찰에서부터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반례를 들기로 한다. ‘먹다’(to eat, 食)에 종결어미 ‘-지’와 연결어미 ‘-고’를 붙여 활용하면, 어떤 방언에서도 언제나 [먹찌], [먹꼬]로 소리가 난다. 자음끼리 이어져 있지만 결코 ‘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받침소리가 뒤에 이어지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을 뿐이다. 따라서 조음소나 매개모음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문을 종결어미 ‘-나’는 [멍나]로 소리가 나서, 역행동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지만, 선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나’가 붙게 되면, [머그나 마나](먹든 말든)처럼 소리가 난다. 종결어미는 ‘으’가 없이 쓰이고, 연결어미는 ‘으’가 들어가 있다. 이는 두 자음 사이에 끼어드는 모음(조음소, 매개모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으’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서 각각 의문을 나타내거나 또는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어학에서는 ‘으’는 어간이 아니라, 오히려 어미에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점을 이 방언에서 관찰하면, 일부 어미는 ‘으’가 들어 있고, 일부는 ‘으’가 들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11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건(표준어 ‘-으면’)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 어미는 일관되게 ‘-으면’으로 쓰이며, 일부 어간의 받침소리에 동화되어 ‘-이민’으로도 나올 수 있다. 즉, ‘쫓다’(to follow, 從)와 ‘찾다’(to find, 索)에서 구개음으로 된 받침 때문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이’로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나열(표준어 ‘-고’)을 나타내는 병렬 접속(또는 등위 접속) 어미는 표면상 ‘-으곡’과 ‘-곡’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자는 ‘냠으곡, 좃으곡’으로 제시되어 있고, 후자는 ‘냠곡, 막곡, 문곡, 살곡, 안곡, 잇곡, 잡곡, 좃곡’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직 세밀하게 이 방언의 받침소리들에 대한 위계가 설정되거나 제안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오직 다음처럼 추정 또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으곡’이란 어미에서 쌍기역 받침 ‘ㄱ’이나 거친소리(격음) 받침 ‘ㄷ’가 하나의 부류로 묶일 수만 있다면, 이들과 ‘-으곡’이 연결되고, 나머지 받침에서는 모두 ‘으’가 탈락된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앞으로 받침소리들의 나오는 환경들이 자세히 연구되어 입증될 필요가 있다.<sup>34)</sup>

34) 이 표기법 내용의 해설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표기법의 전반적 이해에 중요한 일로 판단되어 조금 길더라도 각주 형식으로 몇 가지를 덧붙여 적어 둔다. 2014년 여름에 우연히 집필자가 제춧말의 표기법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사반과 일반인을 위한 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집필자는 불가피하게 소릿글자 표기의 일반원리에서부터 한글 맞춤법을 거쳐 이 방언 또는 제춧말의 표기법에까지 기본 틀을 강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 방식이 도움이 됨을 깨달았다.

우리말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으로 나뉜다. 이는 다음처럼 정리된다. 제1 원칙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고, 어법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제2 원칙으로서 소리대로 적는다. 제춧말의 표기법은

어법을 원형 또는 어형으로 부른다. 곧, 이 방언의 표기법은 낱말이나 문법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것을 다루었다. 이 원형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둘 이상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디 꼴과 바뀐 꼴로 부르거나 또는 원형과 변이형(변이형태)으로 부른다. 다시 말하여, 『한글 맞춤법』의 ‘어법’이 이 방언의 표기법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나누어 본디 꼴(원형)과 바뀐 꼴(변이형)로 구분한 것이다. 이 구분을 확정하는 데에는 고동호 선생(전북대 국어국문학과)의 기여가 컸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뀐 꼴을 찾아내는 일이다. 본디 꼴과 바뀐 꼴을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소리에 따라 적어 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바뀐 꼴’이다. 얼마만큼 어떤 범위로 정해 주느냐가 제일 첨예한 문제가 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집필자는 ‘중다’를 비격식투의 대우 의문문으로 말할 경우에 언제나 [중수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구좌 출신의 동료 교수(50대 후반이며 19살까지 제주에서 살았음)는 ‘-수’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으우’라는 형태소를 써서 [중으우과?]라고 말한다. 여기서 ‘-수’와 ‘-으우’는 어떤 것을 본디 꼴로 보면 다른 것은 바뀐 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일들이 함께 맞물려 있다. 일부에서는 [중수과?]라고 발음하고, 또한 [조으우과?], [조우과?], [조 :과?]로도 발음한다. 여기서 어떤 것을 바뀐 꼴로 간주할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 집필자가 취하는 보수적인 태도로만 본다면, 오직 ‘중수과?’와 ‘중으우과?’만 본디 꼴과 바뀐 꼴로 적고, 준말로서 ‘조과?’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집필자의 보수적 태도로는 이 표기에서 결국 세 가지 꼴만 적게 됨). 그렇지만 논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중수과?]의 의문 형태를 바뀐 꼴로 보아 ‘수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조으우과?]뿐만 아니라, [조우과?]도 바뀐 꼴로 보자고 주장할 수 있다. 2013년 표기법을 정하는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보지 못하였다. 집필자 또한 이해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았을 뿐임을 적어 둔다.

근간 고동호 선생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적으로 서로 이 표기법의 보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집필자가 들었던 몇 가지 사항 중 세 가지 점을 적어 둔다. 첫째, 고동호 선생이 ‘ㄱ’ 글자와 ‘ㄴ’ 글자를 이 표기법에 살려 놓아야 했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집필자(김지홍)도 또한 처음부터 ‘ㄱ’를 표기에 쓰되 이 발음이 중모음 [we]라고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이미 주장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선뜻 동의한다.

둘째, ‘ㄴ’ 글자를 표기에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한 고재환 선생이 『한글 맞춤법』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위원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보류하려는 자세가 역력하였고, 집필자 또한 유보적이었다. 고동호 선생은 인용문 형식에서 ‘-아’로 끝나는 본디 꼴 형태와의 유연성을 염두에 두면서, 인용어미 ‘인’ 또는 ‘ㄱ’을 연결시키면 현재 표기법에서 ‘-엔’으로 쓰도록 하고 있지만, ‘-엔’이 본디 형태를 연상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을 찾아 그 본디 꼴을 유지시켜 주는 표기 방식이 된다. 이 점 또한 다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모음 [w]의 표기로 ‘ㄱ’을 살리자고 하는 제안도 하였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오직 반모음 [w]의 표기로서 ‘ㅇ’만을 쓰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고동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낱말들을 근거로 삼고 있다. ‘물리다’(말리다)의 사역형 낱말은 ‘물리우다’이다. 이 낱말이 연결어미 ‘-양’(-아서)과 이어지면, ‘물리우양’으로 된다. 이 형태가 줄어들어 2음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준말을 쓰려면 ‘물량’으로 되어야 본디 꼴과의 유연성이 확보된다. 현재 제춧말 표기법에서는 맞춤법에 따라 오직 반모음 [w]를 ‘ㅇ’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량’으로 써야 한다. 왕따를 이 방언에서는 ‘덜르다’(따돌리다) 또는 ‘딸르다, 딸르다, 쫘르다’라고 말한다. 이를 사역형으로 쓰면 ‘덜루다’가 된다. 이 낱말은 송상조(2007:218)에 ‘똥리다’로 올라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2009:297)에 ‘똥르다’로 올라 있다. 상태를 가리킬 때에는 ‘덜르다, 딸르다, 딸르다’가 되겠지만(아마도 어형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동작이나 과정을 가리키려면 사역 접미사가 붙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집필자에게는 예사소리(평음) ‘덜루다’가 된소리 ‘똥루다, 똥루다’보다 더 자연스럽다. 여기에 연결어미 ‘-양’을 붙이면, ‘똥루양’(따돌려 버려서)이 되며, 음절이 줄어들어 ‘똥량’처럼 준말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고동호 선생은 반모음 [w]를 ‘ㄱ’로 써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 표기법에서는 반모음 [w]를 ‘ㅇ’만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똥량’으로 써야 한다. ‘따돌려 버리다’라는 말을 ‘똥루아 불라!’고 말한다. 이 또한 ‘똥과 불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본디 형태와의 유연성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 한글 맞춤법을 따라 반모음 ‘ㅇ’만 고집할 경우에, 원래 형태와 준말 사이에 유연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점도 또한 2013년 당시 표기법 연구진에서 미처 논의되지 못한 사안이다.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이 방언의 표기법을 정해 가는 과정 동안에도 연구진에서는 표기법이 정해지자마자 바로 구체적인 채록 또는 전사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이 표기법을 개선하는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이 논의되었다. 채록 또는 전사 작업들이 일정 기간 동안(최소한 6~7년 이상) 진행되면서, 문제가 될 법한 낱말(형태소 포함) 형태들이 수두룩하게 부각되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례들을 잘 정리하고 판정한 뒤에 다시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 ① 본디 꼴로 적을 것인지
- ② 바뀐 꼴로 적을 것인지
- ③ 소리대로 적을 것인지(꼴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임)

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결정이 내려지면 마지막으로 이 방언에 대한 사전(가칭 ‘제춧말 사전’)을 만드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 ㉠ 지금까지 나온 사전들을 포함하여, ㉡ 이 사전에는 반드시 채록 또는 전사된 발화 표본도 풍부하게 실제 용례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 반드시 낱말의 형태소 분석과 설명(공시적 설명 및 통시적 설명)도 추가되어야 옳다. 이런 사전을 누리집 형태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속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공간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 제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쫙(兩-)	녹각(鹿角)
니스무소(里事務所)	양편(兩便)	여즈(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붙임]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	--------	--------	--------

제12항은 한자 형태소가 단어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국어의 어두에서 나타나는 제약 현상인 두음법칙을 반영하여 한자 형태소를 적도록 한 것이다. 즉, 단어 첫머리에 위치한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두음법칙에 따라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디 소리가 ‘녀, 뇨, 뉴, 니’ 등인 한자 형태소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ㄴ/이 탈락되어 발음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여, 요, 유, 이’ 등 바뀐 꼴로 적는다.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여즈(女子)	요소(尿素)
--------	--------



둘째, ‘라, 래, 로, 뢰, 루, 르’ 등으로 시작하는 한자 형태소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나, 내, 노, 뇌, 누, 느’ 등으로 발음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바뀐 꼴로 적는다.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낙방(落榜)                      녹각(鹿角)

위와 관련하여 제춧말 표기 사례 중 ‘니스무소’는 ‘이스무소’와 함께 두 개의 바뀐 꼴로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 단어는 표준어 한자 합성어 ‘이사무소(里事務所)’에 대응되는데 제춧말에서는 ‘이스무소’ 또는 ‘니스무소’로 발음된다<sup>35)</sup>. 이러한 경우 실제 발음 모두를 반영하여 적을 수 있다.

셋째, 본디 소리가 ‘랴, 려, 례, 료, 류, 리, ㄹ’ 등인 한자 형태소가 단어 첫머리에 오면 실제 발음에서는 /ㄹ/이 탈락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야, 여, 예, 요, 유, 이, 으’ 등 바뀐 꼴로 적는다. 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양편(兩便)      열녀(烈女)      예도(禮度)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그런데 앞의 사례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ㄹ/이 탈락되지 않고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제춧말 표기 사례로 제시된 ‘냥(兩)’<sup>36)</sup>, ‘냥쫙(兩-)’<sup>37)</sup> 등의 의존명사가 그렇다. 이들은 단어 첫머리에 본디 소리로 /ㄹ/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위의 예들처럼 /ㄹ/이 탈락된 [양], [양쫙]이 아닌 [냥], [냥

35) 이는 편의에 따른 개인적 발음 차이에서 비롯된다.

36) ‘금 혼 냥’ 등과 같이 수관형사와 어울려 쓰인다.

37) ‘은 닷 냥쫙’ 등과 같이 수관형사와 어울려 쓰인다.

쥬]으로 실현되므로 발음에 따라 바뀐 꼴로 적는다.

한편,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바뀐 꼴이 아닌 본디 꼴로 적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뻗 년(뻗 년)’, “추울 리가 엇주.(추울 리가 없지.)”에서의 의존명사 ‘년(年)’과 ‘리(理)’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 발음에서 본디 소리가 유지되므로 본디 꼴로 적는다.

[불임]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위치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디 소리를 반영한 본디 꼴로 적어야 하지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률’은 실제 발음에서 본디 소리가 아닌 [열], [율]로 실현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열’, ‘율’ 등 바뀐 꼴로 적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표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위에 제시한 단어들의 둘째 음절 초성은 본디 소리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는 /ㄴ/이 탈락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바뀐 꼴로 적는다. 따라서 ‘나렬’, ‘비률’, ‘분렬’, ‘진렬’ 등으로 적지 않는다.

## 제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대      락님      ㄹ날[午日]      ㄹ쉬      소냥/소남

2.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술궤기      ㅁ궤      동카름      보리크르      ㄴ물팻  
우영팻      조팻      우녁칩      할망칩      식궤칩

3.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줍궤      ㅊ궤

인간 언어의 기본 단위는 사과의 기본 단위와 일치하는데, 흔히 ‘절’(clause)이라고 말한다. 용어를 엄격히 쓰는 쪽에서는, ‘절 유사 단위’(clause-like unit)라고도 부른다. 절 속에는 반드시 핵어(head)로서 동사 또는 동사와 유사한 실체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를 거꾸로 표현하여, 동사가 절을 투영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통문법에서

는 이를 ‘문장’이라고 불렀고, 철학이나 수학에서는 이를 ‘명제’라고 부른다.<sup>38)</sup> 인간 사고의 연결 과정을 따지는 철학이나 수학에서는 철저히 진리값을 따질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본다. 그러나 진리값을 따지지 않고 심적인 그물짜임 방식만을 추적하는 심리학에서는 실세계의 ‘날개 사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절이라 부르든, 문장이라 부르든, 또는 명제라 부르든, 하여간 언어의 특성은 절이라는 기본 단위가 스스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내적 구조’를 지닌다고 말한다. 만일 언어의 기본 단위를 집 한 채로 비유한다면, 내적 구조는 기둥과 벽돌 따위로 말할 수 있다. 만일 언어의 기본 단위를 분자 덩어리라고 한다면, 내적 구조는 핵과 전자 따위로 말할 수 있다. 어떤 언어학의 방식을 따르든 간에 기본 단위인 절을 나누어 놓을 때에 날개의 개념을 보존해 주는 단위를 날말이라고 부른다. 이 표기법에서는 ‘어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휘는 날말보다 더 큰 구절이나 관용구까지 싸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휘 형태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 해설에서는 쉽게 ‘날말’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

38) proposition을 명제라고 번역한 이는 일본이 개화되던 초기에 화란에 유학했던 젊은이 서주(西周, 일본의 계몽 철학자로서 일본 발음은 ‘니시 아마네’)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명령문 형태의 표제’를 줄여서 만든 이 번역 용어는 잘못이다. 결코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서술문이거나 단정문일 뿐이다 (최소 단위 진술문임). 이런 한자어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명제란 말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비판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일상언어 철학의 논의에서는 시체가 없이 쓰이는 명제가 시간과 공간을 고정시켜 지니게 될 때에 진술(statement)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언어학에서는 진리치를 따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한 명제의 내적 구조와 그런 구조들의 일반성을 다루게 된다. 이를 절-유사(clause-like) 단위라고 말하는 것은, 절을 만들어 주는(투영하는) 동사가 실세계에서 하나의 사건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절 또는 문장은 짜임새가 주어지 있는데, 이를 규칙 또는 문법이라고 부른다. 규칙은 내적 구조 또는 내적 짜임새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서로 얽히고 짜일 적에 동원되는 요소들 중에 제일 작은 단위를 낱말이라고 부른다. 낱말은 원래 만들어진 낱말이 있고, 다시 새롭게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변조하여 만들어 낸 낱말들이 있다. 새로운 낱말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대체로 이미 있는 낱말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방식이 있고, 낱말과 낱말은 붙여서 한 낱말로 만드는 방식이 있으며, 낱말의 품사를 바꾸어 새 낱말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다의어나 동음이의어가 나오며, 두 번째 방식은 합성어가 나오며, 세 번째 방식은 파생어가 나온다. 첫 번째 방식에는 언어 형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형태의 내용이나 의미가 달라진다. 세 번째 방식에는 고유한 접사들이 있다. 이 접사들은 통사 규칙에서 쓰이는 어미들과는 모습과 행동이 다르므로 쉽게 구분된다.

문제는 두 번째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통사 규칙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새로운 낱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 또는 문장으로 귀결되어 나올 뿐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식에서는 가장 손쉽게 통사 규칙을 위배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낱말들은 제3의 두뇌인 신피질 속에 고유하게 자리 잡는다. 반면에 통사 규칙은 제2의 두뇌(테두리 뇌 또는 변연계)에서 작동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국어학계에서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였다. 유희(1824) 『언문지』에서는 우리말에서 한자음 사이에 들어 있는 ‘사이시옷’을 처음 자각하였고, 진지하게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sup>39)</sup> 합성어 표지가 사이시옷으로 대표되었던 것일 뿐, 통사

39) 김지홍(2013:229~233)에서 §.4 ‘종성례의 사이시옷 자각’이란 소제목으로 각별히 다루고 있다.

규칙을 위배하는 방식은 어근과 어근을 그대로 붙여 놓거나

꿂+주리다, 붙+잡다, 꺾+세다, 걸+붙다

어근과 명사를 붙여 놓기도 한다.

먹+거리, 나들+목, 알뜰+주부, 늦+잠, 얼룩+소.

제웃말에서는 ‘사이히웅’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합성어에서 히웅이 덧나는 경우를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이전에 중세 국어를 다루면서 ‘ㅎ중성 체언’으로 불렀던 사례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합성어의 표지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어간에 히웅이 들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설명 방식의 차이가 난다.

영어에서는 어순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다. 영어 통사 규칙은 핵어가 앞에 나오지만(he caught fish; he hunted deer, 밑줄이 핵어를 가리킴), 낱말로 만들어지려면 거꾸로 우리말 어순처럼 핵어가 뒤에 간다(fish-catching; deer-hunting). 이는 통사 규칙과 낱말 합성 방식을 서로 구별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 영역의 처리 및 저장 방식과도 서로 일치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통사규칙과 다른 모습을 구현해야 합성어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는 인식이 들어 있지 않다. 대신 뚜렷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과 완벽히 굳어진 낱말들을 제외하고서는 가급적 사잇시옷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였다. 이 점은 장차 『한글 맞춤법』을 재개정할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고쳐져야 할 대목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국어학계에서도 이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제웃말의 표기법에

서도 비록 통사 규칙을 위반하는 고유한 낱말 형성의 방식을 곧장 반영하여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합성어가 ‘바뀐 꼴’ 아래에서 다뤄진다는 점 그 자체가 통사 규칙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혁신적으로 합성어를 만드는 방식을 따로 파악하여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현행 『한글 맞춤법』과 보조를 맞추려는 선에서 머무는 선택을 하였다.

제13항과 제20항에서는 제죽말의 합성어에 대한 표기를 다루고 있는데, 낱말 형태에 변동이 생긴 것들이다. 크게 하나는 낱말 형태에서 일부가 탈락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요소가 덧붙은 것이다. 후자는 ‘사이히웅’과 ‘사이비읍’으로 부를 법한 사례들과, ‘사이시옷’에 대한 사례들이다. 후자는 모두 완벽한 낱말이 되었음을 표시해 주는 자연부류에 속하며, 그런 자연부류가 하위로 대상들에 따라서 작은 범주로 나뉘면서 다른 덧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합성어를 이루는 자연부류의 하위범주들이 더 자세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에 대한 자각은 특히 생성 통사론의 획기적 연구의 발전에 힘입었다. 초기에 번다하게 많던 통사 규칙들이 원리와 매개인자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다시 남아 있는 소수의 원리들도 몇 가지 인식 조건의 필요성에 따라 도출됨을 깨달았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그렇다면

‘왜 낱말들은 통사 규칙을 따르지 않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낱말 자체가 통사와 구별되어 따로 신피질의 관련 부서에 저장되기 위하여 마침내 ‘반-통사적’(통사와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전환이 여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1930년대의 소박한 언어관만이 아무런 비판도 없

이 인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낱말에 터전한 소박한 언어관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이시옷 자체가 처음 『한글 맞춤법』을 정할 때에서부터 골치거리였다. 이 방언 또는 제줏말에서 관찰되는 사이시옷에 대해서도 『한글 맞춤법』의 처리를 고려하면서 한 데 모아 제20항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제13항에서는 사이시옷을 제외하여 하위에 세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다. 첫째, ㄹ받침으로 끝나는 낱말들에서, 합성어가 되면 ‘ㄹ’이 탈락되는 경우를 다룬다. 둘째, 평음(예사소리)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합성어로 되면, 합성되어 완벽한 낱말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히읏이 덧붙어 격음(거친소리)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셋째, 곡물들이 정미되어 먹을 수 있도록 되면 비읍이 덧붙어 합성어를 이룬다.

제13항 1에서는 ‘굴’(갈),<sup>40)</sup> ‘딸’(딸), 몰(말)이라는 고유한 낱말이 쓰인다. 이들이 합성어를 만들 때에는 \*굴대, \*딸님,<sup>41)</sup> \*몰쉬<sup>42)</sup>로 소리 나지 않고, ㄹ받침이 탈락되어

‘ㄱ대(叢竹), 딸님(令愛), 모쉬(牛馬),<sup>42)</sup>

40) 이 낱말은 현재 이 방언의 사전들인 현평효(1962), 제주대 박물관(1995), 송상조(2007), 제주문화예술재단(2009)에서 표제 항목으로 올라 있지 않다. 다만 ‘ㄱ대’라는 표제 항목을 설명하면서 ‘갈대’라는 낱말을 썼기 때문에, 일단 분석 가능한 것으로 보고, ‘굴’을 적어 둔다. 그렇지만 현지 방언조사를 통하여 이 낱말이 실제 쓰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갈대’를 경북 방언에서 ‘싸리, 싸릿대’로 쓴다고 하였고, ‘조리’를 찾으면 표제 항목 ‘갈매나무’로 가도록 되어 있다. ‘갈매나무’의 한자가 여러 가지이며, ‘저리’(楮李), ‘조리’(阜李) 등도 보인다.

41)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 알량한 딸님!”과 같이 발화될 경우도 있다. 이는 그와이스(Grice 1988)에서 언급된 네 가지 대화 규범에서 질에 대한 의도적 위반(flouting)으로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대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일부러 대우해서 발화함으로써 반어가 됨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접미사 ‘님’을 일부러 붙여 놓은 것이므로 관계적인 속뜻을 낳고 있는 것이다.

42) ‘소’는 이 방언에서 [swe, fwe]로 발음된다. ‘수염’을 단 소를 가리키는 ‘염소’도 이 방언에서는 ‘염췌[swe], 염췌[fwe]’로 소리 난다. 합성어 ‘모쉬’(말+소)는



으로 소리가 나는데, 소리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sup>43)</sup> 다시 말하여, 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란히 ‘딸, 따님’, ‘뭍, 뭍쉬’가 이미 독립된 항목들로서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ㄹ받침이 탈락하는 현상은 표준어에서도 똑같이 관찰된다. 이 현상을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119쪽 이하)에서는<sup>44)</sup> ㄹ받침과 바로 뒤 이어 나오는 ‘ㄴ, ㄷ, ㅅ, ㅈ’이 동일한 발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ㄹ받침이 탈락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소리가 모두 혀끝을 올리는 자음들이라는 점에서 수궁이 간다.

그런데 한자의 합성어에서는 이들 중 ‘ㄷ, ㅈ’만 ㄹ받침을 탈락시킨다. 가령, ‘불’(不) 뒤에 ‘ㄷ, ㅈ’ 소리가 이어지는 경우를 보면 ‘부당(不當), 부덕(不德), 부자유(不自由), 부정(不淨)’ 따위가 있는데, 모두 ㄹ받침이 탈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ㄴ, ㅅ’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불능(不能), 불녕(不佞), 불시(不時), 불사이군(不事二君)’

따위의 예를 보면, 여전히 ㄹ받침이 그대로 보존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운 탈락에 대한 설명은, 왜 한자어에서 일부(ㄷ, ㅈ)만 ‘ㄹ’받침을 탈락시키는지를 제대로 가려 주어야 할 것이다.

---

ㄹ받침의 탈락뿐만 아니라, 또한 ‘쇠’의 ‘e’가 ‘i’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43) 표기법 해설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음운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뭍날, 솔남/솔남’도 쓰일 수 있음이 몇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아마 구적 낱말(phrasal word)로 만들어진 듯하다. 완벽히 낱말(합성어)로 이뤄진 경우에는 ‘뭍날, 소남/소남’으로 되어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될 듯하다.
- 44)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이외에도 한글 맞춤법에 대하여 이미 많은 수의 해설서들이 나와 있다. 이익섭(1992)에서는 훈민정음 표기법을 『한글 맞춤법』과 같은 서술 방식으로 재정리하여 오늘날의 표기법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이다.

이 방언에서 이들 예시를 근거로 하여, 계속 ㄹ받침을 탈락시키고서 규칙처럼 합성어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오직 결과적으로 받침 리음이 탈락되어 합성된 낱말들이 있고, 그 낱말들이 분석되거나 규칙이 적용됨이 없이 그대로 머릿속 낱말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 까닭은 ㄹ받침을 지닌 낱말 중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 ‘사이히웅’을 지닌 사례들도 관찰되기 때문에, 굳어진 낱말로 설명해 두는 것이다.

제13항 2에서는 ‘사이히웅’으로 부를 법한 합성어를 다루고 있다. ‘술’(살)과 ‘쾌기’(고기)가 결합하여 ‘술쾌기’(살코기)로 되었다. 과거에는 이른바 ‘ㅎ중성 체언’으로 여겨 ‘숯’과 같은 어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ㅎ중성’을 갖고 있다고 여길 수 없는 낱말들이 허다하다. 한자어 동(東)이나 서(西)는 본디 ㅎ중성이 없다.<sup>45)</sup> 그렇지만 ‘동’이나 ‘서’와 ‘가름’이 결합하여 [동카름](한 마을에서 동쪽에 위치한 동네), [서카름](한 마을에서 서쪽에 위치한 동네)으로 소리 난다. 또한 마을을 지키는 당(堂) 또는 서낭당(城隍堂)이 있는 곳을 ‘당카름’이라고 부른다. 곡식을 가리키는 ‘보리’와 ‘조’도 또한 ‘그르’(그루터기)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면 각각 히웅이 덧붙여 ‘보리크르’(보리를 베고 난 그루터기), ‘조크르’(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로 소리 난다.

45) 한전(漢典) 누리집 <http://www.zdic.net/>을 검색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동 (東)	『광운(廣韻)』 평성 동(東) 운의 개구 1등운 tung, 북경 표준음 dong 1성, 오(粵) 방언 dung 1성, 객가(客家) 방언dung 1성, 조주(潮州) 방언 dang(tang) 1성 및 dong(tong) 1성
서 (西)	『광운(廣韻)』 평성 제(齊) 운의 개구 4등운 se/sei, 북경 표준음 xi 1성, 오(粵) 방언 sai 1성, 객가(客家) 방언 si 1성, 조주(潮州) 방언 sai 1성

또한 김유범(2006)에서 다룬 ‘ㅎ’ 보유 한자어에도 속하지 않는다.

쌀의 종류에 따라 지은 밥을 흔히 이 방언에서는 합성어로 ‘곤밥’(흰쌀밥), ‘보리밥’, ‘조팍’(조밥)이라고 말한다. 벼에서 수확한 흰 쌀을 이 방언에서는 ‘곤쌀’로 부르고, 곤쌀로 지은 밥을 ‘곤밥’으로 부르지만 아직 그 어원은 잘 알 수 없다.<sup>46)</sup> ‘곤밥, 보리밥’에는 합성어를 표시해 주는 덧소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팍’에는 사이히응이 들어가 있다. 현재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덧들어 가 있는 히응 소리를 있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것이다.

‘집’이라는 낱말도 다른 낱말과 결합하여 쉽게 합성어를 만든다. 제사 모시는 집을 ‘식계칩’,<sup>47)</sup> 할머니가 사는 ‘할망칩’, 오른쪽 녀을

46) 민간어원을 그대로 방언사전에 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한 태도는 아니다. 흔히 ‘곱다’라고 생각하여 ‘고운 밥’이라고 풀이하지만, 모양이나 자태 또는 가루가 곱다고 말하므로 뜻이 어색하다. 아마도 흰 색깔은 오히려 ‘깨끗하다’고 판정해야 할 법하다. 또 ‘고운’이 ‘곤’으로 축약되는 일도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아마 식감 또는 맛과 관련하여 어원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잡곡은 식감이 거칠고 딱딱하지만, 쌀밥은 부드럽고 달다는 것이 어릴 적 집필자의 느낌이다. ‘고다, 고으다’라는 낱말이 있는데, 이는 좁은 뜻으로 주로 엿을 고아 만드는 일만 가리키므로, 쌀밥과 직접 관련짓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쌀의 ‘정수[精髓]’라는 뜻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음).

다른 방법은 제주대 박물관(1995)와 송상조(2007)를 보면, ‘곤쌀’을 표선 지역에서 ‘큰쌀’로 부른다고 올라 있다. 이는 아마 낱알의 물리적인 크기라기보다는, 아마도 쌀 중에서 가장 으뜸인 지위를 가리키는 듯하다. ‘크다’는 말은 제주시 건입동 옛지명을 ‘건들개’(큰+들+개)로 말하므로, ‘곤’을 크다(으뜸이다)는 뜻으로 대응시킬 소지도 있다. 여기서 거친소리(격음)는 쉽게 발달을 추리할 수 있지만, 모음을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서인가 모음추이가 상정될 필요가 있다.

47) 이 낱말에 대한 어원도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세 가지 그럴 듯한 주장을 적어 둔다. 무속 쪽에서 ‘씻김굿’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씻그다+에 → 씻개 → 식개)를 들을 수 있었다. 한자로 풀이하는 이들은 식가(食家, 조상신에게 밥을 먹이는 집)과 관련된다고 본다. 어학 쪽에서는 흔히 “식계 먹으레 글라!”(제사 지내러 가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낱말의 이음말이 ‘식계 먹다’이므로 ‘밥 먹다, 저녁 먹다’와 같이 음식물 관련 의미자질(음복 대상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강영봉(2007:111쪽 이하)에서 조선조 때

가리키는 ‘우넉’과 집이 결합하여 ‘우넉집’ 따위가 그러하다. 그런데 ‘집’과 관련된 합성어들은 수의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식계쩍], [할망쩍], [우넉쩍]으로도 소리 날 수 있다. 그러나 제20항에서는 한글맞춤법의 처리 방식을 고려하면서(음운론 차원에서 다만 음소 첨가 현상으로만 파악하였음), 가급적 사이시옷을 표기에서 배제시켰고(\*식곶집, \*할망ㅅ집, \*우넉집), 대신

‘식계집, 할망집, 우넉집’

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낱말이 서로 수의적으로 바뀌어 쓸 수 있거나, 또는 세대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낱말들이라면(젊은 세대일수록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는 합성어를 쓸 것으로 보임), 두 개의 합성어가 같이 쓰일 수 있다.

하나의 경향 또는 변화 흐름으로서, 사잇소리로서 ‘ㅎ’(사이히읇)이 들어가 있으면 보수적이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합성어일 수 있다. 반면에, ㅎ(사이히읇)이 아니라 ㅅ(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바로 이어지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드는 합성어를 쓴다면, 표준어 교육을 받고 서울말의 모습과 뒤섞여 있는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 관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중 현상은 이 방언의 표기법을 정하는 작업의 초기에서부터 이미 지적되었고, 충실히 이들을 그대로 보여 주도록 결정을 한 바 있다. 다시 말하여, 제1장

---

법식으로 정해 놓은 여러 종류(정기휴가, 영친, 신병 등)의 휴가(식가 式假, 법식으로 정한 휴가)를 ‘식계’의 어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번역의 오류이다. 그곳에 잘못된 어원 주장들이 다수 있다. 가령 ‘허맹이 문세’(虛名文書)를 특정 인물의 이름 허명(許溟)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잘못이다. 『자치통감』을 보면 한나라 때(B.C. 67년 3월)부터 ‘허명’(虛名, 가짜 공문서)이란 말이 공식적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총칙의 제3항에서 세대 사이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ㅎ소리(사이히응)가 덧붙은

‘식계칩, 할망칩, 우녁칩’

도 쓸 수 있고, 비록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지만 표기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식계집, 할망집, 우녁집’도 둘 모두 가능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제13항 3은 곡물 따위의 합성어에서 관찰되는 ‘사잇소리 ㅂ’(또는 ‘사이비읍’)에 대한 규정이다. ‘줍쌀, चु쌀’ 등이 그러한데, 모두 앞 낱말의 받침으로 쓰도록 규정하였다. ‘줍쌀’은 어원이 ‘출지다’(찰지다)에서 나왔으므로, ‘출떡’(찰떡)에서 보듯이 아마 ‘출’이라는 어간이 그대로 명사와 결합한 사례이다(출+ㅂ+쌀). 여기서 먼저 ㄹ받침이 탈락되고, 다시 곡물류의 합성어에서 관찰되는 사이비읍을 받침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비로소 ‘줍쌀’이 될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그 해에 수확한 쌀을 ‘햅쌀’로 부르고, 메벼에서 나온 쌀을 ‘멥쌀’로 부른다. 또한 잡곡류나 찹쌀과 대립시켜 멥쌀을 ‘입쌀’로도 부른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이 방언의 사전들에서는 이런 낱말이 올라 있지 않다. 제주도는 물이 귀하여 중산간 지역에서 밭벼가 재배된 적이 있고, 이를 ‘산디’(山稻)로 부른다.<sup>48)</sup>

---

48) 이 표기법에서는 이중모음 ‘의’를 오직 한자어만을 적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비록 한자 어원 ‘산도’(山稻)를 상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박이 제춌말로 보아 불가피하게 ‘산디’라고 적어야 한다(표준어에는 한자어 ‘산도’만 있음). ‘산디’는 ‘산뒤’로도 발음되고, ‘벵디’는 ‘벵뒤’로도 발음된다. 따라서 두 형태를 다 적을 수 있다.

## 제14항 파생어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

파생어 가운데는 제9항과 같이 어근과 접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제14항에 예시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은 불규칙적 어근과 접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어근이고, 접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파생어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위와 같은 파생어 ‘하르방, 하르바님’들은 제9항의 파생어 ‘할아버지, 할애비’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의 다른 점은 분석했을 때 제9항의 파생어들은 어근과 접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데, 위의 파생어들은 그렇지 못하다. 곧, 제9항의 파생어는 접두사 ‘할-’과 어근 ‘-아버지, -애비’로 분석이 가능한데 위의 파생어들은 ‘할 -으방, -으바님’으로 분석하든 ‘하-르방, 하-르바님’으로 분석하든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제9항의 어근 ‘-아버지, -애비’들은 자립적이고 실질적인 뜻을 알 수 있어서 어근과 접사를 밝히어 적었지만, 위의 어근 ‘-으방, -으바님, -이비’들의 형태만을 보아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뜻도 알 수 없다. 이런 파생어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규정이다.

표준어에서는 ‘할-’에 ‘아버지’가 결합되어 ‘할아버지’가 파생되어

쓰이지만, 제춧말에는 ‘할-’에 ‘-아방’이 결합되어 쓰이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하라방]이라고 발음되는 일도 없고, 그런 말도 없다. 오직 [하르방]으로만 발음한다. 표준어 ‘할아버지’에 대응되는 제춧말은 ‘하르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르방’이라고만 적어야 한다. ‘하루방’도 아니다. 그리고 [할르바님]이나 [할리비]로도 소리 나는 일이 없다.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로만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로 적어야 한다.

그밖에도 ‘오라방’이나 ‘아지망’ 또는 ‘아지방’이나 ‘오래비’ 따위도 있는데 이들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리고, ‘오라방’의 높임으로 ‘오라바님’이란 말도 있지만 이것도 어근과 접사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메틀’이나 ‘두깡이’는 표준어로는 ‘며칠’이나 ‘뚜껑’이지만 이들도 표준어나 제춧말에서 어근과 접사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쓰도록 한 것이다.

## 제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	-------	-----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ㄷ, ㅈ, ㅊ/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ㄷ, ㅈ, ㅊ’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제10항과 제15항은 ‘체언과 조사’를 적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0항은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는 본디 꼴을 살려서 적는 방법에 해당되는데, 제15항은 이와 다르게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실현되는 경우 그대로 적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제주어 표기법」 제2항 원리 및 방법에서 규정한 “‘형태소의 바뀐 꼴을 인정하여 적는다.’를 적용한 사례이다.”(2항 참조).

제24항 제10항은 「한글 맞춤법」 제14항과 같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원래 형태와 다르게 소리가 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기준과 같다. 표준어와 동일하게 제10항을 설정하면 제15항과 같은 유형을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죽말의 특성을 보여주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먼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규정을 좀 더 설명해 보겠다.<sup>49)</sup>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더라도 본디 꼴을 적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집이[지비], 소곱에[소고베]’에서 보듯이 [지비]와 [소고베]처럼 소리가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는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5항에서 체언 ‘안[內]’과 질[路]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하면 ‘안에, 질에’로 적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표기할 경우 [아네], [지레]로 소리가 나야 한다. 그런데 제죽말에서는 언제나 [안네], [질레]로 소리가 난다. 따라서 소리가 바뀔 만한 이유가 없으나 격조사의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그대로 적되 이때에도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네’와 ‘레’를 처격조사로 볼 수 있는가이다. 굳이 근거를 든다면 ‘안’과 결합하는 ‘에’에 ‘ㄴ’이 첨가되어서 ‘네’로 굳어졌다고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질’과 결합하는 ‘에’에 ‘ㄴ’이 첨가되어서 ‘레’가 격조사처럼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중세국어(15~16세기)로는 ‘안호로’(안으로), ‘안해(안에)’<sup>50)</sup> 등이 쓰였고, ‘안ㅎ’이<sup>51)</sup> 조사와 결합되면 ‘안

49) 여기서 체언은 학교문법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다.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가리킨다.

50) 중세국어 처격조사로는 ‘에, 예, 예’ 형태가 쓰였으며, 이들은 선행 명사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선택되었다. 즉 선행 명사가 양성모음으로 끝나면 ‘에’가, 음성모음으로 끝나면 ‘예’가, 이 모음(반모음 포함)으로 끝나면 예가 쓰였다.

해>안애(ㅎ탈락)>안에'로 변천되었다. 그런데 제춧말은 [안해]로 소리나지 않고 [안네]로 소리나므로 이때 '안네'를 '안에'의 바뀐 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춧말의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제15항은 바뀐 꼴을 표기 방법으로 정하였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안네'에 보조사 '도, 만' 등이 결합할 경우에도 소리 나는 대로 '안네도, 안네만'과 같이 적으면 된다. 이 경우 간혹 화자에 따라 [아네도], [아네만]으로 발음할 수도 있으므로 [안네도]와 [아네도], [안네만]과 [아네만]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안네'로 바뀐 꼴을 인정하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에는 '질레'를 통해 제15항의 규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체언 '질'에 조사 '에'가 결합하면 '질에'[지레]로 소리가 나야 하지만 제춧말에서는 [질레]로 소리가 나므로 바뀐 꼴인 '질레'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명사 '질'에 보조사 '도, 만'을 결합하면 '질도, 질만'이 된다.

표준어 '길'은 중세국어 '길ㅎ'에서 변하였고, 제춧말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길'이 '질'로 변하였다. 따라서 '질'을 본디 꼴로 보면 여기에 처격조사가 결합되어도 [지레]로 연철되지 않고 [질레]로 분철된다고 본다. 다만 제15항에 제시된 것은 소리가 바뀐 경우 그것을 인정하여 적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합성어 '한길'[大路]에 조사 '에'가 결합하면 '한질에'[한지레]로 소리가 나고, '웃한질에'[우탄지레/운탄지레]에서도 [지레]로 소리가 난다. 이때 '질' 단독형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되면 체언과

---

51) 'ㅎ말음'을 지닌 명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면 'ㅎ'이 발음되었다. 이 경우 현재 제춧말에서는 'ㅎ'이 발음되지 않고 그 자리에 '네'가 실현된다. 이는 '질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사를 구분하여 적는 본디 꼴(‘질에’)에 해당된다. 제15항에서는 ‘질’이 단일어로 쓰일 때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되어도 언제나 [질레]로 소리나므로 이렇게 적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 ㄱ. 영정 들른 상젠 가난 질로 돌아와사 혼다.  
(영정 든 상주는 갔던 길로 돌아와야 한다.)
- ㄴ. 사름덜이 질레서 말 꼴암서라.(사람들이 길에서 말 하고 있더라.)
- ㄷ. 어둡은디 질레에 강 놀지 말라.(어두운데 길에 가서 놀지 말라.)

위 문장을 보면 ‘질레’는 명사구지만 명사 ‘질레’도 있다. 이 경우 ‘질레’와 ‘에’가 결합하여 ‘질레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명사구 ‘질레’와 명사 ‘질레’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서 ‘질레에’를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으로 인지하고, ‘질레’를 단독형으로 인지하여 ‘질’과 혼동할 수 있다. ‘질’이 본디 꼴이고 여기에 조사 ‘에’가 결합된 ‘질레’가 쓰이다가 명사로 굳어졌다고 본다. 이는 중세국어 ‘나+이(주격조사)’ 형태가 ‘내’로 굳어지고 여기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여 ‘내가’가 쓰이는 것과 유사하다.

명사 바깥[外]은 언제나 처격조사로 ‘디’만 선택된다. ‘바깥+디’는 [바까띠/바깁띠]로 소리가 나더라도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바깥디’가 된 것이다.

제춧말 처격조사에는 ‘에/이/의, 에서/이서/의서, 디, 디서’ 등이 쓰인다.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조사 중에 유독 ‘디’ 형을 취하는 명사들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명사로는 ‘궂디(가에), 밧디(밭에), 솟디(솔에), 머리밧디(머리맡에), 즈궂디(겉에)’ 등이 있다. ‘우티’(위에)는 ‘우ㅎ+디’로 분석되므로 여기에도 조사 ‘디’가 결합되었다. ‘뒤티’(뒤에)는

‘뒤ㅎ+디’로 분석된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제춧말 조사 ‘디’는 선행 체언이 자음 ‘ㄱ, ㅎ’으로 끝날 때 성립된다.<sup>52)</sup>

- ㄱ. 난 곳디 멩기질 못했저.(나는 가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 ㄴ. 가인 밧디 갖저.(그 아인 밧에 갔다.)
- ㄷ. 다. 그 사름덜은 뒤티서 브래단(그 사람들은 뒤에서 보다가)

다음은 ‘다만’ 부분을 설명하겠다. 제15항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바뀐 꼴로 적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다. ‘다만’ 조항을 설정한 것은 예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시(市)에’는 [시에], [시예]로 소리가 나더라도 [시에]로 적기로 규정하였다.

사례로 든 ‘내[川]에’는 [내에]와 [내예]로 소리가 난다. ‘질레에’도 [질레에]와 [질레예]로 소리가 나는데 이들은 바뀌기 전 풀인 ‘내에’와 ‘질레에’로 적는다. 여기서 조사 ‘에’가 ‘예’로 소리 나는 것은 선행 체언이 ‘이’ 모음으로 끝날 때 반모음이 첨가된 형태이다. ‘질레’로 적는 규정을 좀더 보면 ‘한질레에’[한질레예]와 ‘웃한질레에’[우탄질레예]에서와 같이 본디 풀인 ‘질레’가 명사로 쓰이고 여기에 처격 조사 ‘에’가 결합되어 ‘질레에’로 적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붙임] 규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5항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변할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서 붙임을 설정하였다.

---

52) 강정희(1980:78)에서도 처격조사로 쓰이는 ‘디’는 선행 명사구의 받침이 /ㄷ/계이거나 통시적으로 원래 어말에 /ㅎ/을 지녔던 명사구에만 연결되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제춧말 처격조사에는 ‘디’ 이외에 ‘딤’도 쓰였으나 제춧말 화자들이 ‘딤’보다는 ‘디’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표기에서는 ‘디’ 형태를 인정하였다.

이 항의 규정대로라면 ‘낮이’는 [나지]로 소리나고, ‘앞이’는 [아피]로 소리나므로 소리대로 적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낮이’와 같이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기 때문에 다른 조사가 결합된 ‘낮도’가 [나또/날또]로 소리나더라도 ‘낮도’와 같이 본디 꼴로 적는다는 의미이다.

‘낮이라도’와 ‘앞이라도’를 좀더 분석해 보면 우선 체언 ‘낮’과 ‘앞’은 서술격조사 ‘이’(라도)와 결합할 때 본디 꼴로 적으므로, 다른 조사와 결합되어 [나지, 나즐, 아피, 아플]로 소리가 나지만 역시 ‘낮이, 낮을, 앞이, 앞을’로 적어야 함을 뜻한다.

만약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의 명사구를 여러 개의 형태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로 든 ‘낮이’ 외에 [나즐], [난만]으로 적는다면 명사 ‘낮’은 [낮], [나], [난] 등으로 실현되므로 기본형을 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붙임에서는 기본형을 정하여 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제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갈다[耕]:	갈았저	가난	갈지도	갈게	갈아도
걷다[步]:	걸었저	걸으난	걸을지도	걸게	걸어도
아프다[痛]:	아팠저	아프난	아플지도	아프게	아파도
올르다[登]:	올랐저	올르난	올를지도	올르게	올라도
조rap다[瞞]:	조라왔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조rap게	조라와도

이미 제13항에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는 까닭을 언급하였다. 그곳에서는 어간이 오직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쉽게 어간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어간이 일부 소리가 탈락하거나 바뀌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이를 불규칙 활용 또는 변칙 활용이라고 불려 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 음운론에서처럼 둘 이상의 어간이 머릿속에 들어 있다고 본다면, 더 이상 불규칙 또는 변칙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불규칙 또는 변칙이란 개념은 원래 하나의 고정된 낱말 형식이 기본이라고 가정하고, 몇 가지 활용 어미들과 어울릴 적에 그 형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바뀐 꼴은, 하나의 본디 꼴을 가정하고, 이것이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소 모습이 달라짐을 뜻한다. 기술언어학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조건과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조건 두 가지를 다뤘는데, 여기서는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제16항의 해설을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한다. 첫째, 바뀐 꼴을 지닌 어간(또는 둘 이상의 어간)에 대한 설명, 둘째, 어미들(특히 종결어미와 선어말어미)에 대한 설명이다. 본디 제16항은 바뀐 꼴을 적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어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낱말 위주의 언어관을 담고 있고 있어, 통사나 화용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은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방언의 표기법에서도 크게 그 틀을 따르면서 따로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들에 대한 표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설명을 달리 베풀 마땅한 곳이 없으므로, 여기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두기로 한다.

제춧말에서는 어간이 셋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있다’(to be, to exist, 在, 有)와 관련하여 이 방언의 어간은 다음처럼 여러 형태가 관찰된다.

‘이시다, 시다, 잇다, 싯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앞뒤 언어 환경에 따라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수의적인 측면이나 또는 하위 방언(계층 방언, 하위지역 방언)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듯하다. 중세국어를 다루면서 안병희(1959; 1978 재간됨:37쪽 이하, 43쪽 이하)에서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로 파악하였지만,<sup>53)</sup> 적어도 이 방언에서 이

53) 안병희(1959)에서는 처음으로 중세 국어의 ‘이시다’와 ‘잇다’를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로 보았다. ‘이시다’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매개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오고, ‘잇다’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진다고 하였다. 허웅(1975:422)에서도 ‘이시다’에는 모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가 이어진다는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승욱(1986)에서는 ‘이시다’에 모음 어미와 유성자음 어미가 붙는다고 지적하여 조건이 더 추가되어 있다. 김완진(1975)와 이승녕(1976)에서도 모두 제춧말 자료도 같이 이용되고 있다.

어간들이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지다’(to keep, to have, 持)도 이 방언에서는

‘가지다/ㄹ지다, 갖다/긋다, 앓다/웃다, 아지다/으지다,  
앓다/웃다, 아시다/으시다’

라는 복수 어간(쌍형 어간, 다중 어간)이 쓰이고 있다.

제16항에서 제시된 어간은 본디 꼴과 바뀐 꼴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 바뀐 꼴은 뒤에 이어지는 소리에 따라 어간이 달라진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변칙 또는 불규칙 용언으로 9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이곳 제16항에서는 다섯 개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

표준어 ‘있다’를 제외한 제춧말의 네 가지 어간을 놓고서, 강근보(1972)에서 음운 결합방식의 차이를 처음으로 아주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뒷 연구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걸작이지만, 아직 이미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듯하다. 최근의 어느 논문에서 ‘이시다’와 ‘시다’에는 모음 어미가 이어지고, ‘잇다’에는 자음 어미가 이어진다는 논의도 있지만, 반례들이 다음처럼 허다하다.

“지금도 그 사람 그디 이시냐?/시냐?”(지금도 그 사람 거기 있느냐?)  
“늘랑 그디 이시라!/시라!”(넌 거기 있으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이시다’에 자음 어미 ‘-냐, -라’가 이어져 있음), 또한 “지금도 그 사람 그디 잇쥌” (지금도 그 사람 거기 있지)와 같이 자음 어미 ‘-쥌’가 이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늘랑 이디 이시주게!”(너는 여기 있으려무나!)

라고도 말할 수 있다(‘이시다’에 자음 어미 ‘-쥌’와 화용 첩사 ‘-게’가 덧붙여 있음). 이런 용례들이 있는 한, 음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제약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홍종림(2001:276)에서는 이 방언의 ‘있다’ 활용이 옛 제주시 지역과 옛 남제주군 성산읍 지역이 서로 차이가 남을 지적해 놓았다. 앞으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신선경(2002)에서는 ‘있다’의 다의어적 구조를 여섯 가지 나눠 놓고, 각 구문의 특성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안구(2002)에서는 이들 어휘의 활용 모습의 변천들을 논의하고 있다.



해설에서는 그 항목을 더 추가하기로 한다.

‘(밭을) 갈다’(to plough, 耕), ‘(물이) 셀다<sup>54)</sup>(to leak, 泄)

라는 동사는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난’(표준어 ‘-으니까’)이 이어질 경우에<sup>55)</sup> 두 가지 음운론적 변동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sup>56)</sup> 먼저 어미의 첫소리 ‘-으’가 탈락하여 \*갈+난, \*셀+난(현실 발음에는 찾을 수 없는 모습임을 뜻함)이 되

54) ‘셀다’는 이 방언의 사진을 보면 표제 항목 ‘새다’ 아래 방언형 ‘세다’를 적기도 하고(현평효 1962:481), ‘에’ 모음만 넣어 ‘세다, 셀다’를 표제 항목으로 잡기도 한다(송상조 2007:415, 147,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517, 519).

55) 일단 여기서는 생성문법의 틀에서 ‘으’를 어미 쪽에 귀속시켜 놓는다. ‘매개모음, 조음소, 조성모음, 삽입모음, 연결모음’ 따위로 불러온 ‘으’ 모음은, 생성문법의 틀에서 비로소 어미의 일부로 자리 잡고 특정 환경에서 ‘으’ 탈락 규칙이 적용된다. 체언이 곡용할 경우에는 ‘으’ 탈락이 일어나지 않지만, 용언이 활용할 경우에는 ‘으’ 탈락이 일어난다는 지적은 일찍이 김완진(1972)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단, 여기서 두 개의 규칙이 순서에 따라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이병근(1981)을 따라, ‘으’ 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자음군 조정에 의해 르받침이 탈락된 것으로 보았다.

국어 연구 초기에서부터 다양한 주장이 펼쳐진 ‘으’ 모음에 대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배주채(1993)를 보기 바란다. ‘으’ 탈락이라는 여기서의 설명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삽입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주장도 여전히 있는데, 음소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음절 연결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오정란(1997)과 신승용(2010) 등을 보기 바란다.

56) 수의적인 변이로서 ‘-으난’은 ‘-으나네’로도 나온다. 마치 연결어미 ‘-안’(표준어의 ‘-아서’)가 수의적으로 ‘-아네’로도 쓰이는 것과 동일하다. ‘-안/-아네’는 이미 끝난 일 또는 완료 사건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이유를 나타내는 이 연결어미에는 ‘-양/-아그네/-아그닝에’가 결합될 수는 없다. ‘-양/-아그네/-아그닝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또는 미완료 사건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여, “-으낭”이란 상(相, aspectual) 대립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런 결합이 저지되는 것일까? 그 까닭은 이 연결어미의 의미 자질과 관련된다. 좀더 정확히 말하여, 이 연결어미의 제약 현상들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그런 의미 자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이미 김지홍(1982:37쪽 이하)에서 기술되었고, 다시 송상조(2011:157, 224)에서 거듭 지적되었지만, 아직 그 까닭을 명쾌히 설명해 내지 못하였다. 이 해설의 뒷 부분에서 다시 ‘-으난/-으나네’를 설명하면서 왜 그런 지에 대하여 집필자(김지홍)의 사적인 설명을 배풀어 놓기로 한다.

고, 이어 ㄹ받침이 탈락하여 마침내 바뀐 꼴의 모습 [가난], [새난]으로 소리 난다.<sup>57)</sup>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난’(‘-으니까’)뿐만 아니라,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어말어미) ‘-으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먼저 ‘으’가 탈락하여 “\*갈+네, \*새+네”(현실 발음에는 찾을 수 없는 모습임)가 되고 이어 ㄹ받침이 탈락하여 ‘가네,<sup>58)</sup> 새네’라고 소리 난다. 가령,

- 57) 결과적으로, ㄹ받침은 모음의 속성도 지니고, 자음의 속성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이병근 1981). 왜 굳이 ㄹ받침이 탈락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① 리울을 대상으로 하여 리울 소리의 특성으로 답변이 마련될 수도 있고, ② 좀더 광범위하게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어 가장 안정된 음절을 이루려는 상위의 질서로부터 답변이 마련될 수도 있다. 후자의 질서 위에서 탈락된 ㄹ받침은, 결과적으로 모음 속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찬(1997:132)에는 한국어 음절의 자연스러움 정도를 언급하면서, 자음 속성(C)과 모음 속성(V)의 결합체가 가장 안정된 것으로 보았다.

“CV > V > CVC > VC”

그런데 음절을 구성하는 방식이 단선적이 아니라 복선적(계층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CVC를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

- 58) 집필자에게는 “그 사람 이제사 밧을 가네!”(그 사람은 이제야 뒤늦게 밧을 가는구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감탄 서법임). 그렇지만 다른 분이 이 발화가 제춧말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동사에는 꼭 ‘-았-’과 ‘-았-’이라는 시상 형태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갈았저, 갈았어’이거나 ‘갈았저, 갈았어’로 발화된다는 것이다(서술 서법의 발화임). 물론 동작을 표현하므로 그런 시상어미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집필자에게는

“그 사람 이제사 밧을 가네! : 그 사람 늦게사 밧을 갈테!”(이제야 가는구나! : 뒤늦게 갈더구나!)

라는 발화가 둘 모두 가능하며, 수용에 아무런 지장도 없다(감탄 서법의 발화임). 전자는 ‘-느+이’로 융합된 종결어미 ‘-네’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더+이’로 융합된 종결어미 ‘-네’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형용사처럼 행동하는 ‘있다/있다’(있다)의 활용을 보면

“가이 집이 완 잇네/잇네!”(그 아이 집에 와서 있구나!)

“가이 집이 완 잇테/잇테!”(그 아이 집어 와서 있더구나!)

처럼 똑같이 ‘-네’(느+이) ‘-네’(더+이)의 종결어미 부류가 붙고(양태 표현 형태소와 종결어미의 융합), 수용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현재 상태에 대한 감탄이거나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감탄인 것이다. ‘갈다’(to plough, 耕)라는 동사가

“다 막은 통에도 지금 물이 새네”(다 막아 놓은 통에도 지금 물이 새고 있네)

제춧말에서나 서울말에서나 ‘으’ 탈락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명사 따위 체언에서는 ‘으’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동사 따위 용언의 활용에서만 ‘으’ 탈락이 일어난다. 가령, 명사 ‘불’(fire, 火)에 보조사 ‘은’이 붙으면

“불은 아직도 잘 났인게/탐신게!”(불은 아직도 잘 타고 있구나!)

으로 소리 나지만, 동사 ‘불-’(to blow, 吹; 바람이 불다)에 관형형어미 ‘-은’이 붙으면, ‘으’뿐만 아니라 ㄹ받침까지 탈락하여

“뱃름 하영 분 생이어.”(바람이 많이 불었던 모양이야)

---

‘-네’나 ‘-데’에 붙는 경우가 낫설다면, 다른 분은 동사를 ‘썰다, 새다’(새다, to leak, 漏水)로 바꾸어 제시하도록 권고해 주었다. 제춧말에서 이 동사는 두 가지 어간(새-, 썰-, to leak)을 갖고 있으므로, 단일 어간을 지닌 ‘갈다’(to plough, 耕)와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예는 ‘썰다’라는 어간을 지닐 경우에 받침소리가 탈락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제춧말 속담이나 경구 표현에는 ‘-다’ 종결어미로 끝나는 것(-∅다, -은다, -는다)들 이외에, ‘-나’로 끝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 검질 짓나!(풀 우거진다), ... 죄 받나!(죄 받는다!), ... ㄱ래츠록 박나!(땃돌자루 박는다), ... 못 죽나!(못 죽는다!)”

따위이다. 이 융합 형태소는 ‘-느+아’로 분석될 수 있는데, ‘-느’ 또한 양태를 나타내며, ‘-아’는 독자적 종결어미 ‘-다’의 변이형태로 짐작된다. 뒤에서 <표 1>로 평대 관계의 서술 종결어미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기타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못한 부류에 ‘-이’ 또는 반모음 ‘이’가 있다. 이 종결어미는 아마 늘 종결어미로만 쓰이는 부류에서 필수적인 단절 현상(truncation)이 일어나 ‘이’로 끝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정 위에서 단절이 일어나기 이전의 가장 그럴듯한 후보로는 계사 ‘이다’의 활용형 ‘이어’가 있다.

으로 소리 난다.

어간이 ㄹ받침을 지닌 어간과 ㄹ받침을 탈락시킨 어간을 둘 모두 갖고 있는 낱말로서 다음과 같은 낱말들이 있다.

(하늘을) 날다/날다(to fly, 飛), (문패를) 들다/달다(to attach, 掛懸), (종이를) 돌다/말다(to roll, 卷), (바람이) 불다(to blow, 吹), (산신령에게) 빌다(to pray, 禱), (행복하게) 살다(to live, 活), (사물을) 알다(to know, 知), (영영 소리 내어) 울다(to cry, 哭), (발을) 질다(to limp, 跛), (꾸벅꾸벅) 졸다(to drowse, 眊), (물기가 많아서 밥이) 질다(to slush, 漚)

두 번째 제시된 어간은 ‘(천천히) 걷다’(to walk, 步)이다.<sup>59)</sup> 이 동사

---

59) 최명옥(1985)에서는 이 동사가 두 개의 어간(복수 어간, 쌍형 어간)을 지님을 논의하였다. 즉, ‘걸-, 걸-’을 모두 본디 꼴로 보는 것이다. 이런 설명 방식이 왜 동음이의어인 ‘걷다’(to walk, 步)는 받침이 리울로 바뀌고, ‘걸다’(to roll up, 捲撤)는 바뀌지 않는지를 쉽게 구별해 줄 수 있다. 전자는 어간이 ‘걸-, 걸-’이지만, 후자는 오직 ‘걸-’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전자는 두 개일까? 그 이유로서 국어사와 방언 자료로써 입증하였는데, 두 개의 어간을 지닌 이런 낱말들은 기원적으로 유성음 디귤(\*δ)으로 소급되는데, 유성음 계열로 유성음 비읍(β, ㅂ)과 유성음 시옷(z, △)이 자연 부류를 이룬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 유성음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뒤에는 유성음 디귤 받침이 실제 소리(음성형)로 그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디귤과 리울)로 나뉘게 된 것이다. 두 가지가 실현되는 조건은 각각 자음 어미와 모음 어미로 구분된다. 이 점은 다시 유성음 비읍 및 유성음 시옷 계열의 어간이 제춧말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두 개의 어간으로 실현됨(각각 ㅂ 불규칙, ㅅ 불규칙으로도 불리는데, 다만 후자는 수의성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뒷받침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통찰도 제춧말에서 ‘ㅅ 불규칙 용언’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방언에서 ‘ㅅ 불규칙’ 용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승녕(1978: 26, 127, 159, 164)에서 사회언어학적 현상으로 지적되었는데, ㅅ을 유지하는 경우 및 표준어의 영향으로 ㅅ을 탈락시키는 경우를 ‘걷다’ 동사의 활용으로써 언급하였다. 그 뒤 현평호(1985:417)에서는 “어간말의 ㅅ음이 유지되어 있다.”고 기술하였고, 정승철(2000:187)에서도 거듭 이 방언에 “ㅅ불규칙 용언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게’나 ‘-지’가 이어지면 본디 꼴을 그대로 유지한다(걸게 되다, 걸지 않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으난’(-으니까), ‘-어’(-어), ‘-어도’(-어도), ‘-을지’(-을지), ‘-을지도’(-을지도)나 또는 시제나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었-)이 이어질 경우에, 바뀐 꼴을 관찰할 수 있다.

“걸으난(걸으니까), 걸어 간다(걸어 간다), 걸어도 된다(걸어도 된다), 걸을지 몰라(걸을지 몰라), 걸을지도 몰라(걸을지도 몰라), 걸었저(걸었다)”

---

그런데 기존의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표기법 해설 모임에서 특이하게 어느 한 분은 “글 짓다”가 [글 지으민]으로 발음되므로 ‘스 불규칙 용언’으로 제안 하였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동사가 “집을 짓다”라는 이음말(連語)에서 늘 [집 지스난/지시난](집 지으니까), [집 다 지서서](집을 다 지어서), [집 다 지서시나?](집을 다 지어 있느냐?)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이런 점에서 아마 [글 지으민]은 불규칙 활용을 하는 표준어의 영향일 수 있다.

고재환(2011 상:173)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스 불규칙 용언’과 관련하여 173쪽의 각주 53)에서 ‘현대국어에 스 불규칙 동사가 없다’는 주장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또한 ‘있다’를 형용사가 아니라 오히려 동사라고 보고(범주 지정의 오류임), 이 방언에서 ‘잇다’가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있다’는 복수 어간으로서 ‘시다, 이시다, 있다, 있다’ 등도 동시에 관찰되므로, 마치 유일하게 ‘잇다’만을 내세워 ‘스 불규칙 동사’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 범주 지정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간의 파악과 활용의 제시에서도 문제가 있다.

고재환(2011:184)에서는 ‘병이 낫다’라는 동사가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유일한 ‘스 불규칙’ 사례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나스민](나으면), [나스나네](나으니까), [나사네](나아서), [나삿저](나았다)와 같이 받침 시이 그대로 유지되어 발음되더라도 집필자(김지홍)에게는 아무런 어색함도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를 불규칙 형용사의 유일한 사례라고 적은 결론은 문제가 있다. 제2차말에서는 ‘병 낫다, 얼굴 붓다, 금 굶다, 물건을 끄다’와 같은 동사가 모두 스받침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쓰이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우므로, 현재로서는 진정한 ‘스 불규칙 동사’가 없는 셈이다. 만일 ‘스 불규칙’이 관찰된다면, 이승녕(1978)의 애초 지적과 같이 사회언어학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옳을 것으로 본다.

등과 같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면 어간에 ‘ㄷ’ 받침이 유지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면 ‘ㄷ’ 받침은 어간 음절에서 어미 음절로 옮겨 가서 어미의 첫 소리가 되면서 ‘ㄹ’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동사로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과 같다.

(궁금한 내용을) 묻다(to ask, 問), 질다(to kindle, 給火),<sup>60)</sup> (남의 말을) 들다(to listen to, 聞), (물건을) 실다(to load, 載), (빨리) 들다(to run, 走), (말을) 곤다(to say, 曰)

그러나 모든 동사의 디귤 받침 어간이 바뀐 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에 제시된 예 ‘걷다’(to walk, 步)와 동음이의어인데, “(빨래나 이불을) 굴다(to roll up, 捲撤)”라는 동사는

“걸으난(걸으니까), 걸어 버리다(걸어 버리다), 걸어도 좋다(걸어도 좋다), 걸을지/걸을디<sup>61)</sup> 몰라(걸을지 몰라), 걸을지도/걸

60) 불 때기 위한 자잘한 나뭇가지들을 제춧말에서는 ‘지들커’(질을+것) 또는 ‘지들남/지들낭’(질을+나무)으로 부르며, ‘불을 때라!’(to kindle, 給火)라는 명령을 “불 질으라!”라고 말한다. 또한 서울말의 ‘불 지르다’(to set fire, 放火)를 이 방언에서는 ‘불 질르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르다’(to shout, 絶叫)와 똑같이 활용한다.

61) ‘-을지’가 ‘-을디’로도 쓰인다(제6항 2조의 규정과 해설을 보기 바람). 나이 든 사람들의 발화에서 특히 그러하다. “경홀디 모른다”(그렇게 할지 모른다), “언제 울디사 알아[↗, 올립세 억양]”(언제 울지야 알겠는가?) 따위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문에서 찾아지는 ‘-지’는 제춧말의 보수적 쓰임(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서는 보조사 ‘을’을 붙여 [먹들 아녀][먹지를 았아], [오들 아녀](오지를 았아)라고 말한다. 반면, 젊은 층에서는 [먹질 았아, 오질 았아]로 말한다. 만일 보수적인 표현에서 ‘-디’가 부정구문 요소라면, 여기에 보조사 ‘을’이 결합되어 약모음 ‘으’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가 탈락되어 [들]로 발음된다는 특이함이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모르다’의 내포문으로 ‘-을들, -을덜’ 중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발화될지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야 하며, 상위문 동사의 의미 자질 때문에 부정구문 요소에 유표적으로 ‘을’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을디도 몰라(걸을지 몰라)”

와 같이 그대로 본디 꼴을 유지하고 있다. 바뀐 꼴을 지니는 “(질문을) 묻다(ask, 問)”와 동음이이어서, “(땅에) 묻다<sup>1</sup>(to bury, 埋), (진흙이) 묻다<sup>2</sup>(to be stained, 沾着)”의 디근 받침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본디 꼴이 유지된다. 이런 동사들이 언제나 본디 꼴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젓은 땅이) 굳다(to get harden, 堅), (꺼 준 돈을) 받다(to receive, 受), (힘을) 얻다(to get, 得), (팔을 죽) 뻗다(to stretch, 伸展), (물을 바닥에) 쏟다/쏟다/쏟다(to spill out, 傾注)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난다. 왜 디근 받침을 지닌 어간이 굳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까? 만일 여기 동사들처럼 본디 꼴만 있는 것이 기본적이라면, 왜 굳이 리을 초성으로 바뀐 꼴을 갖는 낱말들이 따로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최명옥(1985, 앞의 각주 59도 보기 바람)에서의 제안 이외에 아무런 설명도 찾을 수 없는데, 바뀐 꼴을 지닌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에 ‘유성음’ 디근 받침에 소급될 수 있는 것들로 본다.

세 번째 제시된 어간은 형용사 ‘아프다’이다. 이 형용사는 “몸이 아프난(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플지도 몰라(몸이 아플지도 몰라), 마음을 아프게 했다(마음을 아프게 했다)”에서는 본디 꼴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하영 아팠저(많이 아팠다), 아파도 춥다(아파도 춥다)”

에서는 어간에 있던 ‘으’ 모음이 탈락되어 버린다. 이때 어미의 첫 모음이 ‘아, 어’로 시작되는데, 두 모음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룰 경우에, 입을 많이 벌려 내는 모음(개구도가 큰 모음)에 밀려 그렇지 않은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4조에 제시된 다음 낱말들이

『한글 맞춤법』에서의 낱말 예시

쓰다, 끄다, 뜨다, 트다, 크다, 담그다,<sup>62)</sup> 잠그다, 따르다, 고프다, 슬프다, 바쁘다

제웃말에서도 모두 동일한 낱말로 쓰이며, 똑같이 어간의 ‘으’모음이 탈락된다. 그러나 서울말과는 달리 제웃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낱말들에서 ‘으’ 모음을 갖고 있는 형태와 ‘으’ 모음이 없는 형태가 둘 모두 관찰된다. 전자일수록 나이가 든 계층에서 쓰이고 보수적 속성을 띤다. 후자일수록 표준어 교육의 영향 아래 젊은 세대일수록 ‘으’가 없는 낱말을 쓴다(사회언어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계층간의 하위 방언에 속함).

① 받침 티을

말으다/말다, 열으다/열다, 질으다/질다, 붙으다/붙다, 곱으다/곱다  
(단, 자동적인 변이로서 ‘끓으다, 굽으다’는 뒤의 각주 68을 보기 바람)

② 받침 피을

62) 제웃말에서는 ‘듭그다’이며 수의적으로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등그다]로도 발음된다. 자음동화는 자동적인 음운변동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바로 뒤에 나오는 ‘잠그다’도 제웃말에서는 ‘줍그다’이며, 수의적으로 자음동화가 일어나서 [중그다]로도 발음된다.



싫으다/싫다, 옆으다/옆다, 짙으다/짙다, 얹으다/얹다, 갇으다/갇다

③ 받침 쌍기역<sup>63)</sup>

값으다/값다, 낚으다/낚다, 닭으다/닭다, 묶으다/묶다, 북으다/북다, 섞으다/섞다, 엮으다/엮다

④ 두 받침들이 서로 공존하며 수의적으로 선택됨

뉘으다/뉘다/뉘으다(뉘다), 뵈으다/뵈다(내뵈다), 쏘으다/쏘다/설  
으다,<sup>64)</sup> 싹으다/싹르다<sup>1)</sup>(싹다), 싹으다/싹르다<sup>2)</sup>(징그다, 옷 따위 해  
지기 쉬운 부분을 다른 천을 덧대어 듬성듬성 꿰매다)

그런데 ‘으’를 어간으로 보아 ‘마트-, 시프-, 가끄-’로 표기할지(이전에 일부에서 쓰던 표기 방식임), 아니면 어미의 첫소리로 보아 ‘말-으다, 싫-으다, 값-으다’로 표기할지 문제가 된다. 현재 제춧말의 표기법에서는 어미의 첫소리로 보고 있다. 이런 결정에는 다음 몇 가지 점이 고려되었다. 첫째, 다른 어미들도 ‘으’를 첫소리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들이 있다. 모음 어미는 ‘-아’ 계열을 제외하면 모두 ‘으’로 시작되므로, ‘-으다’가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다.

둘째,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에 결코 ‘으’가 나타나지 않는다. 파생어가 통사 규칙처럼 완벽히 공시적인 모습만 띠지 않고, 이전 시기의 낱말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따라서 결정적 자료가 아니라 제한적 보조 자료로 쓰임), 통사 규

63) 받침 쌍기역을 갖고 있는 낱말에서, 두 가지 어형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오직 하나의 어형만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으다’ 어미만을 허용한다. 뉘으다<sup>1)</sup>(뉘다), ‘뉘으다’<sup>2)</sup>(뉘다), 북으다/북으다(부풀다), 죽으다(짓다), 헹으다(섞다) 등이다. 이런 분포는 ‘-으다’ 어미하고만 결합하는 낱말, 그리고 ‘-으다, -다’ 어미를 수의적으로 허용하는 낱말로 나눌 수 있게 해 준다.

64) 트받침은 아마 ‘홀다/홀으다, 홀어붙다(홀어 버리다)’라는 낱말과 간섭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칙과 평행한 것으로서 파생어에서 사례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어간끼리 합쳐져서

‘엿지르다, 붙들다, 질푸리다(질푸르다)’

처럼 합성어를 만들 경우에 전혀 ‘으’가 관찰되지 않고, 어간과 명사가 합쳐져서 ‘뉘배/뉘션’(뉘싯배)처럼 합성어를 만들거나 명사와 동사 어간이 합쳐져서 ‘주뉘’(줄뉘시)처럼 합성어를 만들 경우에도 ‘으’가 없다. 또한

‘높직하다, 깊숙하다(깊숙하다)<sup>65)</sup>, 얹잡다, 낮잡아 보다’

에서처럼 파생어를 만들 경우에도 언제나 ‘으’가 없는 형태로만 쓰인다. ‘으’를 지닌 다음 형태는 불가능하다.

\*‘높으직하다, \*깊으숙하다, \*얹으잡다, \*낮으잡아 보다’

이는 모두 어간에 직접 접미사가 결합되는 형식이므로, ‘으’가 어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셋째, 표준어에서 ‘아프다, 슬프다, 고프다’는 파생 형용사로서 ‘얹+브, 씹+브, 굶+브’라는 접미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sup>66)</sup>

---

65) 파생어로서 ‘익숙하다, 말쑥하다, 멀쑥하다(머쓱하다)’에서 ‘-숙하다’라는 접미사 계열을 찾을 수 있다. 앞의 두 낱말은 서울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멀쑥하다’는 말쑥하다와 관련이 없다(표준어에서는 음상에 따른 강도의 차이로 설명됨). 제주말에서는 의태어 ‘멀쑥멀쑥’으로도 쓰이고, ㄹ받침이 탈락된 ‘머쓱하다, 머쓱머쓱’으로도 쓰이는데, 아마 표준어에서 ‘머쓱하다’와 대응될 수 있을 듯하다(송상조 2007:248, 251을 보기 바람).

66) 2음절 어간으로 제주말에서 ‘실프다’는 ‘싫+브’로 파생되어 나왔으므로, 이는 ‘실프다’로 적게 된다. 이 말의 뜻은 확장되거나 바뀌어 싫증을 내거나 썩 내

‘으’ 모음이 접미사에 속한 것이며, 따라서 파생 어간으로 표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 ‘으’는 특정한 접미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어간으로 취급할 동기가 없는 것이다.

넷째, 제춧말에서 ‘ㅌ’ 받침을 가진 낱말 중에서 유독 ‘끓으다, 끓으다’(끓다)와 ‘붙으다, 붙으다’(붙다)라는 두 경우는 쌍디귤 발음과 티을 발음이 서로 수의적으로 교체되는데,<sup>67)</sup> 개인에 따라 선호도가

키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서 흔히 게으른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2음절 어간으로서 파생 접미사와 어근을 쉽게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낱말들도 있다. 접미사를 먼저 분석한 뒤에 남은 어근이 단독 낱말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바쁘다’에서는 접미사 ‘-브’를 제외하면 남은 요소가 ‘\*받-’ 또는 ‘\*받브-’인데, 이런 어근이 제춧말에서는 관찰되지도 않고 자립성도 없으므로, 따로 분리해 내기 어렵다(『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쁘다’의 어원이 ‘뵗+브, 뵗+브’로 제시됨).

접미사도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 주동(ergative 행위주 자발 동작) 형식으로 ‘물에 둥다/둥그다/둥으다’(담그다, to soak, 漬)와 ‘쇠대 잠그다’(자물쇠를 잠그다, to lock, 鎖)를 보면, 이들의 피동(passive) 형식은 ‘둥기다’(담기다)와 ‘잠기다’(잠기다)이다. 이것들은 수의적으로 자음동화가 일어나 [둥그다], [중그다], [잠기다]로도 소리 난다. 이것들이 모두 자동적 음운변동이기 때문에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접미사 ‘-기’를 제외하고 남은 요소들을 보면, 제춧말에서 ‘둥다/둥그다/둥으다’(담그다, 漬)는 관찰되지만, ‘\*중다/중으다’(잠그다, 鎖)라는 동사를 찾을 수 없다(밥을 국이나 물에 ‘말다’는 뜻의 제춧말 ‘중다’는 다른 낱말임). 이에 근거하면, ‘둥기다’는 ‘둥+기+다’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다’는 따로 ‘-기’ 접미사를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다. 대신 만일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본다면, 그 도출 과정이 ‘중그+이+다’나 ‘중+이+다’로부터 출발할 듯하다. 어떤 낱말에 ‘-기’ 접미사가 붙고, 어떤 낱말에 ‘-이’ 접미사가 붙는지를 놓고서 유형화 작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둥그다’(담그다)는 피동 형식이 ‘둥기다’<sup>1)</sup>(물에 담겨 있다)로 나온다. 보수적인 발음을 쓰는 세대에서는 ‘으’ 소리를 유지하여 ‘아’ 소리와 서로 변별하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표준어의 영향으로 ‘담기다’<sup>2)</sup>로 발음할 듯하다. 이런 신세대의 낱말은, 주동 형식의 (포대에다 물건은) ‘담다’에서 나온 피동 형식 ‘담기다’<sup>2)</sup>와 같은 어형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동음이의어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물건이 담기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어원을 ‘뚬+이’로 상정하였다.

67) ‘ㄷ’ 받침이든 ‘ㅌ’ 받침이든 1음절에서는 모두 내파음으로 나오며(이를 내파음으로 나타내는 ‘ㄷ’ 받침으로 쓰기도 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지기 전에는 어떤 소리로 표기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다를 수 있다(그렇다면, 하나만 표기되고, 다른 하나는 음운규칙의 적용 결과로 보아 표기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임). 만일 이런 변이를 음성 표면형으로 도출해 내려면, 반드시 받침 소리로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그 받침 소리가 어간과 어미 사이에 음절 경계를 허물고서 재음절화하여 소리를 내면 어미의 첫소리로 티을 발음이 난다. 그렇지만 음절 경계를 더 명확히 집어넣고서 음절 경계를 허물지 않은 채 발음하면 쌍디귤으로 나오는 것이다.<sup>68)</sup> 이는 하나의 기저형으로 티을 받침만 표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쌍디귤 발음은 다만 음성 표면형으로서 이 표기에서는 따로 규정해 놓지 않는다.

따라서 어미 ‘-으다’가 붙는 어간들은 본디 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프다’처럼 바뀐 꼴로 다뤄지는

68)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현평효(1985:417)에서 처음 지적되었다. 그곳에서는 개방 음절로 상징된 쌍형 어간으로 보았지만, 집필자는 공식적인 음운 규칙의 적용으로 수의적으로 두 가지 표면 형식을 얻는 일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믿는다. 이미 최명옥(1996:200쪽 이하)에서 지적되었듯이, 만일 두 어형이 공식적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표면형이라면 더 이상 복수 어간(쌍형 어간)으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음절 경계를 ‘\$’로 표시한다면 도출 과정이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칠 것으로 판단된다.

‘붙\$으\$다’ → ‘붙\$ㅎ-\$다’ → ‘붙\$드\$다’ → ‘부\$뜨\$다’ → 부뜨다  
 (기저형) (어미 초두 강화) (순행 동화) (재음절화) (표면형)

정승철(2000)에서는 이 방언에서 ‘복사 현상’이 일반적임을 지적하면서, 그 환경이 이음 초성(alif)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올바른 관찰이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 대한 기술은 반드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집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복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이 방언의 음절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 배당과도 긴밀히 관련되며, 두 음절 사이에 경계가 선명히 유지되기 위한 조치로서 소리 값이 없는 이음 ‘ㅇ’(alif)이 후두 폐쇄음 ‘ㅎ’[?]으로 되는 듯하다. 후두 폐쇄음이 마련되지 않고 소리값이 없는 ㅇ(alif)로 되면 표면형이 [부뜨다]로 나올 것이고, 제1 음절에 강세를 보장하려고 매우 약한 휴지가 주어지면서 제2 음절에 후두 폐쇄음이 마련되면 곧 순행동화가 일어난 뒤에 표면형이 [부뜨다]로 도출될 것이다.

것이 아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나이 든 사람들은 어미 ‘-으다’를 쓰지만,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표준어처럼 이 어미가 ‘-다’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사회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공식적인 모임에서 쓰는 격식 갖춘 말투에서는 표준어처럼 어미 ‘-다’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

『한글 맞춤법』 제18항 4에서는 ‘푼다’라는 동사의 어간 모음 ‘우’도 탈락된다고 하였는데, 이 방언에서도 유일한 사례인 점은 서울말과 동일하다. 중세 국어에 ‘프다’라는 낱말로 쓰이다가, 어간의 모음이 어간의 초성 소리(입술소리)에 동화되어 오늘날 ‘푼다’로 바뀐 유일한 동사 사례이다. 과거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을 때에는 일반 변소에서<sup>69)</sup> ‘똥 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똥을 찢저.”(똥을 찢다),

“똥을 찢구나.”(똥을 푸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제시된 어간은 ‘오르다/올르다’(to climb, 登)이다.

“물건 값 곧 오르커냐?/올르커냐?”(물건 값이 곧 오르겠니?)

라고 말을 하므로, ‘오르다/올르다’가 수의적으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올르다’라는 형태를 내세웠다. 짧은 형태의 피동사동 형식을 만들 때에도 ‘올리다’로 쓰인다. 이런 부류의 낱말로서

69) 흔히 ‘통시’ 또는 ‘통식간’으로 불리는 여느 재래식 변소에서는 돼지를 같이 기르고 있었다. ‘똥통시’는 돼지와 통시로 이뤄진 합성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을 찾아보면 ‘뒷간’의 방언으로 ‘통시’가 오직 강원 및 경남 방언으로만 올라 있다. 응당 제주 방언도 포함되어야 한다.

‘모르다/몰르다’(to be ignorant, 不知)와 ‘므르다/몰르다’(to get dry, 乾燥)에서도 또한

“그 사람 모르커냐?/몰르커냐?”(그 사람 알아보지 못하겠니?),  
“그 옷 다 므르커냐?/몰르커냐?”(그 옷이 다 마르겠니?)

라는 말을 쓸 수 있다.<sup>70)</sup> 이들은 마치 ‘있다’의 다중 어간(복수 어간)처럼 ‘모르다/몰르다’, ‘므르다/몰르다’의 복수 어간을 내세울 수 있을 듯하다. 만일 단일하게 ‘올르다, 몰르다, 몰르다’만을 어간으로 본다면,

“오르커냐?(오르겠니?)/모르커냐?(몰라보겠니?)/므르커냐?(마르겠니?)”

라고 발화되는 경우, 이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1 음절의 받침을 탈락시키는 규칙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일 두 개의 어간

---

70) 받침 ㄹ이 덧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며, 이 또한 현평효(1985:417)에서 처음 지적되었다. ‘게으르다’를 [게을르다]로 말하고, ‘기다리다’를 [기달리다] 또는 구개음화와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지들리다]로 말하며, ‘서투르다’나 같은 음절 구조의 ‘서두르다’를 각각 [서톨르다]나 [서둘르다]로 말하고(표준어는 각각 [서툴다], [서둘다]로 말함), ‘외치다’의 뜻을 지닌 ‘웨우르다’를 [웨울르다]로 말한다. 만일 이것이 이 방언의 규칙적인 일반 음운현상이라면, 응당 표준어에서처럼 받침 ㄹ이 없이 본디 꼴(‘게으르다, 기다리다, 지다리다, 서투르다, 서두르다, 웨우르다’)을 정해야 할 것이다. 아직 이런 음운현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거나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오직 잠정적으로 현평효(1985)에서의 처리 방식을 따라 마치 두 어형(복수 어간, 쌍형 어간) ‘게으르다/게을르다’, ‘기다리다/기달리다/지달리다’ 등이 있는 듯이 처리해 둔다. 만일 이런 현상이 완벽히 음운규칙을 적용한 결과라면(자동적 음운교체이라면), 마땅히 표기에서는 음운규칙이 적용되기 이전 모습만을 기본형으로 적어 주어야 할 것이다. [궁물]이라고 발음되더라도, 이를 소리대로 적지 않고 음운규칙이 적용되기 이전 모습인 ‘국물’로 적어 놓는 일과 동일한 태도이다.

이 상정된다면, ‘오르다/올르다, 모르다/몰르다, 므르다/뭉르다’의 어간은 뒤에 ‘아,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경우에 어간 끝의 ‘으’가 탈락된다. 이런 ‘으’ 탈락은 ‘아프다’의 경우에서와 동일하다. 이런 낱말들은 다음과 같다.

(머릿결을 돌로) 가르다/갈르다(to divide, 分割), (테굴테굴) 구르다/굴르다(to roll down, 轉), (물건을) 나르다/날르다(to convey, 運搬), (분노를) 누르다/눌르다(to press down, 壓)<sup>71)</sup> (두부가) 무르다/몰르다(to be soft, 軟弱), (이미 구입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 도르다/돌르다(to refund, 還拂), (우는 어린애를) 어르다/얼르다(to coax, 哄玩), (벽지를) 브르다/블르다(to paste, 粘着), (칼로 물건을) 즈르다/줄르다/쯔르다/쥘르다/짜르다/짤르다(to cut, 斷割), (큰 소리를) 지르다/질르다(to yell, 吶), (소를) 기루다/길루다/질루다(to breed, 畜養), 웨우르다/웨울르다(to cry out, 高喊)<sup>72)</sup>

71) ‘누르뜨다’나 ‘누뜰다’라는 낱말도 관찰될 수 있다. 아마 누르는 일이 1회적일 경우에 쓰인다면, 이들은 그런 힘이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에 걸쳐 유지되는 경우에 쓰일 듯하다. 이런 어감상의 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듯하다. 또한 ‘누들다, 눅들다’라는 낱말도 있다. 보릿단이나 셋단(꿀단) 등을 둥그렇게 쌓아 놓은 것을 ‘눌’이라 하는데, 눌 위에 바람으로 불려 나가지 않도록 큰 나무나 돌을 놓아서 눌러 주는 경우에 흔히 쓰인다.

72) 이들 동사에다 짧은 형태소를 붙여 피동 형식 또는 사동 형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데, 접사가 ‘-리’인지 ‘-이’인지 이 자체만으로는 결정되기가 힘들다.

사동 형식: 값을 올리다, 옷을 몰리다, 구슬을 굴리다, 물건을 도로 물리다

짧은 피동 형식: 서로 가는 길이 엇갈리다, 기세에 눌리다, 수박이 반쪽으로 줄리다

그런데 짧은 피동이나 사동 형태소를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다, 나르다, 브르다, 어르다, 지르다, 웨우르다’ 따위가 그러하다. 여기서 ‘모르다’ (인지동사)만 제외하면, ‘-아지다’의 긴 형태소의 피동 형식은 가능하다. ‘날라지다, 블라지다, 얼러지다, 질러지다, 웨울러지다’. 여기서도 모두 받침 리음과 초성 리음로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앞에서 어근에 붙은 접사는 ‘-리’가 아니라, ‘-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어근에 접사가 붙은 ‘올르+이’에서 두

마지막으로 제시된 사례는 ‘조랏다’(to be sleepy, 瞌, 發困)인데, 받침 비읍 뒤에 모음 어미가 이어지면 반모음 [w]로<sup>73)</sup> 소리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뀐 꼴을 지닌 1음절 어간으로는

형용사: ‘곯다, 밍다, 축다, 덩다, 맵다, (각도가) 곯다<sup>1</sup>, 답다, 쉽다’  
 동사: ‘눅다, 줍다, 깎다, (불에) 곯다<sup>2</sup>, 깎다/끼우다, 푹다, 뺨다/  
 배우다, 뵈다, 씹다/짜우다’

등이 있다. 특히 표준어와는 달리 ‘씹다/짜우다, 깎다/끼우다, 뺨다/배우다’라는 이중 어간의 모습은 받침 비읍의 기원(여린 비읍 ‘β’)을 시사해 준다. 2음절 이상의 어간으로는 형용사들로서

‘차겁다, 뜨겁다, 서럽다, 즐겁다, 게뺨다/게볶다(표준어의 가뺨다), 무겁다, 더럽다, 어렵다,<sup>74)</sup> 멧습다/무섭다, 부럽다/불롭다,

번째 음절과 접사가 한 음절을 이루기 위하여 두 모음 중 ‘으’ 탈락이 일어난 뒤 ‘올리’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춧말의 특이한 통사 현상으로 짧은 형식의 피동보다는 긴 형식의 피동을 선호하여 쓰는 일이 많다. 앞의 사례에서도 표기법 해설 연구진에서 ‘엇갈려지다, 놀려지다, 즐라지다’와 같이 ‘-아지다’ 형식이 더욱 자연스런 발화로 느껴진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오직 집필자의 직관으로만 판단할 경우에, 아마 짧은 형은 ‘진행 과정’(progression)을 나타내고(수박이 줄리다), 긴 형은 결과 상태(resultant state)를 나타낼 듯하다(수박이 즐라지다). 제춧말을 다룬 어느 분의 논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되어지다’ 또는 ‘해지다’라는 피동 표현이 자주 반복되어 있다. 이 또한 ‘되다’나 ‘하다’의 결과 상태를 가리킬 수 있거나, 또는 흔히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지적하듯이 책임 회피 표현(hedge)일 수 있다. 하여간 이는 국어사의 전개 과정에서 짧은 형식으로부터 나중에 긴 형식이 관찰된다는 사실과 다른 현상으로서, 그 까닭을 면밀히 탐색해 봐야 할 것이다. 제춧말의 ‘-아지다’ 구문에 대해서는 강정희(2001)을 읽어 보기 바란다.

73) 반모음 [w]나 반모음 [j](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y])은 반자음이라고도 불리고, 활음(glide)이라고도 불린다. 활음화 현상은 원순모음 ‘오’나 ‘우’가 [w]로 변하는 것과 전설모음 ‘이’가 [j](또는 [y])로 변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이하에서는 집필자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반모음’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 새롭다'

등이 있다. 그렇지만 같은 비읍 받침을 지닌 용언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모음 [w]로 바뀐 꼴을 지니지 않고, 그대로 종성이 유지되는 것들도 있다.

본디 꼴만 유지하는 용언: 잡다, 집다, 찻다, 줍다, 낚다, 앓다<sup>75)</sup>

74) “문제가 예롭다/예럽다”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등짜이 ㄱ롭다(가럽다), 오줌이 ㄹ롭다(마럽다)”와 같은 낱말에서 제2 음절의 ‘요’를 ‘으’로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표기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은 제2 음절 이하에서도 ‘으’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나 집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제2 음절에서 분명히 변별될 수 있는 자리는 현재 ‘여덟’을 가리키는 ‘으답/으덱’처럼 아마 제1 음절로만 국한해 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의심된다. 제2 음절 이하에서 ‘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아마 제1 음절의 ‘으’에 의해 동화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 일후 더 광범위하게 현지 조사를 한 뒤에 과연 2음절 이하에서도 ‘으’가 변별적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디 『훈민정음』에서는 당시에도 변방에서 쓰이는 이 글자를 명백히 ‘ㅣ’ [이]로 올바르게 표기 놓았다. 반모음 ‘ㅣ’가 핵모음 ‘·’에 상향식(on-glide) 실현 모습으로 그대로 ‘·’ 위에 얹혀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신경준(1712~1781)이 1750년 원고가 완성된 『운해 훈민정음』에서는 이를 ‘·’ [으]로 적어 놓으면서, 반모음 ‘ㅣ’의 존재(ㅣ)를 없애 버렸다. 그가 비록 제치호(濟齒呼, 반모음 j)로 부르면서도 반모음 기호를 없애 버리고 달리 ‘·’ 표기를 만든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김봉옥(2013 재간행) 『제주 통사』(제주발전연구원)을 보면, 우연이겠지만 그는 24년 뒤에 1774년 7월부터 1775년 2월까지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다. 이미 이 방언을 연구하던 이들이 이미 무비관적으로 잘못된 ‘으’를 답습해 왔고, 일반인들도 이 글자가 옳은 줄 착각한다. 이 표기법에서는 이런 관습을 과감히 혁파해 놓는 데까지는 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75)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난/-으나네’를 붙여 활용할 경우에, 각각 [자브난/자브나네], [지브난/지브나네], [찌브난/찌브나네], [조브난/조브나네], [널브난/널브나네], [알브난/알브나네]와 같이 발음된다. 이 때 겹받침 ‘래’은 결코 홑받침 [\*야브난]으로 발음되는 일이 없으므로, 이들의 어간은 반드시 ‘얹’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단, ‘낚다’는 화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 그런데 ‘물을 쏟다’는 뜻의 “물을 빙다/비우다”는 [물 빙지 말라], [물 비우난]과 같이 발음된다. 만일 연결어미 ‘-안’(-아서)이 이어지면, [물 비완]처럼 말해진다. 이 경우에는 받침의 ‘빙-’과 모음으로 된 ‘비우-’가 복수 어간(쌍형 어간,

활용 방식에서 관찰되는 이런 차이는, 앞에서 보았던 ㄷ받침이 ㄹ로 바뀌는 현상과 자연 부류를 이룬다. 최명옥(1985)에 따르면, 오래 전에 유성음 비읍 ‘빙’[β]이 음소로서 기능하던 시기가 있었을 것인데, 유성음들이 모두 없어지면서 급기야 다른 음소로 실현되기에 이르러, 받침 비읍과 반모음 ‘오/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직 이러한 역사적인 동기를 상정하는 일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으로 비읍 받침의 두 가지 다른 실현 방식을 설명해 낼 수 없다.

바뀐 꼴 어간을 갖는 부류는 앞에서 든 것 이외에도, 한글맞춤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 방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좋다’ 어간의 히읃 받침이 ‘-아’ 또는 ‘-으민’ 등의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되어 [조아](좋아), [조으민](좋으면)으로 발음된다.<sup>76)</sup>

---

다중 어간)처럼 존재하고 있으며, ‘비우-’는 특정한 모음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 반모음 [w] 약화되어 재음절화됨을 알 수 있다.

- 76) 그런데 [조아]에서 어간에 남아 있는 ‘ㄱ’이 반모음 [w]로 된 다음 재음절화를 거쳐 [\*좌]로 줄어들어 발음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렇지만 [조으민]은 ‘으’가 탈락하여 [조 : 민]으로 보상적 장음화를 거쳐 발음될 수도 있다. 이때 ‘조민’은 준말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왜 [조아]에서 [\*좌]로는 줄어들 수 없는 것일까? 집필자는 어간 초성 ‘ㄱ’에 이미 반모음 [j](연구자에 따라서는 [y]로도 표기함)가 녹아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준어에는 반모음이 하나만 붙을 수 있다(상향 반모음과 핵모음, 또는 핵모음과 하향 반모음만이 가능함). 그런데 초성에 녹아 있는 반모음 때문에 이미 상향 반모음 자리가 점유되어 있다. 이 점이 어간 ‘ㄱ’을 반모음 [w]로 줄어들 수 없게 막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실은 다시 준말을 해설하면서도 다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표기법에서 앞의 항목은 ‘좋아’라고만 표기해야 하고, 뒤의 항목은 ‘좋으민’과 준말 ‘조민’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으민]은 음운 변화의 중간 과정이며, 어미 ‘-으민’에서 어느 경우처럼 앞의 약한 모음 ‘으’가 탈락되지 않는 것은 어간의 받침 소리가 약한 내파음으로나마 여전히 첫 음절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음절 재구조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발음이 비록 [조으민]으로 나오더라도, 표기에서는 기본꼴인 ‘좋으민’으로 써 주어야 한다. 약한 내파음의

- (2) ‘하다’(하다) 동사 어간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지’와 같은 어미에서는 바뀌지 않으나(“하지 말라”), ‘-어’ 또는 ‘-영’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하영”(하여서), “하<sup>어</sup>연 보커라”(하<sup>어</sup>연 보겠다)처럼 ‘-어, -영’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표준어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어간이 바뀐 꼴에 대한 해설을 끝마치기로 한다.

\* \* \*

이제 어간에 이어진 어미들을 언급하기로 한다. 제16항에서 다루진 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내포문 어미(보문자 또는 보문어미로도 불림)이다. 종결어미는 시제 또는 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담고 있다. 제13항에서 다루진 연결어미(병렬 관계, 순차 관계, 조건 관계), 전성 어미(관형형어미), 종결어미(의문문)의 사례들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먼저 연결어미로서 이유를 나타내는 ‘-으난’(-으니까)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 어미는 또한 수의적으로 ‘-으나네’로도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마치 제13항에서 다루었던 종속 접속의 순차 관계

‘-아네’ 또는 ‘-어네’(-아서) → ‘-안’ 또는 ‘-언’(-아서)

처럼, 음절수만을 고려할 때에 ‘-으나네’(-으니까)에서부터 ‘-으난’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sup>77)</sup> 그런데 ‘-안’은 어간의 모음에 따라

---

존재를 포착하기 위해서라도, 발음대로 써 놓아서 안 되는 것이다.

77) 거꾸로 ‘-안’이나 ‘-언’으로부터 모종의 요소가 덧붙어 늘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무슨 목적 때문에 어떤 요소가 덧붙었는지를 명확

서로 조화되어 ‘-언’으로도 동화된다. 그렇지만 ‘-으난’은 그러하지 않고 모음조화와 무관하게 하나의 형태만 있을 뿐이다. 제춌말에서 ‘-안/-아네’와 시상 대립을 보이는 ‘-양/-아그네/-아그닝에’는, 이 이유의 연결어미와는 서로 결합할 수 없다. 이유 연결어미 ‘-으난/-으나네’는 오직 어떤 일이 끝났거나 완료된 사건을 가리키는 ‘-안/-아네’와 결합되어 있을 뿐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집필자는 이 연결어미의 의미 자질이 ① 일차적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나 사건에 대하여 그 이유를 가리켜 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며, ② 부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거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유를 언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③ 상대방의 믿음과도 관련된 속뜻을 담고 있다. 상대방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유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 연결어미로써 새로 일깨워 준다는 함의가 깃들게 된다. 이미 일어난 일의 이유를 말하려면, 그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완료 사건’으로만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이 이 연결어미가 오직 ‘-안/-아네’(이 방언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표준어의 ‘-아서’에 대응함) 형태로만 실현되는 이유가 된다.

또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하여 ‘-아서’와 ‘-니까’를 서로 구분해 주기 위하여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왔다. 그러나 오직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만을 따지고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청자와 화자 사이에 믿음의 차이에 대한 시각을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

히 규명해 내기 힘들다. 따라서 음절의 수만을 따져 축약 현상으로 기술해 놓는 쪽으로 적어 둔다. 한편, 김지홍(2014b)의 제5장 각주 116)에서는 ‘-양’의 일곱 가지 변이 모습을 도출해 주기 위하여 기본 표상을 ‘-아그네그네’의 중가 형태소를 제안하였다. 만일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긴 형태의 모습이 기본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런 속뜻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한 듯하다. 서울말에서 ‘-아서’는 다시 ‘-아서’에 이끌리는 후행절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나열되어

‘…… -아서, …… -아서, …… -아서, …….’

와 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sup>78)</sup> 이와는 달리 ‘-니까’는 이례적으로 점강적이거나 점층적인 전개(앞의 이유 때문에 뒤의 이유가 도출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연속된 후행절을 허용하지 않는다.<sup>79)</sup> 이는 상대방의 믿음에 대하여 고쳐 주거나 일깨워 주는 일이 하나로 초점 모아져 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이 된다는 상식적인 ‘화용 전략’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쓸 경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듣는 사람(상대방)이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나 판단을 갖고서, 화자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판단을 고쳐 주거나 세워 놓는 속뜻이 깔려 있으

78) 이렇게 절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 모습은 제춧말에서도 똑같이 순차 연결어미 ‘-앙’이나 ‘-안’의 절들에서도 그러하다. 병렬 접속구문은 두 드러지게 ‘-고’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런데 이는 공간상의 병렬이 아니라 시간상의 병렬(순차 연결)을 나타내므로, 맥락에 따라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가리켜 줄 수 있다. ‘-고’가 때로 ‘-고 나서’의 줄임 형태로 쓰일 수 있다면 시간상의 나열을 함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영어의 and 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일상언어 철학자 그라이스(Grice 1975, 1978)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그라이스(1989)에 재수록되어 있다.

79) 원칙적으로 ‘…… -니까, …… \*~니까’는 허용되지 않지만, 오직 이들 명제 사이의 관계가 점층적으로 줄어들어 명시성이 더 높아질 경우(이유가 더욱 명확해짐)에라야 허용될 뿐이다. 조건문이 ‘조건 → 결과’라는 두 구문을 이어 놓는 일처럼(이를 종속 구문으로 부름), ‘이유 → 이미 일어난 결과 사건’이 전형적인 구문 배열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의 선행절에 하나의 후행절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유 구문은 종속 접속구문이다. 병렬 접속문의 구조와 종속 접속문의 구조는 서로 다르게 설정된다. 자세한 논의는 김지홍(2010)의 제7장과 제8장을 읽어 보기 바란다.

므로, 매우 강한 주장이라는 인상이 들게 마련이다.

다음으로 역접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임 관계를 나타내는 복합 연결어미 ‘-아도, -어도’가 있는데, 이는 뜻을 첨가하는 보조사 ‘도’가 필수적으로 더 덧붙여 있는 것이다. 이 연결어미의 해석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의미를 판정한 뒤에 역접 관계로 보든지, 아니면 방임 관계로 볼 수 있다. 가령,

“하인이 그 밭을 갈아도, 주인은 과종을 하지 않았다.”

“먹을 오래 갈아도, 먹물이 여전히 진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 두 절 사이의 관계가 대립되므로 역접 관계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는 종속 접속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

라고 말할 경우에, 선행절이 후행절에서 언급되는 사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임 관계이며, 이는 수의적 접속으로 분류된다.

제16항에서는 내포문 어미가 두 가지 예시되어 있다. 내포문은 하나의 동사가 절 형식의 문장을 갖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먼저 ‘-지도’로 예시되어 있는 어미는 반드시 상위문 동사로서 ‘모르다’ 계열의 낱말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만일 꺾쇠괄호로써 내포문을 표시한다면, 즉,

“[그가 지금 갈지도] 몰라.”

처럼 쓰이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뜻을 첨가하는 보조사 ‘도’가 들어 있는데, 앞에서 본 경우와는 달리 임의로 탈락될 수 있다.

“[그가 지금 같지] 몰라.”

처럼 말해도 되는 것이다. 보조사 ‘도’가 더 붙어 있으면, 대립되는 양자 선택이 더 강조되어, 가는 일과 가지 않는 일이 거의 같은 확률로 동일하게 부각될 수 있다. 중의적인 해석을 지닌 ‘-게’는 첫째 이른바 ‘부사형 어미’로서 상위문 동사로서 ‘되다, 시키다, 하다’가 나와야 한다. 이들 상위문 동사는 자연계의 사건 변화처럼 자동적 과정인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일부러 일으키는 사건인지에 따라 크게 둘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연스런 사건 변화로 분류되지만, 후자는 사역 또는 사동 사건으로 분류된다.

“[발을 갈게] 되다 : [발을 갈게] 시켰다/했다”

의 대립인 것이다. 둘째 ‘-게’는 부사어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아프게 주사를 놔다.”

에서 부사어는 수의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주사를 놔다’만으로 한 사건을 가리키는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다.<sup>80)</sup> 이 부사어는 관련 사건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덧붙여 놓고 있다. 주사를 놓은 사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것이다.

---

80) 이는 부사를 논리학의 형식으로 처음 논의한 데이빗슨의 사건 논항(연접 연산 소로 재구성됨)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가 나에게 주사를 놓다” & “그것이 아프다”. 데이빗슨(Davidson 1980; 배식한 2012 뒤집)을 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16항에서는 종결어미도 담고 있는데, 시제 또는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제시되어 있다. ‘갈았저’에서 ‘-았-’과 ‘-저’이다. 그런데 문장을 종결짓는 데에서 자주 나오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심도 있게 이뤄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표기법에서 체계적으로 항목들로 만들고서 선어말어미들의 표기 방법과 종결어미들의 표기 방법을 서술해 놓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방언의 이 분야(제웃말의 통사론과 화용론)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발전된다면, 본디 꼴을 올바르게 확정하여 표기에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소리대로만 표기되어 온 잘못된 어미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선어말어미들과 종결어미들을 지적하고, 본디 꼴을 확정해 놓기로 한다.

제웃말에서 쓰이는 종결어미들은 우선 화용 상으로 격식을 갖춰서 말하는 말투와 그렇지 않은 말투로 나눠 놓을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이를 ‘어투’라고도 부르지만, 일부에서는 때로 ‘화계’(話階, 발화의 계층)라고도 부르는데, 크게 격식 갖춘 말투 및 격식 없는 말투로 나뉜다.<sup>81)</sup> 이런 말투는 다시 그 속성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쓰이는지 사적으로 개인 사이에서 쓰이는지 여부(사회적 거리감),

---

81) 가령, 표준어에서는 9시 뉴스의 ‘습니다’ 말투와 코미디언 이경규의 ‘요’ 말투가 각각 격식 갖춘 높임말과 비격식적 높임말로 나뉠 수 있다. 또한 평대 관계의 종결어미에서는 고유한 서법에만 나오는 부류와 억양이나 어조를 달리하면서 두루 여러 서법에 걸쳐 나오는 반말투의 부류가 각각 격식 갖춘 말투와 비격식적 말투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을 ‘격식성’ 여부로 부를 수 있다. 이 격식성 위에 다시 다른 속성이 도입되어 더 말투가 분화될 수 있다. 그런 추가 도입 속성을 ‘공식성’ 여부로 부를 수 있다. 인간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미시사회학에서는 체면(face)의 개념을 놓고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는지 여부를 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이가 가깝게 느끼는지 서로 멀게 느끼는지 여부(심리적 거리감)에 의해서도 나뉜다.

각 말투에서 각각 듣는 이를 높이거나 대접하는 말투(높임말)와 그렇지 않은 말투가 있다(평대). 그렇지 않은 말투에는 말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투(자기 낮춤말, 겸양 어투)와 그렇지 않은 말투가 있다(평대). 그런데 제춧말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말투는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관찰된다.<sup>82)</sup> 표준어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점과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통사적으로는 각 말투 또는 ‘화계’마다 고유한 서법의 종결어미가 있거나, 아니면 억양만 달리 하여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가 있다. 후자를 특히 반말 투의<sup>83)</sup> 종결어미라고 부른다. 고유한 서법의 종결

82) 자기를 낮추는 대명사 ‘저’는 표준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입말투의 일상적 상황에서는 ‘저’를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를 쓴다고 기술할 수 있다.

83)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반말’의 어원을 ‘반쪽(半) 말투’로 풀이하였다. 이는 온전히 다 말할 것을 중간에서 끊어 생략해 버리는 데에서 나왔다고 본 것이다. 가령, ‘-는지’ 뒤에 나오는 동사를 생략해서 “답장이 언제나 올는지...”라고 말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예측하다’ 따위의 인식 동사가 복원될 수 있다. 그렇지만 뒤에 생략이 되지 않은 채, 온전히 기본적인 말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드디어 답장이 왔어.”라고 말할 때에, 이 말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아무런 것도 생략되거나 중단되어 끊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중간에서 끊어져 생략된 말투라는 어원은, 반말 어미들을 올바르게 포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매듭지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반쪽 말투’라는 어원이 누군가의 착각에 의해 잘못 집어넣은 것을 인습하는 것으로 본다.

오히려 ‘거스르다’는 뜻을 지닌 한자어 반(反)이 더욱 적합한 어원(反-말)일 수 있다. 순순히 공순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거스르거나(상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말투가 바로 ‘反말’인 것이다. 유교 경전에 반(反)의 용법 중에 자주 ‘거스를 반(叛) 또는 ‘뒤집을 번(翻)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이 많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역(反逆)이란 낱말로 쓰인다. 따라서 반말의 어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한문의 용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의 뜻을 오직 반대말(反對語)로만 고정해 버릴 소지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유교 경전에서 쓰는 용법들에는 엄연히 반(反)

어미는 크게 언어와 관련된 서법과 행위와 관련된 서법으로 나뉜다. 언어와 관련된 서법에는 서술 및 의문 서법이 있다. 행위와 관련된 서법에는 청유와 명령 서법이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드러내는 감탄 서법이 있다. 반말 투의 종결어미는 오직 서로 구별되는 억양(오름세, 내림세, 뒤섞인 혼종)이나 가락(긴 가락, 짧은 가락)만으로 고유한 서법 어미들에 대응된다.

그런데, 부착어로서의 국어의 특징상 이들 종결어미는 긴밀히 바로 앞서 나오는 양태 선어말어미와 융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에는 양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를 한데 묶어 하나의 어미 형태소로 본 경우들도 있다. 이 양태 선어말어미로 쓰이거나 또는 양태 선어말어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선어말어미들을 통상 ‘시상’<sup>84)</sup> 선어말어미로 부른다. 이 어미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학자들에

---

의 내포의미 속에 ‘거스르다’(反逆)는 뜻이 들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말’은 공순하지 않고 거스르는 말투 또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가리킨다.

84) 본디 시상(時相)은 시점 간의 등호 및 부등호 관계 가리키는 시제, 그리고 일정한 폭을 지닌 시간대를 가리키면서 사건의 내적 전개 모습이나 전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상(相)의 상의어로서 쓰이었다. 그런데 우리말의 시제가 상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어 문법의 논의하는 이른 시기에서부터 ‘시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다. 고영근(2007 보정판:46)을 보면, 시제를 다루면서 박승빈(1935) 『조선어학』에서 ‘시상’이란 용어를 썼다고 하며, 55쪽을 보면 북녘에서는 ‘시칭’(時稱, 시간 지칭)이란 용어를 썼다.

제웃말의 시상 형태소 ‘-엄시-’의 범주 부여와 관련하여 문숙영(2004)에서 시제로 본 결론을 비판하면서, 이효상(2006)에서는 상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하여 문숙영(2006)의 답변이 있었다. 제주 방언의 직관과 자료를 전혀 동원하지 않고서도, 문숙영(2004)의 자료들을 재해석하면서 내린 이효상(2006)의 결론은, 이론상으로 이 형태소를 ‘미완료 존속(=지속)’의 동작상으로 처음 주장한 현평효(1974)와도 합치된다. 또한 고영진(2008)에서는 ‘상’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정의하면서 ‘-엄시-’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가리키는 ‘불완전상’(imperfective, 집필자의 판단으로는 ‘비-완전상’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나을 듯함)으로 논의한 결론과도 상 범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합치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문숙영(2004, 2006)에서 기대어 시제의 근거로 삼는 ‘-느-’ 형태소조차 고영진(2008)에서는 ‘완전상’(perfective)의 표지로 논의하고 있다

따라 다양한데, ‘동작상’<sup>85)</sup> 선어말어미, 또는 (포괄적으로) 시제 선

(단, 그 논문에서 완료상 ‘perfect’와는 구분하여 썼음).

제주말의 시상 논의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이 있다. 시상을 지닌 융합 형태소를 피상적으로 단일 형태소로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그 단초는 이 방언에서 허다하게 쓰이는 반말투 종결어미 ‘-어’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 연구에서부터 이 종결어미를 자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어시’라는 잘못된 형태소를 지정해 놓았고, 아직까지 기이한 이 형태소의 분석의 오류를 아무도 심각하게 지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표면 음성형이 ‘어시’로 나오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다. ① 하나는 부사형 어미 ‘-어’에 ‘있다’라는 동사의 방언형 ‘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고, ② 다른 하나는 시상 선어말어미 ‘-엇’에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뒤의 경우가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다.

어미 이 형태소가 종결어미를 가지면 결코 “\*어셔”가 아니라, 언제나 꼭 ‘어셔’로만 발음되어 나온다. 이는 완료 형태소 ‘-엇’과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융합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셔”가 나오지 않음을 지적한 적도 없고, 아직 본격적으로 ‘-엇+어’의 융합 형태소임을 논의한 적도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 방언의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초보적인 이 방언의 문법 형태소 분석에서부터 연구자들 사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일부 분포에서 ‘어시’의 형태소 설정이 잘못된 것이고 융합된 형태소들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동시에 연쇄적으로 ‘-암시’라는 짝도 허물어져서, 이 또한 형태소 분석의 오류임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고영진(2008)에서 지적되었듯이 대립 형태소로 짝 지워 놓은 ‘-암시 : -아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전형적인 분포와 그렇지 않은 분포를 구분해 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해설에서는 이 형태소를 각각 ‘-았 : -앗’으로 보고 있으며, 이 뒤에 종결어미 ‘-이나, -어, -인게, -지’가 결합된 것으로 설명해 놓을 것이다.

2013년 이 방언의 표기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고동호 선생은 여러 차례 ‘-았’ 형태소의 정립을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집필자는 컴퓨터 자판의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지녔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필자는 고동호 선생의 주장이 옳고, 그런 쪽으로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런 입장에서는 계사를 수반하는 명사형어미 ‘-음’ 구문(74쪽 제11항 및 193쪽 제17항의 해설에서 다루짐)과 미완료 사건을 나타내는 시상 형태소 ‘-았’(이 어미 뒤에는 종결의 종결어미가 이어짐)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어야 주어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상태로 상정된 ‘-암’이란 형태소가 과연 이 방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집필자는 반말투 어미 ‘-어’에 ‘-음디아’와 ‘-은디아’가 융합된 것으로 봄).

- 85) 자연계의 무생물은 작동 내지 운동을 하지만, 동작을 하는 일은 없다. 동작의 주체를 생명을 지닌 생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으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동작상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제주말

어말어미, 또는 ‘때때깸’ 선어말어미로도 부른다.

이 시상 선어말 바로 앞에 나오는 어미로 대우 형태소(주어 또는 행위 주체 높임) ‘-으시-’가 있다. 이 방언에서는 사회언어학적으로 분명히 이 높임 형태소가 쓰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없는 듯이 기술하거나, 외부 방언에 영향을 입은 것처럼 기술된 적도 있었다.<sup>86)</sup> 그렇지만 집필자는 분명히 사회언어학적 현상으로서 ‘-으시-’가 쓰였으므로 이 방언의 일부로서 기술되어야 옳다고 본다. 일부 특이성만 강조하여 다양한 이 방언의 모습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된다.<sup>87)</sup>

---

에서는 인간과 여타 생물을 동일하게 여기기보다, 생명체 중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된 사건들을 구분하여 쓰는 종결어미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동작상’의 동작은 오직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일으키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표준어 “꽃이 피고 있다.”(제죽말에서는 ‘고장 피없저’)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 ‘꽃’은 생명체이지만 자유의지를 지니고서 자신의 의도대로 꽃이 피거나 꽃이 질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관찰되는 ‘고 있-’(제죽말의 ‘없-’)을 동작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시상’이라고 불러야 더 온당할 것으로 본다. 제죽말에서는 뒤에서 다뤄질 ‘-언다?’, ‘-엄다?’(어+은+디아?/어+음+디아?)와 같은 융합 종결어미가 항상 현재 마주 보고 있는 청자에게만 한정되어 청자가 관련된 사건이나 화자가 관련된 사건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동작상’의 범주를 부여해 줄 수 있다.

86) 이승녕(1957, 1978 재간행)에 이미 활용 사례에서 ‘-으시-’가 들어 있다. 토박이 연구자인 박용후(1960)에서도 용언의 활용 사례에 분명히 ‘-으시-’가 들어 있다. 그러나 다른 토박이 연구자인 현평효(1985:194)에서는

“재래의 (제주) 방언에서는 ……생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언중의 일부층에 불과하다.”

고 보았다. 동일한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아마도 언어 습득의 배경에서 말미암을 법하다. 따라서 지역적인 분포와 사회 계층 분포에서 필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집필자는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으시-’를 쓰는 발화들을 자주 들어 왔고(오래 전에 타계하신 집필자의 부모님은 ‘밥 자식서!, 한숨 주무식서!’라는 어휘적 대우 표현을 썼음), 집필자의 개인 방언에서 ‘필수적 임’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87) 더러 ‘-으시-’를 잘못 적용하여 “그러십주!”(그렇습죠!)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경 흐십주!”(그렇게 하십시다!)에 이끌리어 혼성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 과도 적용된 사례일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더 옳을지에 대해서는 숙고해 봐야 할 듯하다.

이 방언에서도 높임 형태소 ‘-으시-’가 분명히 쓰이었고, 현재 보수적인 노년층에서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을 집필자가 친숙한 언어 환경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표기법을 정하고 해설을 쓰는 동안, 회의 참여자들 간의 논의에서도 이 형태소의 존재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다는 점만을 간단히 덧붙여 둔다.

한국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격식 갖추지 않은 발화를 끝내어 주는 반말 투의 어미 ‘-어’를 먼저 제춧말에서 찾아내기로 한다. 이 방언에서도 동일하게 이 반말 투 어미가 쓰이는데, 특이하게도 종결 어미를 끝내고 다시 종결어미가 붙는 융합된 종결 형태의 모습에서 마치 기본적인 융합 요구 형태소인 양 허다하게 쓰인다. 이 방언에서 반말 투의 종결어미인지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잣대는 화용 첨사 ‘마씀’을 붙여 보는 일이다. 이 반말 투의 어미 ‘-어’에는 화용 첨사가 쉽게 붙어서, ‘-어+마씀’의 형식이 쉽게 관찰된다. 그런데 이 어미는 독자적인 서법에서 쓰이는 종결어미 ‘-다’와 대립된다. 고유 서법의 종결어미 ‘-다’에는 결코 화용 첨사 ‘\*-다+마씀’을 붙여 놓을 수 없다.

만일 계사 ‘이다’에 반말투 어미가 이어지거나 또는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양태 선어말어미 ‘-으크-’(-겠-)에 이어지면, 이 어미 ‘-어’가 각각 ‘-이라’와 ‘-으크라’로 바뀌게 된다. 본디 꼴이 이른바 바뀐 꼴이 되는 것이다. 이 발화에 내림세 억양이 붙으면 서술문의 발화로 이해되고, 올림세 억양이 붙으면 의문문의 발화로 이해된다. 그렇지 않고 길게 빼면서 물결처럼 오르내린다면 반문하거나 감탄의 발화로 해석하게 된다.

“그 사름 왔어”(그 사람 왔어)<sup>88)</sup>

“그 사름 가방이라”(그 사람 가방이야)

“그 사람 곧 오크라”(그 사람 곧 오겠어)

이 발화들을 해석하는 기준 시점은 현재 발화 시점이다. ‘왔어’는 현재 발화 시점에서 완료 시상 형태소 ‘-았-’이 한 사건이 완료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그 사람이 온 사건이 완료됨). 나머지 발화에서는 모두 현재 가방이라는 대상을 지정해 주고, 현재 발화 시점에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화들은 특이하게 다시 한 번 더 종결어미들을 붙일 수 있다. 전문적으로 이를 ‘융합 형태소’라고 부르는데,<sup>89)</sup> 원래 발화를 구분해 놓기 위하여 꺾쇠 괄호를 쓰기로 한다.

“[그 사람 왔어]라!”(그 사람 왔더라)

“[그 사람 가방이라]라!”(그 사람 가방이더라)

“[그 사람 곧 오크]라]라!”(그 사람 곧 오겠더라)

종결어미 뒤에 종결어미가 다시 덧붙여 있는 부분은 밑줄로 그어

---

88) 제주말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시상 형태소 ‘-았-’은 서울말 형태소 겹받침 쌍시옷과는 달리 홑받침 시옷으로 쓰인다. 소리값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종결어미가 이어지면 음절 재구조화가 이뤄져, [와서]처럼 소리가 난다. ‘오+왔+어’라는 기본 표상에서 [와서]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면 형식을 종전에는 “오(어간)+아시(완료 지속)+어(종결어미)”라고 잘못 분석했었다. 이런 표상에서는 표면 형식이 [\*와서]라고 발음될 터인데, 이 방언에서는 결코 이런 발음을 들을 수 없다. 만일 ‘-았이-’를 잘못 분석하여 ‘-았시-’로 보았다면, ‘시’가 존속(지속)의 의미를 유도한 주범임을 알 수 있다. 존속(지속)은 대화 규범의 속뜻에서 유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김지홍(2014b) 『제주 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도서출판 경진)의 제3장 4절 2항의 논의를 보기 바란다.

89) 종결어미들의 융합 형식을 처음 밝혀낸 논문은 임홍빈(1984)이다. 이어 안명철(1990)과 이지양(1998)과 김수태(2005)와 허경행(2010) 등이 나왔다. 여러 방언에서 이런 융합 어미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더 이상 융합 형식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놓았는데, 밑줄 그은 부분은 각각 [와서라], [가방이라라], [오크라라]로 음절이 조정되어(‘재음절화’로 불림) 소리가 난다. 이 또한 반말 투의 종결어미들이므로 여기에 얹히는 억양의 모습에 따라서 서술, 의문, 반문, 명령, 청유, 감탄 등의 서법 기능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융합 형태의 서술 시점이 현재 발화 시점보다 더 앞선 시점으로 이동되어 있다. 이런 일은 비록 동사에 현재 서술 서법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시 융합 형태소를 이루는 경우에 그대로 동일한 일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먹어.”(이것 먹어)

“[이거 먹어]고나!”(이것 먹더구나)

“[이거 먹어]은게!”→‘먹은게!’로 재음절화됨(이걸 먹던걸, 먹더구나)

“이거 먹어”는 맥락에 따라서 명령이나 의문 서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현재 동작 표현), 먹을 수 있는 대상임을 가리키는 내부 속성 표현의 서술 서법으로도 쓰일 수도 있다(영속적인 대상의 속성을 서술하는 표현임).<sup>90)</sup> 이 표현이 다시 융합 표현으로 나와서 ‘먹어고나, 먹은게’로 되면, 앞에서와 같이 ‘-고나’(-구나)와 ‘-은게’(-은 것이다)가 가리키는 현재 발화 시점보다 한 시점을 더 앞선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이 동사가 완료 시상 형태소 ‘-았-’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서울말로 모두 ‘-었더-’로 번역된다.

90) 이는 크랏저(Kratzer 1988)에서 각각 장면 층위 술어와 개체 속성 층위 술어에 해당한다. 또한 비슷하게 고영진(2007)에서 지적인 일시성 대 항상성과도 일치한다. 이것이 비단 형용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에서도 그대로 관찰되는 것이다.

“이거 먹었어”→‘먹어서’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걸 먹었어)  
 “[이거 먹었어]고나”→‘먹어서고나’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  
 걸 먹었더구나)  
 “[이거 먹었어]은게”→‘먹어선게’로 재음절화되어 발음됨(이걸  
 먹었던걸, 먹었더구나)

이런 규칙적인 융합 어미의 형성 방식은 매우 중요한 양태 해석을 시사해 준다. 맨 뒤의 종결어미는 화자의 현실 경험태를 가리키지만, 바로 앞선 종결어미는 사건 실현태를 가리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태의 계층 구분이 표준어로 번역될 경우에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지금 현재 언급하는 형태소 ‘-다-’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방언의 여러 표기들에서는 이런 본디 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리대로 써 놓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제 비록 이 표기법에서 항목을 세워 놓고 규정을 짓지 못하였지만, 본디 꼴을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응당 본디 꼴을 세워 적어 주는 것이 옳은 조치로 판단된다.

오직 고유한 서법에만 나오게 되는 종결어미 ‘-다-(-다)도 또한 계사 ‘이다’에 이어질 적에 바뀐 꼴을 지녀 ‘이+어’로 나오고, 추측이나 의도의 양태 선어말어미 ‘-으크-’에 이어질 적에도 또한 ‘-으크+이어’로 되어 “-으키어”로 소리 나게 된다. 반말투 어미 ‘-어’와 철저히 상보적인 분포를 보여 준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사람 일찍 떠났다.”(그 사람은 일찍 떠났다)<sup>91)</sup>

91) 이런 발화는 ① 참값을 지닌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가리킬 경우, ② 서로 내기하는 상황에서 장차 ‘그 사람이 일찍 떠날지 여부’에 대하여 떠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지니고 말할 경우에 나올 수 있다. 서술 서법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 ‘-다’는 흔히 속담이나 경구에서 찾아지며, 시상 또는 양태 형태소가 융



“이거 그 사람 책이어.”(이것은 그 사람의 책이다)

“내일 비 하영 오키어.”(내일 비 많이 오겠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화용 첨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sup>92)</sup> 고유한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속한다. 이런 종결어미들의 목록에 대한 표기 사례들을 보이는 일은 따로 한 권의 책자로 될 만큼 많은 분량이다. 따라서 다만 집필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표로 만들어 둔 평대 관계의 서술 종결어미의 목록 및 의문 종결어미의 목록을 <표 1>과 <표 2>로 아래에 실어 둔다. 단, 기호 약속으로 ‘wh’는 의문사 ‘어디, 무사(왜), 누구, 언제’와 같은 낱말 부류를 가리키고, 억양은 서술문의 무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 각각 화살표를 이용하여 내림세를 ‘(↘)’으로, 올림세를 ‘(↗)’로, 길게 늘어 빼는 감탄어조를 ‘(→)’으로 표시해 두기로 하며, ‘+’는 종결어미들이 융합되는 모습을 가리키기로 한다.<sup>93)</sup>

---

합되어 ‘-∅다, -은다, -는다’의 모습으로 실현된다(고재환 2013을 보기 바람). ‘-았다, -았다’는 지속 폭을 지니고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1회적 사건을 가리키기 위하여 쓰인다. 그렇지만 속담이나 경구는 반복되어 자주 일어나는 일반화된 사건을 가리키므로, 1회적 사건을 가리키는 ‘-았-’이나 ‘-았-’이라는 시상 형태소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양태를 가리킬 수 있는 형태가 들어 있는 것이다. ‘∅, -은-, -는-(느+은)’은 양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뒤에서 다뤄진 시상/양태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 92) 여기에도 원래 발화를 그대로 흉내 내면서 “[원래 발화] 따썸~?”과 같이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반말 투의 융합 구조와는 속성이 전혀 다르다. 꺾쇠 괄호에 있는 원래 발화는 고립된 섬처럼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따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는 원래 발화보다 해당 발화를 만들어 낸 원래 의도를 겨냥하여 되묻는 일이 된다. 따라서 발화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이면에 묻혀 있는 화자 의도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원래 발화]라고 말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발화가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의도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 93) 이 표는 오직 집필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둔 잠정적인 안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가 더 진전됨에 따라 계속 추가되어야 하고, 일부 융합된 어미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표 1> 평대 관계의 서술 종결어미 목록(안)

독자적인 종결어미		반말투의 종결어미							
종결 고유 서법 어미	-다(계사와 추측 양태 뒤에 '-이어, -으키어')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치 않음 (×)	반말투	-어(계사와 추측 양태 뒤에 '-이라, -으크라')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함 (○)				
	-저			-취, -주					
	-과라, -고라			계사 '이게' 형식					
	-노라		어미 중첩 (계) 첨사가 붙음	-어+은게					
	-나			-어+고나					
	-게			-어+네					
	-어+라, -어+ㄴ								
	-다+문, -오라(명령)+문								
겸용 서법	-네(↘), 감탄(→)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치 않음 (×)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은/는/던게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함 (○)		
	-테(↘), 감탄(→)					-은/는/던걸			
	-고나(↘), 감탄(→)					-을로고나, -을로고			
	-을테취								
	-을컬, -으컬								
	-을커라, -으커라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은/는/던 생이어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치 않음 (×)		접속문 전성		-은/는/던디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함 (○)
	-을노라							-거든	
	-을로다							-민	
	-오니, -느니							-곡	
	-느니	-곡말곡, -다마다							
	-으리								
기 타 (법주가 불분명함)	-이 (또는 반모음 j/y)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치 않음 (×)	내포문 전성		-겐, -퀘, -넨, -넨,	화용 첨사 (마씀)  연결이 가능함 (○)			
	-으메				-덴 -랜				
	-에				-첸				
	-예/-이에				-나여, -다여, -라여				
	-네/-니에								
	기 타		-으멘						

<표 2> 평대 관계의 의문 종결어미 목록(안)

독자적인 종결어미		반말투의 종결어미					
종결 고유  서법 어미	-가?	화용 첨사 {마음}	반말투	-어?(게사와 추측 형태 뒤에 ‘-이라?, -으크라?’)	화용 첨사 {마음}		
	-나?			-줘?, -주?			
	-다?, -다?		어미 중첩  {개} 첨사 가능함	-어(반말투)+은가?			
	wh-고?(↘)			wh-어(반말투)+니?(↘), -어+ 나?			
	wh-니?(↘), -나?			wh-어(반말투)+은디? (↘), -어+은다?, -어+은다?			
	wh-디?(↘), -다?, - 다?			-어+나?			
	wh-이?(↘), -야?, - 아?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wh-은/는/던고?(↘), -은/ 는/던가?	
관형형, 의존명사 구문	-은/는/던다?, -은/는/ 던다?		wh-은/는/던디?(↘)			연결이 가능함 (○)	
	-우리?		wh-으코?(↘), -으카?				
	-으려?		-을커라?, -으커라?				
	-으라?		내포문 전성	인용: -겐?, -랜?, -넌?, -넌?, -덴?, -랜?			
	-올래?						의도: -젠?
	-올라?						
	wh-을디?(↘), -을타?		장년 여성	기 타			-으넌?
	wh-을러니?(↘), -을 러나?						
	wh-으커니?(↘), -으 커나?						
	-순?, -심?, -산?						

실사 종결어미의 본디 꼴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종결어미들의 앞에 나오는 어미들을 다루어야 한다. 종결어미들을 보통 낱말 중심의 언어관에서는 낱말의 끝에 붙어 있다고 하여 ‘어말’ 어미라고 불렀다. 잘못된 용어이지만, 관례적으로

용언이라는 낱말에 붙는다고 보아 어말어미를 쓰고 있다. 여기서는 문장을 종결시켜 준다는 점에 초점 모아 ‘종결어미’로 부를 것이다 (일부에서는 ‘문말어미’로도 부름). 그렇다면 이 종결어미보다 바로 앞서 나오는 어미들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학교문법에서는 이미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고 있다. 종결어미를 바로 앞서 나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 거꾸로 진행하여 어간에까지 이르는 어미들과 그 표기 방식을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선-종결어미들도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종결어미와 일부 겹치는 선-어말어미를 ‘양태’ 범주의 어미로 부른다. 이 양태 범주의 선어말어미와 듣는 사람을 높여 주는 종결어미들이 하나의 형태소처럼 뭉쳐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격식 갖춘 표준어의 ‘-습니다’ 형태이다. 표준어에서는 ‘-습니다’로 고정시켜 놓았지만, 이 방언에서는 ‘-읍네다’<sup>94)</sup> 나온다. 표준어의 ‘-습니다’와 대응되는 형태는 이 방언에서 ‘-읍테다’이다. 모두 경험의 양태를 표시해 주는 ‘-느-’와 ‘-더-’의 융합 모습(느+이, 더+이)을 보여 주는 형태이다.

우리말에서 대우(또는 높임말 사용)는 특정한 어휘를 쓰는 방식<sup>95)</sup> 용언에 붙는 어미로 대우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작용 사회학

94) 제주말에서는 일상 표현에서 ‘-습네다, -습테다’가 관찰되지 않는다. 아직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놓은 글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스오’로 나오는 듯이 기술하고, 또 이 뒤에 ‘스오+읍네다’(스읍네다→습네다)가 이어지는 듯이 써 놓은 경우도 있다(만일 이런 복합 형태소였다라면, 분석과 설명이 아주 쉽게 이뤄질 수 있음). 그렇지만 그런 형태가 인위적인 재구성 형태일 개연성(아마 역사 사극에서 임금과 신하의 대화를 듣고서 제주말 형태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태 직접 이런 발화를 들어본 적이 없는 집필자는 선뜻 믿고 따르기가 주저되며, 과연 토박이들이 그렇게 발화했는지(그런 발화가 쓰일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95) 집필자의 기억으로는 이 방언의 옛 제주시 권역에서 ‘잡수시다/자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정도는 어휘적 대우로 분명히 쓰였다. 대우 형태소를 논의하는

에서 거론되는 체면(face)의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간접 표현 방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대우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말에서 이런 사회언어학적 논의가 사뭇 낮은 편이다.<sup>96)</sup> 용언에 붙는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나뉜다. 선어말어미에서는 대격 명사구를 높이는 형태는 없다. 대신 주격 명사구를 높이는 형태 ‘-으시-’와 관련해서는 이 방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언어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크게 나뉘는 듯하다.

이승녕(1957, 1978 재간)과 박용후(1960)에서는 이 방언에서 ‘-으시-’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현평효(1974, 1985 재수록: 71)에서는

“오늘날까지 제주도 방언에서는 주체 존대를 표시하는 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였다가, 다시 현평효(1977, 1985 재수록:159)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언중의 일부층에서 발화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

라고 썼다. 집필자는 아래 살펴볼 <표 3>에서 격식 갖춘 대우

---

자리에서 집필자는 익숙한 개인 경험을 통하여 분명히 ‘-으시-’를 써 왔고, 당연히 쓴다고 보았지만, 집필자의 이런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필시 사회언어학에서 말하는 계층별 언어 사용의 차이일 듯하다(현평효 1985:159도 보기 바람).

96) 특히 고프먼(Goffman 1967)에서 다뤄진 체면 보호 행위(face-saving act) 및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의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를 좀더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클락(Clark 1996, 김지홍 2009 뒤침)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자율성(autonomy) 및 자존감을 높이거나 제약하는 원리로 재구성해 놓았다.

말투에서 찾아지는 ‘-읍네다, -읍네까?, -읍서!, -읍주!’라는 형태소가 이 방언의 입말 자료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어머니들과 ‘-으시-’가 결합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이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한편, 강정희(1988: 37)에서는 대우를 표시해 주는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존대 표현법의 미-세분화(미분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제웃말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의 대우 체계를 이승녕(1957, 1978 재간:80쪽 이하)에서는 서술문과 의문문을 중심으로 하여 네 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평칭, 중칭, 존칭, 극존칭’이다. 그런데 토박이 연구자로서 박용후(1960:333쪽 이하)에서도 네 단계를 나누어 놓았는데, 이를 극존칭(아주 높임), 보통 존칭(예사 높임), 보통 비칭(예사 낮춤), 극비칭(아주 낮춤)으로 불렀다. 이는 아마 최현배(1929, 1975 제5 개정판:262)에 있는 등급 밖의 반말을 제외한 대우 체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평효(1974, 1977)에서는 ‘하대, 평대, 존대’의 세 등급을 주장하였는데,<sup>97)</sup> 이를 명령형 어미로 표시하여 각각

‘하라체, 하여체, 흡서체’

97) 전자는 박사학위 논문인데, 둘 모두 현평효(1985) 제1부에 재수록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대우 등급이 현평효·김홍식·강근보(1974)에도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현평효(1985:147)에서

“이승녕 박사도 등급을 존칭, 중칭, 평칭으로 삼등분한 바 있다.”

고 본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극존칭(집필자의 표에서는 격식 갖춘 대우 등급) 등급을 빼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승녕(1978:80, 81)의 네 등급의 표를 보기 바라며, 그 책의 153쪽에서는 약호를 써서 ‘평(平), 중(中), 존(尊), 극(極)’으로 표시되어 있다(단 그곳의 上은 中의 오자임).

로 불렀다. 아마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우의 등급을 명백히 보여 주는 일을 명령 서법으로 파악하였던 데에서 나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대우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은 격식성 및 공식성 여부로 나뉠 수 있다. 텔레비전의 9시 뉴스에서는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언어 사용 환경이므로, 우리말에서 ‘-습니다’ 말투를 쓰게 된다. 이와는 달리, 가령 연예인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공식적이지만 격식을 갖추지 않은 채 대우하는 말투로 ‘요’(대우의 화용 첨사)를 쓸 수 있다. 후자는 흔히 반말투 종결어미(여러 서법에 두루 쓰임) ‘-어’로 대표되는 형태에 비격식적인 대우를 표시해 주는 화용 첨사가 쓰인다. 이런 틀을 고려하면서, 집필자는 제춧말의 종결어미 대우 체계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표 3> 종결어미의 대우 체계

말투 서법	마주하여 듣는 이를 대우함		평대 (대우하지 않음)	
	격식투 ‘읍’	비격식투 ‘수/으우’	고유 서법 형태	반말투
서술	-읍네다, -읍테다	-수다/-으우다, -수께/-으우께, -수께/-으우께	-다(계사; 이어)	-어 (계사; 이라)
의문	-읍네까?, -읍테까?	-수과?/-으우과?, -수가?/-으우 까?	-가?(계사; 이가?)	
명령	-읍서!		-오라!	
칭유	-읍주!		-자!	

이 <표 3>을 보면, 한눈에 현평효(1977)에서의 삼분 체계 ‘흡서, 흐라, 흐여’가 오직 명령의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만 이뤄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흐라, 흐여’는 대우를 하지 않는 평대의 종결

어미인데, 전자는 고유한 서법으로만 쓰이고 후자는 억양만 달리하여 두루 여러 서법에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이다. 이들이 결코 평대와 하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평대가 곧 하대와 동일한 등급일 뿐인데, 그 까닭은 곧 박용후(1960)에서 예사 낮춤(보통 비칭)과 아주 낮춤(극비칭)이 성립될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같이 논의될 것이다(후술). 또한 그런 삼분 체계는 이 방언의 서술 및 의문 서법에서 관찰되는 종결어미들을 구분해 주지도 못한다(-읍네다 : -수다, -읍네까? : -수과?).

이와는 달리, 이승녕(1978 재간)에서의 중칭(中稱)을 ‘-어’ 반말투로만 바꾼다면,<sup>98)</sup> 정확히 이 표의 사분 체계와 일치한다. 평칭과 중칭은 각각 평대의 종결어미와 반말투의 종결어미이며, 그리고 존칭과 극존칭은 비격식투의 대우 ‘-수’ 및 격식투의 대우 ‘-읍-’에 정확히 대응되기 때문이다.

박용후(1960)에서는 극비칭(아주 낮춤)의 형태소를 ‘-다’로, 보통비칭(예사 낮춤)의 형태소를 ‘-어’로 상정하여 이들 사이에 높고 낮음 관계로 보았다. 그렇지만 낮춤에 보통 낮춤과 아주 낮춤이 있다는 의견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춧말을 쓰는 토박이들 사이에서 신분 계층이 과연 양반과 평민 사이의 구분 또는 평민과 천민 사이의 구분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평호(1977)에서 주장한 평대와 하대의 등급도 마찬가지로 서로 구분될 수 없다.

98) 이승녕(1978 재간:111)에서 ‘떡엄서’의 형태소 분석을 ‘떡+엄+서’로 보았다. 그런데 만일 시상을 표시해 주는 선어말어미를 집필자의 주장과 같이 ‘-앉-’으로 확정한다면, 당연히 ‘떡+앉+어’로 분석되고, 반말투의 종결어미 ‘-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는 중칭(中稱)을 중간 등급으로 보지 않고, 어중간한 등급으로 재해석해야 하는데, 곧 최현배(1975)에서의 ‘등급 밖’의 반말로 간주하는 셈이다. 아마 당시의 지식 수준으로는 억양만을 달리하면서 모든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를 확정할 근거를 찾아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집필자는 이것들이 동일한 등급이라고 본다. 집필자의 <표 3>에서는 동일한 등급이지만, 서법마다 고유한 종결어미를 지닌 경우와 그렇지 않고 억양만 달리하여 모든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 보는 것이다. 반말투의 종결어미는 대우를 표시해 주는 화용 첨사가 더 붙어서 격식 갖추지 않은 대우 말투로 바뀔 수 있다. 마치 표준어에서 ‘요’가 붙어 비격식적인 대우 말투로 바뀌는 일과 동일하다.

만일 위와 같은 <표 3>이 확정된다면, 대우의 말투에서 구별되는 형태소들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격식 갖춘 말투 ‘-읍네다/-읍네다’의 구성은 ‘-읍-’에 각각 경험과 관련된 양태 형태소 ‘-느-’(현재 경험 가능함)와 ‘-더-’(이미 경험한 적이 있음)가 이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이다’가 결합되어 있다(읍+느/더+이다). ‘-읍-’은 객체를 높여 주는 중세 국어의 겸양법 ‘-슌-/슌-’에, ‘-느-’나 ‘-더-’는 각각 중세 국어의 시상 형태 ‘-느-’와 ‘-더-’에 대응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종결어미 ‘-이다’가 분석 가능한지, 분석될 수 있다면 ‘-이-’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공손법 ‘-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제삿말의 다른 어미 결합에서는 공손법과 무관한 ‘이’ 요소가 다수 찾아진다. 가령, 양태 형태소 ‘-으크-’ 뒤에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이어’이며, 상 형태소 ‘-았-’과 ‘-앗-’ 뒤에 결합하는 종결어미에도 ‘-인게’(이+은게)처럼 나타난다.<sup>99)</sup> 만일 이런 부류가 계사

99) 이런 고민을 풀기 위해 다른 두 분의 생각과 집필자 개인의 의견을 적어 둔다. 고영진 선생은 계사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도 계사의 활용이 어간 탈락 현상 및 잠재된 ‘ㄹ’의 발현을 보인다. 그렇지만 논의 중인 ‘이’는 그런 속성을 지니는 것 같이 않다. 정승철 선생은 ‘으’가 전설모음 ‘이’로 바뀐다고 가정하는 듯하다. 집필자는 약한 모음 ‘으’가 탈락된다는 가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약한 모음이 강한 모음으로 바뀌거나 동화될 환경이 생겨서 전설모음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다’와 관련된다면 계사 어간의 생략 및 잠재된 ‘ㄹ’의 발현 모습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지만,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혹 공손법 ‘-이-’와 대우상 짝이 되는 요소는 아닐지(가상하여 비음성 ‘ng’이 없으며 대립적으로 [-공손]의 자질을 지닌 형식)도 상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환경에서 찾아지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다. 종결어미들에서 찾아지는 ‘이’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문제는 제웃말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수-’와 관련하여 현평효(1985)에서 음운론적으로 조건(모음 어간 뒤)에 따른 변이형태 ‘-우-’를 확정된 뒤에 뒷 연구자들이 그대로 따라 써 왔다. 그렇지만 정승철(1995:155쪽 이하, 1997:79쪽 이하)에서는 비록 두 개의 형태를 음운론적으로 조건이 지워진 것으로 상정하면서도, 어간이 ㄹ 받침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으우-’가 나오고, 다른 환경에서는 ‘-쑤-’가 관찰된다고 기술하였다.

‘길/질+으우+다’[기/지우다](깁니다), ‘크+으우+다’[크우다](큘니다)  
 ‘짧수다’[점쑤다](짧습니다), ‘덥수다’[덥쑤다](덥습니다)

여기서 ‘-으우-’의 설정은 다른 형태소들도 ‘으’ 모음을 지닌 것들이 있으므로 자연부류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를 기본으로 잡든지 간에 ‘-수-’와 ‘-으우-’가 서로 본디 풀과 바뀐 풀이

---

보인다. 또한 전설모음으로 만들어 놓는 음운론적 환경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 뒤에서 집필자는 두 가지 가능성을 더 상정할 것이다. 하나는 공손법 형태소와 대립되는 [-공손] 자질의 ‘이’이지만, 너무 이례적이어서 가능성이 적다. 다른 하나는 이 방언에서 찾아지는 유표적인 명사화 어미 구문(-음+이다)로부터 이미 주어진 상황이 참값으로 전제되고 그 상황에 대하여 서술하는 주제화 유사 구문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고영진 선생의 생각에다 계사 구문이 실현되어야 할 필연적 동기를 더 추구해 본 것이다.

되는 셈이다.

가령, ‘죽다’(작다)를 활용시켜 보면 집필자의 발음은 늘 [죽수다, 죽수과?]이다. 정승철(1995)에서 표기된 ‘죽쑤파?’를 집필자는 이전에 제주시에 살던 함경도 출신의 외지인으로부터 ‘-쑤파?’라는 발음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죽다’는 또한 정승철(1995)의 지적처럼 [죽으우다, 죽으우파?]라고도 발음된다. ‘-수-’는 의문 종결어미로 ‘-과?’가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우-’는 마치 중세 국어에서처럼 사잇소리가 개재되어 언제나 ‘-우파?’로 나온다(‘-과?’로 분석될 수 있음). ‘-수과?’를 [수과?]로 발음한다면, 필시 ‘-우파?’라는 형식에 이끌리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표준어의 ‘-까?’ 형태를 복사하면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제춧말에서 ‘죽다’는 비격식적 대우 표현으로 [죽수다]로 발음되거나 [죽으우다]로 발음된다.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도출된 두 표면형은 물론 사회언어학적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언제나 수의적인 교체라고 기술해 주어야 할 듯하다.

‘죽다’를 활용시켜 보면, 집필자는 언제나 [조쑤다]로 발음한다. 이는 어간의  $\text{ㅎ}$ 이 내과음으로 되고 나서( $\text{ㅎ} \rightarrow \text{ㄷ}$ ), 이 자질이 뒤따르는 자음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일어난 자동적 변화이므로, 당연히 형태소를 밝혀 ‘중수다’로 써야 옳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표현도 들을 수 있다. [조으우다]가 그러하다. 아마 지역 간의 차이일 듯하다. 이 발음은 결코 [??조우다]로 되지 않는 듯하다.<sup>100)</sup> 약한 모

100) 위첨자 의문 부호 ‘?’은 아주 어색하여 받아들이기 주저되는 형식을 표시한다. 의문 형식 ‘중+으우+파?’는 종결어미 ‘-파?’에 있는 반모음 [w]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발음될 듯하다. [중으우파?], [조으우파?], [조으파?], [조 : 파?]가 다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발음은 어간  $\text{ㅎ}$ 받침이 약화되더라도 음절 경계(coda)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맡기 때문에 약한 모음인 ‘으’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이다. 세 번째 발음은 ‘우’가 반모음 [w]로 바뀌고, 재음절화 과정에서 두 개의 반모음 [w][w]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되어야 가능

음 ‘으’는 모음 뒤에서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환경에서는 탈락되어 발음되면 낯설게 들린다. 그렇다면 ‘으’ 탈락을 막는 자음 요소가 선행해야 하는데, 그 요소는 비록 약화되어 내파음 요소로만 작동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어간의 받침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조으우다]라는 발음은 ‘중으우다’로 표기해야 할 듯하며, 어간 받침이 비록 약화되더라도 내파음 요소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음절 재구조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비로소 선어말어미의 약모음 ‘으’ 탈락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분명히 정승철(1995)에서 주장한 ‘-으우-’ 형태의 설정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쑤-’는 된소리(경음)를 지니고 있다. 만일 된소리를 인정한다면, 아마 유일무이한 된소리 선어말어미일 것이다. 그런 만큼 유표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집필자가 스스로 정승철(1995)에서 ‘-쑤-’로 표시해 놓은 환경을 발음해 보면, 예사소리(평음) ‘-수-’로 나오는 것들이 많다. 아마 내파음 받침에 약한 휴지가 들어가서 다음 음절로까지 재음절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발음이 보수적인 발음일 개연성이 있다. 더군다나 형태소를 확정짓는 작업은 표면형의 발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자동적인 음운과정의 변이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므로(이른바 ‘비자동적 교체’만을 표기에 반영함), ‘-쑤-’의 형태소 설정은 자동적 음운과정에 따른 변이를 그대로 기본형으로 설정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몇몇 글에서는 비격식적 대우투에서 관찰되는 ‘-수-/-우-(-으우-)’ 형태소의 기원을 다룬 바 있다. 홍종림(1995:162)에서는 ‘슌/슌+으이’

---

한 발음이다. 마지막 발음은 ‘우’가 탈락된 뒤 계속 재음절화가 가속화되어 급기야 어간에 남아 있던 음절 경계(coda)를 허물고 ‘으’가 탈락되어 보상적으로 조금 길게 발음되어 나온 결과이다.

로부터, 그리고 정승철(1995:156)에서는 모두 ‘슴/슴’으로부터 ‘-쑤-/으우-’가 나왔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결과에 비춰 과정을 추정하는 일 이외에, 음운론적 변화 과정도 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방언의 격식 갖춘 대우와 비격식적 대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반면에, 김지홍(2001:27)에서는 ‘슴/슴’은 격식 갖춘 대우 ‘-읍네다’로 이어지며, 비격식적 대우의 형태 ‘-수-/우-’는 따로 융합된 형식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종결어미 ‘-소/-오’에 다시 화자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공손법 ‘-이’가 종결어미와 같이 실현된 ‘-이다’가 융합된 것이다. 이는 텔레비전 사극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소이다/-오이다’를 거쳐, 무가들을 채록해 둔 기록들로부터 ‘-쉐다, -웨다’라는 중간 형태로 발전한 뒤에 마지막으로 모음이 줄어든 모습인 ‘-수다/-우다’로 된 것으로 보았다.

\*                    \*                    \*

그런데 양태 범주이든 시상 범주이든 모두 시상의 선어말어미로 통합하여 부르기도 한다. 제죽말의 시상 형태들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이 이미 세 편이나 나와 있으며,<sup>101)</sup> 앞으로도 시상 관계로 박

101) 현평효(1975), 홍종립(1991), 우창현(1998)이다. 문숙영(2005) 이후에 문숙영 선생은 제주 방언의 형태소를 시제로 주장하는 논문을 『형태론』에 두 편 발표하였다(문숙영 2004; 문숙영 2006). 이를 반박하면서 미국 인디애나 대학 이효상 선생이 시제가 아닌 상으로 봐야 옳다고 주장하였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표준어는 이미 시제와 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설명된다. 따라서 만일 엄격히 시제·상·양태(그리고 서법)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막연히 제죽말의 시상 표현을 다룬다면, 표준어를 다루는 관점을 그대로 옮겨 놓을 소지가 많다. 이는 이 방언의 직관을 드러내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최근 이 방언에서 형용사에만 시제 형태소를 부여하는 접근이 있

사논문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요성만큼 관련 내용을 다루는 이론적인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도출되어 나오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제춧말의 시상 관련 형태소가 또한 양태 표현에도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시제·상·양태(와 서법)’들이 부분적이든 아니면 한꺼번에 무더기로든 간에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누가 제춧말의 시상 형태소를 다루든지 간에, 시제·상·양태·서법의 개념에 대한 명백한 정의를 마련해 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① 표준어 ‘-았-’의 발달 과정을 다룬 최명옥(2002), ② 한국어 시상 표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영진(2004, 2007 보정판), ③ 제춧말의 상을 새롭게 정의해 놓은 고영진(2008)은 모두 이 방언 형태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소중한 전환점을 마련해 놓은 역작들이다.

고영진(2008)에서는 제춧말의 시상 체계가 다음처럼 삼분 대립을 보인다고 보았다.

‘-느-(완전상) : -암시-(불완전상) : -아시-(완료상)’

이들의 대립은 각각 하나의 전체 사건을 드러내는 완전상, 사건의 진행 과정을 드러내는 불완전상(그렇다면 집필자는 개인적으로 ‘비완전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낫다고 봄), 사건이 다 끝나서 지금까지 그 결과 상태가 이어지는 완료상이라고 하였다. 만일 특별한 형태소가 없이도 상적인 특성을 실현하는 zero 형태소도 필요하다면(다음에 다룰 형용사의 경우에서도 또한 그러함), 다시 ‘∅’(zero)

---

다. 그렇지만 시제의 대립 형태소들을 석연히 붙들어 드러낼 수 없다(대립 체계가 제안되지 않음)는 사실은 오히려 양태와 서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 계속 더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 추가될 수 있는데, 이는 바뀐 꼴로 다뤄진다.

그런데 기본형 ‘-느-’<sup>102)</sup> 서술문의 형용사와 계사 ‘이다’에 붙는 형태론적으로 조건이 지워진 변이형태로서 ‘-은-’을 갖고 있다고 기술할 수도 있지만, 의문 형식으로 될 경우에는 다시 ‘-느-’(이 신발 크느냐?)로 나오게 되므로, 변이형태에만 의지해서 말끔히 해결될 수는 없다. 고영진(2008)은 현평효(1985)에서 내세운 ‘-암시-’와 ‘-아시-’를 기본형으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변이형태로서 ‘-았-’과 ‘-았-’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연구자마다 서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여기서 ‘-았-’과 ‘-았-’이 모두 나란히 변이형태로서 ‘-암시-’와 ‘-아시-’

---

102) 형용사와 계사이므로, 기술언어학에서 내세운 ‘형태론적 조건’은 형태를 광의로 해석하지 않은 한 미진한 용어이다. 품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품사의 속성을 거론하여 조건을 표시해 주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렇지만 ‘느’가 서술문에서는 ‘은’으로 바뀌지만, 의문문에서는 그대로 ∅와 대립하여 ‘느’로 나오므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동사가 “그 폴도 먹나”(그 폴도 먹는다)로 발화될 경우에, 여기에 ‘-느-’가 종결어미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집필자는 부정적이다. 일단, ‘-나’에서 종결어미 ‘아’를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뒤에 제시할 서술 종결어미 목록에서는 고유하게 독자적인 서법을 지닌 종결어미 속에 들어 있음). 이런 이유로 정성여(2013)에서는 복합 종결어미로서 ‘-는다’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집필자의 생각에 이는 ‘-은다’에서 ‘으’가 탈락되어 나오는 것이며, ‘-나’와는 계열이 다르다. ‘먹다’ 동사에서와는 달리, 형용사의 의문문 활용에서는 ‘-느-’와 이에 대립하는 구문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신 느안티 크느냐?”(이 신발이 너에게 큰가? → 항상 큰지 일반 속성을 묻고 있음)

는 분명히 다음 발화와 대립적인 뜻을 지닌다.

“이 신 느안티 크냐?”(이 신발이 너에게 크니? → zero 형태가 들어 있고, 현재 상태를 묻음)

‘느’가 들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런 속성이나 성질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렇지만 zero 형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상태만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크랏저(Kratzer 1988)에서 주장한 개체 속성 층위(individual level)의 진술과 현재 장면 층위(stage level)의 진술로 대립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느’가 명백히 양태 형태소로 지정되어야 옳다. 좀더 뒤에서 이 방언의 계사 구문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대립이 찾아짐을 다시 언급할 것이다.

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편의상 평대(대우하지 않음)로 불려온 서술 서법에서 고유하게 나오는 종결어미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대우하지 않음 등급에는 반말투도 있음).

“철순 바당이 잘 간다” (철수는 바다에 잘 가는 습관이 있다)

“그 사름 벙 낫안 밥 잘 먹은다” (그 사람이 병이 나서 밥 잘 먹는 습관이 있다)

“그 사름 벙 낫안 밥 잘 먹나” (앞의 발화와 동일 의미임)

여기서 찾아지는 ‘-은다’(은+다)는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으’가 탈락되어 받침 ‘ㄴ’으로 바뀌고(‘간다’),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그대로 실현된다(‘먹은다’). 같은 상황이 ‘먹나’로도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나’라는 형태소를 ‘ㄴ+아’로 분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석 불가능한 종결어미일지 여부는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sup>103)</sup>

---

103) 특히 속담이나 경구에서 ‘-Ø다, -은다, -는다’라는 종결어미에 이어 ‘-나’로 끝나는 종결어미도 곧잘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1회적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양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한다면 두 계열의 종결어미가 서로 공통적인 의미자질을 가정하여 찾아나갈 수 있다. ‘-다’가 관찰되는 종결어미 부류가 양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나란히 ‘-나’도 양태 어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ㄴ+아’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뒤에 있는 ‘-아’는 <표 1> 평대 관계의 서술 종결어미 목록에서 독자적인 종결어미로서 계사에 이어져 있는 형태로 짐작된다. 일찍이 사적인 전자 서신에서(2007년 4월 20일자), 고영진 선생은 이들 형태소가 모두 변이 형태 관계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해 놓았음을 추가로 적어 둔다.

만일 ‘-나’가 다른 억양을 지니면 의문 서법의 종결어미로도 쓰이는데, 올림세 억양으로 “잘 먹나?(↗)”처럼 ‘예-아니오’ 질문과 내림세 억양으로 “잘 먹나?(↘)”에서처럼 의문사 의문으로 쓰일 수 있다. 이는 형용사에서 의문 서법에서만 나오는 ‘-나’와 다르며(가이 지레 크나?(↗) [개 키 크니?(↗)], 오직 의문 서법에만 나오는 종결어미는 고유한 서법의 어미로 봐야 할 것이다. 동사에 결합된 ‘-나’는 억양에 따라 여러 서법으로 두루 쓰이므로, 형용사



동일한 상황이 다음처럼 반말투의 종결어미 ‘-아’로도 나올 수 있는데, ‘-느-’를 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철순 바당이 잘 가”

“그 사름 땡 나산 밥 잘 먹어”

만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발화임에 틀림없다면, 여기서는 ‘-느-’ 형태소가 찾아지지 않더라도 무표적인 형태  $\emptyset$ (zero)를 갖고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동일한 의미를 종결어미 ‘-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나-’를 ‘-느+아-’로 분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의문 서법에서도 소리가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이 서술 서법의 형태소들과 비교될 수 있는지, 서술 서법의 표현들이 과연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 등을 좀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집필자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나 습관 등이 양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양태를 서구의 언어에서처럼 의무 및 인식 두 범주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추체험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일 : 이미 경험해 본 일 : 현 시점 이  
곳에서 경험하는 일

이 구분될 수 있을 듯하다. 이를 ‘경험 관련 양태’라고 부를 수 있다. 앞의 사례들에서 제3말의 ‘-느-’와 ‘-은-’ 형태에 관련된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경험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더-’와 관련

---

구문과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모두 하나의 종결어미 ‘-나-’라고 주장될 소지도 있다. 만일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분포상의 불균형 원인이 적절히 설명되어야만 한다.

된 형태는 이미 경험해 본 일과 관련되다. 나머지는  $\emptyset$  형태로(또는 아무런 형태가 없이) 현재 이곳에서 한 시점의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본다.

“철순 바당이 잘 간다” (철수는 바다에 잘 가는 습관이 있다)

“철순 바당의 잘 가” ([현재 한 시점상] 철수는 바다에 잘 간다)

앞의 습관 해석을 양화 표현으로 나타내면, 한 사건에 대한 전칭 (for all x, there is x) 표현에 해당하고, 뒤의 한 시점 해석은 특칭 표현(for some x, there is x & x is presently unique)에 해당한다. 전자는 이른바 ‘개체 총위’의 술어가 되며, 후자는 ‘장면 총위’의 술어가 되는 것이다. 특칭 표현이 늘 현재에서 참이 된다면, 특칭 표현이 한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쓰인다면, 결과적으로 누적되어 전칭 표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emptyset$ 로 나타내는 한 시점에서의 경험을, 듣는 사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상 형태소 ‘-았-’과 ‘-았-’이 쓰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집필자의 느낌으로는 ‘-았-’이 들어 있는 표현은 청자인 상대방도 지금 현재 경험할(추체험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지만, ‘-았-’은 반대로 그 사건을 상대방이 현재 경험할(추체험할) 수 없음을 함의하는 듯하다. 양태의 개념을 경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대한다면, 다시 화자 혼자 경험만을 가리킬 수 있고, 여기서 청자가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표시해 주려면 다시 상 형태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인 대립 사례 ‘잘 먹는다, 잘 먹나, 잘 먹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먹는다’는 전칭 표현을 지닌 개체 총위의 술어가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일이 개체 또는 대상의 내적 속

성 때문에 늘 일어나고 관찰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떡나, 떡어’는 특칭 표현을 지닌 장면 층위의 술어가 된다. 우연히 현재 한 시점에서 특정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 모두 대우를 하지 않는 평대 표현이지만 ‘-나’는 아마 서술 서법에만 쓰이는 고유한 어미일 것이고, ‘-어’는 억양만 달리하여 여러 서법에 두루 다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 파악된다(‘-나’가 더 분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함).

\*                    \*                    \*

그런데 현평호(1974)에서 동작상 ‘-암시-’(미완료 지속, 고영진 2008의 불완전상/비완전상)와 ‘-아시-’(완료 지속, 고영진 2008의 완료상)으로 규정된 형태소가 과연 제대로 분석된 것인지에 대하여, 최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sup>104)</sup> 기본 형태소를 각각 ‘-았-’과 ‘-앗-’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의문 제기는 ‘-암시-’나 ‘-아시-’를 기본형으로 보고, ‘-았-’과 ‘-앗-’을 변이형으로 도출하도록 하는 ‘이’ 탈락 규칙이, 오직 이 형태소만을 위한 매우 유효적이고 이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았-’과 ‘-앗-’을 기본형으로 보고, 여기서 ‘-았이-’[암시]와 ‘-앗이-’[아시]를 도출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왜 ‘이’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합의되거나 확립된 의견도 없다. 다시 말하여 현재 제3자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암시- : -아시-’ 또는 ‘-았- : -앗-’에 대한 형태소 확정이 어느 하나로 논의가 모아지

---

104) 현평호(1985)에서는 ‘-암지’라고 썼던 것을 제3자의 연구를 예리하게 관찰하여 이남덕(1982)에서 ‘-암시지’로 올바르게 지적하였고, 이어 김지홍(1992)에서는 ‘-암찌’로 표기하였다.

지도 않았고, 따라서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표기법에 들어 있는 예문들을 살펴보면, ‘-암시-’나 ‘-았-’이 들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일부러 피하여 예시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해설에서는 이를 피할 수도 없다. 일단 최선책으로서 ‘-암시-’ 계열이 관찰되는 환경과 ‘-았-’ 계열이 관찰되는 환경을 아래에서 예시하여 놓음으로써, 잠정적으로 이들이 마치 기본형과 변이형처럼 서술해 놓는 길을 추구할 것이다.<sup>105)</sup>

제죽말에서는 관형형어미 ‘-은, -을’을 매개로 하여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다. 서술 서법으로만 쓰이는 고유한 종결어미로서 ‘-은 생이어, -을노라, -을로다’가 있고,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로서 ‘-은게, -은걸, -을로고나, -을테줘, -을컬/으컬, -을커라/으커라’가 있다. 이들에는 언제나 다음처럼 [암시], [아시]로 발음되어 나온다. 일단 이 형태소 뒤에 관형형어미를 매개로 하는 어미 구성이 나올 경우에, ‘이’가 덧붙여 [암시]와 [아시]로 나온다고 기술할 수 있다.

[-암신/-아신 생이어], [-암실노라/-아실노라], [-암실로다/-아실로다], [-암신게/-아신게], [-암신걸/-아신걸], [-암실로고나/-아실로고나], [-암실테줘/-아실테줘], [-암실컬/-아실컬], [-암시컬/-아

105) 좀 복잡해지지만, 다음과 같은 융합형 종결어미들과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가 이어진 구문(명사형어미 구문으로 부름) “누 이제 같이가?”(너 지금 같이냐?), “나 이제 올이어!”(나 지금 오이다)에서 관찰되는 ‘-음’과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찾아지는 계사는 주제화 구문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계사의 실현에 제약이 관찰되며, 아직 해결치 못한 ‘이’와 관련된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의문 서법의 종결어미로서 ‘-언디아? : -언디아?’(먹언디아? : 먹언디아?)의 대립에서 관찰되는 ‘-엄’(반말투 종결어미를 매개로 하여 ‘어+음디아’가 융합된 구조임)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시킬), [-암실커라/-아실커라], [-암시커라/-아시커라]

접속을 맡는 연결어미 ‘-은디(-은데), -거든,<sup>106)</sup> -으민(-으면), -곡(-고), -으난(-으니까)’ 등에서도 [암시]와 [아시]가 관찰된다. 이들 연결어미는 화용적 맥락이 갖춰지면 종결어미로 바뀌어 쓰일 수도 있다.<sup>107)</sup>

[-암신디/-아신디], [-암시거든/-아시거든], [-암시민/-아시민],  
[-암시곡/-아시곡], [-암시난/-아시난]

고유하게 서술 서법으로만 쓰이는 종결어미들 가운데 ‘-저, -이, -네/-니에, -으메’에서 각각 [암시]와 [아시]가 관찰된다. ‘-저’는<sup>108)</sup> 의도의 뜻이 갖든 종결어미로 시상 형태소와 결합하면 ‘-하고 있겠다/-해 있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네/-니에’와 ‘-으메’는 어미들이 용

- 
- 106) 다만 ‘-거든’에는 특이하게 두 형태들이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암시거든/-아시거든]도 관찰되고, 또한 [-았거든(았꺼든)/-았거든(았꺼든)]도 관찰된다. 집필자의 직관에는 ‘-았’ 끝에 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느껴진다. 그러나 ‘-암시-’ 끝에 붙은 경우 마치 종결어미처럼 느껴진다(연결어미가 특정 맥락에서 종결어미로 바뀌는 경우임). 이들이 수의적인지, 아니면 의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107) 나열된 차례로 서술하면, ‘-은디(-은지)’는 ‘-은디 모르겠다’의 의미로 쓰여 “가이 뭣사 흐엿인다…?”(개 뭣 하고 있는지…?)처럼 의문 서법을 지닐 수 있다. ‘-거든’(-거든)은 표준어에서처럼 서술 서법으로 쓰일 수 있다. ‘-으민’(-으면)은 ‘-으민 좋으켜!(-으면 좋겠다), -으민 싶으다!(-으면 싶다), -으민 후다!(-으면 한다)’처럼 기원을 나타내는 감탄 서법으로 쓰일 수 있다. ‘-으곡’(-고)은 표준어에서처럼 “뭣라고?/”, “다 왔다고!→”, “좋다고.↘”와 같이 억양을 달리하여 의문 서법이나 감탄 서법이나 종결 서법으로 쓰일 수 있다. ‘-으난’(-으니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설명해 주는 맥락이 갖춰질 경우에 뒤따르는 후행절이 생략되어 종결어미처럼 쓰일 수 있다.
- 108) 내포문 구성으로 ‘-저 후다/-저 말저 후다’(-려고 하다/-려 말려 하다) 또는 ‘-고장/-구절 후다’(-고자 하다)에서 관찰되는 ‘저’에서도 이 종결어미에서와 같이 의도(또는 장차 일어날 일)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

합된 형식일 개연성이 있다.<sup>109)</sup> 이 종결어미들이 모두 인용 형식과 융합되어 ‘-젠’(저+인 또는 저+이어+은), -인(이+은), ‘-넌’(니에+인 또는 니에+이어+은), ‘-멘’(메+인 또는 메+이어+은)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암시저/-아시저], [-암시/-아시], [-암시네/-아시네], [-암시메/-아시메]  
 [-암시젠/-아시젠], [-암신/-아신], [-암시넌/-아시넌], [-암시멘/-아시멘]

의문 서법에서도 ‘-암시아?/-아시아?’(암시/아시+아?)나 ‘-암시카?/ -아시카?’(암시/아시+으크+아?)처럼 [암시]와 [아시]가 관찰된다. 앞의 형식은 [암샤?/아샤?]나 [암사?/아사?]로 소리 나고, 뒤의 형식은 [암시카?]와 [아시카?]로 소리 난다. ‘-으크-’(-젯-)의 형태소를 제외하면 이들은 동일한 구조를 지닌 듯하다. 다시 말하여 맨 뒤에 나온 의문 종결어미 ‘-아?’는 동일한 형태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암시-’와 ‘-아시-’가 관찰 가능한 것으로 서술해 놓은 환경은 네 가지이다.

- ① 관형형어미 ‘-은, -을’을 매개로 하여 융합된 형식
- ② 연결어미 ‘-은디, -거든, -으민, -곡, -으난’

109) 각각 ‘-앉-(시상형태소)+이(계사어간)+은(관형형어미)+이(형식명사)+이(계사어간)+에(종결어미)’(앉인이에→앉인에게→앉이네)와 ‘-음(명사형어미)+이어(계사 활용)+이(화용첨사)’(음이어이→음여이→으며이→으며→으며)와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맨 뒤에는 화용 첨사로서 ‘이’라고 추정해 둔 것은 ‘-을테취’에서 관찰되는 하향 반모음 [j](또는 [y])를 염두에 두면서 상정해 놓은 것이다. 이런 복잡한 융합 형식이 일반적인 융합 허용 형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따라서 집필자가 지닌 하나의 작업 가정에 따라, 엄격한 논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③ 서술 종결어미 ‘-저, -이, -네, -으메’

④ 의문 종결어미 ‘-아?’ 앞.

아직 이들 환경을 묶어 주는 상위 범주를 쉽게 찾아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술될 계사를 지닌 명사형어미 구문(-음이 다) 및 그리고 반말투 종결어미 ‘-어’와 ‘-음/-은’이 융합된 형태에서 찾아질 수 있는 특정한 주제화 구문의 가능성을 추구해 볼 만함을 적어 둔다.<sup>110)</sup>

그렇지만 이 이외의 다수의 종결어미에서는 언제나 ‘-았-’과 ‘-았-’이 쓰인다. 동사 ‘가다’와 ‘먹다’의 어간을 대표로 내세워, 이런 사례들을 종결어미들과 결합시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자적인 서술 서법에만 나오는 종결어미들과의 결합 모습이다.

“값다/갓다, 먹었다/먹었다, 값저/갓저, 먹었저/먹었저, 값다문/갓다문, 먹었다문/먹었다문, 값네/갓네, 먹었네/먹었네, 값테/갓테, 먹었테/먹었테, 값고나/갓고나, 먹었고나/먹었고나”

---

110) 후술될 내용이지만, 만일 청자나 화자가 현재 직접 경험하거나 추체험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이 참값으로 전제되고, 이런 상황이 공범주 주제 요소 e(참값을 지닌 현재 상황)로 표시된다면, 이 상황에 대한 서술 내지 지정을 위하여 유표적으로 계사 구문이 주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평범한 계사 구문은 두 개의 명사구를 계사 ‘이다’가 결합시켜 놓는다. 그렇지만 특정한 이 주제화 구문에서는 하나의 명사구는 주어진 상황을 공범주 요소 e가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런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느 계사 구문에서 관찰되는 ① 계사 어간의 생략 현상도 저지되고, ② 계사 속에 녹아 있다고 가정되는 ‘ㄹ’ 소리의 발현도 저지된다고 덧붙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상정되는 ‘이’는 다시 ‘-으크-’(-겠-)이 나오는 ‘-으키어’(으크+이+어, -겠다)에서, 그리고 ‘-엄디아 : -언디아’(어+음/은+ㄷ+인+아)에서 융합된 형태로서 ‘이’를 찾아 비교할 수 있다. 다수의 분포에서 찾아지는 ‘이’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는 다각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구될 만한 작업가정(working hypothesis)일 뿐이며, 계속 앞으로 이를 논증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종결어미는 받침의 시옷 때문에 모두 된소리로 발음된다. 다만, 종결어미가 유성 자음인 ㄴ으로 시작할 때에는 선어말어미 ‘-았-’에서 시옷이 탈락된다. 종전에는 이 환경에서 시옷이 없이 ‘-암-’으로만 써 왔으나, 그렇게 되면 자칫 뒤에 이어진 자음이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제나 된소리(경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관되게 ‘-았-’을 써서 된소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의 종결어미들과의 결합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값어/갓어, 먹없어/먹었어, 값취/갓취, 먹없취/먹었취, 값주/갓주, 먹없주/먹었주, 값언게/갓언게, 먹없언게/먹었언게, 값어고나/갓어고나, 먹없어고나/먹었어고나, 값어네/갓어네, 먹없어네/먹었어네, 값어라/갓어라, 먹없어라/먹었어라”

만일 모음으로 시작되는 종결어미가 이어지면 겹받침으로 있던 시옷이 재음절화되어 종결어미의 초성으로 발음된다. 앞의 예에서 모음으로 시작되어 재음절화되는 예를 차례대로 쓰면 다음과 같다.

[감서], [가서], [머검서], [머거서], [감선계], [가선계], [머검선계], [머거선계], [감서고나], [가서고나], [머검서고나], [머거서고나], [감서네], [가서네], [머검서네], [머거서네], [감서라], [가서라], [머검서라], [머거서라]

지금까지 표면형에서 시상 형태소가 미완료 지속 또는 불완전상/비완전상의 경우에 ‘-암시-’와 ‘-았-’이 관찰되고, 완료 지속 또는 완료상의 경우에 ‘-아시-’와 ‘-았-’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것들



은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도 아니고,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도 아니다. ‘-암시-’와 ‘-아시-’에서 맨 뒤의 ‘이’의 정체가 밝혀지고 연구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오직 뒤에 나오는 어미들에 따라서 서로 변이형태로 나온다고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이들이 변이형태가 아니라면 단일한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본형으로 보아야 할까? 만일 ‘-암시-’와 ‘-아시-’를 기본형으로 잡았을 경우에, ‘-았-’과 ‘-앗-’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탈락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오직 이 형태소만을 위해 내세워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환경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칙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와는 달리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았-’과 ‘-앗-’으로부터 ‘-암시-’와 ‘-아시-’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삽입과 같이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칙이 유일하거나 자의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으크+이어’에서처럼 다른 종결어미에서도 찾아지고, 후술될 명사형어미 ‘-음’에 계사가 붙는 구문(-음이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문들에서 어떤 일반성을 찾을 수 있다면, ‘-았-’과 ‘-앗-’이 ‘이’로 시작되는 종결어미 구문에 결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런 종결어미들에서 관찰되는 ‘이’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단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다시 말하여, ‘-았-’과 ‘-앗-’으로 기본형을 주장할 경우에 반드시 뒤에 결합되는 ‘이’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sup>111)</sup> 이는

111) 이런 환경에서 찾아지는 ‘이’를 신비한 것으로 방치하여 둘 수는 없다. 언어 현상은 체계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신비의 형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현재 제춧말의 연구 상태로서는 아무런 합치점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앞의 각주 99)에서도 밝혔듯이, 고영진 선생은 형태론적인 해결책으로 계사 ‘이다’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정승철 선생은 전설모음화라는 음운론적 해결책(‘으’→‘이’)을 생각하는 듯하다. 어느 해결책을 따르든, 계사 설정의 동기라든가,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동기를 언급해 주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기술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설명의 단계로는 진행해 나가지 못하는 듯하다.

집필자는 두 해결책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공손법 형태소의 위치에 나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손 자질이 전혀 없는 형태를 가상하여 보았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실재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다른 형태 분포로써 이 가능성이 전혀 입증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고영진 선생의 생각을 좀더 가다듬어서, 계사가 들어가야 하는 필연적 동기를 지닌 구문을 추구해 보는 것이다. 이는 청자 화자 사이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믿음이 공유되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에 초점 모아져 명사화 구문으로 서술되는 주제화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언에서는 유표적으로 계사를 수반한 명사형어미 구문으로 ‘-음이다’(-는 거다)가 관찰된다. 이 구문에서 주제화의 동기가 오직 하나의 명사구나 문장만을 요구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본다. 집필자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하여 주제화 방식을 이용하고, 이 주제화를 표현하기 위

---

없다는 것이 집필자의 믿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필자가 상정하는 작업 가정이 아직 실제로 입증되지도 확증되지도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암시- : -아시-’를 각각 ‘-았+이, -았+이’로 분석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각각 두 개의 변이형태 ‘-암시-, -았-’, 그리고 ‘-아시-, -았-’이 있는 것으로 서술할 수 있을 뿐이다.

하여 명사화 구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주제화 동기에 따라, 함께 어떤 제약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① 계사의 어간 ‘이’에 제약이 가해져서 ‘어간 생략’ 현상이 저지되고, 또한 ② 어간에 녹아 있던 ‘르 발현’ 현상도 저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주제화’의 전제에는 유표적으로 청자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여 쉽게 추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속뜻이 깔린다. 집필자에게 현재로서는, 주제화가 전제된 명사화 구문 형식으로 ‘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그럴 듯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두 번째 가능성을 놓고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입증해야 할 집필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김지홍 2014b에서 다시 논의됨)

\* \* \*

이제 이들과 유사한 형태소들을 구분해 놓기로 한다. 제춧말에는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를 이용하여 서술되는 구문이 있다.<sup>112)</sup> 또한 이런 계사 구문과 관련해서도 특이하게 ‘-음-’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가 이어진 사례를 보기로 한다.

“느 어디 감이가?”(너 어디 가는 건가?, 어디 가는 거냐?)<sup>113)</sup>

“나 이제사 읊이어.”(나 지금에야 오는 거다.)<sup>114)</sup>

112) 제춧말에서 찾아지는 이런 구문을 놓은 선업으로서 알타이 어에서 찾아지는 ‘동명사’와 관련하여 다룬 한영균(1984)이 있다. 또한 강정희(2008)에서는 제춧말에서 찾아지는 ‘음→기’와 ‘음→은’의 변화와 이런 명사화 구문이 시상을 표시하는 문법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113) 이 ‘예-아니오’ 질문에 대하여(‘감이가?’↗에 오름세 억양이 없힘) “오, 어디 감이어.\↘”(응, 어디 가는 거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의문사(wh)-낱말 ‘어디’에 대하여 강세가 주어지고 ‘감이가?’↘에 내림세 억양이 없으면, 의문사(wh)-질문으로 바뀌게 되어 의문사-낱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학교 감이어.\↘”(학교 가는 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런 구문은 특이하게 주어가 없는 구문(무주어 구문)으로 다뤄져 왔다.<sup>115)</sup> 표준어에서

“불이야!, 도둑이다!, 참 좋은 날씨네!”

등이 그러하다. 이 때 상황이라는 막연한 주어 또는 공범주 형태의 주어 ‘e’도 설정되기도 한다.

“e 불이야!, e 도둑이다!, e 참 좋은 날씨네!”

이들이 모두 계사 ‘이다’를 구현한다. 그런데 무주어 문장에서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선행되며, 제춧말에서도 동일한 구문이 확인된다. 그런데 제춧말에서는 명사형어미 ‘-음’이 선행되는 구문도 쓰이며, 앞에 제시한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앞의 예는 제춧말의 고유한 서법에 쓰이는 종결어미들이지만, 이들이 모두 반말투 종결어미로도 교체될 수 있다. 계사의 반말투 종결어미는 ‘이라’로 실현되며, 이 경우에 억양만을 달리하여 두루 여러 서법(의문 서술 감탄 명령 등)에 쓰일 수 있다.

---

114) 이 서술문에는 “느 어느제 오랏어?”(너 언제 왔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올 수 있다. 또한 계사 ‘이다’는 ‘이어’로도 실현될 수 있다. “나 이 제사 올의어.”(나 지금에야 오는 거야). 이 때 ‘이어’ 형식은 독자적인 종결어미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오직 서술 서법에만 쓰이고, 다른 서법(의문, 감탄 따위)에는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계사가 반말투의 종결어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라’로 실현된다. ‘이라’는 서로 다른 억양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법에 두루 다 통용될 수 있다.

115) 이승욱(1975, 1997 재수록:91쪽 이하)에서 무주어 구문의 논의를 보기 바란다. 상황 공범주의 설정은 특히 임홍빈(1985)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비록 임홍빈에서는 문체론적 공범주와 통사론적 공범주를 구분하였지만, 공범주를 해석하는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한다.

“느 어디 값이라?”(너 어디 가는 거야?)

“나 이제사 옴이라.”(나 지금에야 오는 거야.)

특이하게 명사형어미와 계사로 구성된 이 구문은, 관찰 중이거나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건에 대해서만 쓰이는 경향이 있다.<sup>116)</sup> 표준어에서 명사형어미가 시제 형태소를 허용하여 ‘었+음’(‘먹었음, ‘떠났음’ 따위)으로 나오는 현상과는 달리, 이 방언에서는 “\*았+음’의 결합이 관찰되지 않으며, 표준어와 제춧말 사이에 아주 차별되는 특성이다. 물론 앞에 쓰인 명사형어미 구문(명사형 ‘-음’+계사)이 모두 수의적으로 ‘-았-’으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

고유 의문 서법어미 : “(느) 어디 값나?” [‘값나’로 소리 남]

고유 서술 서법어미 : “나 이제사 값다/옴다.” [‘왓따/오람따’로 소리 남]

두루 서법(반말투) 어미 : “(느) 어디 값어?” [‘값서’로 소리 남]

두루 서법(반말투) 어미 : “나 이제사 값어/옴어.” [‘왓서/오람서’로 소리 남]

그렇다면 두 가지 구문, 즉 ‘-음’과 계사로 이뤄진 명사형어미 구문 및 일반적인 시상 형태소 ‘-았-’을 지닌 구문 사이에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직 이런 질문이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답이 모색된 바도 없다. 그렇지만 ‘았’과 ‘음’이 실현되는 환경 또는 분포가 분명히 서로 차이가 있다.<sup>117)</sup> 만일 집필자의 개

116) 한영균(1984:232)에서는 형용사에도 이 구문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다음 예를 제시하였다. “방이 무사 이추룩 어둑음고?”(방이 왜 이렇게 어둡니?), “전기 나가 부난 어둑음이어.”(전기가 나가 버려서 어둡다).

117) 각각 ‘-았-’은 발화시 현재에서 관찰되는 사건들에 두루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로 이뤄진 구문(명사형어미 구문)은 마치 영어의

인적 직관에만 의지하여 서술한다면, 특정 상황이 청자와 화자에게 문제로 상정되어 주제화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듯하다. 이런 ‘특정 조건’이 차이를 낳지만, 이런 주제화 여부를 제외한다면, 수의적으로 교체될 듯하다. 다시 말하여, 유표적인 ‘-음이다’의 명사형어미 구문은 언제나 시상 형태소 ‘았’을 지닌 기본 구문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거꾸로, 모든 ‘았’이 나오는 구문이 명사형어미 구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았’이 실현된 구문의 일부(주제화가 이뤄진 구문)에서만 ‘-음이다’의 명사형어미 구문으로 교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런 집필자의 직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놓고서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 \* \*

이 명사형어미 구문 이외에도 또한 ‘엄’이 나오는 환경이 더 있다. 다음 예들과 같이 청자를 마주하여 청자에게 묻는 의문 서법으로만 쓰이고, ‘엄’ 뒤에는 반드시 ‘디’(형식 명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

---

강조 구문 ‘it~that~’(밑줄 부분에 강조된 요소가 실현됨)처럼 기본적으로 청자와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공유되어 있고, 그 상황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거나 지정해 주도록 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유표적인 실현 환경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e 불이야!, e 도둑이야!”라는 발화에서 공범주로 표시되는 상황 주어가, 이 발화를 듣는 청자에게도 공유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통의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필자는 제춧말의 명사형어미 구문을 알타이 조어의 ‘동명사 구문’과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일에 유보적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제춧말에서 명사형어미 구문이 오직 유표적 환경(청자 화자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참값을 지닌 것으로 성립되고 이어 이것이 주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함)에서만 쓰이고 있을 뿐임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표적 환경이 계사의 ‘어간 생략’ 현상이나 ‘ㄹ 발현’ 현상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짐작된다. 제춧말의 명사형어미 구문은 오직 유표적 환경에서 관찰되는 것이므로, 알타이 조어의 일반 현상으로까지 확대하는 일이 주저된다.

로 추정됨)가 나오게 된다.

의문 서법의 ‘예-아니오’ 질문 : “(느) 밥 먹었디아?”<sup>118)</sup> (너 밥  
먹고 있니?)

고유한 서술 서법으로 된 대답 : “오, 지금 먹었저/먹었다.”  
(응, 지금 먹고 있다)

두루 여러 서법(반말투)의 대답 : “오, 지금 먹었주/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의문 서법의 ‘의문사’(wh) 질문 : “(느) 뭐 먹었디?” (너 뭐 먹  
고 있니?)

고유한 서술 서법으로 된 대답 : “(나) 밥 먹었저/먹었다.” (나  
밥 먹고 있다)

두루 여러 서법(반말투)의 대답 : “(나) 밥 먹었주/먹었어.” (나  
밥 먹고 있어)

여기서 ‘엄’이 과연 앞에서 다뤄 온 ‘없’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문  
제가 된다. 집필자는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엄’이 앞에서 다뤄 온  
‘없’과 다르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대우 명제에 대한 부정임). 첫째,  
만일 이들이 동일한 형태소였더라면, ‘엄’ 뒤에 오는 ‘디’는 된소리

---

118) ‘먹었디아’는 세 가지 표면형으로 실현된다. [머검디아?], [머검다?], [머검다?]이다. 여기서 ‘디’가 결코 된소리 ‘띠’로 바뀌지 않으므로, 바로 앞에 있는 형태소가 ‘없’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모습은 기본형과 동일하되 재음절화된 것만이 차이가 난다. 두 번째 모습은 ‘디’의 모음이 반모음 ‘j’(또는 y)로 바뀌어 뒤에 있는 모음에 덧없혀 ‘야’로 바뀌었다(상항 반모음으로 없힘). 세 번째 모습은 ‘디’의 모음이 탈락되어 버리고 다시 맨 뒤의 모음과 재음절화가 이뤄졌다. 제주시에서 성장한 집필자에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습의 발음이 익숙하다. 그러나 세 번째 모습은 서귀포 지역의 화자에게서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디’의 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의 선택이 작은 매개변인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경음)로 바뀌어 ‘띠’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환경에서는 결코 된소리(경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떡엄띠아?, \*떡엄띠?). 둘째, 이들이 동일한 형태소였다라면, ‘엄’이 나온 환경에서 ‘없’의 시상 대립 형태소인 ‘엇’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떡엎디아?, 떡엎디?’에서 시상 형태소가 교체되어 응당 \*떡엇디아?, \*떡엇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소 연결은 결코 관찰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소가 나온다.

“느 밥 떡엎디아?” (너 밥 떡엇니?)

“느 뭐 떡엎디?” (너 뭐 떡엇니?)

다시 말하여, ‘떡엎디아?’(먹고 있니?)에 대립하여,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려면 ‘떡엎디아?’(떡엇니?)가 쓰이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반말투 종결어미 ‘-어’에 관형형어미 구조를 지닌 ‘은디아’가 융합되어 있다.<sup>119)</sup> 이런 융합 구조가 [+완료](청자가 더 이상 경험 또는 추체험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가리킴)의 의미자질을 지닌 관형형어미 ‘-은’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현재 발화시점에서 관찰 또는 경험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과거 시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상대방으로서는 추체험으로 확인할 수 없음).

119) 더 앞에서 표로 제시된 의문 어미들을 보면, 반말투 종결어미 ‘어’ 뒤에 관형형어미의 구조를 지닌 ‘어+은가?, 어+은어?, 어+은디아?’와 같은 융합 형태소들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형형어미 ‘은’은 언제나 형식 명사나 의문문첨사를 요구하므로, ‘은’ 뒤에 있는 ‘가, 이, 디아’를 의문첨사 ‘가’와 형식 명사 ‘이, 디’로 더 구분해 줄 수 있다. ‘디’가 더 분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곳 논의에서 본령이 아니므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분석과 설명이 성립된다면, 동일한 틀을 ‘먹었디아?, 먹었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먹었디아?, \*먹었디아?”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먹어+음디아?, 먹어+음디아?’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럴 적에라야 비로소

‘먹어+음디아? : 먹어+음디아?’ (먹고 있니? : 먹었니?)

의 대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찾아지는 ‘음 : 은’의 대립은 강정희(2008:23쪽 이하)에서 형식 명사를 매개로 이뤄진 변화 사례들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끓음후제 간 : 끓은 후제 간’ (말할 뒤에 가서 : 말한 뒤에 가서)

‘숨 안 떨어졌 뿐 : 숨 안 떨어진 뿐’ (숨 안 끊어졌 뿐 : 안 끊어진 것 뿐)

강정희(2008)에서의 논의 초점은 ‘끓음 후제’(말할 뒤에)라는 형태가 보수적이며, 이것이 ‘끓은 후제’(말한 뒤에)로 바뀌었음을 입증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먹었디아? : 먹었디아?’에서 찾아지는 ‘음 : 은’의 대립은, 적어도 이 형태소들이 여전히 공식적으로도 변별되어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만일 ‘-디아?’로 표시되는 의문 서법에서 현재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려면, 이 방언에서 또는 제춌말에서 관형형어미 ‘-을’을 써서 ‘-을+디아?’로 표현한다.

‘예-아니오’ 질문 : “(느) 밥 먹을디아?”<sup>120</sup> (너 밥 먹을 거니?, 너 밥 먹을래?)

고유 서술 서법의 대답 : “오, 먹으키어.”<sup>121)</sup> (응 먹을게, 응 먹겠다)

두루 서법(반말투)의 대답 : “오, 먹으크라.” (응, 먹겠어)

‘의문사’ 질문 : “(느) 무시거 먹을디?” (너 뭐 먹을 거니?, 너 뭐 먹을래?)

고유 서술 서법의 대답 : “(나) 밥 먹으키어.” (나 밥 먹겠다.)

두루 서법(반말투)의 대답 : “(나) 밥 먹으크라.” (나 밥 먹겠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물음이 뒤따른다. 아직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도 첫 시작으로서 사적인 집필자의 의견만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다. 첫째, 만일 이들이 같은 계열(관형형어미+형식명사)의 구문이라면 이들과 일반적인 시상 형태소 ‘없 : 엇’ 계열의 구문이 서로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이 계열의 구문에서 ‘-은 : -음 : -을’이 의미 대립을 낳는다고 한다면, 왜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은, -음’에서만 관찰되고, ‘-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먼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집필자의 생각을 적어 놓기로 한다.

---

120) 이 구문은 [머글떠야?, 머글티야?, 머글따?, 머글타?, 머글따?, 머글타?]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소리 난다. ‘-을’ 뒤에 사이시옷이나 사이히읃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을’ 뒤에 의문 종결어미 ‘-가?, -고?’나 형식 명사 ‘거’(을+것)가 이어지면, ‘-카?, -코?’ 또는 ‘-커’로도 발음되는데, 이 경우에는 관형형어미의 받침 ‘ㄹ’이 탈락되어 ‘-으카?, -으코?’나 ‘-으커’로 나오기도 한다(제17항 준말에 대한 해설을 보기 바람). 다만 이런 변화가 ‘디’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121) 이 구문에서 ‘으크(겠)’는 수의적으로 ‘으’가 탈락될 수 있으며, [머그키어, 머그켜, 먹키어, 머켜]로 다양하게 소리 날 수 있다. 이런 표면형의 변동은 이하에서도 동일하며, 따로 적어 놓지 않는다.

비록 반말투의 종결어미 ‘-어’이지만, 이 종결어미를 하나의 문장이  
나 명제를 완결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떡어’라는 하나의  
사건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이 진행되거나(-음디아?) 사건이  
끝났음(-언디아?) 표시해 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관형형어미로 실  
현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도, 일어나지도 않았음을  
표시해 준다. 반말투 종결어미 ‘-어’의 유무가 사건의 시작 여부를  
구분해 주는데, 맥락에 따라서 여러 양상(양태)를 가리켜 줄 수 있  
다(하나의 사건 : 일반적인 총칭 사건). 그런데 ‘-음 : -은’이 결합되  
어서 각각 이들이 지닌 의미자질로부터 [현재 진행되는 상태]와 [다  
끝난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언어 형식으로 나  
타나서 각각

‘-음’(-어+-음+디아?) : 하나의 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

‘-은’(-어+-은+디아?) : 하나의 사건이 이미 다 끝난 상태

‘-을’(-을+디아?) : 하나의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

를 구별하여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시상 구분은 ‘-  
없- : -았- : -으크-’와 같은 다른 형태소들에 의해서도 지시될 수 있  
기 때문에, 왜 이런 형태소들이 굳이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뒤따른다.

따라서, 다시 첫 번째 물음으로 되돌아간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물  
음이다. 제춧말에서 기본적으로 시상 형태 ‘-없- : -았-’이 쓰이지만,  
이 형태들과는 별개의 시간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필시 기본적인 시상 형태소와는 달리 왜 굳이 관형형  
어미와 형식 명사를 매개로 한 구조(명사형어미 구문)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집필자는 ‘-았- : -았-’ 계열의 구문이 무표적이고 기본적 구문이라고 한다면, 명사형어미 구문의 분포를 유표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엄디아?, -언디아?’를 구현하는 명사형어미 구문은 반드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 청자의 행위(자유의지를 지닌 의도적 행위)와 관련해서만 쓰이기 때문이다(청자의 행동에 대하여 물음). 이런 점에서 ‘유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122)</sup> 일반적인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엄디아?, -언디아?, -을디아?’ 구문이 쓰일 수 없다. “\*밖에 비 오람디아?”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오직

“밖에 비 오랐이야?/오람시아?”

만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다음처럼 대답할 수 있다. 임의의 사건에 대하여 청자와 화자 사이에 문제를 삼을 수 있음이 서로 합의되어 주제화가 전제된다면, 주제화를 만들어 주는 명사형어미 구문이 쓰일 수 있고(‘-음이다’ 구문), 여기서 다시 해당 사건이 특히 상대방 청자의 의도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청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엄디아?, -언디아?, -을디아?’ 구문을 쓰게 된다.

122) 만일 ‘동작상’이란 용어가 만일 본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위나 행동을 가리켰다면, ‘-엄디아?, -언디아?, -을디아?’ 구문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았- : -았-’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태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형태소에 ‘동작상’이라는 범주를 부여하는 것은 거리가 있음을 적어 둔다. 우리말에서 ‘동작’은 ‘거지’(擧止, 시작과 끝)와 이음말로 쓰이며, 의도를 지닌 행위로서 특히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과 관련하여 쓰이는 것이다. 여기서 집필자가 ‘시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자연계의 사건이나 사태도 가리키고, 자유의지를 지니고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인간이 일부러 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도 가리키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서 다시 제죽말의 ‘-았-’과 대립하는 형태소 ‘-앗-’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이 방언에서는 여전히 흘받침을 지니지만, 표준어에서는 겹받침을 지녀 ‘-았-’으로 소리가 난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허웅(1982:41)에서와 최명옥(2002:153쪽 이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오분석으로 설명하였고, 후자에서는 ‘있다’ 어간의 변화에 따른 단일화 요구로 설명하였다. 만일 후자 쪽에서 바라보면, 이 방언에서 ‘-앗-’을 흘받침으로 써야 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표준어 ‘있다’는 이 방언에서 여전히 복수의 어간인

‘이시다, 시다, 있다, 싣다’

를 관찰할 수 있고, 흘받침 시옷으로 쓰인다.<sup>123)</sup> 여전히 보수적인 세대에서는 ‘-앗-’을 유지할 듯하지만, 표준어 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있다’라는 낱말을 쓰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츰 이 형태를 ‘-았-’으로 관념할 듯하다. 그런 변화가 생겨나면 ‘-앗-’은 겹받침을 지닌 ‘-았-’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 이후로도 꾸준히 이 방언의 시상 형태소에 대해 일련의 논문(2001, 2004, 2008)을 써 온 우창현 선생은<sup>124)</sup> ‘-엇-’을

123) 제죽말의 ‘있다’에 대한 포괄적 기술과 논의는 강근보(1972)를 읽어 보기 바란다. 그런데 하위 방언들 사이에 관찰되는 차이에 대해서는 홍종립(2001:276쪽의 각주 7)에 소략히 언급되어 있다. 일 후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뒤에 있는 제17-2항의 각주 135)와 136)도 참고 바람.

124) 우창현(2001)에서는 ‘-엇-’과 ‘-어시-’가 변이형태가 아니라 각각 서로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다른 형태소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과거시제 형태소 ‘-았-’의 발달을 논의한 최명옥(2002)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주장에서는 부사형어미 ‘-아’와 ‘있다’라는 동사로부터 ‘-아 잇-’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이 방언에서는 “이거만이라도 먹어 시라!”[이것만이라도 먹어 잇으렴!]처럼 ‘-아 시-’로 나옴), 중간 단계에서 이중모음으로서 ‘-엇-’과 단모음으로서 ‘-았-’이 관찰되는데(이 방언에서는 ‘-았-’만 관찰됨), 마지막 단계에서 ‘-앗-’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단계들에서 의미는

이미 시제 형태소로 발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숙영 선생도 한국어의 전반적인 시제를 염두에 두면서, 제춧말에서도 시제 형태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동일한 형태소를 놓고서 상이나 양태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서로 겹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언어는 대립 체계로 구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직관적으로 어떤 형태소들이 대립되는지를 드러낸 다음에, 그 대립의 내용을 여러 이론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이 방언의 시제 형태소를 단정하기에는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한편, 제춧말의 형용사를 놓고서도, 문숙영(2006)과 고영진(2007)과 정성여(2013)에서 시상 형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형용사가 지시하는 상태나 속성 그 자체와 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상태나 속성의 존재 여부 또는 경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는 양태 측면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예를 들어,

---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야만 비로소 음운 발달의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다. 표준어의 과거시제 발달에 대한 이런 주장은, 그대로 이 방언에서도 관찰되고 적용된다고 집필자는 믿고 있다. 단, ‘이중모음’으로서 ‘-엇-’은 이 방언의 모음체계에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오직 단일한 ‘-앗-’만이 존재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용후(1960:341)에 목록으로 올라 있고, 본격적으로 우창현(2001)에서 논의된 ‘-엄섯주, -엄섯지(-고 있었다)의 복합 형태소는, 또한 ‘-엄시키어, -엄시키라(-고 있겠다)의 경우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 ‘없+엇+주’의 결합에서 ‘-엇-’ 대신에 ‘-으크-’가 계열체로 나올 수 있다. 종결어미 ‘-주’ 대신에 계열체로 ‘-지’나 ‘-이어’나 또는 ‘-어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종결어미 앞에 있는 ‘-엇-, -으크-’ 계열체가 긴밀히 서법과 함께 행동하는 양태 범주일 개연성도 있으며, 반드시 ‘시제’ 범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닐 듯하다.

“이 느물은 맛이 쓰다.” (이 나물이 맛이 쓰다)

“이 느물은 맛이 쓴다.” (이 나물은 맛이 쓴 법이다)

와 같은 대답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앞의 ‘쓰다’는 현재 나물에 대한 맛을 서술해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맛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뒤의 ‘쓴다’(쓰+은+다)는 그 대상에 대한 내재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쓴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쓸 뿐이다. 이런 특성은 문법 형태소를 빌려 구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맥락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가령, 계사 ‘이다’로 예를 들어 보면,

“저 소방관은 미남이다 : 소방관은 이타적이다/인다.”<sup>125)</sup>

앞의 발화(미남이다)는 대상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서술해 주고 있

---

125) 표준어에서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 구문(이다 : 이다)이 특이하게도 이 방언에서는 다음처럼 대답적으로 발화될 수 있다.

“저 소방관은 미남이다/이어 : 소방관은 이타적이다”

‘이다/이어’로 표현된 앞의 진술은 현재 대상을 경험하는 상태에 대한 서술이지만, ‘인’다’로 표현된 뒤의 진술은 언제나 어디서나 발현되는 필연적인 속성에 대한 서술이다. 철학에서는 흔히 이를 우연적 사실 및 필연적 진실로 대립시킨다. 비록 집필자의 설명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이런 현상이 이미 홍종립(1991:43, 51)에서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기억해 둔 추상적 인식 중에서 실제로 늘 일어나게 마련인 사건에 관한) ‘실연 판단’으로 맨 처음 다루었다. 집필자의 이해가 올바르다면 ‘실연’보다는 ‘필연’ 판단으로 이를 붙여 놓았더라면 독자들이 혼동 없이 더 쉽게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은 전혀 없지만 고재환(2011 하:188쪽 이하)에도 이런 자료가 들어 있다. 이 방언에서는 계사 ‘이다’에도 ‘-은’다’가 붙어 ‘-인’다’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이다. 이때 ‘은’은 바로 “쓴다”(쓰+은+다)에서 찾아지는 ‘은’과 동일한 것이며, 대상의 내재적 속성(불변 속성)을 가리킨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보존되고 발현되는 속성인 것이다. 이는 크랏저(1988)의 ‘개체 속성 층위’를 가리킨다.

다. 그렇지만 뒤의 발화(이타적이다)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내재된 근본적인 속성에 대하여 서술해 주고 있다. 표준어의 표현과는 달리, 제춧말(이타적인다)에서는 형용사처럼 계사 ‘이다’에도 ‘-은다’를 붙여 명확히 양태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 표준어에서는 비록 문법 형태상 다른 점이 전혀 없지만, 이런 차이점을 일찍이 크랏저(Kratzer 1988)에서는 이를 각각 장면 층위 술어와 개체 속성 층위 술어로 따로 불러 구분하였다. 이를 고영진(2007)에서는 ‘현재 시제’로 보고 그 속성을 각각 일시성과 항상성이라고 불렀다. 정성여(2013)에서는 ‘양태’로 보아 각각 현실태와 비현실태(irrealis)로<sup>126)</sup> 불렀다.

용어의 정의와 사용 방식이 연구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체 속성 층위 술어나 항상성이나 비현실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 속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대립되는 장면 층위 술어나 일시성이나 현실태는 현재 이 자리에서 체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성을 가리키는 범주는 따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태 범주의 한 갈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춧말의 시상에 관한 논의는, 우선 양태 범주를 가리키는 경우를 따로 떼어 놓아야 문제의 초점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논의와 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작업 가정으로서 집필자는 이 방언의 자료들과 관련하여 양태 범주로서 ‘경험태’(추체험 가능성을 따짐)를 상정하는 것이 한 가지 길이라고 본다. 이런 양태 범주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경험 가능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비로소 상 또는 시상 자료들이 남게 된다. 이는 개체 층위의 술

126) ‘비실현태’에 대한 그녀의 용법은 ‘화자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aorist(무시제문)과 관련하여 쓰는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어와 장면 층위 술어로 나누는 일과도 서로 겹치는 일이다. 상 또는 시상에 관한 표현은 장면 층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상에 대한 의미자질을 해석할 경우에 화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서 ‘-았-’의 경우에 청자도 또한 해당 사건이나 사실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속뜻을 배당할 수 있고, ‘-았-’의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음을 속뜻으로 깔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 제17항 준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무엇	뫼트/뫼/뫼트/뫼
그것	그거/거
다섯	닷
기영/그영	경

###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히려	헤
히려	헨
좋은	존
히려저	헛저

###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이선

###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어제즈낱	엇치낱/엇즈낱
저 아이	자이
그 아이	가이
이 아이	야이

## 준말에 대한 개관 및 정의<sup>127)</sup>

‘준말’은 ‘본딤말’과 대립된다. 이는 본딤말에서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그런데 막연하게 『한글 맞춤법』에서 기술되던 준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어학계에서는 준말을 크게 두 갈래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나는 준말을 엄격히 음운 현상으로만 보려는 흐름이며, 송철의(1993)로<sup>128)</sup> 대표된다. 다른 하나는 준말을 음운·형태·통사 현상으로서 더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흐름이며, 이지양(2003) 및 정희창(2003)으로 대표된다.

좁은 흐름에서는 준말의 범위를 파생어나 복합어를 포함한 낱말 또는 하나의 기식군(breath group, 한꺼번에 발음하는 둘 이상의 낱말 단위)으로 된 구를 대상으로 하여, 바로 붙어 있는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수의적인 현상이며, 모음 탈락·모음 축약·활음화에 의해서 음절이 줄어든 결과, 이 음절이 더 길게 발음된다고 보았다(보상적 장음화 현상).

이 흐름에서는 제줏말의 동사 어간 ‘ㅎ-/허-’도 만일 표준어에서와 같이 ‘하-’ 및 ‘해-’라는 복수 어간(쌍형 어간)을 갖고 있다면,<sup>129)</sup>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어간 ‘ㅎ-/허-’가 어미 ‘-여’와 결합하여 ‘ㅎ여/허

---

127) 이 부분은 김지홍이 집필하였다.

128) 송철의(1993)에서는 한글맞춤법에서 잘못 처리된 준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우연하게도 한글맞춤법을 참고하면서 제줏말의 표기법에서 내세운 사례들은, 송철의(1993)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준말이 아니다. 이는 ‘준말’이 적용되는 범주와 줄어드는 과정들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129) 최명옥(1996:217쪽 이하)에 실린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이라는 글에서 ‘하-’와 ‘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복수 어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여'가 되든지 또는 수의적으로 어간 '혜-'에 어미 '-어'가 결합되자마자 의무적으로 탈락되어 '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형용사 '좋다'에 관형형어미가 붙은 '좋은'의 경우에 먼저 어간의 ㅎ이 탈락하게 되어, 두 모음이 이어질 경우에 약한 모음인 '으'가 자동으로 탈락한 뒤에 1음절 [존:]으로 발음된다. 그렇지만 제춧말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감정 표현의 동기에 의해서만 장음이 나올 수 있다고 논의된다.<sup>130)</sup> 그런데, 좁은 흐름에서는 제1 음절의 받침이 먼저 탈락한 뒤에 강한 모음 뒤에서 약한 모음인 '으'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 필수적 '으' 모음 탈락은 준말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보다 먼저 일어난 자음 ㅎ의 탈락도 음절을 줄

130) 제춧말에는 장단 대립에 의한 의미 분화가 없음(최소 대립쌍이 전무함)이 일찍이 잘 알려져 있었다. 그 증거로 장음이 명사나 동사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오직 부사나 형용사에서 관찰되는 수의적 장음 현상이 그 자체로 감정 표현의 측면에서 쓰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방언의 장음에 대하여 김완진(2006)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이런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기호 ':'는 보상적 장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어넣은 것이다. 즉, 최소 대립쌍이 관찰되기 때문인데, 치밀하게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잘다, 미세하다'는 이 방언에서 '잘다'(to be tiny, 細)로 표제 항목이 올라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면형에서는 아마 [졸다, 졸다]가 수의적으로 교체될 듯하다. 이 낱말에 관형형어미 '-은'이 붙으면 [존]이나 [존]으로 발음된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 방언에서는 '존셈, 존셈'(caring mind, 細心)이라고 부른다. 이때에는 결코 장음으로 발음할 수 없다. 결코 [\*존:셈]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좋다'(to be good, 好)에서는 수의적으로 ㅎ이 탈락되어 연쇄적으로 관형형어미 '-은'에서 의무적인 약모음 '으'가 탈락된 경우에는 [조흔 일이다] (좋은 일이다) 또는 줄어든 형태의 [존: 일이다]로 말할 수 있다. 집필자의 직관으로는 '존: 일'이 앞의 '존셈/존셈'처럼 짧게 발음되어서는 안 된다. 수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경우가 최소 대립쌍을 이룬다. 다시 더 뒤에서, '오, 우'를 지닌 동사 어간들을 다루게 되는데, 잠자리에 '눅다'(to lie down, 臥)는 뜻의 어간 '누우'에서 관형형어미 '-은'이 결합된 뒤 관찰되는 수의적 준말 [눈:]이 있다. 이는 똥을 '눅다'(to excrete feces, 屎)는 어간에서 ㅎ이 탈락된 뒤 관형형어미 '-은'이 결합된 준말 [눈]이 서로 최소 대립쌍을 보인다고 논의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준말 촉발 요인(모음 탈락·모음 축약·활음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sup>131)</sup> 엄격히 이 규정을 따르면 [존:]은 더 이상 준말 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춧말에서 ‘좋은’이 [조흔]과 [존:]으로 발음될 수 있다. 어간 ‘중-’에 관형형어미 ‘-은’이 결합될 경우 하나는 음절 재구조화를 거쳐 2음절 [조흔]으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수의적인 ㅎ탈락이 적용된 결과, 약한 모음 ‘으’의 의무적인 탈락이 적용되어 1음절 [존:]으로 나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수의적으로 2음절이 줄어들어 1음절로 발음되면 ‘준말’로 의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흐름의 준말 정의에서는 엄격히 음절을 직접 줄여 주는 모음의 탈락만 준말의 사례로 볼 뿐이다. 우연히 자음 탈락이 연쇄적으로 약모음 ‘으’를 탈락시키게 되는 일은 좁은 의미의 준말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외견상 2음절 소리와 1음절 소리가 수의적으로 다 가능하다면, 각각 본딧말과 준말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이런 직관과는 동떨어지게, 좁은 의미의 준말 기준으로 보면 수의적 자음 탈락과 의무적 모음 탈락을 거친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입력 낱말과 출력 낱말 사이의 음절 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각각 본딧말과 준말이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만 모음의 수의적 탈락만을 준말로 정의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준말이 아니라, 오직 수의적 변이형이라고 불러야 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

---

131) 넓은 흐름을 대표하는 이지양(2003:292)에서도 명시적으로 ‘딸님 → 따님’처럼 국어사에서 찾아지는 자음 탈락 및 문어체와 구어체 사이에서 찾아지는

‘이것 : 이거’

를 제외하면, 자음만의 탈락으로 생성되는 준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모음이 탈락하거나 축약되어 음절수가 줄어드는 것만을 준말로 설정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런 넓은 흐름을 옹호하는 논의가 정희창(2003)이며, ‘심리적’ 판단 조건을 덧붙이고 있음이 특이하다.

례는 좁은 의미의 준말에 대한 정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수의적 모음 탈락만을 조준하여 준말을 정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의적 자음 탈락에 이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의무적 모음 탈락도 준말의 생성 과정에 포함시켜 놓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이다.

일단, 좁은 의미의 준말에 대한 선업을 존중하여 기댄다면, [조흔]과 [존:]은 수의적 변이체일 뿐 더 이상 준말에 속하지 않지만, 이 해설에서는 이보다는 좀더 넓은 준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그런 넓은 정의 방식에서는 수의적인 자음 탈락이 연쇄적으로 필수적 모음 탈락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음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준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해설에서는 ‘좋은’과 ‘존’을 본딧말과 준말로 보는 정의 방식을 따를 것이다.

어미와 어미의 결합은 좀더 정확히 표현하여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이다. 이 사례로 언급된 ‘가키어’(가겠어)는 선어말어미 ‘-으크-’(-겠-)와 종결어미 ‘-이어’의 결합을 가리킨다. 즉, ‘가+으크+이어’에서 먼저 어간 ‘가’와 선어말어미 ‘-으크-’ 결합에서 약한 모음인 ‘으’가 탈락하고서 ‘가크-’가 나온다. 여기에 다시 어말어미 ‘-이어’가 결합되는데, ‘가크+이어’에서 선어말어미의 마지막 모음 ‘으’가 먼저 탈락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의 음절로 결합하여 [가키어]로 발음된다. 그렇지만 이 단계까지의 모음 탈락은 의무적인 것이므로, 좁은 의미의 준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오직 [가키어]가 수의적으로 [가켜]로 발음되는데, 이것만이 좁은 의미의 준말에 해당할 뿐이다.

좁은 흐름으로만 보면, 제17항의 2는 준말 사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수 어간이거나 필연적 음운탈락 규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들을 찾아내어 예시해 주어야 옳을 것이다. 이 해설에서는 대신 어간이 ‘오, 우’로 끝나는 낱말들을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넓은 흐름(이지양 2003:293)에서는 단어 또는 통합 관계의 구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론적, 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난 결과 음절수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단어”를 준말로 보았다. 준말의 형성 조건으로 빈도가 높고, 줄어들어도 의미 파악이 가능해야 하는데, 음절 길이와 약모음 등의 음운론적 조건 및 그 조건의 적용 결과 같은 소리의 낱말이 이미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 흐름을 옹호하면서 정희창(2003:42)에서는 ‘심리적’ 특성을 추가하여 다음처럼 폭넓게 준말을 정의하면서 네 가지 준말 형성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나가기로 한다.

#### 준말의 정의

입력과 출력이 서로 형태상의 유사성을 지녀야 하는 준말은, 단어나 통사론적·심리적 통합 관계를 이루는 구에서, 음운론적·형태론적 삭감이 일어나 음절수가 줄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 준말의 형성 조건

준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소한 2음절 이상의 단어나 구가 입력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본딧말이 현재 쓰이는 말이어야 한다. 셋째, 새로 생성된 준말이 기존의 단어와 형태가 다르거나 문맥을 통해서 식별(=줄어들었다는 자각)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특정 위치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빠른 발화를 대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음절이 줄어들면 준말이다’. 형태 삭감이란 개념을 만일 자음까지 확대하여 연쇄적인 모음 탈락까지 포괄할 수 있다면, 앞에서 다뤘던 [조흔]과

[존:]이 준말 자격을 지니게 된다.

송철의(1993)에서는 준말과 본딤말 사이의 수의성에 대한 전제가 논의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입력 출력 사이의 ‘형태 유사성’(‘관련성’이 더 나은 용어 사용일 듯함)이란 말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단어는 형태론 단위이고, 구는 통사론 및 어휘-형태론 단위이다. 여기서 모든 구가 준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사론에서 관찰되는 융합(특히 종결어미들에서 관찰되는 융합 현상)과 구별해 주기 위하여, 좀더 명확히 구가 줄어드는 통사 범주나 환경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제죽말을 적는 이 표기법에서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음). 제약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켜서 급기야 제약의 존재를 무위로(자의적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정희창(2003)의 준말 논의에서 새로 도입한 ‘심리적’ 통합 관계는 응당 이런 범주 상의 유연성에 맞춰 재서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위치에서의 높은 발생 빈도라는 막연한 정도성의 개념을 가부간의 외연 개념으로 포착해 줄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절수가 줄어들었다는 진술은, 기능적으로 줄어들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해당 구나 낱말이 구현하는 ‘기능 부담량’이<sup>132)</sup> 변하지 않았음을 함

---

132) 가령, ‘다섯’이 ‘닷’으로 줄어들 때에 어디서든 아무렇게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닷 되, 닷 말’처럼 반드시 수량사 구문을 이를 적에라야 줄어들 수 있을 뿐이다. 복수 어간(복수 어형)이 수의적인지 아니면 임의의 배열 형상이 주어질 때에 수의적으로 교체되는지를 서로 구분하여 밝혀 주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송철의(1993:21)에서는 표준어에서 ‘이 아이’가 ‘이 애’를 거쳐 ‘애’로 줄어들고, 결코 ‘\*야이’로 줄어들지 않음을 지적한다. ‘저 아이 → 저 애 → 깨’에서도 그러하고, 똑같이 ‘그 아이 → 그 애 → 깨’에서도 그러하다. 표준어에서는 ‘\*자이/\*자이’나 ‘\*가이/\*가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자이, 가이, 야이’가 모두 완벽히 가능하다. 단, 여기서 제1 음절에 초성 자음이 있으면 필수적 단모음화가 진행되어, ‘가이 → 가이, 자이 → 자이’로 도출되어야 한다(‘ㅈ’은 이미 구개음화된 ‘ㅈ’이므로, 이 방언을 비롯하여 현대 국



의한다. 따라서 해당 구나 낱말의 상위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간명히 개념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표기법에서 논의하는 준말의 범위를 포괄하기 위하여 넓은 뜻의 준말 정의를 조금 더 가다듬어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수의적인 음절수의 축약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음절을 줄이는 과정이 다만 모음 하나에만 초점 모을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둘 이상의 음운 규칙이 공모하여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준말의 대상이 하나의 낱말보다 좀더 확대되어, 어절과 동일한 ‘핵어’(head)를 지닌 구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해설에서는 이런

---

어에서는 [자]나 [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음). 다시 말하여, 이런 차이는 매개 변인으로 말미암아 규칙 적용의 차이를 빚는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이미 ‘아이’와 ‘애’가 복수 어간(복수 어형)으로서 반드시 수의적 교체체를 보이고 있어야만 송철의(1993)에서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언에서는 ‘아이’만이 홀 어간(단일 어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주대 박물관(2005), 송상조(2007), 제주문화예술재단(2009)에서 모두 표제 항목으로서 ‘애’가 들어 있지 않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또한 지시사와 명사가 한 덩어리를 이루어 어절 단위의 명사구로서 하나의 기능(단일 지시 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 아이’에서 음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재음절화가 이뤄져 비로소 ‘야이’로 음절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말에서 저지되는 표면형 ‘야이, 자이, 가이’가 왜 제주말에서는 가능한지, 더욱이 ‘야이, 자이, 가이’가 아주 자연스러운 발화인지에 대해서, 기저 형태에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도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들의 차이로 두 표면형이 나온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하게 표준어에서 ‘나의 책, 너의 책, 그 사람의 책’이라는 구 단위가, 이 방언에서는 관형격 조사의 매개 없이 ‘나 책, 느 책, 그 사람 책’처럼 표상된 다음에, 급기야 한 낱말처럼 행동하여 ‘나책, 느책 그사람 책’처럼 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지시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와 소유 주체가 소유물과 긴밀히 결합되어 명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하나의 자연스런 부류의 구조로서 한 낱말(더 정확히 낱말보다 조금 큰 단위로써 ‘어절’을 상정할 수 있음)처럼 행동하는 듯하다. 이것이 기본 표상으로 파악된다. 인칭 대명사 ‘나, 느/너’(나, 너)는 서울말처럼 ‘내, 네’로 나오는 경우는 이 방언에서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주격의 곡용(뒤의 각주 138)을 보기 바람)에서도 또한 동일하다. 이런 현상을 결코 준말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건들이 서로 긴밀히 작동하여 사람들의 머릿속에 두 어형이 심리적으로 관련된다고 느낀다면 서로 본딤말과 준말의 관계가 될 것으로 본다.

준말에 대한 규정을 현재 『제주어 표기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면서 제17항에서 네 가지 범주로 정해 놓았다. 1에서 한 낱말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준말,<sup>133)</sup> 2에서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준말, 3에서 용언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준말, 4에서 명사에 결합된 조사에 다시 보조사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준말, 5에서 낱말과 낱말이 결합하여 구를 이룰 때에 마치 줄어들어 한 낱말처럼 만들어지는 준말이다.

133) 표제로 붙인 ‘형태소’는 활용하지 않는 ‘낱말 형태소’라는 말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명사와 부사가 그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부사에 대해서는 왜 한 낱말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기영/그영’(그렇게)은 ‘이영, 저영’(이렇게, 저렇게)과도 계열체를 이루고, 동일하게 ‘영, 정/정’(이렇게, 저렇게)과 같이 줄어드는 꼴이 관찰되므로(구개음화된 ‘ㄹ’ 때문에 [정]과 [정]은 발음상 구분되지 않으며, ‘정’보다는 ‘정’으로 써야 옳겠지만, 이들 줄어드는 과정의 동일성을 보여 주기 위하여 임시로 ‘정’이라고 써 놓았음), 명백히 지시 대명사 ‘이, 저, 그’에 부사를 만들어 주는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굳어진 채 그대로 하나의 낱말로 된 것으로 취급하였다.

현재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가 형용사(성상 형용사)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의 활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학교문법에서도 그러하다(남기십·고영근 2011 개정 3판:116쪽 이하). 그런데 이 방언의 ‘이영, 저영, 그영/기영’은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다’(계사, 서술격조사)의 매개에 의해 연결어미 ‘-영’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 이 연결어미는 ‘-안’과 대립도 되지 않고(\*기연/\*그연, \*저연, \*이연’은 관찰되지 않음), 더 긴 형태소 ‘-어그녕에’와 바뀌어 쓰이지도 않는다(\*기여그녕에/\*그여그녕에, \*저여그녕에, \*이여그녕에’는 관찰되지 않음). 오직 유표적으로 계사(서술격조사)가 녹아 있는 ‘-영’의 모습으로만 관찰될 뿐이다. 바로 이런 특징이 이를 활용 모습으로 서술할 수 없게 만든다. 만일 활용이 심히 제약되어 있다면, 결국 이곳에서처럼 굳어진 모습(화석화된 형태)의 낱말로 보는 길이 가장 온당한 처리 방식일 것이다.

## 1. 형태소 내부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소 내부’에서 ‘준말’은 단일어(單一語)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形態素)의 음소(音素)인 자모(字母)가 축약된 단어들이다.

이를테면 대상이 불분명한 것을 가리키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의 준말 ‘뫼/뫼/뫼/뫼’인 경우, ‘뫼/뫼’는 그 본딧말인 ‘무엇’의 ‘엇’이 준꼴이고, ‘뫼/뫼’은 ‘무엇’의 ‘무’와 ‘엇’의 결합된 준꼴이다. 또 지시대명사의 준말 ‘그거/거’인 경우, ‘그거’는 그 본딧말 ‘그것’의 준꼴이고, ‘거’는 ‘그것’의 ‘그’와 ‘것’이 결합된 준꼴이다.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의 준말 ‘닷’인 경우, 본딧말 ‘다섯’의 준꼴이고, ‘그렇게’에 해당하는 부사의 준말 ‘경’인 경우, 본딧말 ‘기영/그영’의 결합된 준꼴이다.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이 더 추가할 수 있다.

<본딧말>	<준말>	<본딧말>	<준말>
이것	이거	요것	요거
저것	저거	으섯	으
내일	닐	처음	침
아이	애	이영	영
저영	정	제일	젤/질
기영	경		
ㅁ슴/ㅁ슴 · ㅁ음/ㅁ음[料]			곰
ㅁ술/ㅁ술 · ㅁ을/ㅁ을[洞]			뭇
ㅁ슴/ㅁ슴 · ㅁ음/ㅁ음[心]			뭇

##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에 표면형이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사례에서 제시된 ‘ㅎ다’ 동사가 ‘-아’ 계열의 어미와 결합되면 ‘\*ㅎ아’로 되는 것이 아니라 ‘ㅎ여’로 되므로,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소위 ‘여’ 불규칙 용언이 된다(남기심·고영근 2011:147). 이 방언에서 ‘ㅎ-’ 어간은 젊은 사람들한테서 대체로 [히]로 발음되므로, ‘ㅎ-’만이 아니라 동시에 ‘히-’로 복수 어간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결코

‘으 → 어’

라는 공시적 음운규칙이 존재하여 이 규칙에 적용을 받은 결과로서 ‘ㅎ-’가 ‘히-’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간에 재구조화가<sup>134)</sup> 일어난 것이다. 복수 어간은 비단 ‘ㅎ-’와 ‘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헤-’도 공시적 음운규칙의 적용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sup>135)</sup>

134) 최명옥(1996:200쪽 이하)에서 재구조화의 판정 기준을 다음처럼 서술하였다. “어떤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그 변화가 변화 후에 존재하는 공시적 규칙으로써 설명될 수 없으면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를 따르면 이 방언에서 ‘으→어’가 되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ㅎ-’라는 어간이 재구조화되어 또한 ‘히-’라는 어간으로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135) 표준어에서처럼 제숫말에서도 공시적으로 ‘으여 → 에’(ㅎ여 → 헤) 또는 ‘어여 → 에’(히여 → 헤)로 줄어드는 음운 규칙이 유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준말이 모음을 대상으로 하여 탈락된 뒤에 재음절화가 일어난다는 결론을 받아들여더라도, ‘ㅎ여, 히여’에서 각각 ‘으여, 어여’의 제1 모음 ‘으, 어’가 탈락하더라도 남는 모음은 모두 ‘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여’가 ‘에’로 되려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되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유효적으로 ‘하다’에만 특별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낱말들에 적용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가령, ‘늑이다’가 활용하여 [늑여]로 발음되고, ‘식이’가 활용하여 [식여]가 된다. 이 때 제2 음절에 있는 ‘여’가 단모음화되어 [\*늑에]나 [\*식에]로 발음되

복수 어간으로서 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해’로 적고 있는데, 이 방언에서는 ‘헤’로 적는다. 그 까닭은 이 방언의 모음들에서 ‘애, 에’는 서로 변별되지 않고 두 발음 영역이 서로 겹쳐 있으며 [E] 또는 [ɛ]로 발음된다. 이 표기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에’로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하다’와 관련하여 이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복수 어간이 상정된다.<sup>136)</sup>

‘하-, 허-, 헤-’

제춧말에서 계사(서술격 조사) ‘이다’와 동사 ‘오다’의 활용은 특이하다. 왜냐하면 두 낱말이 모두 활용할 때에 수의적으로 ‘ㄹ’ 소리가 덧붙어 나오거나, 또는 계사가 어미 융합구조(문법화)에서 어간이 없이 대신 ‘ㄹ’로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137)</sup>

---

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은 그러한 단모음화 규칙이 상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136) 제춧말에서는 아마 ‘있다’와 관련된 복수 어간이 가장 숫자가 많을 듯하다. 최소한 다음처럼 다섯 개가 상정된다. ‘시다, 이시다, 잇다, 잇다, 있다’ 제16항의 각주 123)도 참고 바람.
- 137) \*’(단검)부호는 먼 옛날 제춧말에서 썼을 법한 조상언어의 재구성 형태를 뜻한다. 계사의 활용은 대우 등급별로 박용후(1960:380쪽 이하 ‘잡음씨’)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하야(河野) 씨의 주장처럼 만일 어원상 ‘이다’의 기원을 \*’일다’로 볼 수 있다면, 이 방언의 ‘오다’ 또한 어원상 \*’올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듯하다(단 윗첨자 단검부호 \*’는 재구된 조어 형태를 가리키며, 강정희(2008:21)에서는 개방음절 모습의 \*’오라다’로 상정했음). ‘오다’는 계사를 수반한 명사형어미 ‘-음’에서는 결코 ‘ㄹ’이 나오지 않는 사실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느 어디서 올이고?, 혹교서 올이어!”만이 가능하고, “\*느 어디서 오를이고?/오랄이고?, \*혹교서 오를이어!/오랄이어!”은 불가능하다. 왜 명사형어미 구문에서 ‘ㄹ’이 지지되는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왓디아?, 오랄디아?’ 그리고 ‘완디아?, 오란디아?’에서는 수의적으로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와 서로 대비하면, 계사 어근에서 어떤 단서를 찾는 일이 추구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만 지적하고 자세한 논의는 유보한다. 그런데, 이런

“식게 그저기 아싯날이랏수다.” (제사가 그꼬저계이엇어요)<sup>138)</sup>

“나 잔치 먹으레 오랏수다.” (내가 잔치집에 왔어요)<sup>139)</sup>

이들은 수의적으로 ‘아싯날이엇수다, 왔수다’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또한 두 개의 복수 어간이 있는 것으로 봐야 옳다. 왜냐하면 ‘-이랏-’으로부터 ㄹ이 탈락하면 ‘-이앗-’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줄어들면 ‘-앗-’으로 될 뿐이지, 결코 ‘-이엇-’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상 형태소 ‘-앗-(-았-)’이 표준어에서처럼 어간의 모음의 계열에 따라 동화되어(모음조화) ‘-엇-’으로도 나온다. 제춧말에서는 ㄹ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양성 모음 ‘-앗-’이 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음성 모음 ‘-엇-’이 붙는다. 이를 근거로 하여 ‘ㄹ’이 양성 모음을 촉발하는 어떤 자질이 깃들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랏-’과 ‘왔-’의 관계도 또한 계사처럼 ‘오다’의 복수 어간으로서 ‘올-’과 ‘오-’를 상정해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준말이 되는 다른 사례들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 방언에서는 주로 어간이 ‘오’나 ‘우’ 소리를

---

어간을 지닌 낱말이 ‘있다’를 포함하면 모두 이 세 개 낱말밖에 없다는 점에서, 너무 유평적임이 문제가 될 듯하다. 이 방언에서 공식적으로 불규칙 활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러 변이 모습을 모두 계사(서술격 조사) ‘이다’의 복수 어간으로 상정한다면, 현재로서는 아마 ‘이-, 일-, ㄹ-’처럼 세 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138) 일상 발화에서는 주격 조사가 없이(zero 형태) 말해지는 일이 자연스럽다. 주격 조사의 탈락이나 생략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이 방언의 기본적인 통사 표상을 왜곡시켜 놓을 뿐이다. ‘그저계, 그저끼’도 가능한데, 때를 가리키는 ‘적’(時)과 관련하여 송상조(2007:93)에서는 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 ‘그지끼, 그지계, 그지끼’뿐만 아니라, 또한 제1 음절까지 바뀐 ‘기지계’까지도 표제 항목으로 올라 있다. 이 방언에서는 ‘아우’ 또는 동생을 ‘아시’라고 부른다. ‘그저기 아싯날’이나 그 준말인 ‘그적/그직 아싯날’은 그저계 바로 앞의 날인 그 꼬저께나 재제작일/삼작일을 가리킨다.
- 139) 이승녕(1978:139쪽 이하)에서 ‘오다’의 활용에서 ㄹ이 깃들어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놓았다.

지니고 있고, 수의적인 실현을 보여 주는 경우들을 다음처럼 찾을 수 있다. 우선, ‘보다’라는 동사는 연결어미 ‘-양’(미완료/비완전 시상 자질이 들어 있음)이나 ‘-안’(완료 시상 자질이 들어 있음)이 결합하여 ‘보양’ 또는 ‘보안’으로 나온다. 이는 또한 수의적으로 1음절로 줄어들어 [뵤]이나 [뵤]으로 말해질 수 있다. 또한 시상 선어말어미 ‘-않-’(미완료/비완전 상 자질이 들어 있음)이나 ‘-앗-’(완료 상 자질이 들어 있음)과 결합하여 ‘보않저’(보고 있다), ‘보앗저’(보았다)로 나오는데, 수의적으로 이 또한 줄어들어 [뵤 : 쩌], [뵤 : 쩌]로<sup>140)</sup> 소리가 난다. 이때 줄어든 모습을 각각

‘뵤, 뵤, 뵤저, 뵤저’

로 적는다. 이 모습이 더욱 줄어들어 반모음 [w]까지 탈락되어, 급기야 [뵤, 뵤, 뵤쨌, 뵤쨌]로도 발음될 소지가 있더라도, 이 표기에서는 이런 과도한 줄임 현상까지 표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들 반모음 탈락 현상은 아마 개인 방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반모음 [w]가 아래 논의에서 살펴보듯이 언제나 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제춌말에서 ‘눅다’(to lie down, 臥)가 복수 어간으로 나타나는데, ‘눅-, 누우-, 눅-’이다. ‘눅-, 눅-’의 존재는 이송녕(1978:24쪽 이

140) ‘ㅅ’ 소리는 종성으로 끝나거나 ㅅ 받침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경우에 언제나 내파음(파열되지 않는 소리) [sʰ]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에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에서는 언제나 ‘ㄷ’으로 내파음 발음을 표시해 놓았다. 기호 ‘:’는 반모음 [w]가 다른 모음 속에 깃들어 길게 발음되는 이른바 보상적 장음을 표시해 준다. 이는 이와 대립하는 짧은 소리의 낱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장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음에서 다룰 ‘눅다, 눅다’에서는 서로 대립적인 환경을 만들므로 장음화 여부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하)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다(눅지/눅지 말라, 눅곡/눅곡, 눅더라/눅더라). 다만 이 복수 어간들에 ‘누우-’가 더 추가되는데,<sup>141)</sup>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가령, 명령형 종결어미 ‘-으라’가 결합하면 ‘누우+으라’에서 의무적으로 약모음 ‘으’가 탈락하여 [누우라]로 소리난다. 만일 방입형 연결어미 ‘-으나마나’가 결합하면 ‘누우+으나마나’에서 ‘으’ 탈락하여 [누우나마나]로 발음된다. 만일 순차 연결어미 ‘-양’(-아서, 미완료/불완전 상 자질) 또는 ‘-안’(-아서, 완료 상 자질)이 결합하면 ‘누우+양’ 또는 ‘누우+안’에서 ‘우’가 반모음으로 되어 [누윙] 또는 [누윈]으로 나오게 된다. 만일 시상 선어말어미 ‘-않-’(미완료/불완전 상 자질을 지님)이나 ‘-앗-’(완료 상 자질을 지님)과 결합하면 모음조화에 따라 ‘누우+않+저, 누우+앗+저’에서 ‘우’가 앞에서와 같이 반모음 [w]로 바뀐 뒤 선어말어미와 재음절화를 거쳐서 마침내 [누윙져, 누윈져]로 발음된다. 이 또한 형태를 밝혀서 ‘누윙져, 누윈져’로 적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적으로 모음 ‘우’나 반모음 [w]가 탈락하여 각각 [누 : 라, 누 : 나마나, 뉡 : , 뉡 : , 뉡 : ㅈ, 뉡 : ㅈ]로 음절이 줄어들 수 있다.<sup>142)</sup> 다시 말하여, 본딤말로 발음해도 좋고, 음절이 줄어든 준말로 발음해도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각각 준말

141) 자연음운론(natural phonology)에서는 변칙 용언이란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변칙 활용에서 찾아지는 어간이 그대로 복수 어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는 더 이상 변칙 용언이나 불규칙 용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복수 어간으로부터 규칙 활용을 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최명옥(1996: 제2장)과 최명옥(2008, 제2판)을 읽어 보기 바란다.

142) 비록 제춧말에서 변별적 대립을 보이는 장음 환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집필자의 직관에는 ‘(똥) 놓다’라는 어간이 받침소리 ㅎ이 탈락하여 [누라, 누나마나, 뉡, 뉡]으로 발음되는 경우와 서로 구별될 법한 보상적 장음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듯하다. 집필자 개인의 방언에 불과할지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누라, 누나마나, 뉘, 뉘, 뉘저, 뉘저’

로 적게 된다. 단, 여기서 반모음 [w]는 ‘모다’의 경우와는 달리 결코 탈락할 수 없다. 결코 [\*뉘, \*뉘, \*뉘저, \*뉘저]라고 말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본뎃말은 각각 다음과 같다.

‘누우라, 누우나마나, 누윙, 누윈, 누윙저, 누윙저’

앞의 두 사례(누우라, 누우나마나)에서는 ‘우’ 탈락으로 음절이 줄어들었다. 뒤의 사례들(누윙, 누윈, 누윙저, 누윙저)에서는 먼저 제2 음절의 반모음 [w]가 탈락한 다음에, 어간과 선어말어미가 재음절화를 거침으로써, 다시 어간의 ‘우’가 [w]로 되면서, 급기야 1음절이 줄어들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반모음 [w]로 바뀔 수 있는 ‘오, 우’ 소리의 용언 어간으로 ‘두다’(to put, 置)나 ‘놓다’(to release, 放)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도 동일한 준말이 관찰될 수 있다. ‘두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앙’이나 ‘-안’이 결합하여 모음조화를 이룬 ‘두앙, 두안’으로 되고, 선어말어미 ‘-았-’이나 ‘-앗-’이 결합하여 모음조화를 거친 ‘두없저’(두고 있다)나 ‘두엇저’(두었다)가 된다. 이 형태 또한 수의적으로 [뉘 : , 뉘 : , 뉘 : 짜, 뉘 : 짜]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반모음 [w]는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sup>143)</sup> 이런 준말을 다음처럼 적을 수 있다.

---

143) 특이하게 보조동사 ‘두다’로 쓰여 연결어미가 이어질 경우에 ‘그디 앓아 뉘서, …’(거기에 앓아 두고 있으면서/두고서, …)로 발화되거나 ‘음’이 생략된 채 ‘그디 앓아 두서, …’로도 발화된다. 집필자의 직관에는 이 경우 ‘① 선행절 사건을 지속하면서 ② 동시에 후행절의 다른 사건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양자가 수의적 변동일지, 시상의 대립일지 여부는 좀더 따져 봐야 할 듯하다. 이 일이 간단치 않다.

이 방언의 사전들에서는 표제 항목을 ‘-아 뉘서’나 ‘-아 두서’로 올려놓고

‘뿡, 뿡, 뿡저, 뿡저’

(본뿡말은 각각 ‘두엇, 두엇, 두엇저, 두엇저’)

‘뿡다’가 활용할 때에는 ㅎ탈락이 수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어간 종성이 탈락되고 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들이 결합되면, 남아 있는 ‘오’가 수의적 반모음 [w]가 바뀔 경우에 음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곧, 중간 단계의 어간 ‘노-’에 연결어미 ‘-앙, -안’이 붙거나 선어말어미 ‘-았-, -앗-’이 결합하면 ‘오’가 반모음 [w]로 바뀌

---

서로 같은 것(수의적 변이형태)처럼 취급하고 있다. 문순덕(2003:24쪽 이하, 37쪽 이하)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비록 결과적으로 변별되는 의미 기능이 매우 흐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뿡서’가 ‘두고서’(두고 있으면서)로, ‘두서’가 ‘두어서’(두어 있으면서)로 대응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아야 한다(마치 표준어에서 부사형어미 ‘-고’와 ‘-아’의 대립과 같이). 이를 단순히 표준어 ‘-아 있으면서’로만 대응시킨다면, 보조동사 ‘두다’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며, ‘ㄱ : ∅’의 차이도 드러내지 못한다. ‘뿡서, 두서’가 수의적인 변동이 아닐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것이 보조동사 ‘두다’에 연결어미가 이어진 것이지만, 형태소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결합 구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준말에서 제외해 둔다. 단순히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소가 들어 있고, 왜 ‘ㄱ’ 받침 소리만 없어지고, ‘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지, 양자가 과연 동일한 기능을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 등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어에서 계기 접속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서’는 제춧말에서 시상 대립을 지니고서 ‘-안 : -앙’으로 나온다. 이 연결어미가 보조동사에 결합한다면 당연히 ‘뿡 : 뿡’으로 실현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뿡서, 두서’에서 찾아지는 ‘서’가 ① 단일 형태소인지, ② 복합형태소인지, 아니면 ③ 앞에 있는 형태소가 재음절화되어 뒤의 음절 첫소리로 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 본 뒤에야 비로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동사 ‘두다’가 시상 형태소 ‘-았-’ 및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결합하면, ‘뿡어[발음은 ‘뿡서]’로 표기된다. 이는 서술 종결어미나 의문 종결어미로 쓰이며, 결코 “뿡서”로는 말해지지 않는다(결코 ‘어’가 탈락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았-’에 대립하는 시상 형태소 ‘-앗-’이 결합될 경우에 ‘뿡어[\*뿡서]’로 발음됨]로 실현되며, 이 종결어미의 경우도 결코 ‘어’ 탈락이 일어나서 [\*뿡어[\*두서]’로는 발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접속문에서 관찰되는 ‘뿡서, 두서’가 다른 형태소의 결합일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옳다.

어 각각 [냥, 난, 낱져, 낱찌]와 같이 나온다. 이런 준말을 다음처럼 적는다.

‘냥, 난, 낱져, 낱찌’

그런데 이들 준말의 본딤말은 ‘놓앙, 놓안, 놓았져, 놓았찌’로 적어야 한다.<sup>144)</sup> 송철의(1993)에서 처음 지적되었듯이, 준말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 모음에 있고, 모음만이 음절이 더 줄어들게 만든다. 자음 탈락은 음절을 더 줄여 주는 데 참여하지 않으므로, 좁은 의미의 준말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수의적으로 ㅎ이 탈락된 [노앙, 노안, 노암찌, 노안찌]라는 발음도 발음대로 표기하지 말고 (준말로 진행되는 음운론적 중간 단계일 뿐임), 응당 ‘놓앙, 놓안, 놓았져, 놓았찌’로 적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표기법에서는 ‘놓다’라는 낱말의 활용과 관련하여 본딤말을 적거나 또는 준말을 적는 두 가지 선택만이 가능할 따름이다. 본딤말에서 준말을 가는 중간 단

144) ‘놓다, 놓다’와 동일한 환경으로 파악되는 ‘놓다’는 특이하게 연결어미 ‘-앙, -안’(‘-아서’이지만 서로 시상이 대립되는 연결어미임)이 결합할 경우 [\*쟝, \*좡]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오직 [조앙, 조안]으로 발음되며 이를 자음이 탈락하지 않은 ‘놓앙, 놓안’으로 적어 주어야 옳다. 이는 [노앙/냥, 노안/난]과 [누영/녕, 누연/닐]에서처럼 2음절로도 발음되고 수의적 1음절로 줄어들어 발음되는 것과 다른 특성이다.

그런데 왜 [w] 반모음화(또는 활음화)가 저지되는 것일까? 만일 이들 1음절 어간에서 차이점을 찾는다면, 오직 초성 ‘ㄷ’과 ‘ㄴ’ 사이의 차별뿐이다. 그렇다면, 초성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ㄷ’은 이미 구개음화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반모음 [j](또는 [y])가 녹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하다. 우리말의 음절 구조는 오직 하나의 상향(on-set) 반모음만 허용하기 때문에(중국 한자음의 찰구성 음절에서는 둘 이상의 반모음 연쇄도 가능함), 어간 ‘중-’에서 받침이 탈락되더라도 ‘오’가 반모음 [w]로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미 ‘ㄷ’ 속에 구개음화를 일으킨 반모음 [j](또는 [y])가 있으므로, 음절 구조상 핵모음에 상향 반모음 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는 셈이며, 따라서 더 이상 ‘오’의 [w] 반모음화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계의 과정(음운론적 진행 과정)은 이 표기법에서 따로 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3. 어미와 어미의 결합’에서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사이에서 관찰되는 준말을 예시하고 있다. 이런 결합 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제16항의 해설에서 <표 1>과 <표 2>로 제시된 종결어미들에 대한 목록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서술문을 보고 나서 의문문을 다루기로 한다. 이 방언에서는 평대 관계에서 쓰이는 서술 종결어미들은 첫째 고유하게 서술문에만 쓰이는 독자적인 종결어미와 둘째 여러 서법들에 두루 다 쓰일 수 있는 반말투의 종결어미가 있다. 고유 서법의 종결어미는 ‘-다’로 대표되고, 여러 서법에 두루 쓰이는 반말투 종결어미는 ‘-어’로 대표된다. 그런데 계사(서술격 조사) ‘이다’에 의해 매개될 경우에는 전자가 ‘이어’로 나오고, 후자가 ‘이라’로 나오는데, 후자는 서로 다른 억양이 없이어 두루 여러 가지 서법으로 쓰일 수 있다.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사이에서 관찰되는 준말은 특히 계사에 의해 매개되는 ‘이어’와 관련된다. 이 어미는 이미 제11항 ‘어간과 어미’의 해설에서 명사형어미 구문 ‘-음’에 결합됨을 살펴보았고(-음+이어), 또한 반말투 종결어미 ‘-어’와 융합되어 있는 ‘-엄디아?, -언디아?’(어+음/은+디아)의 형식도 살펴보았다. 이들 구문에서도 모두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된다. 가령, 두 사람의 친구 사이에 관찰될 수 있는 다음 발화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 ‘이다’가 나온 구문

물음 : “느 어디 감이니?” (너 지금 어디 가는 것이니?)

대답 : “나 밧디 감이어.” (나 지금 밧에 가는 것이다.)

물음 : “느 어디서 옴이니?” (너 어디에서 오는 것이니?, 각주 137)을 보기 바람)

대답 : “나 흑교서 옴이어.” (나 학교로부터 오는 것이다)

(2) 반말투 종결어미 ‘-어’에 ‘-음디아/-은디아’가 융합된 구문

물음 : “느 어디 감디아?” (너 지금 어디에 가는 것이니?)

대답 : “나 밧디 값저.” (나 지금 밧에 가는 것이다.)

물음 : “느 어디서 왓디아?/오람디아?” (너 어디에서 오는 것이니?)

대답 : “나 흑교서 오람저/왓저.” (나 학교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의문사(wh) 질문으로서 내림세 억양 또는 하강 어조 ‘\’을 지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짝 지워져 있다. (1)에서는 ‘가다, 오다’라는 동사가 모두 명사화 구문 ‘-음’으로 이뤄져 있고, 이 뒤에 계사 ‘이다’가 결합된 뒤에 다시 종결어미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감이어, 옴이어’(가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는 물음에 있는 명사형어미 ‘-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유한 서술 서법의 계사 활용 구문으로 실현되어 있다(가+음+이고?/이어). 이 점은 동사 ‘가다’를 ‘떡다’로 바꿀 적에 “뭐 먹음이고?”(뭐 먹는 것이니?)라는 표현에서, 동사 어간 ‘떡-’에 그대로 명사형어미 ‘-음’이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에서는 발화 ‘감디아?’(가+안+음+디아)는 동사 어간에 반말투 종결어미 ‘-안’가 붙고, 다시 명사형어미 ‘-음’과 의문 종결어미 ‘-디아?’가 융합되어 있는 형식이며, [감디아]로 소리 난다. 답변의 ‘값저’는 동사 어간에 미완료/비완전 시상 자질을 나타내는 형태소 ‘-

않-'이 나오고, 이 뒤에 고유한 서술 서법의 종결어미 '-저'가 붙어 있고, [감짜]로 소리 난다. '오랐저/왔저'도 동일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오다'라는 동사가 '이다, 있다'처럼 변이형태의 어간 '오-'와 <sup>t</sup> '올-'(강정희 선생의 재구형은 <sup>t</sup> '오라-')이 시상 형태소 '-았-'이나 '-앗-'에는 수의적으로 자유롭게 교체되어 나온다. 그러나 (1)의 명사형어미 '-음' 구성에서는 결코 “\*오름이어”(강정희 선생의 재구형으로는 “\*오람이어”)로 실현되는 법이 없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제약은 아마 연결되어 나온 계사의 실현 모습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겠지만, 이 준말의 해설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괄호 속에 들어 있는 표준어 대역에서는 모두 시제를 부사 '지금'으로 표시해 놓았다.<sup>145)</sup> 제11항의 해설에서 계사를 수반한 명사형어미 구문(-음이다)와 반말투 종결어미 '-어'에 융합된 '-음디아?' 형식이 언제나 화행 참여자들이 현재 관찰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따라서 서로 추체험[追體驗]으로 해당 사건을 확인할 수 있음)

---

145) 표준어에서는 시제 형태소 '-었-'이 명사화 어미(보문 어미, 보문자) 앞에 나올 수 있으며('떠났음, 먹었음' 등), 이 경우 완료 또는 완결된 사건의 결과 상태를 가리킬 수 있다. 만일 시제 형태소가 결여되어 있다면('떠남, 먹음' 등) 발화 시점으로 현재의 결과 상태를 가리키게 된다. 제춧말의 시상 체계에서는 '-았-'이라는 시제 형태소가 쓰이지 않고, 따라서 이 구문에서는 명사형어미 '-음'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결과 상태만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먹었디아?”가 “먹었디아?”(먹+어+음디아)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간 '먹-'에 반말투 종결어미 '-어'가 붙어 있고, 다시 여기에 '-음디아'가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여기서 관찰되는 '-음'이 명사형어미라면, 명사형어미도 관형어미처럼 종결어미 융합구조에 참여하는 것이며, 현재 결과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형어미의 의미자질로 말미암아 '-음디아?'라는 융합 종결어미도 현재 관찰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 방식은, 계사를 수반하여 만들어진 순수히 명사형어미 구문인 “뭐 먹었이고?”에서 왜 “\*뭐 먹었이고?”가 만들어질 수 없고, 왜 꼭 “뭐 먹었디아?”의 ‘-디아?’에서만 배타적으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 한계이다.

에 대해서만 쓰인다고 기술해 두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표준어에서는 ‘먹었음, 떠났음’과 같이 명사형어미가 ‘-았-’이라는 시제 형태소를 선행시키지만, 제춧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더군다나 ‘-엄디아?’(현재 진행 중인 사건)와 그 짝이 되는 ‘-언디아?’(이미 끝난 사건)는<sup>146)</sup>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해서만 쓰인다고 지적해 두었다.

표준어에서 관찰되듯이 계사가 관형형 구문을 이루는 경우(농부인 철수, 환자인 동생)만을 제외하면, 계사가 탈락되거나 반모음 [j](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y])으로 약화되어(또는 활음화되어), 뒷음절에 덧없힐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발화가 수의적으로 다음처럼 말해질 수 있다.

(1) 명사형어미 ‘-음’과 계사가 수반된 구문

물음 : “느 어디 감∅고?”<sup>147)</sup> (너 지금 어디 가니?)

대답 : “나 밧디 감<sup>어</sup>.”<sup>148)</sup> (나 지금 밧에 간다.)

물음 : “느 어디서 음∅고?” (너 이디에서 오니?)

---

146) “(느) 책 읽<sup>엄</sup>디아?”(너 책 읽고 있니?)는 가능하지만, “\*밖에 비 오<sup>람</sup>디아?”(밖에 비 오고 있니?)는 불가능하다. “(느) 책 가져 오<sup>람</sup>디아?”(너 책 가져 왔니?)는 가능하지만, “\*어제 비 오<sup>람</sup>디아?”(어제 비 왔니?)는 불가능하다. 뒤의 불가능한 표현은 모두 시상 형태소 ‘-았-’과 ‘-았-’을 지니고서, “\*밖에 비 오<sup>람</sup>의아?/오<sup>람</sup>시아?”(밖에 비 오고 있니?)와 “\*어제 비 오<sup>람</sup>의아?/오<sup>람</sup>시아?”(어제 비 왔었니?)로 표현되어야 한다. 후자는 사람의 동작/행위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계의 사건도 가리키므로, ‘동작상’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임도 이미 제16항의 해설에서 지적해 두었다.

147) 단, 기호 ‘∅’는 탈락되어 zero로 된 모습을 가리키며, [감고]와 [음고]로 소리난다.

148) 줄임 규칙은 ‘이아 → 야’와 ‘이어 → 여’를 구분하지 않고 반모음화가 일어난 뒤 두 음절이 하나의 음절로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값이아?’에 ‘이아 → 야’ 규칙이 적용될 경우에 ‘값야?’로 발음되고, ‘감이어.’에 ‘이어 → 여’ 규칙이 적용될 경우에 ‘감여.’와 같이 발음된다.

대답 : “나 혹교서 옴여.” (나 학교로부터 온다.)

(2) 반말투 종결어미 ‘-어’에 ‘-음디아’ 또는 ‘-은디아’가 융합된 구문

물음 : “느 어이 감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❷니)

대답 : “나 봣디 값저.” (나 지금 밭에 가는 거다.)

물음 : “느 어디서 왓다?/오람다?” (너 어디에서 오는 거❷니?)

대답 : “나 혹교서 오랐저/왔저.” (나 학교로부터 오는 거다.)

(1')에 보여 주듯이 내림세 억양(하강 어조) ‘\`’을 지닌 의문사 질문 ‘어디 감이고?, 어디서 옴이고?’에서, 계사가 탈락되어 각각 ‘감 고?, 옴 고?’로 되어 있다. 대답에서도 계사가 반모음 [j]로 약화되어 종결어미 ‘-어’에 녹아들어 ‘-여’로 나온다. (2')에서는 ‘-음디아’가 ‘-음다?’로 줄어들었다. 서귀포시 지역과 같은 하위 방언권에 따라서는 반모음 [j]가 탈락하여, ‘감다?, 오람다?’로 발음될 수 있다.<sup>149)</sup> 이 표기법에서는 이들을 준말로서 ‘감다?, 감다?’나 ‘오람다?,

149) 이 방언의 하위 구획과 관련하여 정승철(2007:163)에서의 주장은 중요하다. 일반적인 방언의 연구 시각에서 볼 때 각별히 경청할 만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제주 방언은 하나의 대방언권이지만, 방언권 내의 언어적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 …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 산남 두 방언이 보여 주는 언어적 차이도, 다른 방언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소방언권을 하위 구획한 방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등어선 속(등어선 묶음)에 따라 구획을 나누려고 할 경우, 가중치를 확정하는 일에 제춧말에서 찾아지는 차이점들은 거의 기여를 할 수 없다. 이 방언에서 찾아지는 하위 방언의 차이는 그야말로 ‘깃털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동질의 ‘단일 방언권’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일 자잘한 차이를 기술한다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다른 점들이 많으므로(고려 때부터 이 지역을 동아막·서아막으로 나누었었음), 산북이나 산남의 차이보다 이른바 ‘동촌’과 ‘서촌’의 차이로 기술하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를 찾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산남 방언이나 산북 방언이란 용어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한 채 만들어진 신중치 않은 조어로 보인다.



오람다?’로 모두 다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감연, 옴연’와 같이 줄어들 수 있다. 마치 ‘가키어’에서 음절이 줄어들어 ‘가켜’로 쓰는 일과 한가지이다.

이제 시상 표현에 관여하는 형태소 ‘않’(미완료/비완전 시상 자질이 깃들)과 ‘앗’(완료 시상 자질이 깃들)에서 관찰되는 준말을 보기로 한다. 이 형태소들은 다음처럼 친구끼리 문답 발화에 나올 수 있다. 이들은 ‘예-아니오’(yes-no) 의문의 경우이며, 올림세 억양(상승 어조) ‘↗’로 끝난다.

물음 : “가이 밥 먹었이야?/먹었시아?” (개 밥 먹고 있는 건가?)

대답 : “오, 가이 밥 먹었어.” (응, 개 밥 먹고 있어.)

물음 : “철수 밥 먹었이야?/먹어시아?” (철수가 밥 먹은 건가?)

대답 : “오, 철수 밥 다 먹었어.” (응, 철수 밥 다 먹었어.)

동사 ‘먹다’에서 어간에 결합한 시상 형태소(더 엄격히는 사건의 전개 모습을 드러내는 ‘상’[相, aspect] 형태소) ‘않’과 ‘앗’ 뒤에 다시 종결어미로서 의문을 나타내는 ‘-이야?’와 서술을 나타내는 ‘-어’가 결합되어 있다(앞의 형태가 준말과 관련됨). 이들은 자연스럽게 각각 [머김시아?]와 [머거서]로 발음된다. 의문 종결어미 ‘-이야?’는 바뀐 꼴로서<sup>150)</sup> ‘-이가?’도 있다.

150) 전문 용어로는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워진 변이형태’라고 부른다. 명사형어미(보문어미, 보문자) ‘-음’ 뒤에는 반드시 ‘-이가?’라는 의문 종결어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표준어에서는 ‘가다’의 명령형을 ‘가거라!’, ‘오다’의 명령형을 ‘오너라!’라고 말하는데, ‘-거라, -너라’는 낱말 형태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것이다.

제11항의 해설에서 잠정적으로 제춧말의 시상 형태소는 일단 ‘않’과 ‘암시’, 그리고 ‘앗’과 ‘아시’가 변이형태로 있는 듯이 설명해 두었다. 그렇지만 이런 변이형태는 지각상의 두드러짐을 위하여 서로 차별되는 꼴로 나온 것은 아니다.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보고 다른 것을 도출해 내는 조건을

물음 : “느 지금 어디 감이가?” (너 지금 어디 가는 것인가?)

대답 : “오, 학교 감이어.” (응, 학교 가는 것이다)

의문 종결어미 ‘-나?’도 또한 자연부류로서 모두 [어] 계열의 소리로 끝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물음 : “느 지금 학교 갔나?”<sup>151)</sup> (너 지금 학교 가고 있느냐?)

쉽게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변이형태처럼 기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필자는 ‘-았-’과 ‘-앗-’을 기본형으로 보고서, 이 뒤에 ‘이’가 뒤따르는 까닭을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만일 이들을 하나의 기본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았-’과 ‘-앗-’ 뒤에는 의문 종결어미 ‘-이야?’가 결합하지만, 명사형어미 ‘-음’ 뒤에는 의문 종결어미 ‘-이가?’가 결합한다고 서술할 수 있게 된다. 명사형어미 뒤에 나오는 것은 계사임에 틀림없으며, 계사 어간이 생략되는 현상도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상 형태소 뒤에 나오는 ‘이’도 그러할까? 이와 같은 ‘이’는 “먹으키어”(먹+으크+이어, 먹겠어)에서 관찰되는 것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대답이 고영진 선생의 추정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사 구문이라면, 이 경우에 ‘계사 어간의 생략’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집필자는 고영진 선생의 가정에 제약을 한 가지 더 덧붙여 놓았다. 전형적인 계사 구문은 두 개의 명사구가 주어여야 한다. 이 두 명사구에서 오직 뒤에 있는 요소만 나오도록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아야 한다. 집필자는 하나의 명사구 대응물만이 나오는 구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황 공범주가 들어 있는 주제화 구문을 상정해 보았다. 이런 주제화 구문의 특성으로 (오직 하나의 명사구 상당 표현만이 나오는 제약), 계사 어간 생략 현상이나 어간 속에 녹아 있는 ‘르’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제17항 준말의 해설에서는 줄어드는 과정의 자연성을 더 잘 드러내어 주므로, 이하에서는 시상 형태소 ‘-았-, -앗-’에 ‘이야?, 이어?’가 결합되는 듯이 표기해 놓기로 한다. 줄어드는 현상에서는 특히 ‘먹었디아?, 먹음디아?, 먹었이야?, 먹었이야?’가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술 서법에서 ‘먹으키어’(먹+으크+이어)도 줄어드는 현상이 동일하다.

- 151) 비슷하게 “느 어디 갔나?”와 “느 어디 갔이야?/갔이야?”가 관찰될 수 있다. 이들이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지, 아니면 이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먼저 무엇이 공유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았-’이라는 시상 형태소를 갖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모두 동일한 시상 형태소이므로 ‘갔이야?’라는 표기가 생산적인 이 시상 형태소를 제대로 밝혀 적은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음). 이른바 사건을

대답 : “오, 학교 갔저.” (응, 학교 가고 있다)

자신의 의도에 의해 일으키는 주체가 청자 ‘너’인 셈이다. 청자가 진행하고 있는 행위(사건)를 관찰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그 행위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차이점은 각각 ‘-나?', -나?', -이야?’에 있다. 만일 중간어의 형태 ‘-나?’를 ‘-느+이야’로 분석할 수 있다면(이는 오직 감정적일 뿐이며, 서술 서법의 종결어미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음), 이 ‘-느’는 앞의 ‘-나?’와 공통된 요소일 수 있고, 뒤의 ‘이야’는 뒤의 ‘-이야?’와 공통된 요소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만일 이런 분석이 옳바르다면, 이들 세 형태소의 차이는 ‘-느’의 유무에 따라 결국 두 부류로 모아진다. 하나는 ‘-느’ 뒤에 직접 ‘-아?’ 또는 ‘-이야?’가 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emptyset$ 에 ‘-이야?’가 융합하는 형식이다. ‘-아?', -이야?’ 사이의 관계는 준말 형성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다.

집필자는 ‘-느’를 양태 요소로 간주하고, 서술문에서는 청자 추체험 가능성, 거꾸로 청자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화자 추체험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본다. ‘-느’가 표시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사건을 관련 당사자(여기서는 질문을 던지는 화자)가 확실히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여 생생한 현장 사건을 접하고 발화하는 것이다(지금 이 시각이라는 속뜻이 깃들어 있음). 그렇지만 ‘-느’가 없는 ‘ $\emptyset$ ’ 표현은 미완료 또는 비완전 시상 형태소 ‘-았’이 가리키는 사건 진행 폭이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를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시폭(거리로 표현되는 시간)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내일 일어날 사건도 미완료 사건 내지 비완전 사건이 되므로, ‘-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시차를 두고 조금 뒤에 일어나는 사건부터 가까운 내일 사건까지 포함함).

그렇지만 ‘-느’ 뒤에 ‘-이야?’가 융합되는지, 아니면 ‘-아?’가 융합되는지는 수의적 교체가 될 듯하다. 왜냐하면 ‘먹었아?’와 ‘먹었야?’(먹+었+이야?/야?/아?)가 구분되지 않고 수의적으로 느껴지며(시상 형태소 ‘-았’이 나온 구분), ‘먹었다?’와 ‘먹었다?’(먹+어+음디아?/음디아?/음다?)가 수의적 교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반말투 형태소 ‘-어’와 명사형어미 ‘-음’이 융합된 구분). 이런 교체는

‘이야? → 야?(활음화) → 아?(단모음화)’

라는 세 단계의 준말을 형성 절차가 적용된 듯하다. ‘값냐?’(니아?→냐?)와 ‘값나?’(냐?→나?)는 집필자에게 수의적 교체 관계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모음탈락만이 일어나는 두 단계의 준말 형성 절차

‘이야? → 이?(모음탈락)’

가 적용된다면, ‘값니?’가 나올 수 있다. 집필자는 이들 준말의 관계가 아마도 성별 사용 차이나 또는 문체적 차이 정도만을 반영해 주리라 본다. ‘-았’에도 이런 두 단계 준말 형성 절차가 적용되면, ‘값이?’[감시?]로만 말해질 수 있고, 또한 ‘먹었이?’[머검시?], 먹었디?[머검디?]'로 말해질 수 있다. 단, 이

이들은 각각 [감나?]와 [감쩌]로 발음된다. 시상 형태소는 ‘-앗-’으로 바뀌어 ‘느 어제 학교 갔나?’(너 어제 학교 갔나?/갔니?)로 발화될 수도 있다.

시상 형태소에 의문 종결어미 ‘-이야?’가 결합된 형식은 수의적으로 다음처럼 음절이 줄어들 수 있다. 계사로 소급될 수 있는 형태 ‘이’가 반모음 [j](또는 [y])로 되어(연구자에 따라서는 활음화 현상으로도 부름) 마지막 음절에 덧붙혀져 ‘-야?’로 된다.

물음 : “가이 밥 먹었야?” ([머검샤?]로 소리 남)

대답 : “오, 가이 밥 먹었어.” ([머검서]로 소리 남)

물음 : “철수 밥 먹었야?” ([머거샤?]로 소리 남)

대답 : “오, 철수 밥 다 먹었어.” ([머거서]로 소리 남)

여기서 ‘-야?’에서 수의적으로 다시 반모음 [j](또는 [y])가 완전히 탈락하여 다음처럼 ‘-아?’만 남을 수도 있다.<sup>152)</sup>

물음 : “가이 밥 먹었아?” ([머검샤?]로 소리 남)

대답 : “오, 가이 밥 먹었어.” ([머검서]로 소리 남)

물음 : “철수 밥 먹었아?” ([머거샤?]로 소리 남)

대답 : “오, 철수 밥 다 먹었어.” ([머거서]로 소리 남)

따라서 시상 형태소에 결합하는 의문 종결어미의 본딧말 ‘-이야?’는

---

경우 내립세 억양을 지니고 의문사 의문으로만 해석된다.

152) 이는 앞에서 살펴본 ‘먹었디아?’가 [머검다?]나 [머검다?]로 줄어들 수 있는 데, 후자의 경우 반모음이 완전히 탈락하는 일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머검다?]와 [머검다?]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지만, [머검샤?]와 [머검샤?]는 완벽히 수의적인 교체라 할 만큼 지역적 차이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수의적으로 음절이 줄어들어 ‘-야?’ 또는 ‘-아?’로 바뀔 수 있다. 본  
 덧말이 ‘먹었이야?’이며, 음절이 하나 줄어들어 나온 준말이 ‘먹었  
 야?’ 또는 ‘먹었아?’가 되는 것이다. 둘 모두 준말 조건에 부합하므  
 로, 이 둘을 모두 다 준말로 표기해 줄 수 있다.

의문 종결어미 ‘-을티아?’에서도 동일하게 수의적으로 1음절이 줄  
 어들어 다음처럼 ‘-을타?’ 또는 ‘-을타?’로 나올 수 있다.

물음 : “느 나광 혼디 갈티아?” (너 나랑 함께 갈래?)

대답 : “아니, 안 가키어.” (아니, 가지 않겠어)

물음 : “느 밥 먹었디아?” (너 밥 먹고 있는 것이냐?)

대답 : “오, 밥 먹었저.” (응, 밥 먹고 있어)

이는 이 방언에서 관형형어미 ‘-을’이 뒤에 이어지는 형식 명사를  
 격음으로 만들어 주는 특이한 경향(사이히음 현상) 때문에, 원래의  
 기본 표상이 ‘-을+디아?’에서 융합된 하나의 어미로 바뀌면서 ‘-을티  
 아?’로 바뀐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명사형어미(보문어미, 보문  
 자) ‘-음디아?’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어미의 ‘이’가  
 반모음 [j](또는 [y])로 바뀌어(활음화 현상) 마지막 음절에 얹힘으  
 로써 음절이 줄어들 수 있고, 급기야 앞에서 보았듯이 이 반모음마  
 저 탈락할 수 있다.

물음 : “느 나광 혼디 갈타?/갈타?” (너 나랑 함께 갈래?)

그렇다면 본덧말 ‘갈티아?’가 수의적으로 1음절이 줄어들어 ‘갈타?’  
 또는 ‘갈타?’라는 준말로 나올 수 있다. 준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  
 므로 이들도 ‘갈타?, 갈타?’로 표기해야 한다.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할 때 외견상 음절이 줄어들는 현상은 다음처럼 대우 형태소를 지닌 의문문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준말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물음 : “지금 어디 감이우파?” (지금 어디 가는 것입니까?)

대답 : “밭디 값수다.” (밭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대우를 해야 하는 두 사람 사이의 문답을 보여 준다. 물음은 의문사 의문(wh-question)으로 내림세 억양(하강 어조) ‘\’가 얹혀 있지만, 더 정확히 ‘-우파?’에서 마치 ‘-우꾸아?’처럼<sup>153)</sup> 높낮이 수준을 숫자로 표현하여 231(각각 우<sub>2</sub>, 꾸<sub>3</sub>, 아<sub>1</sub>)로 기술해 놓을 수 있다. 그런데 의문 종결어미 ‘-파?’는 언제나 대우 형태소 ‘-우-’나 ‘-수-’와만 결합된다.<sup>154)</sup> 이런 강한 결합 및 ‘-파’에 있는 반모음 [w] 특성 때문에, 급기야 수의적으로 ‘-우-’가 반모음 [w]로 바뀌어 같은 소리가 하나 탈락하더라도 여전히 대우의 기능을 표시해

153) 의문문이므로 형태소 배열이 ‘우+ㅅ+구아’일 개연성이 있고, 여기서 찾아지는 ‘구’는 표준어 감탄어미 ‘-구나’와 비교될 수 있다. 의문 첨사 앞에 사이시옷이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성만 지적해 놓는 데서 그치기로 한다. 제16항의 해설에서 <표 3>으로 제시한 각 서법에 따른 대우 체계를 살펴보기 바란다.

154) 이를 전통문법에서는 호응 관계,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공기 관계(co-occurrence), 생성문법에서는 선택 제약(selection restriction)이나 하위 범주화(subcategorization), 말뭉치 언어학에서는 이음말(collocation) 제약 등으로 달리 부른다. 가령, 우리말에서 형식 명사 ‘줄’은 반드시 상위동사로 ‘알다, 모르다’와만 결합한다. 형식 명사 ‘수’는 반드시 ‘있다, 없다’와만 함께 나온다. 이 방언에서 대우를 나타내는 의문 종결어미 ‘-파’는 반드시 대우 선어말어미 ‘-우-’나 ‘-수-’와 결합한다. ‘-수-’와 결합할 때에는 탈락이 저지되지만, 만일 ‘-우-’와 결합할 경우에는 이 형태소 먼저 반모음 [w]로 되고, ‘-파’에 들어 있는 반모음 [w]와 동등한 음운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의 반모음이 탈락되는 듯이 보인다.

줄 수 있다(‘-수-’ 형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앞의 의문 발화는 수의적으로 다음처럼 말해질 수 있다.

물음 : “지금 어디 감이∅짜?”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대답 : “बाट디 값수다.” (밭에 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명사형어미 ‘-음’ 구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가늘다’라는 형용사를 활용하면 의문문(예-아니오 의문문)으로

“그 줄 ㄱ느우짜?”(그 줄 가늠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도 수의적으로

“그 줄 ㄱ느∅짜?”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한 긍정 대답으로 “예, ㄱ느우다.” (예, 가늠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술문에서는 결코 대우 형태소 ‘-우-’가 탈락될 수 없고, “\*ㄱ느∅다”(발음은 [\*ㄱ느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술 종결어미 ‘-다’는 대우 형태소와 늘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짜?’에서 1음절이 줄어들어 ‘-짜?’로 발음되는 경우, 이를 본딤말과 준말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런 탈락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의문 종결어미 ‘-짜?’에서 반모음 [w]가 들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반모음이 화자의 머릿속에서 의식되기 때문에, 대우 형태소 ‘-우-’가 음운론적으로 반모음 [w]으로 바뀌는

일이 촉발된다. 우리말의 음절 구성상 상향 반모음이 오직 하나만 허용되기 때문에 의문 종결어미 속에 있던 [w]와 경합을 벌여 어느 하나가 탈락해야 한다. 따라서 급기야 대우 형태소 ‘-우-’는

‘[wu] → [w] → ∅’

의 단계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탈락 과정이 본딤말과 준말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일까? 그렇다. 본딤말과 준말 사이의 수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절이 줄어들되, 모음이 탈락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우연히 의문 종결어미에 있는 반모음 [w]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고, 다른 환경에서는 ‘-우-’가 탈락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준말로 불러야 할 것으로 본다.

‘감이우파?, ㄹ느우파?’ : ‘감이파?, ㄹ느파?’

이 두 형식들에서 대우 형태소는 수의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뒷 형식에서 반모음 [w]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본딤말과 준말이 된다.

제17항의 조목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종결어미와 화용 첨사가 수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도 있다. 화용 첨사는 학교문법에서 보조사의 일종으로 간주되므로, 조사를 앞 형식에 붙여 쓰는 원칙에 따라, 이하에서는 구절 또는 문장에 붙여 써 놓기로 한다. 가령,

“그 일도 같이 흡주!” (그 일도 같이 합시다-이)



는 청유를 표현하는 대우 종결어미 ‘-읍주’(읍+주+이)에 화용 첨사 ‘이’가 덧붙은 형태이다. 그 기능은 ‘-읍주’라는 청유 형식을 듣는 사람에게 동의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sup>155)</sup> 여러 가지 다른 화용 첨사들이 있지만, 특히 화용 첨사 ‘이’만은 오직 모음뿐이므로 수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결어미에 줄어들 수 있다.

“그 일도 같이 흡쨌!”(그 일도 같이 합시다-이)

그 결과 마치 융합된 종결어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융합된 종결어미라면 ‘-읍주’(읍+주)라는 형식과 차별되는 의미자질이 상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의미자질을 찾기 힘들다. 아마 ‘-읍쨌’(읍+주+이)는 화용 첨사 ‘이’가 반모음 [j](또는 [y])로 되어, 바로 앞의 청유형 어미에 덧붙은 것으로 봐야 할 듯하다. 따라서 각각 ‘흡주이’는 본뒤킵말이고, ‘흡쨌’는 준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용 첨사 ‘이’가 붙는 환경은 제약이 없지만, ‘이’가 줄어드는 환경이 특히 종결어미 ‘-주’에만 제한되어 있는 듯하다. 같은 화용 첨사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는다.

---

155) 화용 첨사들의 기능은 화용 첨사가 나오는 환경마다 달리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체계적으로 이들 첨사에 대한 계열이나 기능들을 서술해 놓은 연구는 없다. 집필자의 개인적 판단에, ‘이’는 기본적으로 평대의 화용 첨사이며 (대립 짝은 ‘양’, ‘예’, ‘마쑈’이다), 앞의 언어 형식에 따른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가령, 주어 명사구 ‘철수-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철수’에 대하여 듣는 사람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유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에 붙는 경우에, 말하는 사람이 요청하고 있는 행위에 주목하여 동의해 달라는 속뜻이 깔린다. 만일 서술 종결어미 ‘-게’에 붙는다면, ‘못 온 사람이 그 사람이게-이’(못 온 사람이 그 사람이지-이)에서와 같이 서술 단정하는 일에 대하여 주목하고,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응해 달라는 속뜻(반문의 기능)이 깔려 있다.

“흔디 가게이?” (같이 가게-안 그래?)

“장마 다 끝났저이?” (장마 다 끝났다-안 그래?)

이들이 줄어들 만한 형식은 [\*-게?, \*-제?]이지만, 이런 발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준말에 대한 또다른 항목들은 이후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계속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준말은 그에 대응되는 본딧말이 있고, 이들은 소리와 표기가 가능해야 한다. 준말의 형태로는 단어, 음절, 어미 등이 있다. 17항은 제춧말 표기에서 준말 표기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제17항 4와 5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과 중복되는 의미이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에 포함되므로 제17항에서 조사를 단어에서 분리한 것은 준자립 형태소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를 들 수 없고, 다른 단어도 끼워 넣을 수 없다’는 정의가 가능하고, ‘단어 앞뒤에는 휴지를 들 수도 있고, 다른 단어도 들 수 있다.’는 정의가 가능하다. 이 정의를 따르면 조사(격조사와 보조사 포함)는 단어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7항 4에서는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준말로 실현되는 사례를 보인 것이다.

제17항은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준말로 이를 표기로 인정한 사례이다. 실제 언어생활에서 준말의 쓰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본딧말이 쓰이는데 그에 대한 준말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표기하면 된다. 준말은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

성이 높은 편이다. 이는 표준어도 마찬가지이다. 이 항에서는 본딤말과 준말을 모두 제춧말 표기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와 조사가 결합하여 준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 보조사 ‘보다’와 ‘는’이 결합할 경우 3음절에서 2음절로 축약이 된 사례이다. 즉 이들은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 축약되고 있다. 선행 조사 ‘보다’나 ‘에서/이서’는 형태 변화가 없고, 후행 보조사 ‘는’의 준말 ‘ㄴ’이 선행 조사의 받침으로 실현된다. 이때 선행 조사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후행 조사의 줄어듦이 가능하다.

##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여기에 해당하는 ‘준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가 축약된 단어다. 이를테면 ‘어제저녁’의 준말 ‘어치냑/엇츠냑’은 ‘어제’와 ‘즈냑’이 결합된 합성어의 본딤말 ‘어제즈냑’의 준말 ‘엇지냑/엇즈냑’의 ‘엇’ 다음에 ‘ㅎ’이 개입되어 ‘지냑/즈냑’의 ‘지/즈’가 ‘치/츠’로 된 것이다.

준말 ‘자이’는 지시관형사 ‘저’에 명사 ‘아이’가 결합해서 합성어처럼 탈바꿈한 유별난 준꼴이다. 문제는 독립된 관형사와 명사가 분리된 ‘관형사[저]+명사[아이]’의 구조를 합성어로 볼 수 있느냐이다. 그것은 특수한 예로서, 마치 표준어의 ‘저 아이>저애>재’, ‘그 아이>그 애>개’, ‘이 아이>이애>애’의 형태로 축약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준말 ‘자이’의 ‘자’는 본딤말 ‘저 아이’의 ‘저’가 ‘아이’의 ‘아’와 합쳐지면서 관형사 ‘저’에서 ‘ㄴ’이 탈락한 준꼴로 봐야 한다.

준말 ‘가이’인 경우도 ‘관형사[그]+명사[아이]’가 본딤말 ‘그 아이’

의 ‘그’가 ‘아이’의 ‘아’와 합쳐지면서 모음 ‘ㅡ’가 탈락해서 된 준 꼴이다. 준말 ‘야이’도 ‘관형사[이]+명사[아이]’가 본딤말 ‘이 아이’의 관형사 ‘이’와 명사 ‘아이’의 ‘아’가 ‘야’로 축약해서 된 준꼴이다. 이 밖에 합성어에 나타나는 준말을 더 들 수 있다.

<본딤말>

<준말>

어제그지께

엇그제

너다섯

너닷/너뎃

대으섯

대웃

## 제4장 굳어진 표기

###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덧(~니)	섯(~들)	숫(~구락)	스뭇
웃(~웃)	쳇(~새끼)	헛(~일)	

제18항은 굳어진 표기를 적도록 한 규정의 하나이다. 굳어진 표기는 관습적으로, 또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적도록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7항의 ‘ㄷ’ 소리 받침 규정과 제4절의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는 말 규정 일부를 통합하여, 굳어진 것을 그대로 적도록 한 것이다. 곧 /ㄷ/ 소리가 나더라도 ‘ㄷ’으로 적을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 것이 굳어졌다고 보고, 그렇게 적도록 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 7 항에서는 ‘ㄷ’ 소리로 나는 받침 가운데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규정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꽃사과’의 ‘꽃’이 [푼]으로 소리가 나지만 ‘푼’으로 적을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꽃’으로 적도록 했다. 이와 같은 것에는 ‘뚝자리, 엇셈, 웃어른, 핫웃, 무룻, 사뭇, 얼핏, 자칫하면, 뭇[衆], 옛, 처, 헛’ 등이 있다.

위 제춇말 예에 보이는 다음 말들도 이러한 것들이다.

덧(~니), 옷(~옷), 쳇(~새끼), 헛(~일)

표준어 ‘이(齒)’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늑’ 또는 ‘니’로 실현되는데, 현대 제줏말에서는 ‘늑’로 실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니’로 실현된다. 그래서 명사 ‘니’에 접두사 ‘덧-’이 붙어서 [던니]의 과정을 거쳐서 [던니]로 발음 되더라도 ‘덧니’로 적도록 한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맨 곁에 입는 옷”의 뜻으로 ‘옷옷’을, “위에 입는 옷”의 뜻으로 ‘윗옷’을 인정해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맥이나 의미에 따라서 ‘옷옷’으로 쓸 수도 있고, ‘윗옷’으로 쓸 수도 있다. 특히 ‘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서는 ‘옷-’이 아닌 ‘윗-’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발음의 경우, ‘옷옷’은 [우돋], ‘윗옷’은 [위돋]으로 발음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줏말에서는 ‘아래’와 ‘위’ 대립이 있는 말은 [우돋]이나 [위돋]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우똥] 또는 [운똥]으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c/ 소리가 첨가되어 실현되더라도 그냥 ‘옷옷’으로 적도록 했다.

관형사 ‘칫(맨 처음의)’의 변음 ‘쳇’에 ‘새끼’가 결합한 합성어는 [체새끼] 또는 [첼새끼] 등으로 실현되더라도 ‘쳇새끼’로 적도록 했다.

접두사 ‘헛-’에 ‘일’이 결합한 파생어 ‘헛일’은 [허딜]로 발음되지 않고 표준어의 발음과 같이 [헌닐]로 발음되기도 하고, [허똥] 또는 [헌똥]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헛일’로 쓰도록 했다.

표준어 부사 ‘사똥’은 옛말 ‘스똥->스똥-[通]’에서 유래한 말이다. 곧 ‘스똥>스똥>스똥’의 과정을 거쳐서 ‘사똥’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글 맞춤법』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가운데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제줏말에서는 중세국어 ‘스똥’에 바로 대응하는 형태가

그대로 남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스뫼’으로 적도록 했다. 이 ‘스뫼’이 ‘스뫼’으로 변해서 실현된다면 ‘스뫼’으로도 쓸 수 있다.

섯(~들)

숫(~구락)

『한글 맞춤법』 4장 4절 29항을 보면,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고 했다. 그래서 “음력으로 한 해의 맨 끝 달”인 ‘선달’은 ‘설+-ㅅ+들>섯들>선들’의 과정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선달’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순가락’도 ‘술+-ㅅ+가락’의 구성에서 변한 것으로 보고, ‘숫가락’이 아닌 ‘순가락’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사잇소리가 개재되면서 ‘ㄹ’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고 ‘섯들’과 ‘숫구락·순가락’으로 쓰도록 했다. ‘섯들’은 사람에게 따라서 [서뫼] 또는 [선뫼] 등으로 발음된다. ‘숫구락’은 사람에게 따라서 [수꾸락] 또는 [순꾸락] 등으로 발음된다. ‘순가락’은 [수까락] 또는 [순까락] 등으로 발음된다.

## 제19항 한자 형태소

한자 형태소는 본음대로 적는다.

1. 표준어의 /니/가 /ㅣ/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2. 표준어의 /키/가 /꺠/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3. 표준어의 /괴/가 /꺠/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쇠약(衰弱)    죄(罪)  
최(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한자어인 경우 제8항의 ‘속음’과 같이 그 원음과 전연 다른 음으로 표기되는 것도 있지만, 원음 ‘니’가 ‘ㅣ’로, ‘키’가 ‘꺠’로, ‘괴’가 ‘꺠’로 발음됨으로써 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다. 둘을 양립시킬 수는 없고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8항의 속음화되어 버린 한자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자음 ‘니’인 경우 설령 ‘ㅣ’로 소리 나지만 표기만은 원음을 살린 ‘니’로 적도록 한다. 이는 표준어도 ‘니’ 외에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표기는 ‘니’로 하는 것과 같다. 또 ‘키’인 경우도 발음은 ‘꺠’와 ‘꺠’ 둘을 허용하지만 원음인 ‘키’로 표기하고, ‘괴’ 역시 ‘괴’와 ‘꺠’로 발음되지만 그 원음인 ‘괴’로 표기하기로 했다.

### 1. 표준어의 /니/가 /ㅣ/로 소리 나는 것

이들 한자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곳(집)인 ‘의원(醫院)’의 ‘의



(醫)와 뜻이 맞음을 일컫는 ‘합의(合意)’의 ‘의(醫/意)’가 ‘ㅣ(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그 원음인 ‘니(의)’로 표기한다. 또 이름을 나타내는 영희(英姬)의 ‘희(姬)’와 뚜렷하지 못함을 일컫는 ‘희미(稀微)’의 ‘희(姬/稀)’도 ‘히’로 소리나지만 ‘희’로 적는다. 이 밖에 ‘의존(依存)’, ‘의문점(疑問點)’, ‘의병장(義兵將)’, ‘중의(中衣)’, ‘편의(便宜)’, ‘절의문(決議文)’ 등의 ‘의(依/疑/儀/義/衣/宜/議)’는 ‘의’로, ‘희망(希望)’, ‘\*희성(犧牲)’ 등의 ‘희(希/犧)’는 ‘희’로 표기한다.<sup>156)</sup>

## 2. 표준어의 /꺠/가 /꺠/로 소리 나는 것

이들 한자어에서 ‘계획(計劃)/혼례(婚禮)/폐백(幣帛)/은혜(恩惠)’의 ‘계(計)/례(禮)/폐(幣)/혜(惠)’가 [꺠], [꺠], [꺠], [꺠]로도 소리나지만 그 원음인 ‘꺠’로 표기한다. 그에 따라 ‘계속(繼續)’, ‘예술(藝術)’, ‘차례(次例)’, ‘폐병(肺病)’, ‘지혜(智慧)’ 등의 ‘계(繼)/예(藝)/례(例)/폐(肺)/혜(慧)’도 ‘꺠’로 표기한다.

## 3. 표준어의 /괴/가 /꺠/로 소리 나는 것

이들 한자어에서 ‘괴이(怪異)/외국(外國)/쇠약(衰弱)/죄(罪)/죄(崔)/퇴비(堆肥)/회의(會議)’의 ‘괴(怪)/외(外)/쇠(衰)/죄(罪)/죄(崔)/회(會)’가 [꺠], [꺠], [꺠], [꺠], [꺠], [꺠]로도 소리나지만, 그 원음인 ‘괴’로 표기한다. 그에 따라 ‘파괴(破壞)’, ‘경외(敬畏)’, ‘주죄(主催)’, ‘퇴보(退步)’, ‘후회(後悔)’ 등의 ‘괴(壞)/외(畏)/죄(催)/퇴(退)/회(悔)’도 ‘괴’로 표기한다.

156) 위 \*犧牲’은 표준어로 ‘희생’이지만, 제춌말인 경우 ‘희생’보다 ‘희성’으로 소리난다. 이를테면 마을공동제인 포제(酬祭) 때 쓰는 제물(祭物)로 돼지를 잡아서 통째로 올리는 희생물(犧牲物)의 ‘희생’을 ‘희성’이라고 한다.

##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꺾땡      꺾주시      덧순      수돛물  
웃드르      정깃냥/정젯냥      정깃문/정젯문

[붙임] 자음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몹국      당가름      영도      알드르      톱밥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꺾입      농숫일      바깳일/바꺾일/배꺾일      배꺾잇      츠렛일

합성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낱말과 낱말이 한데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낱말이며, 이는 파생어와 대립된다. 다시 말하여, 새로 복합 낱말(복합어)을 만드는 방법이 어느 언어에 서이든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의 낱말에 접사를 붙여 파생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두 개의 낱말을 한데 결합시켜 합성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합성어를 만들 때에는 통사 규칙을 따라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후자는 특히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불러, ‘늦

봄, 늦잠'처럼 용언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경우와 '아랫사람, 눈엣가시'처럼 부사어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를 포괄한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가령 '피+병'이나 '마음+속'과 같이 합성어를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비록 [피땀/땀땀], [마음속]과 같이 제2 음절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더라도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사잇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을 자동적인 음운변화로 여긴 것이다.

'ㅅ'이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사례들도 더 있는데, 흔히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엣, 잇'과 같이 복합격의 형태로서 다루어져 있다. 후핵성(head-final parameter)을 따르는 우리말의 질서로 보면, 복합된 형태들에서 맨 뒤에 붙어 있는 형태일수록 핵어로(지배의 주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후보로는 'ㅅ'(사이시옷)뿐만 아니라 'ㅎ'(사이히읇)과 곡물류에서 관찰되는 'ㅂ'(사이비읍)도 있으며, 집필자는 이른바 '사이시옷, 사이히읇, 사이비읍' 현상이 동일하게 자연부류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sup>157)</sup>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모두 음운 현상으로만 파악하였었다.

그런데 임흥빈(1981)에서는 사이시옷이 관찰되는 언어 환경에 통사적의 동기가 깃들여 있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가령,

‘부사 + 명사’의 사례: 눈에 가시→눈엣가시, 아래 사람→아랫 사람

‘동사어간 + 명사’의 사례: 건너 방→건넛방, 새 벌→새벌

157) 역사적으로는 유희(1824)의 ‘언문지’에서 한자어 결합에서도 우리말의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다. “篷을 풀이하어 ‘빋’으로 말한 것은 배의 돛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舟의 풀이는 ‘빋’이지, ‘빋’이 아니다. 席의 풀이는 ‘돛’이지, ‘돛’이 아니다. 다만 두 낱말을 뜻으로 이어놓으면 저절로 사이시옷 소리가 하나 생겨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지홍(2013)을 보기 바란다.

와 같이 비정상적임에 주목하고, 이를 통사적인 ‘과격’ 환경이라고 불렀다. 사이시옷은 이런 과격을 막고 명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명사 + 명사’의 사례: 벽돌 집→벽돌집/벽돌집, 바늘 귀→바늘귀/바늘귀

의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사이시옷이 관찰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미 특수화 개념을 내세웠고, 사이시옷을 미리 갖고 있는

사이시옷 전치(前置) 명사의 사례

‘스가’ : 길스가/길가, 내스가/넷가, 창스가/창가

‘스날’ : 이틀스날/이튿날, 잔치스날/잔칫날

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말의 합성어에서 ‘비통사적’인 사례들이 많다. 가령, 통사적 기제인 관형형어미를 쓰지 않은 채

‘늦더위, 덥밥’ (통사적 구성은 각각 늦은 더위, [오징어] 덥은 밥)

처럼 용언 어근과 명사를 붙여 놓거나, 통사적 기제인 부사형 어미를 쓰지 않은 채

‘곧바르다, 값싸다’ (통사적 구성은 각각 곧고 바르다, 값고 싸다)

처럼 용언 어근과 용언 어근을 붙여 놓은 경우를 말한다. 학교문법

에서 쓰고 있는 ‘비통사적’이란 용어의 속뜻은, 아마 집필자가 느끼기로는, ‘통사적’이라야 옳는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낱말이 만들어졌다는 부정적인 속뜻이 깃든 듯하다.

그렇지만 사이시옷과 같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듯이 기술되는 이런 현상들은, 어느 언어에서이든지 보편적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언어가 낱말과 낱말의 결합을 통한 통사의 두 부서로 작동할 경우에, 우리의 두뇌 속에는 낱말 저장고와 통사규칙 저장고가 둘 모두 있어야 한다. 핑커(1999)의 주장에 따르면,<sup>158)</sup> 현재 두뇌 활동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규칙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 두뇌 부서는 테두리 뇌(변연계의 뇌)로 알려진 제2 두뇌에서 혈류의 활성화가 관측된다. 그러나 예외적이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언어 사용과 관련된 부서는, 구체적 사건 기억(episodic memory, 일화 기억)을 저장하는 제3의 두뇌 부서와 관련된다. 인간의 언어에서는 빈출 낱말들이 불규칙 활용을 하기 일쑤이다. 이는 쉽게 지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각상의 현저성이라고 부른다.<sup>159)</sup> 이른바 변이형태들이 어느 언어에서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지각의 현저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낱말은 통사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며, 낱말을 만들기 위한 규칙을 따로 고유하게 만들기보다는, 통사 규칙을 일부러 위배함으로써 쉽고 자연스럽게 낱말로 정착시켜 제3의 두뇌 속에 저장해 놓게 되는 것이다.

---

158) 핑커(Pinker 1999, 김한영 2009 뒤침:588, 603, 610, 635, 665 등)을 보기 바란다. 변이형태가 굳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누구에게나 들겠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언어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찾아내었다. 가령, 우리말 ‘하다’의 사역형이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이다”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낱말 ‘시키다’로 쓰고 있다. 왜 그럴까? 그런 변이형태의 모습이 규칙적인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지각상의 현저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159) 과거 러시아 형식주의에서는 규칙 이탈 자체를 긍정적인고 생산적인 측면으로 간주한 바 있다.

만일 사이시옷을 음운론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낱말을 만들어 놓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말의 기술과 설명이 더욱 간단해지며, 좀더 두뇌 작용과 관련한 실제 모습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집필자는 제죽말에서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는 ‘사이시옷, 사이비읍, 사이히읇’ 현상이<sup>160)</sup> 모두 낱말을 만들어 놓는 절차라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본다. 이럴 경우에 복합격으로 서술해 놓은 ‘읇’과 ‘읇’도 동시에 합성어로서 간주하게 된다. 가령 강정희(1988:95)에서 다음 사례들이 다뤄져 있다.

‘입읇 거’(입읇 것/입읇 구슬), 깍통읇 물… 중통읇 물… 상통읇 물(통[桶]읇 물)  
 ‘산읇 낭’(<sup>1</sup>산읇 나무), ‘마당읇 흙’(마당읇 흙), ‘우틔 물’(위쪽  
 읇 물), ‘밭틔 돌’(밭읇 돌)

들이 모두 합성어로서 기술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사이시옷 뒤에 명사를 꾸며 주는 수식어를 집어넣을 경우(가령, ‘산읇 낭’에 ‘<sup>??</sup>산읇 높이 솟은 푸른 낭’)에 집필자의 직관으로는 수용성이 떨어진다.<sup>161)</sup>

그런데 제20항의 1과 2에서는 모두 사이시옷 현상을 음운론적으

160) 더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사이히읇을 쓰는 경우는 보수적인 노년층의 특징을 지니고, 사이시옷을 쓰는 경우는 표준어에 영향을 입은 젊은 사람들로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 서술이 가능할 듯하다. 사이비읍은 표준어에서와 같이 흔히 곡물류들에서 찾아진다. 중세 국어에서 다루지는 이른바 ㅎ-중성 체언은 곡용과 관련되므로, 이 방언의 합성어에서 찾아지는 사이히읇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161) 이와는 달리, ‘높이 솟은 푸른 [산읇 낭]’은 완벽히 수용 가능하다. 이는 부가어 형성 구조에서, ‘산의, 산에’와 같은 형식이 사이시옷이 붙으면, 더 이상 부가어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사 구조상의 설명을 배풀 수 있다. 곧, 사이시옷이 핵어와의 합성이 결합을 유도하므로, 그 결과 이동이 저절로 저지되는 것이다.

로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집필자가 개인적으로 『제주어 표기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에 재론되고 고쳐져야 할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합성어를 만들 경우 앞의 낱말의 모음과 뒤의 낱말의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가령 ‘귀, 꿩(깨), 대, 수도, 우(위), 정지/정제(부엌)’에서, 합성어를 만들어 ‘귀+병’, ‘꿩(깨)+주시(찌꺼기)’, ‘대+순(筍)’, ‘수도(水道)+물’, ‘우(위)+드르(들, 마을)’, ‘정지/정제(부엌)+낭(나무)’, ‘정지/정제(부엌)+문’이 될 때, 앞 낱말의 모음이 내파음으로 발음되어(내파음 표시는 ‘ㄷ’ 받침으로 씀), 각각 중간의 음운변화 과정이

[권, 꿩, 대, 수도, 우, 정진]

으로 되었다가, 이 받침 소리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낱말의 초성을 평음에서 된소리(경음)로 바꾸어 주어 각각

[뺨, 쭈시, 쏘, 뜨르]

로 발음되면서 드디어 탈락하게 된다.

그렇지만 된소리로 발음될 수 없는 초성을 가진 낱말의 경우 ‘-물, -낭, -문’에는 오히려 이 초성의 앞에 끼어들었던 내파음 ‘ㄷ’ 받침이 거꾸로 동화를 입어 ‘ㄴ’소리로 바뀌게 된다. [정진낭/정젠낭] 또는 [정진문/정젠문]으로 된다.

이런 두 부류의 차이를 따로 보지 않고, 동일한 음운과정으로 보아,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모습을 바뀐 꼴로 보아 사이시옷을

표기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음운규칙이 적용된 뒤에 된소리(경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꾸로 자음동화가 일어나 비음으로 나오거나 간에, 바뀐 꼴이 동일하게 앞 낱말의 종성을 사이시옷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긱뵁, 꺽주지, 뺏순, 옷드르’,  
‘수뺏물, 정꺽낭/정꺽낭, 정꺽문/정꺽문’

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다만, 붙임 조항에서 밝혀 놓았듯이, 합성어에서 앞의 낱말에 ‘뫼(모자반, 해조류 일종), 당(堂, 신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작은 마을 공동체), 영(벼랑이나 낭떠러지), 알(아래), 톱’에서 보듯이 종성(받침소리)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sup>162)</sup> 뒤따르는 ‘ㄱ, ㄷ, ㅂ’을 된소리로 만들어 놓는다. ‘ㄱ, ㄷ, ㅂ’ 받침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ㄴ, ㄹ’ 받침 뒤에서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다시 말하여,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소리대로 적지 않고,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모습인 본디 꼴로 적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뫼국(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 당가름(신당이 있는 주변의 작은 마을 공동체), 영도,<sup>163)</sup> 알드르(아래 있는 들 또는

---

162)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238)에 있는 『표준 발음법』 제23항과 제24항을 보기 바란다. 된소리(경음)으로 발음되는 환경을 규정해 주고 이들이 자동적 음운변화이므로 음운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본디 꼴을 적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163) 영 또는 영장은 벼랑이나 낭떠러지를 가리키며, 영 또는 영장을 따라 앞이나 뒤로 나란히 난 길을 ‘영도’(영+도)라고 말한다. ‘도’는 옛 기록의 가야어에서 처럼 제죽말에서도 출입구를 가리킨다. 오창명 선생은 서귀포시 남원리에 ‘큰 영’(큰 낭떠러지)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아래 있는 들에 들어선 마을), 툽밥'으로 적어 주고, \*뭍꼭, \*당까름, \*영또, \*알뜨르, \*툽뽕'으로 적지 않도록 예를 들어 놓은 것이다.

제2절에서는 앞의 낱말의 모음과 뒤의 낱말의 /l/ 사이에서 본디 없던 /ㄴ/ 소리가 덧나는 예들을 다루었다(결과적으로 /ㄴ/과 /ㄴ/ 소리가 두 번 나옴).<sup>164)</sup>

꺾입 농숫일 바깥일/바꺾일/배꺾일 배꺾잇/배꺾잇<sup>165)</sup> 츠렛일

이들은 [꺾닙 → 꺾넙], [농순닐 → 농순닐], [바깥닐/바꺾닐/배꺾닐 → 바깥닐/바꺾닐/배꺾닐], [배꺾닛 → 배꺾닛], [츠렛닐 → 츠렛닐]로 소리가 날 수 있다. 두 차례의 음운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뒤에 있는 낱말 ‘입, 일, 잇’이 합성어가 되면서 앞의 낱말에 붙은 내파음 소리 ‘ㄷ’(받침 ㄷ)에 이끌리어 이 발음에 가까운 ‘ㄴ’이 덧붙어 난다. 이에 이어 다시 이 ‘ㄴ’에 거꾸로 동화되어 내파음 ‘ㄷ’(받침 ㄷ)이 ‘ㄴ’으로 발음될 수 있다. 결국 ㄴ이 덧붙어 [꺾넙], [농순닐], [바깥닐], [배꺾닛], [츠렛닐]로 발음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소리의 동화가 우리말의 어떤 환경에서이든지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각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동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형태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즉, 쉽게 알 수 있는 자동적인 음운변동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164) 이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1절의 (3)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123쪽 이하)을 보기 바란다.

165) ‘배꺾잇’을 보면 ‘배꺾’과 ‘배꺾’로 둘 다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제춌말 첫 음절에서 /ㄱ/와 /ㄱ/는 구분되어 발음되는데, 둘째 음절에서는 /ㄱ/로는 발음되지 않고 /ㄱ/로만 발음된다.

따라서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할 때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배꺾잇’이 되어야 하는데 ‘고시본 부칙’에는 ‘배꺾잇’으로 잘못 표기되어 이 해설에서 바로잡는다.

## 제5장 부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신그다/실르다	풀/쿨	품/쿰	신짱/신착
므르다/믈르다	첫째/첫채/첫차		
굴갱이/굴게/굴각지	재열/재/자/자리/짤/잘		
숫구락/숫가락	-을걸/-으컬	-을디/-을티	
-광/-강/-과/-가/-깡/-깡	부터/부떠		

2. 이 표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제주어 표기법』 제정 원리는 크게 본디 꼴과 바뀐 꼴을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원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서 부칙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부칙 1은 제3항 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부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라고 한 것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형태로 표기되는 이형동의어(異形同義語)와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간추린 것이 <부칙>인데, 여기에는 표준어 표기와는 아주 다른 제춌말 어투에 따라 굳어진 것들이 포함돼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소리 ‘교’과 ‘크’(교⇌크), ‘짜’과 ‘쯧’(짜⇌쯧), ‘띠’과 ‘티’(띠⇌티)을 서로 바꿔 써도 되는 단어들이 있다. 즉

‘풀/쿨’은 땅에서 자라는 잡초(雜草)를 총칭하는 말인데,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복풀/복쿨(깨풀)’, ‘재완지풀/재완지쿨(바랭이)’과 같이 구체적인 풀이름을 나타낸다.

‘폼/쿰’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값’과 안거나 안기는 ‘가슴’도 ‘폼/쿰’인데,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일폼/일쿰(폼값)’, ‘폼안/쿰안(폼안)’과 같이 합성어를 구성하는 자립형태소가 되기도 하고, ‘폼다/쿰다(폼다)’와 같이 동사의 어근이 되기도 한다.

합성어 ‘신짹/신착’의 ‘착’은 둘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켠레 한 쌍을 이룬다는 뜻의 ‘신발짝’의 ‘짝’과 같은 제죽말 명사다. 더 예를 들면 ‘문짝/문착’, ‘널짝/널착’, ‘위짝/위착/우짝/우착’, ‘알짝/알착’ 등이 그것이다. 차례를 나타내는 수사 ‘첫째/첫째/첫차’에서 접미사 ‘-째’ 자리에 ‘-째/-차’를 써도 된다. 또 한차례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 ‘부떠/부터’와 같이 ‘떠’나 ‘터’도 둘 다 쓸 수 있고, 여기에 ‘口’이 덧붙은 ‘부땀/부땀’으로 써도 된다.

근충인 ‘매미’의 제죽말 ‘재열/재/자/자리/젤/질’은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하게 실현되므로,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된다.

동사 ‘신그다/실르다’는 물건 따위의 짐을 우마나 차량 등에 얹는 것을 나타내는 ‘신다’에 대응하는 동사가 두 개의 꼴로 굳어진 이형동의어(異形同義語)다. ‘실프다/시르다’와 같은 부류의 단어도 이에 속한다. 이는 표준어 ‘싫다’에 해당된다. 그러나 ‘므르다/몰르다’는 물기가 없다는 ‘마르다[乾]’와 치수에 맞게 베거나 자르다에 대응하는 ‘마르다[裁]’의 뜻을 가진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다.

이 밖에 ‘고르다/골르다’가 표준어의 ‘고르다[均]’와 ‘고르다[選(選擇)]’로, ‘오르다/올르다’가 ‘오르다[登]’와 ‘옳다[義]’ 등 어간 끝음절 ‘르’에 ‘-다’가 붙어 굳어진 용언이 많다.

가르다/갈르다, 거르다/걸르다, 고르다/골르다  
 나르다/날르다, 너르다/닐르다, 누르다/눌르다  
 다르다/달르다, 도르다/돌르다, 딱르다/딸르다  
 모르다/몰르다, 무르다/물르다, 므르다/믈르다  
 바르다/발르다, 버르다/벌르다, 부르다/불르다  
 브르다/블르다, 뵤르다/뵼르다  
 사르다/살르다, 서르다/설르다, 시르다/실르다  
 어르다/얼르다, 오르다/올르다, 우르다/울르다  
 조르다/졸르다, 지르다/질르다  
 즈르다/줄르다, 쯤르다/쥬르다  
 흐르다/흘르다

‘굴쟁이/굴게/굴각지’는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가 실현된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제3항 해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어말어미 ‘-을걸/-으컬’과 ‘-을디/-을티’ 등도 두 형태를 제춧말 표기로 인정하여 적는다는 뜻이다.

‘숫구락/숫가락’은 ‘구락’이나 ‘가락’이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나이, 성별 등)에 따라 모두 실현되므로 두 형태를 제춧말 표기로 인정하여 적음을 뜻한다.(제18항 해설 참조).

제춧말 의문형어미는 ‘-광/-강/-과/-가/-깡/-깡’ 등 여러 형태가 쓰이고 있으며, 이들 모두 표기로 인정함을 뜻한다. 예를 들면 ‘감수광, 감수강, 감수과, 감수가, 감수깡, 감수깡’ 등 발음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참고문헌

- 강근보(1972), “제주도 방언 「있다」 활용고”, 『논문집』 제4집, 제주 대학.
- 강신항 뒤침(1978), 신경준 저(1750), 『운해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 강신항(1999),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 강영봉(2007), 『제주의 민속문화 1: 제주어』, 국립민속박물관.
- 강정희(1980),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강정희(2001), “제주방언의 ‘-아/-어지다’ 구문 연구”, 『한남 어문학』 제25집.
-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강정희(2008),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 제57집.
- 고동호(1991), “제주 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제13호.
- 고동호(1995),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 연구”, 『언어학』 제17호.
- 고영근(1974), 『국어 접미사 연구』, 백함출판사.
- 고영근(2004, 2007 보정판), 『한국어의 시제·서법·동작상』, 태학사.
- 고영진(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제275호.
- 고영진(200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한글』 제280호.
- 고재환(2011), 『제주어 개론, 상/하』, 보고사.

- 고재환(2013), 『제주 속담 사전』(개정 증보판), 민속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어 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 김광웅(2001), 『제주 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 출판부.
- 김수태(2005), “-느-’와 종결어미의 융합”, 『우리말 연구』 제16호.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제11집.
- 김완진(1975),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제3호.
- 김완진(2006), “대조적 관점에서의 제주도 방언에 대한 연구”, 『학술원 논문집』 제45집.
- 김유범(2006), “『ㅎ』 보유 한자어와 한자음”,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 김지홍(1982), “제주 방언의 동사구 보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홍(2001),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백록 어문』 제17집.
- 김지홍(2010), 『국어 통사·의미론의 몇 측면 : 논항구조 접근』, 도서출판 경진.
- 김지홍(2013), “언문지의 텍스트 분석”, 『진단학보』 제118호.
- 김지홍(2014a), “제주방언 통사연구에서의 현황과 과제”,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제주발전연구원.
- 김지홍(2014b), 『제주 방언 통사의 기술과 설명』, 도서출판 경진.
- 김홍식(1977), “어간말 모음 탈락에 대하여 : 특히 제주도 방언과 관련해서”, 『논문집』 제8집, 제주대학.
- 김홍식(1979), “제주도 방언 『가쟁이』(枝) 어고”, 『논문집』 제11집, 제주대학.

- 남광우 편(1960), 『증보 고어사전』, 일조각.
-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 국어 문법론』(개정 3판), 탑출판사.
- 문숙영(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 『형태론』 제6권 2호.
-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문숙영(2006), “제주 방언의 ‘-엄시-’의 범주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제8권 2호.
- 문순덕(2003), 『제주 방언의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박용후(1960), 『제주 방언 연구』(철필 등사본), 동원사.
- 배주채(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 제11집.
- 송상조(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송철의(1993),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제23집.
-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
- 신승용(2010), “생성음운론의 한계와 ‘으’ 삽입에 대한 해석”, 『최명옥 선생 정년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 현상”, 『국어국문학』 제103호
- 안병희(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오승훈(1993), “제주도 지역어의 구개음화 연구”, 제주대 교대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란(1997), “어미 활용의 음운론적 제약과 대응이론”,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제3호.
- 우창현(1998), “제주 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우창현(2001),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엇-’에 대하여”, 『순천향어문논집』 제7집.

- 우창현(2004), “제주 방언 ‘-아시-’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 『한국어학』 제24호.
- 우창현(2008),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의미 해석 문제 : ‘-암시-, -아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40집.
- 이기갑(2008), 『양상(Modality)의 유형론』, 김원필 외 18인 『언어 유형론: 시제와 상, 양상, 조동사, 수동태』, 도서출판 월인.
- 이병근(1981), “유음 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제173~174호.
- 이승녕(1957, 1978 재간),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승녕(1976), “15세기 국어 쌍형어 ‘있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제4호.
- 이승욱(1975), “주어와 술어”, 이승욱(1997)에 재수록됨.
- 이승욱(1986), “존재동사 「 $\emptyset$ 시-」의 변의”,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이승욱(1997), 『국어 형태사 연구』, 태학사.
- 이안구(2002), “「있다」와 「없다」의 활용 양상에 대하여”, 『관악 어문연구』 제26집.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 현상』, 태학사.
- 이지양(2003), “국어 준말의 성격”, 『성심 어문논집』 제25호.
- 이효상(2006), “제주 방언의 ‘-엄시-’에 대하여 : 상 표지인가, 시제 표지인가?”, 『형태론』 제8권 1호.
- 이희승(1957),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0), 『증보 한글맞춤법 강의』, 친구문화사.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제4권 2호.
- 임홍빈(1981), “시이시웃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제10호.
- 임홍빈(1984), “청자 대우법 상의 ‘해’ 체와 ‘해라’ 체”, 『소당 천시권



박사 화갑기념 국어학 논총』.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 연구』, 제21권 3호.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 명사구와 조사구의 문법』, 태학사.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출판부.

정성여(2013), “제주방언의 ‘-나다’와 관련된 어말형식들의 대립에 대하여”, 『방언학』 제17호.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사 음운론』, 태학사.

정승철(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 학보』 제20호.

정승철(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제21호.

정승철(2007), “제주 방언”, 『방언 이야기』(국립국어원 국어자료 총서 1).

정승철(2014), “제주방언의 음운론 연구사: ‘으’ 관련 업적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 세미나 자료집, 제주발전연구원.

정연찬(1997),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정희창(2003), “준말의 형성 조건”, 김희진 엮음 『현대 국어의 준말 목록』, 국립국어연구원.

제주대 박물관 엮음(1995), 『제주어 사전』,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엮음(2009), 『개정증보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최남희·정경일·김무림·권인한 엮음(2006),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 최명옥(1985), “변칙 용언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제14집,  
[최명옥(1996)에 재수록].
- 최명옥(1996), 『국어 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 최명옥(2002), “과거시제 어미의 형성과 변화”, 『진단학보』 제94집.
- 최명옥(2008), 『국어 음운론』(제2판), 태학사.
- 한영균(1984), “제주방언 동명사 어미의 통사구조”, 『국어학』 제13집.
-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 종결어미』, 박문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82), “한국말 때때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제178호.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 : 자료편』, 정연사.
- 현평효(1974),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현평효(1985)에 재수록됨.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 논고편』, 이우출판사.
- 현평효 · 김홍식 · 강근보(1974), “제주도 방언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6집, 제주대학.
- 홍성해(1987), “제주 지역어의 자음 음운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교대원 석사학위논문.
- 홍종림(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홍종림(2001), “제주 방언 연결어미의 ‘-n’, ‘-ŋ’에 대하여”, 『국어학』  
제38집.
- Baddeley, A.(1986), 『작업기억 (Working Memory)』,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 Baddeley, A.(2007), 『작업기억 · 사고 · 행위 (Working Memory,  
Thought and Action)』, 옥스퍼드대학출판부.

- Clark, H.(1996, 김지홍 2009 뒤침), 『언어사용 밑바닥에 깔린 원리』, 도서출판 경진.
- Damasio, A.(1994, 김린 1999 뒤침), 『테카르트의 오류 : 감정, 이성, 그리고 인간의 뇌』, 중앙문화사.
- Davidson, D.(1980, 배식한 2012 뒤침), 『행위와 사건』, 한길사.
- Goffman 1967), 『상호작용 의례 : 얼굴을 마주보는 행위에 관한 논문 (Essays on Face-to-Face Behaviour)』(Pantheon Books)
- Grice, P.(1989), 『날말 사용법 연구 (Studies in the Way of Words)』, 하버드대학출판부.
- Jackendoff, R.(2012), 『사고와 의미에 대한 안내서(A User's Guide to Thought and Meaning)』, 옥스퍼드대학출판부.
- Kratzer, A.(1988), “장면 층위의 술어와 개체 속성 층위의 술어”(Stage-level predicates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Carlson and Pelletier(1995) 엮음 『총칭성 논총 (The Generic Book)』 [시카고대학출판부에 재수록].
- Pinker, S.(1999, 김한영 2009 뒤침), 『단어와 규칙』, 사이언스 북스.

## 낱말 색인

가이 : ‘그 아이’의 준말

가쟁이 : (나뭇)가지

갈옷 : 감물을 들인 옷

갈중의 : 감물을 들인 중의

겹데기 : 껌데기

겹곡석 : 껌질째인 곡식

겹보리 : 보리의 한 종류로 껌질째인 보리

갱이 : 게[蟹]

경 : 그렇게

곤밥 : 흰쌀밥

곤쌀 : 흰쌀

곧이듣다 : 말하는 대로 듣다.

곧후다 : 곧게 하다

굽닥하다 : 매우 굽다

굽들락하다 : 매우 굽다

굽지다 : 감추다

괭 : 조사 ‘와, 과’

국쉬 → 국시

국시 : 국수

굳후다 : 굳게 하거나 돈 따위를 모으다

끓지다 : 끓기다

궁끌궁끌 : 작은 배 따위가 물 위에 떠서 몹시 흔들리는 모양

긱이 : 긱계, 나쁘게

궤기 : 고기

귀마구리 : 귀 먹은 사람 또는 이삭이 병든 것

궤병 : 궤병

그영 → 경

그저기아싯날 : 그끄저께, 삼작일

글갱이 : 글경이

기영 → 경

강이 → 갱이

ㄱ꾸다 : ① 가꾸다 ② 동정을 살피다 ③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다

ㄱ늘다 : 가늘다

ㄱ대 : 조릿대, 총죽(叢竹)

ㄱ라 : 여격조사 ‘에게’

ㄱ랑니 : 자잘한 이[蝨, 齒]

ㄱ랑줍쌀 : ‘줍쌀’을 달리 이르는 말

ㄱ랑중이 : 작은 쥐를 일컫는 말

ㄱړ다 : 가ړ다

ㄱندا : 말하다, 가로다(田)

꺄각지 → 꺄갱이

꺄게 → 꺄갱이

꺄게기 → 꺄갱이

꺄갱이 : 제죽말의 호미

꺄은 후제 : 말한 뒤에

꺄라지 : ‘꺄’을 낮추 이르는 말

꺄랭이 : 꺄리

꺄랭이 → 꺄랭이

꺄꺄ㅎ다 : 비틀어지지 않고 올곧다

꺄꺄입 : 꺄잇

꺄꺄주시 : 꺄찌끼

꺄꺄들이 :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끝내

꺄꺄다 : 꺄우다

꺄꺄ㅎ다 : 꺄꺄하다

꺄꺄꺄ㅎ다 → 꺄꺄꺄ㅎ다

내등그리다 : 내뺨개치다

내들다 : 내달리다

넘이 : 너무

녹대 : 굴레

놉 : 품팔이, 일을 하기 위해 샀을 주고 품을 사온 사람

놉새 → 놉셋브름

놉셋브름 : 동북풍

누네누니 : 곤충 하루살이

누녕이 : 누룽지

누들다 : 누르다

누뜰다 → 누르뜨다

누렁이 → 누녕이

누르뜨다 : 누르다

눅눅하다 : 눅눅하다

눅다 : 눅다

눅들다 → 누들다

눌 : 노적가리, 짚단 가리

느랏이 : 힘 없이 축 쳐진 꼴(의태어)

늘싹이 : 평퍼짐하게 퍼진 꼴(의태어)

늘싹이 → 늘싹이

니스무소 : 이사무소(里---)

닉닉하다 : 고기 따위를 먹었을 때 다시 먹을 생각이 없이 속이 좋지  
않거나 몹시 느끼하게 느끼다.

늑직이 : 나지막하게

늑물 : 나물, 남새, 채소

늑물팻 : 나물밭, 남새밭, 채소밭

늑뼈 : 무

다듬이 : 방망이질 할 때 쓰는 돌판

탁탁 : ① 물체가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추위에  
떨거나 이가 위아래로 맞부딪쳐 나는 소리 ③ 춥거나 무서워서

몸을 몹시 떠는 모양 ④ 물이 연이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당가름 → 당카름

당카름 : 한 마을에서 서낭당이 있는 동네

댓부룩 → 댓순

댓순 : 대순, 죽순

덕석 : 멍석

덩쌩덩쌩 : 즐거워서 다리를 높이 들면서 춤을 추는 모양

독닥불미 : ① 간단하게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며 쇠붙이로 연장을 만들거나 간단한 차림으로 하는 대장일 ②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풀무

돛두뤼 :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 말

돛보리 : 보라색의 보리나, 보리에 이는 자그마한 벌레

동카름 : 한 마을에서 동쪽에 있는 동네

두껍이 : 뚜껍

들르다 : 따돌리다

들쌩쌩하다 : 달쌩쌩하다

덤그다 → 덩다

덤기다 : 담기다

덤다 : 담다

덤쑥 : 담뿍

덤으다 → 덩다

딱딱하다 : 딱딱하다

똑딱불미 → 독닥불미

떨르다 → 들르다

마쑤 : 독립적인 어형이나 종결어미 뒤에 덧붙여 준대를 나타내는 화용 첨사(보조사)

마씨 → 마쑤

마쑤 → 마쑤

먹보리 : 곡식알맹이가 보라색을 띤 보리

메틀 : 며칠

멘쩍 : ① 사물의 수효나 양을 한데 어울려 ② 반드러운 모양

모가기 : 모가지, 목(頸)

모가지 → 모가기

모개기 → 모가기

무짱 : 깨끗이. 모두. 형체 없이. ‘문짱’의 다른 말

밋밋 : ① 물이나 기름이 그릇 위로 흘러넘치는 모양 ② 거침새 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

므날 : 말날, 마일(馬日), 오일(午日)

므뽕다 : (오줌 따위) 마렵다

므쉬 : 마소, 우마(牛馬)

므습다 : 무섭다

몰리우다 : 말리다, 건조시키다

몹국 → 몹죽

몹죽 : 해초인 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

바깓일 : 바깥일

바격일 → 바깓일

반드러운 모양

반후다 : 밀을 받쳐 올리다

밭 : 밭

밭디 : 밭에

배격일 → 바깓일

뱌다 : 배우다

보리크르 : 보리를 베고 난 뒤 남은 그루터기

부랭이 : 수소

부룽이 → 부랭이

불릅다 : 부럽다

빈쩍 : ① 반짝, 빛이 언뜻 나타나는 모양 ②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

브름 : 바람

뺏뺏하다 : 뺏뺏하다



백르다 : 빠르다

사타귀 → 스타귀

산뒤 → 산디

산뒤 → 산디

산디 : 산도(山稻), 밭벼

살림살이 : 살림살이

셀다 : (물이)새다

서카름 : 한 마을에서 서쪽에 있는 동네

소남 → 소낭

소낭 : 소나무

숫구다 : 숫아 오르게 하다

숫마구리 : 술을 뺨질하는 사람

수눔 : 품앗이

시다 → 이시다

시퍼렁하다 : 시퍼렇다

식계칩 : 제사 집, 조상 제사를 모시는 집

식식 : 소, 돼지 따위를 모는 소리

신디 : 에게, 여격조사

신짱 : 신짱

신착 → 신짱

심다 : ① 붙잡다, 잡다 ② 심다[植]

씻다 → 이시다

스끼 : 새끼[繩]

스래기 : 싸라기

스타귀 : 사타구니

술짱 : 살짱, 살그머니.

술퀘기 : 살코기

쌌다 : 싸우다

쑥쑥 : ① 여럿이 한꺼번에 또는 하나가 여러 번 안으로 깊이 들어가  
거나 밖으로 불룩하게 내미는 모양 ② 자꾸 밀어 넣거나 뽑아

내는 모양 ③ 자꾸 빠지거나 터지는 모양

아따 → 어따

아바지 : 아버지

아시다 → 았다

아쟁이 : 양금, 침전물

아지팡 : 아주머니 또는 뜻이 확대되어 일반 부인을 일컫는 말

아지방 : 손아래의 시동생이나 뜻이 확대되어 그 또래를 일컫는 말

안네다 : 웃어른에게 물건을 드리다

앉지다 : 앉히다

알드르 : 아랫마을, 아랫들

앗다 : 가지다

앗지다 → 았지다

야이 : ‘이 아이’의 준말

양푼 : 상대가 되는 두 편

어둑다 : 어둡다

어따 :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엇이 : 없이

엉 : 벼랑, 절벽

엉도 : 벼랑과 나란히 난 길, 벼랑 입구

엉장 → 엉

에렵 → 에렵다

에렵다 : 어렵다

여즈 : 여자

역불로: 일부러

염쇄 : 염소

영 → 이영

오라방 : 오빠

오래비 : 손아랫 남동생

우넉칩 : 위쪽에 있는 이웃집

우영팻 : 텃밭

웃드르 : 웃마을, 웃들  
 웁기다 : 읊기다  
 웅기다 → 웁기다  
 웃이 → 엇이  
 이시다 : 있다  
 이영 : 이렇게  
 입지다 : 입히다  
 잇다 → 이시다  
 으지다 → 옷다  
 옷다 : 가지다  
 으답 : 여덟  
 으덱 → 으답  
 음치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자이 : ‘저 아이’의 준말  
 저영 : 저렇게  
 정 → 저영  
 정젯냥 → 정깃냥  
 정젯문 → 정깃문  
 정깃냥 : 부엌 나무  
 정깃문 : 부엌 문  
 쩍시 : 접시  
 조짜 → 주짜  
 조크르 : 조를 벤 뒤 남은 그루터기  
 조팍 : 조밥, 좁쌀밥  
 족족 : 작작, 적은 정도로  
 주짜 : 물건의 윗머리가 높이 솟아 뛰어난 모양  
 줍으다 : (개 따위가) 짓다  
 지들남 : 땀나무  
 지들냥 → 지들남  
 지들커 : 불을 땀 풀이나 나무

짓벌경하다 : 매우 벌경하다  
 질푸리다 : 짓푸르다  
 깊숙이 : 깊숙히  
 깊숙하다 : 깊숙하다  
 즘 : 땅에 습기가 많은 상태를 이르는 말  
 즘기다 : 잠기다(피동)  
 즘다 : (밥을 물에) 말다  
 즘음 : 짓가락  
 좇구다 : 좇아들게 하다  
 좇이 : 좇게, 자주  
 좇추다 → 좇구다  
 쫓작 → 주작  
 쫓작 → 주작  
 쫓기다 : 쫓기다(피동)  
 초록 : 처럼(비교 조사)  
 추록 → 초록  
 츠렛일 : 차례대로 하는 일  
 츠록 → 초록  
 코걸이 : 고리나 매듭  
 코빼기 : 코빼기, 코  
 콧재기 : 콧재기, 눈 또는 코의 콧재기  
 테우리 : 마소를 돌보는 사람  
 푼으다 : (부채를) 부치다, 뽕프질을 계속하다  
 핀찍 → 빈찍  
 하르바님 : ‘할아버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  
 하르방 : 할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하르비 : ‘할아버지’를 낮추어 이르는 말  
 하리비 → 하르비  
 할망칩 : 할머니 집, 할머니가 사는 집  
 할아버지 : 할아버지

할아버지 : ‘하르비’와 같은 뜻으로 쓰임

핫아방 : 배우자가 있는 남자

핫어멍 : 배우자가 있는 여자

헝으다 : 뒤섞다

홀아방 : 배우자가 없는 남자

홀어멍 : 배우자가 없는 여자

헝쓸 : 조금, 약간

혹교 : 학교

## 찾아보기

### ㄱ

가락 · 143  
가름 · 103  
감탄 어조 · 150  
개방 음절 · 82  
건들개 · 104  
격식성 · 141  
겹받침 · 186  
경험 관련 양태 · 166  
경험 여부 · 167  
경험태 · 189  
계기 접속 · 79  
계사 · 76  
곤밥 · 104  
공기 관계 · 219  
공범주 형태 · 177  
공손법 형태소 · 175  
구개음화 · 84  
규칙 이탈 · 234  
규칙 활용 · 205  
글말 · 74  
글자의 환영 · 88  
기능 부담량 · 197  
기본 형태 · 86  
기식군 · 192  
기저형 · 86

긴 형태소 · 132

### ㄴ

날개 사건 · 97  
내림세 · 143, 150  
내림세 억양 · 82, 213, 219  
내과음 · 204  
넓은 뜻의 준말 · 198  
네 등급 · 155  
논항 · 96  
높임 형태소 · 145  
늘어난 형태 · 80

### ㄷ

다의어 · 98  
다중 어간 · 117, 131  
단일 방언권 · 213  
단절 · 120  
대우 명제 · 180  
대우 체계 · 155, 156  
대우 형태소 · 145  
대화 규범 · 101  
동명사 구문 · 179  
동음이의어 · 98  
동작상 · 144, 185  
동촌 · 213

등위 접속 · 78, 79, 90  
때때김 · 145

**ㄴ**

매개모음 · 89, 118  
모음 축약 · 192  
모음 탈락 · 192  
모음조화 · 137, 203, 206  
무주어 구문 · 177  
무표적 · 185  
문장 · 74

**ㄷ**

반모음 ‘이’ · 120  
반쪽(半) 말투 · 142  
발생 빈도 · 197  
발화 · 74  
변별적 대립 · 205  
변연계 · 87, 98, 234  
변이형태 · 87, 234  
변칙 활용 · 115  
병렬 접속 · 78, 79, 90  
보문자 · 218  
보상적 장음 · 193  
보조사 · 221  
복사 현상 · 129  
복수 어간 · 86, 117, 121, 129,  
131, 192, 202  
복원 · 75

복합어 · 231  
부착어 · 143  
불규칙 활용 · 115, 234  
불변 속성 · 188  
비격식적 대우 · 162  
비자동적 교체 · 161  
비현실태 · 189

**ㄷ**

ㅅ 불규칙 동사 · 122  
ㅅ 불규칙 용언 · 121  
사동 형식 · 132  
사분 체계 · 157  
사이시옷 현상 · 236  
사잇소리 · 105  
산남 · 213  
산디 · 106  
산복 · 213  
삼분 체계 · 156  
삼입모음 · 118  
상승 어조 · 214  
상태 · 76  
생략 · 75  
서낭당 · 103  
서촌 · 213  
선어말어미 · 77  
선택 제약 · 219  
설정성 · 84  
세 등급 · 155

소리글자 · 78  
 수의적 모음 탈락 · 195  
 수의적 변이형 · 194  
 수의적 자음 탈락 · 194, 195  
 순차 접속 · 79  
 시상 · 143, 185  
 시상 형태소 · 186  
 시제 형태소 · 187  
 식계 · 104  
 신피질 · 87, 98  
 쌍디귤 · 129  
 쌍형 어간 · 86, 117, 121, 131

**ㅇ**

약모음 ‘으’ · 205  
 양성 모음 · 203  
 양태 의미 · 82  
 어투 · 141  
 어휘 형태 · 97  
 어휘적 대우 · 153  
 억양 · 82, 143  
 여린 비유 · 133  
 울었이 · 85  
 울라우트 · 84  
 위(爲)하다 · 85  
 유성음 계열 · 121  
 유성음 디귤 · 121  
 유성음 비유 · 121, 135  
 유성음 시옷 · 121

유연성 · 197  
 유표적 · 185  
 유희 · 232  
 융합 종결어미 · 145  
 융합 형태소 · 144, 147, 148  
 음성 모음 · 203  
 음운 규칙 · 86  
 음절 경계 · 129  
 의문사 의문 · 219  
 의미 특수화 · 233  
 ‘이’ 모음 역행동화 · 84  
 ‘이’ 탈락 규칙 · 174  
 이음말 · 219  
 입말 · 74  
 있다 · 116

**ㅈ**

자동적 변화 · 160  
 자동적 음운 규칙 · 84  
 자연 음운론 · 115, 205  
 자음군 조정 · 118  
 자음동화 · 84  
 작업기억 · 86, 87  
 장단 대립 · 193  
 재음절화 · 129, 148, 205, 206  
 저지 조건 · 196  
 조건문 · 138  
 조성모음 · 118  
 조음소 · 89, 118



종결어미 · 77, 153

종속 접속 · 78

짧은 형 · 133

짧은 형태소 · 132

**ㄷ**

체면 · 141

최소 단위 진술문 · 97

최소 대립쌍 · 193

추체험 · 167, 181, 211

추체험 가능성 · 189

**ㅈ**

통사 규칙 · 98

통사규칙 저장고 · 234

통사론적 공범주 · 177

**ㅊ**

파생어 · 98

표면형 · 86

피동 형식 · 132

**ㅎ**

ㅎ중성 체언 · 99, 103

하강 어조 · 213, 219

하위 범주화 · 219

하향 반모음 · 135

합성어 · 98, 231

합성어 표지 · 98

핵어 · 96, 198

허명 · 105

허끝 올리는 자질 · 84

현실태 · 189

현재 발화 시점 · 147, 148

현재 추체험 가능성 · 82

호응 관계 · 80

흡받침 · 186

흡받침 시옷 · 147

화계 · 141

화용 첨사 · 221

활음화 · 192

활음화 현상 · 133

후핵성 · 232

## 집필진

---

- 고재환 (전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송상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보전육성위원)  
김지홍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3

## 제주어 표기법 해설

---

발행일 : 2014년 11월 20일

발행인 :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http://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064-758-1500)

문의처 : 064-726-0500

---

ISBN : 978-89-6010-387-0 93700